

**AMJ**  
아시아선교

창간호  
2022 Vol.1 No.1

**코로나 19 이후의 선교**  
missions in the post covid-19 era



조동진선교학연구소  
동서선교연구개발원

## **asian missions journal**

ISSN 2799-8703

A periodical of David Cho Missiological Institute

Editor in Chief | *Steve K. Eom*엄경섭

Managing Editor | *Chris Y. Sung*성용국

Assistant Editor | *Damples Dulcero*

Contributing Editors | *Timothy K. Park, June N. Cha, Seokwon Yoon, Jaeseok Lee*

Publisher | *East- West Center for Missions R & D*

Contact to *dcmi.director@gmail.com*

© David Cho Missiological Institute

\*This journal may also be found at <http://dcmi.asia/asian-missions-journal>.

## 차 례

서문	4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의 선교사역, 박기호	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조용중	18
코로나19 이후의 온라인/가상 콘퍼런스 개최에 관하여, 엄경섭	25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선교 모델 케이스 스터디, 이승일	40
코로나19 이후의 선교신학 이슈와 시대를 아우르는 선교 전략 이슈, 박에스터	52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 요구되는 선교사의 전문성, 차남준	6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지 신학 교육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대학	91
코로나19 이후의 선교 동원에 대한 고찰, 윤석원	103
코로나19 시대 선교 사역의 이양과 정착, 고경호	116
코로나19 위기와 능동적인 GMS 지역선교부 전환에 관한 연구, 오영철	126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 및 생존 전략에 관한 연구, 오경환 · 윤희경	150
코로나19 이후 말레이시아 선교 환경의 변화, 정재우	162
선교적 적응 리더십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라, 양은용 · 김숙진	175
가상 교회와 선교, 엄경섭	191

# 서 문

## 엄 경 섭

조동진선교학연구소 대표

동서선교연구개발원 대표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도록 강요하였다.  
이것(코로나 19)도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이 세계와 다음 세계를 잇는 입구, 즉 관문이다.<sup>1</sup>  
- 아룬다티 로이 Arundhati Roy

코로나19 팬데믹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류 전체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 변화는 상당하여 코로나 이전 Before Corona, BC과 코로나 이후 After Corona, AC 시대로 나누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많은 변화가 이번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 변화는 4차 산업 시대에 도래할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대면 untact과 관련되어 있다. 오프라인 공간이 온라인 혹은 가상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것을 가능하게 할 디지털 기술은 급속히 발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화두가 되었던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이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4차 산업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긴장 가운데 놓여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종교 활동이나 선교 활동이 도전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일부 장소가 폐쇄되거나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있으며,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꺼린다. 여러 국가가 외국인에게 문을 닫았고, 비행기 안에서의 감염 두려움으로 여행이 크게 위축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교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다.

조동진선교학연구소는 조동진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후학 동문들에 의해 2004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다가, 2017년 사무실을 태국 치앙마이로 옮겨와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연구소는 2015년과 2018년에 한국 선교단체장들을 초청하여 선교지도자 서밋 mission leaders summit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출판하였다. 2021년에는 조동진기념사업회와 협력하여 『조동진 평

1. Arundhati Roy, 2020. "Pandemic is a portal." Financial Time. <https://www.ft.com/content/10d8f5e8-74eb-11ea-95fe-fcd274e920ea>

전』을 출판하는 등 선교와 관련된 책이나 논문들을 지속해서 출판하고 있다. 또한, 3개월마다 영문 저널인 *Asian Missions Advance* 를 발행하여 전 세계에 배포한다. 선교학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던 중,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해 오프라인 세미나를 모두 접고 WebLectures라는 이름 아래 온라인 선교학 강의와 세미나를 열고 있다.

조동진선교학연구소에는 한국 선교사 중 선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연구원을 30명 이상 모집하였고, 이제는 아시아 선교학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연구원들의 연구 논문을 모아 매년 한국어와 영어로 『아시아선교저널Asian Missions Journal』로 출판할 예정이다. 이 책은 한국인 연구원들의 연구 논문을 모은 첫 번째 책이다. 이 책이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뿐만 아니라 4차 산업시대의 선교의 모습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꺾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 마태복음 16:3

#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의 선교사역

박 기 호

동서선교연구개발원 명예 회장

폴리신학교 원로교수

## 들어가는 말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Our God is a missionary God.” 사탄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일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 성경은 도처에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출 3:7-8, 출 3:9-10; 행 1:8; 고전 3:9).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전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시 127:1-3; 스펀 4:6; 행 1:4, 5, 8).

솔로몬은 잠언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 사역과 사람 편의 책임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며 승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또 잠언 21장 30-3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There is no wisdom, no insight, no plan that can succeed against the LORD. The horse is made ready for the day of battle, but victory rests with the LORD.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 하여야 한다.

솔로몬은 다른 잠언에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하여야 할 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잠언 15장 22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Plans fail for lack of counsel, but with many advisers they succeed.

그리고 그가 잠언 20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Make plans by seeking advice, if you wage war, obtain guidance.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 그러나 선교사역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공동 사역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책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So then, men ought to regard us as servants of Christ and as those entrusted with the secret things of God. Now it is required that those who have been given a trust must prove faithful.

충성faithfulness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책무이며, 이 책무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는 일이 포함된다. 선교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말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By the grace God has given me, I laid a foundation as an expert builder, and someone else is building on it. But each one should be careful how he builds.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의 한국 교회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새로운 선교 환경에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사역을 전개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필자는 본 글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 선교의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한국 교회의 선교사역

한국 교회가 타 문화권 선교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세계 교회는 선교는 서양 교회들처럼 오래되고, 부유하고, 힘이 있어야 하는 일로 간주하여 선교운동에 참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 조직된 어린 한국 교회가 일제 식민통치로 주권을 잃은 상황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나라가 선교사역에 참여함을 보고 오늘날 지구촌 남반부 교회들이 선교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일제 식민통치 동안의 선교와 독립 이후의 선교는 ‘약함 가운데에서의 선교’이었으며, 1980년대 이후의 선교는 ‘풍요 속에서의 선교’ 혹은 ‘강함 가운데에서의 선교’ 라고 말할 수 있다.

## 일제 식민통치 기간의 한국 선교

한국 교회가 타 문화권 선교사역을 시작했던 1900년도 초반의 한국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을 때였고, 경제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이었으며, 교회는 막 조직된 어린 교회였다. 20세기 초 한국 교회가 타 문화권 선교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선교는 주로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교회적 힘을 가진 서양 교회들에 의하여 힘에 의한 선교사역으로 이루어졌다. 강함으로 펼친 서양 교회들과 달리, 한국 교회는 약함 가운데서 타 문화권 선교를 하였다. 선교지를 결정하고 선교지에 나갈 때에도, 선교 현장에 도착해서도,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고, 현지 교회들로부터 초청이나 허락을 받고 나갔다. 선교 현장에서의 사역은 동료 한국 선교사들과는 팀 사역, 그리고 서양 선교부와 현지 교회들과는

협력이나 동반자 사역을 하였다. 한국의 경제력이 약하였으므로 선교지 사람들에게 줄 돈도 없었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만을 믿고 믿음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였다.

### 독립 이후의 한국 선교

1945년 8월 비록 한국이 36년간의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지만,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한국의 국토는 파괴되었고 수많은 교역자가 살해당하고 나라의 경제력은 더욱 나빠졌다. 독립 이후의 한국 교회는 파송된 선교사들의 생활비와 사역비 조차 충분히 조달하여 줄 수 없어서 한국 선교사들은 서양 선교부나 현지 교회에 속해 사역하게 되었다. 현지 교회나 현지인들에게 줄 돈이 없어서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사역에 종사하였기에 의존심도 길러주지 않았고, 현지인들과의 갈등도 없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oth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 (행 3:6)라고 말한 사도들처럼 한국 선교사들은 돈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여 사역을 감당하였다.

### 근래의 한국 선교

1980년대부터의 한국 선교는 ‘풍요 속에서의 선교’ 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교회 성장, 경이로운 경제 성장, 지속적인 이민 성장,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맺은 외교 성장, 그리고 교육 수준 향상 등에 힘입어 선교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일제 식민통치 기간과 독립 직후의 선교와 달리, 1980년대부터의 한국 선교는 힘에 의한 선교를 하게 되었다. 현지 교회의 초청 없이 일방적으로 선교지에 나갔고, 선교 현장에서의 사역도 현지 교회와 협력과 동반자 사역 없이 독자적으로 사역을 전개하였고, 자기 교단 교회들을 세우고 자기 신학 전통에 맞는 신학교들을 세우는 등 소속 교단이나 선교회를 확장하는 사역들을 주로 하게 되었다. 서양 선교부나 현지 교회들과의 협력이나 동반자 사역 없이 한국의 재정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역을 펼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 선교사들이여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역할 변화가 필요한 한국 선교

현지 교회가 성숙해 감에 따라 선교사의 역할은 변화해야 한다. 역할 변화를 하지 않으면 현지 교회의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현지인들의 배척을 받게 된다.

### 선교부와 현지 교회의 관계 발전 단계

랄프 윈터 Ralph D. Winter는 “선교부와 현지 교회 관계에서의 4가지 발전 단계 Mission-Church Relations: Four Stages of Development” 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교부와 현지 교회의 발전 단계를 소개하면서 각 단계에서 선교부의 역할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선교부와 현지 교회의 발전 단계에서 선교부/선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개척자 단계 Pioneer Stage: 현지인 신자나 교회가 없으므로 선교부/선교사가 거의 모든 사역을 직접

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선교사는 지도력의 은사가 필요하다.

- 부모 단계Parent Stage: 개척자 단계의 사역 열매로 현지인/현지 교회가 생기게 되므로 이 때 선교부/선교사는 현지인/현지 교회에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개발하며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선교부/선교사는 가부장적인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 동반자 단계Partner Stage: 이 단계에서 선교부/선교사는 현지 교회/현지인과 더불어 협력하며 사역하되 은사를 따라 역할을 감당하되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 역할 변화는 쉽지 않지만 역할이 변화하지 않으면 개척자 단계와 부모 단계에서 존경받던 선교사가 배척을 당할 수 있다.
- 동참자 단계Participant Stage: 이 단계에서는 충분히 성숙한 현지 교회/현지인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선교부/선교사는 그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그들을 돕되 그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돕거나 다른 선교지로 옮겨 사역해야 한다<sup>1</sup>

개척교회의 총무였던 사무엘 호프만Samuel Hoffman은 “전도자로서 사랑을 받고 교사로서 호감을 받던 선교사가 행정가로서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sup>2</sup> 전에 선교지에 유익했던 선교사가 지나치게 오래 선교지에서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려 하면, 현지 교회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선교사나 선교부는 위와 같은 발전 단계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교부와 현지 교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역할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때 선교사들과 현지인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불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 선교사 철수론

선교지 교회들이 성숙해 가는데 선교사들이 역할 변화를 하지 않게 되면 선교사 철수론Missionary Moratorium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1960년대와 70년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교회들로부터 선교사 철수론이 나왔다. 그 내용은 선교 현지의 교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현재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후임 선교사를 보내지 말라는 요구였다. 마닐라 유니온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에머리토 낙필Emerito P. Nacpil 감독은 “선교사가 현재의 제도하에서 오늘날 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적 공헌은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3</sup> 낙필 감독은 1971년 아시아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모인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시아와 서양 교회들 간의 현금의 동반자 상태는 약자와 강자 간의 동반자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지속적인 의존과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선교사들은 제삼세계의 부상하는 세대들 가운데 서양 제국주의의 보편적인 상징이다. 그러므로 나는 근대 선교의 지금 구조는 죽었다고 믿는다. ... 우리는 조사를 읽고 그것을 매장시켜 버려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늘날 아시아에서 현 제도 아래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 사역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sup>4</sup>

동아프리카 장로교회의 의장 존 가투John Gatu 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현재 지속되는 선교운동 속에서는 피 선교지의 교회들이 서구 교회의 지나친 간섭과 영향 아래 있게 스스로 설 수 없으므로 일정 기간 선교사들이 물러가라. 선교사들이 물러가면 스스로의 힘으

1. Ralph D. Winter & Steven C. Hawthorne (ed.),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81, Pp. 170-171.

2. Ibid., 170.

3. Emerito Nacpil, “Mission but not Missionaries”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Vol. 60, 1971, 360; 안승오. 현대선교의 핵심 주제 8가지, 서울: CLC, 2006, 103에서 재인용.

4. <http://www.religion-online.org/showarticle.asp?title=1574>. 2013년 5월 25일 접속.

로 교회를 세우고 그 뒤에 필요에 따라 선교사를 요청하겠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인력과 돈을 보내어 선교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교 전략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오직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선교사들이 적어도 5년 이상 철수한다면,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의 연합감리교회 감독이었던 페데리코 파구라Federico Pagura도 코스타리카인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있는 선교사업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서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을 영속화 시키는 구조들을 거부하며 “선교사여 돌아가든지 머물든지 하라.”라는 글을 발표하였다.<sup>6</sup>

역할 변화나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때가 되었는데도 철수하지 않는 서양 선교사들에게 이처럼 경고하였다. 선교사들의 선교지 교회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선교지 교회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 선교지 교회 지도자들이 성장할 수가 없고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없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서양 선교사들에게 요구한 사항들을 오늘날 한국 선교사들이 듣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찍이 1920년대에 선교사 파송 유예와 맥을 같이 하는 소리가 있었다.

1925년 1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조선폰에서 국제 YMCA 총무 겸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의 회장이던 존 모트J. R. Mott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정식 명칭은 ‘조선기독교 봉역자회의’였다. 존 모트는 1927년이나 그 이듬해에 전 세계 교회의 대표자를 소집하여 선교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극동지방을 순방 중이었다. 그의 여행 목적은 대회의 필요성 여부와 그 범위나 연구 검토할 문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대표가 있어야 하는지, 무슨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상의하고 확정하고자 함이었다.<sup>7</sup>

이 회의 참석자는 한국 교회 대표 31명, 선교사 31명, 설비위원 4명 도합 66명이었다. 토의 제목은 “조선에는 어떠한 당면 문제가 있으며 기독교 세계의 지식과 경험으로 원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주로 한국인들이 발언하고 선교사들은 듣는 입장이었다.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부회장이었던 한석진 목사는 교회당을 건축하든, 신문을 발간하든, 해외선교를 하든 선교사들의 재정적 후원을 거절하고 한국 교회 독단적인 힘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였으며 “한국 교회는 한국인의 손으로” 하는 것이 그의 지상 과제이었다. 존 모트 앞에서 한석진 목사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라는 귀중한 사명을 띠고 일하고 있으나 그들의 하는 일이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
- 그들이 그들의 자금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왈가왈부할 것은 못 되나 참말로 한국 교회의 발전을 기대하려면 그들이 모두 이 세상을 떠나고 새 선교사들이 새 선교 정책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한 후라야 될 수 있다.
- 한국에는 한국의 고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종종 선교사들은 한국의 이러한 고유 문화와 전통을 무시한 채 독선적이며, 우월적, 고압적 자세로 선교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전도에 방해가 된다.
- 선교사업을 성공시키며 선교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선교사가 한 나라에 오래 머물지 말고 교회의 기초가 서게 되면 그 사업을 원주민에게 맡기고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제럴드 H. 앤더슨, “선교사는 철수시켜야 하는가” 『현대신학의 동향』 153-154. 안승오 2006, 104.

6. 페데리코 파구라, “선교사는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머물러라” 『현대선교신학의 동향』 서정운, 손병호 공역,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선교 문제 연구원, 1980, 131; 안승오 2006, 104에서 재인용.

7. 묘동교회사 80주년 편찬위원회, 『묘동교회 80년사』 서울: 묘동교회, 1990, 169페이지

- 선교사들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 자기가 세운 교회며 학교라는 생각으로 사유 재산시키고, 우월감으로 영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니 이것은 참된 복음 정신에 위배되며 교회 발전에 방해가 될 뿐이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묘동교회 80년사 171페이지)<sup>8</sup>

주인의식이 강했던 한석진 목사의 거침없는 발언이 선교사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통역을 정인과 목사가 하였는데, 차마 한석진 목사의 발언을 그대로 모트에게 전할 수 없어서 그 요지만 대략 정리하여 통역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선교사들은 한 목사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 30년 이상 있었던 마펫, 게일, 블레어, 무어, 노블, 트롤로프, 에비슨, 베커, 빌링스 같은 원로급 선교사들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이 편할 리 없었다.

한석진은 그 자리에 있던 원로 선교사들을 가리키면서 “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를 많이 하여 머리가 희게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제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할 일을 다 하였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 앞으로 가서도 좋을 줄 압니다. 이것이 참으로 한국을 위한 것입니다.”<sup>9</sup>

이 말이 떨어지자 더는 참을 수 없었던지 마펫이 벌떡 일어섰다. 그러자 한석진은 그를 향해 일갈하였다. “마 목사, 당신도 속히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금후에는 유해무익한 존재가 됩니다. 마 목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일한 친구요, 동지로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sup>10</sup>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물러날 시간과 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한 목사는 선교사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요구들은 선교지 교회의 성장에 따라 선교사들의 역할 변화가 없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들이다. 당시 이 요구의 대상은 주로 서구 선교이었지만 이 요구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일하는 오늘날 한국 선교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sup>11</sup>

1991년 필자가 미국에서 안식년 연구를 마치고 주필한인선교단체협의회(Association of the Korean Missions in the Philippines, AKMP) 회장으로 섬길 때, PCEC 회장 준 벤서 Jun Vencer의 요청으로 AKMP 임원들을 같이 만나러 간 일이 있다. 그때 준 벤서는 “필리핀 교회 지도자들이 PCEC 총회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성토했고 필리핀 이민국에 보고하여 한국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변호사의 양심으로 한국 선교사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여러분을 초청한 것이다. 왜 버젓이 기존 신학교에 있는데 그 옆에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가 버젓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며, 기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빼내어 가고, 아무런 의논도 없이 기존 교회에서 교역자들과 교인들을 빼내어 가서 사역을 하려느냐?” 라고 말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와 AKMP 산하 각 단체장을 불러서 필리핀 교회 지도자들의 불만을 전하고 자숙하며 사역하자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다.

필리핀 장로교회의 총무를 지낸 어떤 분이 수년 전에 필자에게 하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필리핀 장로교회 필리핀 리더들은 선교사들이 필리핀 장로교단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고,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필리핀장로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박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8. Ibid., 171페이지.

9. Ibid., 171페이지.

10. Ibid., 171페이지.

11. Ibid., 172페이지.

서 필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필리핀 장로교회를 세워주고 신학교를 세워주고 우리에게 부모 같은 분들인데 우리가 쫓아낼 수는 없으나 스스로 떠나가 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였다. 필자는 이 말을 필리핀에 더 이상 선교사들이 필요 없다는 말로 받아들이기보다 필리핀 교회의 발전 단계에 따른 바른 역할을 해달라는 선교사 역할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국 장로교단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세운 필리핀 장로교단 총무에게 필리핀 장로교단에서 함께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이나는 필자의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나의 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들은 지방 교회 수준, 노회 수준 및 총회 수준에서 지도력의 모든 측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력 책임은 필리핀 지도부에 이양되어야 합니다.
2. 선교사들이 전도, 선교, 교회 개척 분야에서 협력하여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3. 우리는 한국 선교사들이 더 이상 필리핀 장로교회 지역교회 목회에 관여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아직도 지역교회 리더십에 참여하는 몇몇 선교사들을 보았습니다.
4. 필리핀장로회신학교의 경우처럼 다른 신학교와 성경학교의 리더십도 모두 필리핀인들이 맡아 경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40년 이상 필리핀 장로교단을 도와준 선교사들의 고난과 헌신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필리핀 장로교단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아직도 개교회를 목회하고 성경학교와 신학교 행정 책임을 맡아 직접 사역하고 현지인들에게 지도력을 이양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 COVID-19 팬데믹 이후의 한국 교회 선교사역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 시기 이전과 이후의 사역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염병 대유행 이전에는 현지에서 주재하며 대면으로 하는 사역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의 사역은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면 사역 외에도 비대면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주로 거주하며 하는 사역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선교지에 거주하지 않을지라도 비거주 선교사로 본국이나 다른 전략적 요충지에 살면서 필요할 때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코비드-19 COVID-19 팬데믹 이후의 한국 선교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것

“신학이 방법론을 낳는다. Theology produces methodology.” 라는 말이 있다. 선교에 대한 이해에 따라 선교 활동도 달라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필수적이다.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만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선교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국 교회만큼 충실한 교회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선교는 사탄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을 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 나라가 임하시오

며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회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삶 속에 구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상생활의  
 필요 채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사  
 람과 화평케 하는 삶],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세상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 다만 악에  
 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자신을 지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  
 이다. 아멘). (마 6:9-13)

주기도를 보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 하나님  
 의 뜻이 구현됨, 필요 채움, 용서와 화해 ...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가 필수적이  
 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수적이다.

### 부르심과 은사에 따른 독특한 사역에 종사할 것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듯이 각 교단  
 과 단체는 다른 교단이나 단체에 없는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sup>4</sup>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sup>5</sup>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sup>6</sup>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sup>7</sup>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  
 려 하심이라. <sup>8</sup>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  
 라 지식의 말씀을, <sup>9</sup>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  
 는 은사를, <sup>10</sup>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  
 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sup>11</sup>이 모든 일  
 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sup>12</sup>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  
 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sup>13</sup>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  
 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  
 셧느니라. <sup>14</sup>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sup>15</sup>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  
 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sup>16</sup>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  
 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sup>17</sup>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  
 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sup>18</sup>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  
 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sup>19</sup>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sup>20</sup>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sup>21</sup>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  
 리라. <sup>22</sup>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sup>23</sup>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sup>24</sup>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 <sup>25</sup>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  
 니라. <sup>26</sup>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sup>27</sup>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랄프 윈터의 좌우명 *mottos in life*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일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하게 될 어떤 일  
 을 결코 하지 말라. Never do anything others can do or will do, when there are things to be done that others can't do or  
 won't.<sup>12</sup>

12. Ralph D. Winter (en.m.wikipedia.org).

한국 선교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선교지에 한국 선교사들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한국 선교사들만이 잘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에 종사하면 좋을 것이다. 히브리서 8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독특한 사역을 하셨음을 보여준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If he were on earth, he would not be a priest, for there are already men who offer the gifts prescribed by the law.” 현지 교회를 직접 목회하는 일, 개교회, 노회, 그리고 총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일을 당장 멈추고, 선교사들이 세운 기관들의 관리도 현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다.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로 하게 하고 현지인들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사역에 종사하여야 하지 않을까?

### 팀 사역과 동반자 사역을 할 것

팀 사역: 위키디피아(Wikipedia)의 정의에 의하면 팀 사역이란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존슨이란 학자에 의하면 팀이란 (1) 상호 작용하고, (2) 상호 의존하며, (3) 팀의 소속으로 그 자신을 규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규정 받으며, (4) 공통적인 흥미에 대한 규범을 나누고 또한 주어진 역할 체계에 참여하고, (5)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6) 팀 속에서 보상을 발견하고, (7)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이다.”라고 정의한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팀 사역의 모델들은 모세와 아론, 모세와 여호수아, 예수님과 열두 제자,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등이 그 예이다.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동반자 사역: 선교지에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교단들과 선교단체들이 있다. 한국 교회 선교사들은 현지인들 및 외국 선교사들과 동반자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 복음화를 위하여 다른 단체들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선교사들은 동료 선교사들과의 팀 사역, 현지인들과는 동반자 사역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지도력 개발에 힘쓸 것

예수님의 지상 사역들 가운데 지도자 개발은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 예수님의 승천 후, 그가 개발한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의 사역을 이어서 하고 확장해 갔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 개발에 힘썼으며 디모데로 하여금 지도자들을 세워 사역하도록 하였다(딤후 2:1-2). 내가 개발한 현지인 지도자는 누구이며 한국 선교사들이 개발한 지도자들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선교사는 자신의 지도력 개발에 힘쓸 뿐 아니라 현지인들의 목회 및 선교 지도력 개발에 힘써야 한다.

### 현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울 것

존 모트는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백성들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세계선교의 자원들로 간주하라고 하였고, 랄프 윈터는 교회 개척이 중요하지만, 선교회를 세우는 일은 세계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 하였다.<sup>13</sup> 필리핀이라면, 영어를 말하고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필리핀인들을 세계

13. 2006년 남가주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남가주 한인선교단체협의회 주최 포럼 Mission Builders Forum,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모두에게 대한 도전(The Challenge for Koreans and Americans Together)” 강의 중에서.

선교의 역군들로 개발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다. 특히 동참자 단계 participant stage에 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현지인들이 할 수 없는 일, 특히 현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는 사역은 매우 적절한 사역으로 여겨진다.

## 사랑을 실천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두 사랑이 동기가 되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든 것들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서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if you really keep the royal law found in Scripture,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you are doing right.

그리고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The entire law is summed up in a single comm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 전도에 힘쓸 것

주님과 바울은 사역 초기부터 사역을 마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셨다. 주님은 친히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이어서 할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그들로 사역하게 하셨다.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어, 사람들을 부르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며 empowering, 일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접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에서 말씀을 전파하여 교회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였다. 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 일방적 사역을 지양하고 쌍방향의 사역을 지향하여야 할 것

과거에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와 선교사를 받는 교회로 구분되었다. 보내는 교회의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우월감을 가지고 말하고, 가르치고, 주고,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역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

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선교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시대가 되었다. 모든 민족교회는 나름대로의 장점들과 약점들이 있다. 모두가 모두에게서 배우기 위하여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말하기도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쌍방향의 선교를 해야 한다.

## 거할 때와 떠날 때를 알 것

오늘날의 선교는 윌리엄 케리 때나 허드슨 테일러 때와 사뭇 다르다.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선교사가 지나치게 오래 선교지에 남으면 자연스럽게 현지인들을 간섭하게 된다. 지나친 부모의 간섭은 자녀들의 성숙에 지장이 된다. 주님께서 3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성령과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떠나심과 바울이 한 곳에 3년 이상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운 후에는 선교지를 떠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인들로부터 배척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But I tell you the truth: It is for your good that I am going away. Unless I go away, the Counselor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him to you.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현지인들로부터 “선교사는 돌아가라!”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COVID-19 팬데믹 동안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선교사들이 있지 않으면 중단될 것 같았던 사역들이 선교사 없이도 잘 진행되고 있고 현지인들도 선교사들이 꼭 자기들 곁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 나가는 말

그리스도의 대 위임령은 아직도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예나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종사하는 사역의 내용, 바른 역할, 그리고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일정한 기간에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으면 역할 변화를 하거나 그들을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재배치되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끝났으면 철수하는 것이 좋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자신의 사역을 영구적으로 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선교사들은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이 성숙한 지도자들이 되고, 선교지 교회들이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섬기는 자로 그들 곁에 있거나 그들 곁을 떠나야 한다.

지금까지 전통적 선교의 방식은 땅끝까지 선교사가 직접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개념이었다. 전통적 선교의 방식은 선교 현지로 선교사가 직접 나아가 얼굴을 마주보아 복음을 전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기술문명의 발달과 선교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선교 방식을 요청한다. 주님과 바울 당시의 선교 환경은 직접 대면하여서 하는 사역이었다. 자신들이 직접 온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

는 사역을 하였고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동역자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위하여 기도하므로 선교사역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만일 주님과 바울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선교 환경에 처하여 있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오늘날의 선교 방법은 가능한 곳에서는 선교지에 거주하며 직접 대면하여 사역할 수도 있고, 불가능한 곳에서는 비거주 선교사로 본국이나 전략적 위치에 거주하며 선교지를 방문하여 사역할 수 있고, 단기선교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지를 직접 방문할 수 없다면, 줌Zoom이나 페이스타임Facebook, 유튜브Youtube 등과 같은 기술을 통하여 사역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 기간에 경험한 것은 비대면으로도 대부분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현대 기술의 발달은 공간 장벽을 넘어 이미 전 세계를 온라인을 통한 접속과 만남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중동의 어느 선교사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무슬림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고 복음을 제시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도 한다.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을 보완하여 선교사역을 지속하며 오히려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위기는 기회가 된다. KWMA가 시행한 선교사 설문조사의 답변 중 의외의 결과가 있었다. “코로나로 확산 사태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12% 선교사들이 오히려 사역의 기회가 열렸다고 대답하였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닫힌 길을 여시는 분Way Maker이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 마태복음 19:26

코로나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는 창의적 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선교사는 비대면 기술적 접근의 방법들을 습득하여야 하며, 가까운 그리스도인의 발굴과 이주 난민들을 활용하여 국내 이주민 사역 활성화를 위한 연결고리도 발굴해야 한다. 선교 현지로 들어갈 수 없을 때는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디아스포라 현지인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 귀국 철수한 선교사들과 현지인에 대한 선교적 노하우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시니어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부르심과 은사를 따른 독특한 사역을 하되, 사랑을 실천하며 지도자들을 개발하고, 일방적 사역보다 쌍방의 선교를 하며,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하되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조 용 중

KWMC 사무총장

글로벌호프 대표

2020년에 코로나 광풍은 전 세계에 불어 닥쳤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니다. 한때 확진자 수가 세계 2위였던 우리나라는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더니 이제는 91위로 그나마 안정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sup>1</sup>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써야만 한다. 2020년 12월 7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수도권에 시행되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다중이용 시설이 문을 닫았고 교회의 현장 예배의 참석 인원도 20명까지만 허락되었다. 현재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 개발이라는 희망의 소식도 있지만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까지는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소리도 함께 들린다.

이와 같은 혼돈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본 기고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 외부 환경의 변화

외부 환경이라 함은 선교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선교사, 교회, 신학 등을 제외한 다른 분야 전체를 포괄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급변하는 경제, 사회, 환경, 교육, 국제관계, 과학기술 등은 직간접적으로 선교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외부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 경제

OECD 회원국의 202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로 전 회원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영국과 스페인은 20%가 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미국도 10%에 가까운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 온도는 지표보다 훨씬 냉혹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5월에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치과 환자가 35% 감소하고 수입이 34%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sup>2</sup>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는 실정이다.

많은 학자가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 경제 침체를 예상한다.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있고 에어비앤비와

1. <https://coronaboard.kr/> 코로나 상황판 2020.12.08

2. Issue Report 코로나19로 인한 치과 병원 경영 패배 조사 결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같은 숙박 공유 플랫폼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와 같은 경제 침체는 성도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재정을 불안정하게 하였다. 어느 기독교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교회는 예년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헌금이 감소했다고 밝힌다.<sup>3</sup> 이러한 교회의 위축은 결과적으로 선교사가 필요한 후원금의 감소로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 시기에 오히려 주목을 받는 시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 대체 식품, 심리/상담 분야, 원격의료 지원, 백신과 치료 약 개발에 관한 분야는 급성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노동 형태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전형적인 노동 형태인 '사무실 노동'에서 벗어나 재택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사무실 상권은 지고 홈 어라운드<sup>home-around</sup>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줌을 통한 영상 회의, 비대면 택배 서비스 등의 언택트 사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교사는 새롭게 떠오르는 경제 문화 전반에 관한 환경을 이해하고 새롭게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 경제가 변한다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와 관심 분야, 그리고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국제 관계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입국을 통제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다. 전염병 확산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으나 그 바탕에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반감이 숨어 있다. 또한 바이러스라는 악한 세력의 출처를 내부가 아닌 외부의 세력으로 본다. 그러다 보니 세계화는 위축되었고 지역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하였다.

기존의 강대국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와 경제 질서에 상처를 입었다. 중국은 코로나 근원지로서의 책임과 초기 전염병 대응의 실패로 전 세계를 오염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일천육백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삼백 만 명의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였다.<sup>4</sup>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의 이미지는 깨지고 전염병 상황 가운데 가장 위험한 국가로 낙인되었다. 지금의 글로벌 리더십은 공백 상태에 가깝다. 중국과 미국 모두 코로나19로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더십의 공백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국제적 긴장과 갈등이 형성될지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세계선교에 또 하나의 파문이 던져질 것이다.

국제 관계의 긴장은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며, 항공 노선을 포함한 비자 발급 문제와도 연결된다. 또한 강화된 지역주의는 선교사에 대한 배척, 거부로 이어지는데 현재 여러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이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결국은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비자 거부 혹은 추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 식량

코로나19는 국제적인 식량 공급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고 있다.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만 큼이나 심각한 '기근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전염병 대유행으로 식량 위기가

3. 코로나19 한 달, 헌금 감소 직격탄 맞은 교회들, 뉴스앤조이, 2020.03.25

4. <https://coronaboard.kr/> 코로나 상황판 2020.12.11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20년에 최대 1억 3000만 명이 만성적인 기근 상태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식량 생산과 공급이 줄면서 연말까지 세계 기아 인구는 애초 전망보다 두 배 늘어난 2억 7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수정했다. 각종 봉쇄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늘고 있다. 특히 예멘, 베네수엘라,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등 30여 개국에서 기본적인 식량 부족으로 기근이 심각한 상태다. 위에서 언급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적 접근은 총체적이며 융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 내부 환경의 변화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내부 환경이란 신학, 교회, 선교를 기반으로 교회의 예배 참여, 선교 현지의 상황 등을 포괄한다. 외부 환경의 변화가 세계선교의 방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 원인에 불과하다면 내부 환경의 변화는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 교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방역과 예방 차원에서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 예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였다. 코로나 위기 단계에 따라 해당 조치의 강도가 정해진다. 2020년 12월 16일 현재, 코로나 위기 경보 2.5 단계가 발령 중인데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종교 시설의 경우 비대면을 원칙으로 20명 이내로 참석을 제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오늘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78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고 정부 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3단계에 이르면 교회는 1인 영상 예배만 허용되고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한국 교회의 어려움과 위축이 얼마나 심해질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생소한 상황에 처해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론과 예배에 관한 전통에 변화를 가져왔다. 온라인 예배와 심방으로 모임은 전환되고 있다. 찬양팀과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식의 기도 스타일도 이제는 줌Zoom을 통해 모니터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스튜디오 또는 미디어 센터로 변해가는 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배당도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어간다. 얼마 전 온라인 성찬에 대한 찬반 논의가 교계에 있었듯이 새로운 삶의 기준을 교회에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회의 예배 참석 인원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거리두기 2.0단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건물 수용인원의 20%만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기존 성도 수를 예배당 수용기준 100%로 보았을 때 성도의 80%가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감소층에는 유독 주일학교의 비중이 크다. 이러한 공백은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부정적 여론 이미지와 맞물려 다음 세대의 선교사 자원과 선교 후원 자원들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함축된 것이다.

## 선교

KWMA에서 2020년 5월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선교사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20% 정도의 선교사가 임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 임시 귀국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KWMA는 자가격리 장소를 운영하였고, 각 교회의 후원을 받아 지원금을 나누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선교사 재교육을 매주 유튜브로 방영하는 중이다. 실질적인 온라인 선교방식에 대한 이해, 미디어 운영, 국내의 거주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다.

코로나19는 선교 현지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현지에서는 식량, 물, 의료품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 교회나 후원자에게서 오는 선교비도 감소했다고 40%가 넘는 선교사가 답변하였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영향으로 급작스러운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은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지금까지의 선교 방식은 사람들이 만나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아는 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는 것은 기존의 이해에 의하면 선교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통계가 나왔다. 12%의 선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 기회가 더욱 열리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지의 여러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이고, 큰 위기 가운데도 선교의 문은 열려있다는 의미이다.

## 코로나 시대의 선교 방향

### 비대면 현지 관리와 운영

코로나19는 이미 언급했던 대로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이르러 삶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선교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전염병 시대에는 사람들의 만남이 꺼려질 수밖에 없다. 내가 나도 모르게 코로나의 전파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입출국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한되며, 현지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봉쇄되는 일도 있다. 이러한 제약을 전제하여 비대면 현지 관리 운영 그리고 선교사역의 체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KWMA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줌을 통한 선교사, 선교단체 비대면 만남과 회의를 이어갔다. 코로나 이전에는 특정 공간에서 컨퍼런스나 세미나 개최 또는 이메일이나 카톡을 통한 아이디어 전달뿐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얼굴과 표정을 확인하며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또한 KWMA에서는 선교사 재교육을 위한 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는 중이다. 이는 한 번의 영상 제작으로 양질의 강의를 필요한 다수에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선교 현지에서도 비대면 사역이 잘 운영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탄자니아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컴퓨터를 교육하는 어느 선교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영상 원격 강의를 시작하였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었고 더 많은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현지인 학생을 위한 컴퓨터 교육뿐 아니라 이제는 현지 리더십을 위한 관리와 훈련도 영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대면이 불가능한 위기를 비대면 기술을 통해 확장해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은 앞으로 얼마나 더 자주 반복될지 모른다.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선교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현지인 리더십, 선교적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이주민 난민 사역 개발

선교사가 현지에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 리더십이 현지인을 양육할 수 있도록 리더십 이양에 더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이제 한국 선교사들은 자신의 역할이 바뀌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지 리더십을 세우고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 또한 이미 현지에 세워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과 선교적 동역 관계를 구축하여 입국 금지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이미 한국으로 찾아온 이주민 난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 대상자들이 나의 이웃이 되어 이미 옆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주민 242만 명, 유학생 15만 명, 불법체류자 30만 명, 난민 5만5천 명을 복음으로 환대하고 제자 삼아 그들을 그들의 나라로 파송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성도들은 다양한 언어와 인종, 국가와 문화를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다문화 공동체였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안디옥교회는 최초로 초대교회의 디아스포라 다문화 이주민 공동체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다민족 다문화 교회를 이루어야 할 때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이주민 난민 등의 외국인들에게 집중하고, 현지에서는 현지 리더십의 개발을 통해서 입국 금지에 대한 장벽을 넘어 새로운 선교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귀국 선교사들과 국내 이주민 사역자, 현지 선교사 사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협력 네트워크 개발이 시급하다.

복음에 충만한 자는 복음의 전파에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한 창의적 자유로움이 필요하다. 이미 내 옆에 있는 타 문화권 외국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그들의 나라로 재 파송할 수도 있다. 이미 그곳에 있는 현지의 리더십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선교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 글로벌 네트워크 Global Network 활성화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는 외딴 섬처럼 떨어져서 단절된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협조 없이 코로나19를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복음의 확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더욱 강력하게 내뿜기 위해서는 선교단체, 현지 교회, 현지 선교협의회, 지역 선교협의회, 전략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위기 경보와 상황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각 지역적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선교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려 주어야 한다. 이제는 신입 선교사가 현지 땅에 들어가서 맨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지금은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등의 연결이 기본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선교사와 선교사, 선교단체와 교회, 파송 국가와 현지 국가 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복음의 확산을 일으켜야 한다. 또한 전방개척 사역이 점점 위축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근접 문화권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미전도 종족 선교를 확산시켜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전염병 관리 매뉴얼 작성과 준비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 KWMA는 전염병 단계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각 단체들에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선교회의 조직, 상황과 파송 선교사들이 주로 머무는 지역은 다양하다. 이제는 반복되는 전염병의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하여 단체별 상황에 맞는 개별 위기관리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비상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체크 리스트, 연락망이 보관되고 점검되어 있어야 한다. 선교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과 약관에 대한 이해, 비상 물품과 교통편에 대한 대비 등 최악의 경우 사역지가 폐쇄될 경우까지를 염두에 둔 플랜 B를 갖추어야 한다.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때에 찾아오는 법이다.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전염병 시대에는 더욱 요구된다.

감사하게도, 지난 12월 8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영국에서 실시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이 접종되었고 이어서 다른 나라들도 준비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 대량생산된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의 종결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다. 하지만 더 지켜보아야 할 변수는 많다. 초기 접종 단계부터 알려지 반응이 보고되고 있고 코로나19의 변이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으로의 시대는 전염병의 시대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 대처에 관한 매뉴얼을 세우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다.

## 가정의 회복

비대면 사회는 사람과의 만남을 최소한으로 한다. 개인의 고립을 고착화시키는 면이 있다. 이로 인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게 되고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모두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었다. 가정의 중요성, 친구의 중요성,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였다. 이는 신앙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였고, 세상에 보내신 공동체 모델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함을 재확인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며,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성 회복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변화된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듦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에서도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복음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이며, 교회이고 선교이다. 코로나19의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살아있는, 회복된 가정을 기초로 한 뜨거운 교회 공동체임을 잊지 말자.

##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장할 때이다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광풍이 불어닥쳤다. 그런데 전염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데베르’와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즉, 전염병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인 것이다. 신명기 28:15-21에 의하면 그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을 때 전염병(데베르)을 들게 하리라는 경고의 말씀(다바르)이 언급된다.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였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합해 대응해야 한다. 전염병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 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때

이다. KWMA가 시행한 선교사 설문조사 답변 중 의외의 결과가 있었다. “코로나 확산 사태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12%가 넘는 선교사들이 오히려 사역의 기회가 열렸다고 대답하였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선교 상황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 통제 시스템의 발전으로 직접 선교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다. 하지만 선교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무장해야 할 때이다. 선교사가 먼저 정신적 정서적 사역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 선교사들이여,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 두려움을 벗어 던지라. 그리고 더 연약한 이들에게 나아가라!

### 참고 문헌

<https://coronaboard.kr/> 코로나 상황판

Issue Report 코로나19로 인한 치과 병원 경영 패해 조사 결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코로나19 한 달, 현금 감소 직격탄 맞은 교회들, 뉴스앤조이(2020.03.25)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이슨 생커, 미디어숲

『언택트Uncontact』 김용섭, 퍼블리온

코로나시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조용중, 『월간목회』

코로나 시대의 선교(미래예측관점) 조용중, 『월간목회』

코로나 이후의 선교(칼럼), 조용중, KWMA

코로나19와 선교사 위기관리 대처, 조용중, KWMA

# 코로나19 이후의 온라인/가상 콘퍼런스 개최에 관하여

- 아시아선교협의회의 국제 선교 컨벤션을 중심으로

## 엄 경 섭

조동진선교학연구소 대표

동서선교연구개발원 대표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기기인 바이브(VIVE)를 생산하는 대만 HTC가 19일 ‘바이브 에코시스템 콘퍼런스(VEC 2020)’을 가상공간에서 개최하였다. 중국의 정보기술(IT) 도시 선전(Shenzhen)에서 매년 열리던 VEC가 올해는 가상공간으로 대체된 것이다. VEC 2020은 대형 오프라인 콘퍼런스를 VR로 대체한 첫 사례이다.”

- 정원엽 2020:web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 이후로 온라인 모임이 표준(norm)이 되어가는 추세이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강제하거나 대중이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모임을 기피하자, 많은 기업이나 학교, 그리고 기관이 기존의 모임을 가상 혹은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글은 아시아선교협의회(Asia Missions Association, AMA)에서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선교 컨벤션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국제적인 선교대회를 온라인(online) 혹은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에서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온라인 혹은 가상공간 콘퍼런스의 정의

기존의 물리적인 오프라인 공간(offline space)에서 행해지는 모임과 달리, 온라인 콘퍼런스는 온라인 공간(online space)에서, 가상 현실 콘퍼런스는 가상 공간(virtual space)에서 행해지는 콘퍼런스를 의미한다. GetVoip의 캐서린 스톤(Katherine Stone)은 온라인 콘퍼런스를 위한 7개의 플랫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Cisco WebEx Events, GoToWebinar, WorkCast, Zoom Video Webinars, ClickMeeting, WebinarJam, BigMarker (Stone 2020: web).

온라인 행사는 이들 플랫폼 이외에도 다양한 솔루션(solutions) 혹은 도구(tools)를 가지고 행해진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은 아래와 같다.

- 줌(Zoom)의 ‘브레이크아웃 룸(breakout rooms)’ 등의 기능을 사용해 화상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 트위치(Twitch)로 라이브 스트리밍 코딩 세션(live streaming coding sessions)을 진행한다. 이것에 열광하는 개발자들도 많지만, 코딩 중 너무 많은 비속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 유튜브(YouTube)는 앞으로 열릴 행사를 홍보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실시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용도로 흔히 활용된다.

- 슬랙Slack과 디스코드Discord는 양방향 채팅 및 소통용이다. (Oliver 2020: web)

위와 같은 온라인 솔루션으로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발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청중을 향해 연설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청중의 반응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들은 가상 현실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가상 현실 콘퍼런스는 단순한 온라인상에서의 모임과는 차이가 있다. 가상 현실 콘퍼런스는 오쿨러스 리프트Oculus Rift나 삼성 기어VRSamsung Gear VR과 같은 가상 안경을 사용하여 특정 가상 공간에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분신인 아바타avatar를 통해 참여한다.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다른 참석자의 아바타를 만나 상호 소통하거나 네트워킹을 이루는 것이다. 가상 현실 콘퍼런스 플랫폼은 아래와 같다:

- 알트스페이스VRAltspaceVR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17년 인수한 가상 현실 소셜 미디어 기업이다. 최근 EIVREducators In VR 행사를 개최하는 데 사용됐다.
- 스페이셜Spatial은 AR 기반 협업 플랫폼 개발사이다. 마텔Mattel과 포드Ford가 협업에 해당 플랫폼을 사용한다(Oliver 2020: web).

이처럼 인터넷을 찾아보면 온라인이나 가상 현실 콘퍼런스를 위한 플랫폼과 솔루션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 머지않아 여러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하여 온라인이나 가상 현실 콘퍼런스를 만족스럽게 대체할 플랫폼들이 개발될 전망이다.

한편, 온라인 콘퍼런스와 가상 현실 콘퍼런스는 개념이나 실제에 있어서 구별이 어렵다. 가상 현실도 인터넷상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많은 신문 기사나 글들을 보면 이 둘을 크게 구별하지 않고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온라인과 가상 현실을 하나로 묶은 개념으로서, 간혹 가상 콘퍼런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겠지만, 주로 온라인 콘퍼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콘퍼런스라는 단어가 컨벤션이라는 단어와 구별 없이 교차 사용되었음을 이 글을 읽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 온라인 콘퍼런스의 시대적 필요성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해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을 살펴보자.

### 코로나19 팬데믹

올해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국제 행사 대부분이 취소의 수순을 밟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대의 전자 기술 박람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취소된 이후로 6월 상하이에서 열리기로 했던 국제가전박람회 CES ASIA도 연기를 결정했다. 이외에 중국 내에서만 일정 이 연기되거나 변경된 행사가 1,200여 건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취소 및 연기된 행사를 따지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이다(Junior 2020: web).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콘퍼런스 개최가 어려워졌다. 코로나로 인해 일부 장소가 폐쇄되거나 수용하는 인원이 제한되고 있으며, 사람들조차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꺼린다. 여러 국가

가 외국인에게 문을 닫았고, 비행기 안에서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행이 크게 위축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회를 열기 위한 장소를 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로 여겨진다.

동서선교연구개발원East-West Center for Missions Research & Development은 2020년 말에 개최할 예정인 제3차 선교지도자포럼을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하였다. 아시아선교협의회는 2022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14차 컨벤션을 2023년으로 연기하였다. 아시아선교학회Asian Society of Missiology는 2021년 가을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6차 선교학 포럼을 2022년으로 연기하였다. 이 세 개의 대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은 필자에게는 코로나19시대 이후에 선교 대회를 이전처럼 오프라인에서 개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오프라인에서보다는 온라인 방식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시대적 비대면 경향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언택트untact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점원이 주문을 받고 전자 주문대electric self-order kiosk에서 주문을 받는 무인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이 늘고 있다. 유통업계의 편의점도 인건비 절감과 더불어 비대면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에 맞추기 위해 무인점포 확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무인점포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계산원과 대면하거나 매장 직원과 불필요한 접촉을 할 필요 없이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고르고 사기를 원한다.

언택트 기술은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무인 서비스 기술을 의미한다. 언택트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사람들이 비대면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최지혜 연구원은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자발적 무접촉을 선택한다고 말한다.

언택트 기술은 무인 항공기의 ‘무인unmanned’ 과 자율 주행 자동차의 ‘셀프self’ 그리고 사람 대신 로봇이 작동하는 공장의 ‘자동화automation’ 등의 복잡한 개념을 포괄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핵심은 ‘무인無人’이다.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자발적 무접촉을 선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PC 및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밀레니엄 세대는 전화보다 카카오톡이 더 편하고, 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SNS로 하는 소통이 더 익숙한 소비자다. 점원이 다가와서 베푸는 친절이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불편한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비단 밀레니엄 세대뿐 아니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타인과의 대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언택트 기술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무인은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자 대면 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인 셈이다(최지혜 2019: web).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젊은이들 사이에는 비대면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었다. 최지혜는 “지난 5년간 통신사 사용 행태를 보면 직접 통화보다 메시지, 데이터 소비를 통한 간접 접촉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이처럼 사람들이 대면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스마트폰 혹은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소비하는 습관이 점차 굳어지고 있는데 비대면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통가

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자 점차 트렌드로 굳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박수호 2019:Web).

많은 사람이 비대면을 선호하는 것은 디지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메신저나 문자 소통에 익숙하여 심지어는 전화 통화조차도 기피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 곳에 모여 다른 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에서의 모임을 선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온라인 콘퍼런스의 편리함

온라인 콘퍼런스가 오프라인 콘퍼런스에 비교해 갖는 장점들이 있다. 오프라인 콘퍼런스는 무엇보다도 쉬우면서도 무제한의 접근성을 제공한다. 누구나 쉽게 큰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다. 여행이나 숙박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입국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콘퍼런스의 장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다.

### 온라인 콘퍼런스의 선교학적 근거

온라인 콘퍼런스가 시대적인 대세인데, 이것이 성경적, 혹은 선교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 기독교는 번역의 종교

기독교 신앙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 속으로 전달될 때는 반드시 번역 혹은 성육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문화 안으로 번역되지(translated) 않고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는 선언하였다(Bosch 2003: 447). 라민 산네(Lamin Sanneh)는 기독교의 신앙이 어느 문화권에 전파될 때, 문화를 이식하려고 하기보다는 수용자들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편안함(feel at home)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Sanneh 2008: 9)고 말하면서, 기독교는 번역되고 번역하는 종교(2008: 25)라고 선언한다. 번역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것을 수용하는 문화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틀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는 기독교 팽창에 있어서 현저한 특징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좀처럼 뜻밖의 놀랄만한 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점이라고 주장한다(2008: 26). 이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기독교가 전파될 때 현지 문화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되어 다가왔기에 현지인들은 복음에 대해 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복음이 그들의 문화에 수용되어 자신들의 이야기가 된 것이다. 자신들의 이야기는 자신들의 신학으로 나타난다. “신학은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정황 속”(Bediako 2004: 17)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넘어가고자 하는 문화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은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 가져올 문화이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일하고, 서로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가장자리에서 있다. 그것의 규모, 범위, 그리고 복잡성에 있어서 변혁은 인류가 이전에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다를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한 대응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학계 및 시민 사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정치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통합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Schwab 2016: web)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기술의 융합으로 특징지어진다. 슈밥은 전례 없는 처리 능력, 저장 용량 및 지식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모바일 장치로 연결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이러한 가능성은 인공 지능, 로봇 공학, 사물 인터넷, 자율 주행 차량, 3D 프린팅, 나노 기술, 생명 공학, 재료 과학, 에너지 저장 및 양자 컴퓨터와 같은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배가 될 것(2016: web)이라고 말한다.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휴대폰 등의 모바일 장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모바일 장치를 통해 전례 없는 지식에 접근하며, 공간을 뛰어넘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온라인 혹은 가상 콘퍼런스는 첨단 기술 융합의 결과 중 하나로서, 새로운 언어, 즉 소통의 도구이며 동시에 문화가 된다. 선교사는 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 문화의 옷을 입고 언어를 배우는 노력을 한다.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형성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가상 콘퍼런스라는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노고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기술의 발달은 기독교 전파의 도구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전파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폴 피어슨 Paul Pierson은 그의 책에서 9가지 선교 원리 중 하나로 선교 운동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피어슨은 역사적 상황이 선교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로마의 도로 Roman roads, 코이네 헬라어 Koine Greek language, 로마의 평화와 질서 Roman peace and order, 그리고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회당 Synagogues of the diaspora이 초대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촉진하였다고 주장한다(Pierson 2009: 27).

선교 운동의 역사적 맥락이 중요하다. 사명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부르시는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것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가능성을 열어준다. 한 가지 예는 코이네 헬라어와 파스 로마나 Pax Romana가 그레코-로마 세계를 복음화하면서 초대 교회를 도왔던 방식이다. 두 번째 예는 1989년 공산주의의 몰락이 많은 동유럽, 러시아 및 과거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복음의 전파를 촉진한 방법이다(Pierson 2009: 6-7).

피어슨은 기술의 발달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이동식 활자체와 인쇄기의 발명이다. 이를 통해 교회 개혁자들은 종교 개혁의 아이디어를 훨씬 쉽게 전파 할 수 있었다. 1450년 유럽에는 15,000권의 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지만 1500년이 되자 그 수가 900만 권으로 늘어났다(133). 이처럼 문명이나 기술의 발달이 기독교 복음 전파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오늘의 세계도 이념보다는 경제가 중요시되어 나라들이 개방되고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있다. 지구의 한 끝에서 반대편의 다른 한 끝에서 있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인터넷에 온 세계가 접속되어 있다.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국가들에도 인터넷은 열려 있으며, 인터넷 접속자가 원하기만 한다면 복음에 접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선교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규모가 제법 큰 온라인 전도 사역 단체인 GMO, BGFA 및 Cru는 매년 인터넷상에서 최소 2억 건의 복음을

제시한다. 이들 3단체 모두에서 3월 초 코로나19가 전염병으로 선포된 이래로 예수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였다(Roach 2020: web).

2018년에 바르나Barna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국 기독교인들은 기술이 복음화를 더 쉽게 만든다는 데 동의한다.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장치의 유비쿼터스 사용과 함께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진화했으며 필연적으로 신앙에 대해 말하는 방식도 발전했다. 루터란 아워 사역Lutheran Hour Ministries과 협력하여 작성된 새로운 보고서에서 바르나는 미국 성인들에게 온라인에서 영성을 나누는 방법에 관해 물었다. 게시물, 댓글 및 프로필을 통해 많은 기독교인은 기술과 디지털 상호 작용이 전도를 더 쉽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10명 중 3명(28%)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앙을 공유하였고, 비기독교인 10명 중 6명(58%)이 누군가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에게 믿음을 나누었다고 말한다(Barna 2018: web).

위튼대학Wheaton College의 빌리그래햄Billy Graham전도센터 책임자인 에드 스테처Ed Stetzer에 의하면 선교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전도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발과 얼굴로 전도하는 것을 생각했다.” 21세기에는 “우리는 가서 전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자와 아바타를 통하는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괜찮게 생각할 것이다.” (Roach 2020: web). 에드 스테처는 우리는 전자를 매개로 하는 온라인이나, 아바타를 사용하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복음 전파와 기독교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발판으로 한 온라인 콘퍼런스도 새로운 형식이나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선교를 위한 소통과 나눔, 그리고 협력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온라인 콘퍼런스의 유익과 장애

콘퍼런스를 가상 모임으로 가질 때의 유익한 점과 장애를 나열해 보자.

### 온라인 콘퍼런스의 유익

- 비용 절약
- 시간 절약
- 공간의 무제한
- 참석 대상자의 확대
- 광범위한 정보 공유
- 법적 제한 완화(Visa...)
- 운영 인력 감소
- 감염으로부터 안전
- 제한접근지역으로의 확대

## 온라인 콘퍼런스의 장애

- 문화적 장벽
- 운영자의 장비와 기술 부족
- 상호작용interact의 어려움
- 의사 결정 과정의 어려움
- 시간대time zone의 차이
- 인터넷 발달의 차이
- 인터넷과 앱app 사용의 미숙함

## 가상 모임의 육체적 문제

온라인 모임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모임에 장시간 집중하다 보면 피로감을 느낀다. 영상 채팅을 하려면 대면 만남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 영상 채팅은 표정, 목소리의 톤과 피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를 처리하기 위해 더 힘들게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Petriglier 2020: web). 이처럼 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콘퍼런스는 사람들이 피로를 쉽게 느끼게 만든다.

온라인 콘퍼런스를 가상공간에서 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경험하려면 기본적으로 HMD(head mounted display)형 VR 기기를 안경처럼 쓰고 빛을 눈에 투과시켜 영상을 봐야 한다. 지나치게 강한 빛에 망막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시력 저하가 온다. 또한, 눈에 비치는 모습은 실제의 화면의 각도보다 좁고 가깝다. 시선을 돌리는 속도와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사이에 지연이 발생한다. 이때 눈으로 보는 것과 뇌로 판단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누적되면서 사이버 멀미를 유발한다. 이런 상황을 지속하면 일시적인 공황 상태나 광과민성 발작 증상, 뇌전증(간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강한 빛의 깜박임 등의 자극으로 시력 저하, 근시, 망막 이상, 습관성 시신경 경련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김지영 2018:web). 따라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VR기기를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콘텐츠에 의한 인지 장애도 간과할 수 없다.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콘텐츠에 매혹되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 렌즈와 같이 가상 현실 3D 콘텐츠가 증강 현실의 형태로 현실과 섞여서 보이면 실제 사물에 대한 인지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증강 현실 또는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고 이동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경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정지훈 2016: web).

## 아시아선교협의회와 컨벤션

아시아선교협의회Asia Missions Association, AMA는 1973년 서울에서 개최된 범아시아선교지도자컨설레이션 All-Asia Mission Consultation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아시아선교협의회는 아시아 각 나라 선교협의회의 연합 기구로, 3년마다 컨벤션을 개최한다. 이 컨벤션을 온라인 콘퍼런스로 개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아

시아선교협회의 특징과 컨벤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아시아선교협회의

아시아선교협회는 아시아 대륙 전체의 선교 협의체로서 각 아시아 국가에 설립된 선교협회의들의 연합 모임이다. 현재 아시아선교협회의와 같이 대륙 규모의 선교 협의체로는 남아메리카선교협회의COMIBAM, 아프리카선교협회MANI, 북아메리카선교기구Missio Nexus, 유럽선교협회의European Evangelical Missions Association, EEMA 등이 있는데, 아시아선교협회의는 가장 먼저 창립되었다. 아시아선교협회의는 이들 대륙의 선교협회의들과 아시아선교협회의 컨벤션을 통해 교류를 지속해 왔다.

아시아선교협회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시아 국가 교회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아시아선교협회의는 모든 아시아 국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아시아선교협회의는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는 아시아만이 아닌 동East과 서West가 손을 잡고 나아가 함을 강조한다. 물론, 여기에서의 동과 서에는 아프리카와 남미를 비롯한 모든 대륙이 포함된다.

### 1. 아시아 각국의 선교 연합회의 연합 기구이다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국가 차원의 선교 연합회가 있다. 한국세계선교협회의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KWMA, 필리핀선교협회의Philippine Missions Association, PMA, 인도선교협회의India Missions Association, IMA, 홍콩선교협회의Hong Kong Association of Christian Missions, HKACM, 방글라데시선교협회의Bangladesh Missions Connection, BMC는 각국의 공식적인 선교협회의이다. 또한, 아시아선교협회의는 이들 선교협회의 이외에도 국가적 수준의 선교협회의는 아니지만 지역적 협의회 성격을 지닌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협의회들,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여러 선교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선교협회의는 각국의 선교협회의와 기관들의 연합 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 2. 아시아 각국을 망라하는 선교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다

아시아선교협회의는 각국의 선교협회의만을 회원으로 두지 않는다. 선교협회의가 없는 나라들은 자생적 선교단체와 선교 지도자들이 아시아선교협회의의 일반 멤버로 참여한다. 특별히 12차 컨벤션부터는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적어도 두 명 이상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이번 13차 대회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였다. 따라서 아시아선교협회의는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선교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이다.

### 3. 전 세계의 선교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다

아시아선교협회의는 아시아 교회의 선교 운동에 초점을 맞추되, 전 세계 선교 기구와 소통하며 협력도모한다. 아시아선교협회의는 컨벤션을 개최할 때마다 MANI, COMIBAM, Missio Nexus, EEMA와 같은 대륙 선교협회의, WEA, Lausanne Movement와 같은 국제기구들, 그리고 Frontier Ventures, OMSC와 같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단체들, SEANET과 같은 선교 운동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교류한다.

## 아시아선교협의회 컨벤션

아시아선교협의회는 범아시아선교지도자컨설레이션이 개최되었던 1973년을 기원으로 삼는다. 서구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닌 조동진 박사의 주도와 여러 아시아 나라들의 지도자들에 의해 개최된 이 대회에는 14개국에서 36명이 참석하였다(조동진 2011a:264). 서울에서 개최된 범아시아선교지도자컨설레이션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비서구권 최초의 세계 선교회의로 기록된다. 아시아선교협의회는 1975년 창립 대회를 시작으로 3년마다 컨벤션(AMA Triennial Convention)을 개최하는데, 2019년에는 제13차 대회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하였다. 컨벤션은 아시아선교협의회의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필자는 2010년 아시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이래, 지난 10년간 인천, 마닐라,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3번의 컨벤션을 조직하고 운영하였다.

### 1. 컨벤션의 참가 대상자

컨벤션은 초청받은 자만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가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다:

- 각국 선교협의회 대표들: 각 회원국 협의회 및 회원 선교단체에서 1~2명의 대표자
- 대륙별 선교협의회 대표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및 북미주 선교협의회 및 선교 기관의 임원
- 국제기구 대표들: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이나 복음주의연맹(WEA) 등 국제기구의 대표자
- 각 국가 교회 대표: 아시아 각국에서 1~2명
- 일반 참가자: 선교학자, 선교 단체 지도자, 개 교회 선교 위원회 임원, 현장 선교사

대회마다 35에서 40개국으로부터 150명 가량이 참석한다. 저녁 집회는 보통 대중들에게 공개된다.

### 2. 컨벤션의 목적

컨벤션은 대개 아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래는 아시아선교협의회 2019년 치앙마이 컨벤션의 목적이 다.

- 새로운 전략 개발(Developing New Strategies)
- 선교를 위한 아시아 교회들의 연결과 협력(Connecting and Cooperation Among Asian Churches for Mission)
- 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선교 운동 촉진(Promoting Missionary Movement Among Asian Churches)
- 선교 지도자들의 선교학적 사고와 글쓰기 격려(Encouraging Mission Leaders to Develop Missiological Thinking and Writing)
- 아시아 선교 지도자들의 견해를 세계에 소개(Introducing the Missionary Views of Asian Mission Leaders to the World)

### 3. 컨벤션 프로그램

컨벤션은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 주제(theme)와 부주제(sub-themes)를 다룬다. 이 주제 아래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이루어진다. 아침 모임은 주로 경배와 찬양에 이어 주제에 맞는 성경 강해 시간으로 시작한다. 성경

강해는 한 명의 선교학자에 의해 연속으로 행해진다. 성경 강해 다음에는 각각의 부주제와 관련된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를 마치게 되면, 대륙별 선교협의회의 혹은 국제기구 대표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소개한다.

오후에는 보통 워크숍으로 그룹을 나누어 강의를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진다. 워크숍은 컨벤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제목과 내용으로 행해진다. 워크숍이 끝나면 선언문 작성위원회 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 모임들이 이루어진다. 이때 임원들 모임 및 임원 선거를 위한 모임도 행해진다.

저녁에는 보통 일반 대중들에게 개방되며, 개최국 특색을 담은 문화적인 공연과 각 국가의 교회와 선교 상황 보고가 있고 난 뒤 선교에 대한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는 선언문이 채택되고 성만찬이 시행된다. 아시아선교협의회 2019년 치앙마이 컨벤션의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와 같다.

**AMA Convention Chiang Mai 2019 PROGRAM**

Day	Time	Topic	Speaker	
Nov 1	Morning	Registration		
		Breakfast		
	Afternoon	Prayer & Praise		
		Keynote Address	Dr. Bill Longshore	
	Evening	Panel Discussion	Dr. Mark Longshore	
		Workshop		
	Nov 2	Morning	Breakfast	
			Prayer & Praise	
		Afternoon	Panel Discussion	Dr. Mark Longshore
			Workshop	
Evening		Panel Discussion	Dr. Mark Longshore	
		Workshop		
Nov 3		Morning	Breakfast	
			Prayer & Praise	
		Afternoon	Panel Discussion	Dr. Mark Longshore
			Workshop	
	Evening	Panel Discussion	Dr. Mark Longshore	
		Workshop		
	Nov 4	Morning	Breakfast	
			Prayer & Praise	
		Afternoon	Panel Discussion	Dr. Mark Longshore
			Workshop	
Evening		Panel Discussion	Dr. Mark Longshore	
		Workshop		
Nov 5		Morning	Breakfast	
			Prayer & Praise	
		Afternoon	Panel Discussion	Dr. Mark Longshore
			Workshop	
	Evening	Panel Discussion	Dr. Mark Longshore	
		Workshop		

### 온라인을 통한 컨벤션의 목적 성취

먼저, 콘퍼런스의 일반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고 이 목적을 온라인 콘퍼런스에서도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아시아선교협의회는 3년마다 국제 선교 컨벤션을 개최한다. 지난 13차 컨벤션은 2019년 11월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었다. 참가 대상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선교협의회 대표를 위주로 각 나라의 선교와 교회 지도자들이며, 각 대륙의 선교 협의회와 국제적 기구의 대표가 옵서버로 참석하였다. 콘퍼런스의 목적은 개최되는 해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아시아선교협의회 제13차 컨벤션의 목적들을 기준으로 이 목적들을 온라인 모임에서도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이 대회가 표방한 목적들을 나열하고 이 목적들을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 1. 새로운 전략 개발(Developing New Strategies)

아시아선교협의회 컨벤션은 세계 선교, 특별히 아시아 교회의 선교 운동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고 의논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새로운 전략은 주제를 부여받은 발표자들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것이 컨벤션을 통해 논의된다. 대회의 결과물인 선언문은 발표자들의 논문을 기초로 선교학위원회 Missiological Committee에서 논의되어 작성된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 개발을 위한 토론과 결정은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2. 선교를 위한 아시아 교회들의 연결과 협력 Connecting and Cooperation Among Asian Churches for Mission

아시아선교협의회 컨벤션에는 아시아의 선교와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제 선교기관(Lausanne, WEA), 다른 대륙의 선교 협의회(Mission Nexus, MANI, COMIBAM, EEMA), 우수한 기관(Frontier Ventures, OMSC)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따라서 컨벤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아시아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그 만남을 통해 선교를 위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대회에 참석하는 많은 이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오기보다는 서로를 알고 인적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기 위해서 온다.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방면에서 선교 발전에 공헌한다. 이러한 만남과 협력은 온라인 모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온라인이나 가상 현실의 기술로는 그 규모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3. 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선교 운동 촉진 Promoting Missionary Movement Among Asian Churches

아시아인들은 이 메일보다는 전화, 전화보다는 실제로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 특별히 중요한 만남은 보통 식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선교에 대한 자극이나 도전은 강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방글라데시선교협의회는 2016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선교협의회 제12차 컨벤션에 참석한 두 명의 교회 지도자들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대회의 전체적인 모습과 참석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소유하게 되었다. 온라인 컨벤션을 통한 아시아 교회의 선교 운동 촉진은 인터넷 등의 IT 발달 수준의 차이와 문화적 이유로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 4. 선교 지도자들의 선교학적 사고와 글쓰기 격려 Encouraging Mission Leaders to Develop Missiological Thinking and Writing

아시아선교협의회는 컨벤션을 통해 아시아의 선교 지도자들의 선교학적 사고와 글쓰기를 장려한다. 아시아의 환경과 경험 속에서 쓰인 이들의 글들은 세계 선교계에 독특하게 기여할 것이다. 이 목적은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목적만을 이루려 한다면 굳이 컨벤션을 할 필요가 없다. 주제를 선교 지도자들에게 주고 연구를 하도록 하면 된다. 한 예로, 조동진 선교학 연구소 David Cho Missiological Institute, DCMI에서는 소속 연구원들에게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변화하는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전문성과 현장과 관련되어 글을 쓰도록 요청하였고, 그 연구의 결과물이 책으로 출판될 것이다.

## 5. 아시아 선교 지도자들의 견해를 세계에 소개 Introducing the Missionary Views of Asian Mission Leaders to the World

이 목적은 온라인 콘퍼런스나 유튜브(YouTube), 그리고 발행되는 잡지와 컴펜디엄(compendium)을 통해 오프

라인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이를 수 있다. 온라인은 대상이나 횟수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영어가 모국어인 스피커들이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줌으로써 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영어가 불편한 강사는 자신의 모국어로 발표하고 영어를 자막으로 달 수도 있을 것이다.

아시아선교협회의 컨벤션을 비롯한 어떠한 콘퍼런스도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모임의 성격이나 목적과는 많이 다른 모임이 될 것이다. 온라인 콘퍼런스에서는 현재의 온라인 혹은 가상 기술 수준과 각 나라의 문화 경제적 차이로 인해 기존의 물리적 공간 모임에서 얻어지는 목적을 다 이룰 수는 없다. 특히 참석자들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제, 인적 네트워크 형성, 협력 등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온라인 콘퍼런스에서는 어느 정도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 온라인 콘퍼런스 플랫폼의 조건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개최하도록 돕는 플랫폼과 솔루션 혹은 도구들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온라인 개최를 위한 플랫폼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 출시된 플랫폼마다 각각의 특징이나 장점이 있는데, 아시아선교협회 컨벤션과 같은 국제 선교 지도자들의 모임에 적합한 플랫폼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가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라도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온라인 콘퍼런스에 적합하지 않다. 콘퍼런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사용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또한 아시아선교협회의 컨벤션의 참석하는 참가자들의 연령이 대체로 높기에 이들의 온라인 사용 능력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플랫폼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여 사용하기 쉬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기기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 2. 기존 콘퍼런스와 가장 유사한 형태이며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오프라인 콘퍼런스가 가진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포맷과 친숙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참가자들의 거부감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기존의 대회가 가진 명확한 목적, 일정, 내용, 형식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구조에 가까울수록 좋다. 특별히 대면 미팅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교제, 네트워크 형성과 연합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한다. 참석자들이 콘퍼런스 전이나 후에도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 3. 온라인 미팅 중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정적이어야 한다.

플랫폼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콘퍼런스 중간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간혹 생기더라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피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시아선교협회의 컨벤션의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 국가의 인터넷 사정은 좋지 않다. 따라서 스피드가 떨어지는 플랫폼은 적합하지 않다.

#### 4. 다양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플랫폼은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GetVoip의 캐서린 스톤Katherine Stone은 성공적인 가상 콘퍼런스를 위해서는 라이브 및 사전 녹화된 비디오 스트리밍, 모바일 접근성, 채팅 메시지, 파일 공유 기능, 가상 화이트보드, 공유 화면, 가상 대기실, 워크숍이나 그룹 세션을 위한 소규모 방들, 발표자 도구 전달pass presenter tool, 투표 도구, 앱 통합, 오디오와 비디오 녹화, 인앱in-app 콘퍼런스 등록, 자동 알림, Q & A 도구, 출석 및 리드 생성lead generation에 대한 참여 분석, 인앱 제공, 라이브 스트리밍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의 통합, 현재 스피커 보기, AI 및 게임화 기능, 브랜드 가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배경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Stone 2020: web). 기능이 다양해야 콘퍼런스의 형식과 내용을 담아낼 수 있고 목적들을 이룰 수 있다.

#### 5. 온라인 콘퍼런스가 가진 장점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회의가 참석자에게 더 나은 경험과 더 깊은 관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참가자들이 불편을 느끼면 콘퍼런스 참여를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 온라인 콘퍼런스가 어떤 면에서 오프라인 콘퍼런스보다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느낌을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6. 다른 솔루션들과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오프라인 콘퍼런스의 내용과 형식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은 없다. 그럼에도 그 플랫폼은 다른 솔루션들과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한 플랫폼이 다른 솔루션들과 원활한 통합이 어려우면, 대회를 주최하는 자가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되 여러 솔루션을 같이 사용하여야만 할 것이다.

### 마치는 말

인간 간에는 접촉이 중요하다. 이 접촉은 온라인상에서의 접촉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물리적 접촉이다. 인간은 단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인간으로 성장한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가깝게 접촉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손길이 의사소통, 건강, 유대감을 위해 필수적이다. 접촉은 관대함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부모나 유아와 마찬가지로 성인 간의 접촉도 옥시토신을 분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며 유대감과 신뢰감을 증가시킨다(Strawn 2020: web).

온라인 콘퍼런스는 코로나 사태로 모이지 못하는 콘퍼런스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콘퍼런스와 동일한 수준의 참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시아선교협의회 컨벤션에 참여하는 선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보다는 사람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 참여한다. 아시아선교협의회 컨벤션은 만남의 장으로서 지도자들은 컨벤션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을 도모한다. 오프라인 콘퍼런스는 어느 정도의 만남과 교제를 제공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콘퍼런스가 오프라인 콘퍼런스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오히려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이루지 못하는 물리적인 접촉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아시아선교협의회 컨벤션을 비롯한 어떠한 콘퍼런스도 온라인이나 가상 모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모임의 성격이나 목적과는 많이 다른 모임이 될 것이다. 가상 콘퍼런스에서는 현재의 온라인이나 가상 기술 수준과 각 나라의 문화 경제적 차이로 인해 기존의 물리적 공간 모임에서 얻어지는 목적을 다 이룰 수는 없다. 특별히 참석자들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제, 인적 네트워크 형성, 협력 등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가상 콘퍼런스에서는 어느 정도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이나 가상 공간에서의 콘퍼런스는 주최자나 참여자 모두에게 도전이 되겠지만 개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온라인이나 가상 공간에서의 콘퍼런스는 증가하고 확대될 것이다. 반면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물리적인 공간에서 모이는 콘퍼런스 또한 되살아 날 것이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는 것은 한 공간에서의 만남에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모이는 현장에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바람 소리를 듣는 것과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서로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가상 세계에서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 참고 문헌

- 김지영. 2018. “뇌 속이 VR…부작용 어떤 게 있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10509301101439>
- 박수호. 2019. “퍼져가는 ‘엔택트 마케팅’ - ‘혼자 볼게요’ 대세…무인 주문 결제 복물” 매일 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3/178377/>
- 정원엽. 2020. “가상 현실서 열린 콘퍼런스…코로나19로 VR 다시 뜨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34675>
- 정지훈. 2016. “(4)현실과 가상의 만남” 「경향신문」 [http://m.biz.khan.co.kr/view.html?part\\_id=201605202148005#c2b](http://m.biz.khan.co.kr/view.html?part_id=201605202148005#c2b)
- 최지혜. 2019. 무언의 친절함을 사는 사람들. Chril magazine. <https://blog.cheil.com/magazine/38576>
- Barna Group. 2020. “Evangelism in a Digital Age: An Infographic” <https://www.barna.com/research/evangelism-in-a-digital-age-an-infographic/>
- Bediako, Kwame. 2004. *Jesus and the Gospel in Africa: History and Experience*. Maryknoll: Orbis.
- Bosch, David J. 2003.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Orbis.
- Junior. 2020. 모임 수 없는 사람들… 가상 콘퍼런스가 뜬다. 주니어 앰배서더. <http://juniorambassador.org/모임-수-없는-사람들-가상-콘퍼런스가-뜬다/>
- Oliver, Andrew C. 2020. “가상 콘퍼런스,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지금이 준비할 적기.” CIO. <http://www.cioorea.com/news/152353>
- Petriglieri, Gianpiero. 2020. “The reason Zoom calls drain your energy” BBC remote control에서 재인용. <https://www.bbc.com/worklife/article/20200421-why-zoom-video-chats-are-so-exhausting>
- Pierson, Paul. 2009. *Dynamics of Christian Mission*, Pasadena: WCIU Press.
- Roach, David. 2020. “Coronavirus Searches Lead Millions to Hear About Jesus” *Christianity Today*. <https://www.>

- christianitytoday.com/news/2020/april/coronavirus-searches-online-converts-pray-cru-bgea-wmo.html
- Sanneh, Lamin. 2008. *Disciples of All Nations: Pillars of World Christianity*. New York: Oxford.
- Schwab, Klaus.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 Stone, Katherine. 2020. “Top 7 Virtual Conference Platforms to Host Events in 2020.” <https://getvoip.com/blog/2020/06/24/virtual-conference-platforms/>
- Strawn, Brad D. 2020. “그리스도인들이 포옹을 해야 하는 이유” . *Christianity Today*.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0/july-web-only/coronavirus-pandemic-christian-side-hug-mask-psychology-kr.html>

#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선교 모델

## 케이스 스터디: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

이 승 일

바울선교회 글로벌인적자원개발센터 디렉터

### 서론

필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 with Corona era’ 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post Corona era’ 의 선교 모델은 미션 플랜팅 mission planting과 미션 파트너링 mission partnering이라고 제안한다. 이것은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복음이 확장되도록 선교사가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동역하는 공생 symbiosis과 통섭 consilience의 모델이다. 필자는 미션 플랜팅을 ‘선교사가 현지 토착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선교사적 본질 missionary nature을 자성 自省, 자각 自覺, 자신 自信하도록 일깨우고 해외 선교로 동원하는 토착교회의 정체성 회복 운동’ 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미션 파트너링은 ‘선교사가 선교지의 교회가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선교적 교회 missionary church로 성장하도록 함께하는 유기적 동역 관계’ 라고 정의한다.

본 소고에서 필자는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의 근거를 성경, 역사, 선교신학에서 찾아보고, 바울선교회의 선교사 훈련, 선교세미나의 예를 통해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선교 전략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의 근거

#### 성경적 근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의 모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세상 복음화의 사명을(마 28:18~20; 막 16:15; 눅 24:14; 행 18) 현지 토착민 제자들에게 위임하였고, 현지 토착민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온 세계를 구원할 선교 전략을 수립하였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8).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자 문화권뿐 아니라 타 문화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규정하는 미션 플랜팅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의 미션 파트너링은 성령을 통한 증보사역에서 잘 드러난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마태 28:20)라는 말씀처럼, 선교사로 출발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

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동역할 것을 약속하셨다.

사도 바울 또한 현지 토착민을 훈련하여 지도자로 세웠고, 이들을 유사 문화권 혹은 타 문화권에 파송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현지 토착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였다.<sup>1</sup> 바울은 관문도시를 중심으로 전도하면서 회심자 중 선택한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일부를 그 지역의 지도자로 임명한 후(행 14:23)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였다.<sup>2</sup>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교회들은 모두 자신들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였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주의 말씀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전하였다(살전 1:8). 골로새교회는 복음을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전하였다(골 4:13). 이러한 현지 토착교회의 선교적 역동성을 보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충성된 토착민들에게 가르치면 그 토착민들이 동질 문화권, 유사 문화권, 혹은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서 또 다른 현지 토착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딤후 2:2)이라고 말하였다.

결국 바울은 현지 토착민을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가 토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훈련된 토착 그리스도인들을 유사 문화권 혹은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로 선교 동력화 하는 미션 플랜팅의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3</sup> 또한 바울은 회람 서신서들(circulating letters)로 알려진 그의 서신서들을 통하여 각 지역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토착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영적 지침(골 1:28; 살전 1:11~12)들을 제시하였다. 바울이 쓴 신약성경이 영혼 구원과 세계선교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에(롬 9:24; 롬 11:13; 고전 9:22~23; 갈 3:28~29; 엡 3:6; 빌2:15; 골 1:23; 딤후 2:4; 딤후 4:2) 바울은 여러 현지 교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는 미션 파트너링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바울은 현지 토착교회가 자신들의 주거지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미션 플랜팅과, 토착 그리스도인들이 유사 문화권 혹은 타 문화권에서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미션 파트너링의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역사적 근거

인도에 도착한 윌리엄 캐리는 동료 선교사들과 형제단을 조직한 후 열 한 개의 행동 목표가 정해진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그중 토착 인도인들을 선교적으로 훈련할 책임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인도인들에게 선교적 책무를 일깨운다. 인도인들만이 인도를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sup>4</sup> 윌리엄 캐리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의 간극이 있는 인도를 선교지 안의 선교지(mission fields in mission field)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인도인에게 선교적 책임감을 일깨우고 인도인들에 의해 토착교회가 바로 설 때 전 인도 선교가 가능하다고 믿었다(미션 플랜팅). 이를 위하여 캐리는 세람포대학을 설립하여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하여 현지 토착민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미션 파트너링).

19세기 중반 태평양 군도의 선교사역 원동력은 토착민 사역자들이었다. 태평양 선교의 선구자 존 윌리

1. Stephen Nei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London: Penguin, 1990[rpr.]), p.21.

2. Ro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Grand Rapids: Eerdmans, 1998[rpr.]), p.93. 성경은 그 지도자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proselytizers) 이었는지 아니면 토착민들이었는지 명백하게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고전 9<sup>2</sup>)’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생각했을 때 복음의 효과적인 진보를 위해서 토착민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지도자로 임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지역의 언어와 사회문화적 상황을 잘 아는 토착민 전도자가 자신의 문화적 장벽을 넘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동일 문화권 혹은 유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3. Ro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Grand Rapids: Eerdmans, 1998[rpr.]), p.93.

4. Timothy George, *Faithful Witness: The Life and Mission of William Carey* (Birmingham, Alabama: New Hope, 1991), p.123. 폴 피어슨,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선교운동사』 임윤택 역, (서울: CLO), pp.431-2에서 재인용.

엄스는 오직 토착민 그리스도인들만을 통해서 태평양군도 선교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토착민들을 선교사로 훈련하여 보낸 대표적인 선교사들은 존 패튼과 존 콜러릿지 패터슨이었다. 패튼은 원주민 사역자를 훈련하기 위한 학교를 세웠는데 삼백 명이 넘는 토착민들이 훈련을 받았고, 이들은 훈련을 마친 후 더 외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다.<sup>5</sup> 패터슨 역시 24개의 다른 섬에서 온 50여 명이 사역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한 후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독자적으로 사역하도록 하였다.<sup>6</sup> 토착민 사역자들은 유럽인들이 감히 들어가려고 하지 못한 고립된 곳까지 들어가서 활동하였다. 스티븐 니일은 토착민 선교사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많은 현지 토착민 선교사들이 “자신의 피를 흘려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었다.” 그 현지 토착민 선교사들을 통해 “다른 지역의 현지 토착교회가 계속 자랐는데 유럽 선교사들을 의존했을 경우 성장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성장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sup>7</sup> 이처럼 현지 토착민들에게 해외선교의 당위성을 알리고(미션 플랜팅) 훈련하여 파송하는(미션 파트너링) 선교 전략은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한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었다.

## 선교신학적 근거

롤란드 알렌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적인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의 복음을 들은 회심자들은 모두 잠재적인 선교사였으며 *potentially a missionary* 이들을 통해 복음이 동일 문화권과 유사 문화권에 전해졌다고 강조한다.<sup>8</sup> 허버트 케인에 의하면 어느 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었던 지상과업 명령은 서구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선교지에 ‘선교사 교회 *missionary church*’ 를 세우는 데 실패하였다고 그는 지적한다.<sup>9</sup> 이러한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 상실에 동의하면서, 데이비드 보쉬는 선교는 교회의 활동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an attribute of God*이며 더 이상 서구세계에서 제삼세계로 흐르는 일방통행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every church*, 어느 곳에 있든지 *everywhere* 모두 선교에 다시 동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10</sup> 이에 대해 로저 헤드런드는 선교의 목표는 토착교회를 세우고 그 토착교회가 복음 선교의 비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구체화하였다.<sup>11</sup> 랄프 윈터 역시 건강한 토착교회의 특징을 ‘생명력’과 ‘역동성’으로 보았다. 설립된 토착교회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면, 그 생명력은 자신의 경계를 넘어 그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하는 역동성으로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그 생명력과 역동성이 있을 때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복음의 돌파 *break through*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복음 전도와 함께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전략적인 일 *encourages an overseas church movement to become missionary is doing a very strategic thing*” 이라고 강조하였다.<sup>12</sup> 이런 측면에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토착화된 교회가 아니다. 지역교회가 어떤 형태로든 선교에 참여할 때 진정한 토착

5. 루스터키, 『선교사 열전』 박해근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2005 [2<sup>nd</sup>]), p.280.

6. 루스터키, 『선교사 열전』 p.285. see also 폴 피어슨, pp.586-9.

7. Stephen Nei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p.253.

8. Rol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p.93

9. Herbert Kane,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s* (Grand Rapids: Bakers, 1975[2<sup>nd</sup> edn.]), p.359.

10.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1991), p.388.

11. 로저 헤드런드, ‘선교를 위한 동반자 관계,’ 『아시아 선교핸드북』 (서울: 보이스사, 1996), pp.105-109.

12. Ralph D. Winter, ‘From Mission to Evangelism to Mission,’ in *Frontiers in Mission: Discovering and Surmounting Barriers to the Mission Dei* (Pasadena: WCIU, 2005), pp. 155-157. 본 글은 2002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전도 종족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글이다. 이 글에서 윈터는 ‘진정한 토착화(authentic indigeneity)를 교회의 역동적인 타 문화권 활동(dynamic cross-cultural involvement)와 연관 짓는다.

교회가 된다.”<sup>13</sup>라고 말한 폴 피어슨의 지적은 올바른 지적이다.

이상에서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의 성경적, 역사적, 선교신학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은 상호 유기적이며, 현지 토착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음을 볼 수 있다.

##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 아시아 교회의 비전과 사명

### 아시아선교협의회 선교대회

#### 1. 아시아 선교협의회 제12차 대회(2016년)

2016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아시아선교협의회Asian Missions Association, AMA가 주관하는 제12차 아시아 선교대회The 12th Triennial Convention of Asia Missions Association가 마닐라에서 23개국에서 온 250여 명의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열렸다. 대회 마지막 날 70여 명 이상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교지도자들과 선교학자들이 발표한 글들을 기초하여 대회 선언문을 발표하였다.<sup>14</sup> 본 선언문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Realization of Our Weaknesses하고, 교회의 본질은 선교임을 재확인Reaffirmation of the Essence of Mission하고, 세계화 시대의 부름에 반응Response to Rapid Globalization하고 세계선교에 재헌신Recommitment to Cooperative Asian Mission Movement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본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아시아 교회가 함께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하고, 돌보고, 파송하며(미션 파트너링), 아시아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적 삶을 살고 선교에 동참하도록(미션 플랜팅) 협력하고 네트워킹하는 것에 일치하였다.

#### 2. 아시아선교협의회 제13차 대회(2019년)

2019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아시아 선교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3차 아시아선교대회The 13th Triennial Convention of Asia Missions Association가 치앙마이에서 23개국에서 온 145명의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열렸다. 본 기간에 발표된 AMA 대회의 선언문 역시 제12차 대회선언문과 동일한 맥락을 보인다.<sup>15</sup> “하나님

13. 폴 피어슨, p.668.

14. 필자는 본 대회 선언문 작성팀의 리더로 7개국에서 모인 지도자들과 토론을 통하여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였고 ‘교회 개척을 넘어 미션 플랜팅으로(Mission Planting Beyond Church Planting)’ 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15. **DECLARATION of AMA 13<sup>th</sup> Convention**

We believe that God created and reigns over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everything in it. He has a special plan to redeem humanity and all creation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He gave us His Great Commission, so we as His co-workers should propagate the Gospel of His kingdom to all peoples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oday, the global contexts are rapidly changing. Migration is one of the phenomena of the 21st century. Kingdom workers need to take this development seriously to communicate the Gospel effectively.

The Asia Missions Association (AMA) held its 13th Triennial Convention at Chiang Mai, Thailand, on November 11-15, 2019, with 145 participants from 23 countries. They are delegates from mission associations in Asia, non-Western missiologists and mission practitioners, Asian church leaders, and observers. Distinguished missiologists and mission practitioners from Asia and other continents seriously discussed on the concepts and strategies of “Migration and Mission.”

#### **We hereby declare the following convictions:**

1. God is a missionary God. He actively works to destroy the works of Satan, saves His people from their sins, and restores His rule over the whole world (Ex. 3:7-10).
2. God calls us to fellowship with Him and work with Him to restore His rule and fulfill His will on earth as it is in heaven (1 Jn. 1:3; Mt. 6:10).
3. God also calls us to unity and partnership in kingdom ministry with fellow mission workers (1 Cor. 4:5-9; Eph. 4:11-16).
4. God guides us and empowers us by His Holy Spirit to carry out His mission (Acts 1:8).
5. God uses our weakness and suffering for the sake of His glory (1 Cor. 1:26-29; 1 Pet. 2:21; Phil. 1:29).
6. Through migration, God provides opportunities for us to carry out His mission -- “to,” “through,” “by and beyond” and “with” the diaspora (Acts 8:4; 11:19-21).
7. God uses lowly and ordinary people as witnesses to others --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through migration (1 Cor. 1:26-29; 1 Pet. 2:9-10).

#### **We also make the following observations and commitments:**

1. Immigrants: People on the move are often not bound by their old restrictions and are freer to experiment with new lifestyles, ideologies and faiths. Diaspora churches are among the fastest growing today. We want to find effective ways to share the gospel with these new neighbors on the move

께서는 우리를 그분과의 교제로 부르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모든 선교동역자들과 연합과 협력으로 부르셨다.” 본 대회는 특별히 이민자들, 난민들, 해외이주노동자들, 유학생들, 사업가들, 비자발적 이주자들(relocated people)을 향한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이들에게 선교사명을 일으키고(미션 플랜팅) 이들을 훈련하여 이들이 속한 영역의 선교사로 재파송하자는데(미션 파트너링) 일치하였다. 이것은 선교사, 현지 교단, 그리고 지역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공동의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전진해야 함을 선포한 대회였다. 이것은 아시아 모든 교회가 동등하게 상호 선교의 도전을 주고받으며 아시아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자는 전방위적 총체적 유기적 연합을 추구하자는 결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필리핀 선교지도자의 요청: 한국 선교사와 필리핀 교회의 연합과 협력(2018년)

2018년 9월, 필리핀한국선교협의회(Korea Missions Association in the Philippines, KMAP)가 주최한 “한국 교회의 필리핀 선교: 회고와 전망” 포럼에서 필리핀복음주의교회협의회(Philippine Council of Evangelical Churches, PCEC) 회장인 판토하 감독과 필리핀선교단체협의회(Philippine Missions Association, PMA) 대표인 바도이 목사, 필리핀 로잔의 데이비드 림 박사는 필리핀 교회가 한국 선교사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필리핀 전국 사만 이천(42,000) 바랑가이 중에서 16 교회만 있는 이만 (20,000) 바랑가이에 함께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한다. 둘째, 신학교들은 선교적으로, 교회들 역시 선교적으로 재 초점 revision을 맞춘다. 셋째, 필리피노들을 선교사로 훈련하는 일에 협력한다. 넷째, 미전도 종족과 아시아 선교의 파트너로 함께 나아가자.

필리핀 교회 지도자들은 비록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신학교들은 선교적으로, 교회들을 선교적으로 재 초점 맞추어 달라.”는 것은 미션 플랜팅에 대한 영역이고, “필리피노들을 선교사로 훈련하고 (필리핀의) 미전도 종족과 아시아 선교의 파트너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은 미션 파트너링에 대한 영역으로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은 외국 선교사와 필리핀 교회가 함께 이루어야 할 절대적인 사역 전략이라는 것이다. 선교사가 선교지의 교회와 협력하자는 외침이었다. 한국 교회의 선교 노하우와 훈련 노하우를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현지인을 한국사람화 하지 말고, 이들이 다시 필리피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스스로 선교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달라는 초청이었다. 필자는 필리핀 선교지도자들의 요구가 비단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에게만 향한 일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지 교단과의 깊은 협력 가운데 현지인을 선교사로 훈련

2. Refugees: God has compassion for refugees who flee due to fear, persecution, conflict, violence, or other circumstances. We want to serve them holistically as God commands us: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Mt. 22:39)
3. Overseas Workers: God is sending migrant workers to live out their faith wherever they live and work. We want to equip them to work with integrity and excellence, as well as to do intentional disciple-making
4. Foreign Students: God is causing a surg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recent years. We want to see them become lifelong followers of Jesus Christ, discipling them to reach their people.
5. Businesspeople: God is bringing about His rule through the integration of business and mission. We want to equip businessmen and women to fulfill their vocation in the world.
6. Relocated People: God is orchestrating a massive internal migration in many countries, which creates near-cultural bridges between peoples. We want to reach out to them with proper contextualization.

#### Conclusion

In response to today's phenomenon of migration, we call on all Christians, including all kinds of migrants, to be faithful witnesses of Christ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16. 필리핀 행정구역 중 최소 행정 단위로 한국의 읍,면,동에 해당

하여 파송하는 이 정책과 전략은 어느 나라에든지 들어맞는 전략이며, 환영받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현지인을 훈련하여 외국 선교사의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부터 현지 교단과의 긴밀한 협력 가운데 선교사를 훈련하고 일정 기간의 사역 후에는 현지 교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후원, 돌봄, 훈련, 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제16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2021년)

2021년 7월 13일-16일까지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선교, 성찰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350명의 선교사와 선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 한인세계선교사대회 Korea World Missionary Fellowship, KWMF”가 개최되었다. 대회 마지막 날 발표된 포항선언문은 한인 선교사의 주요사역을 ‘현지 사역자 양성’과 ‘세계선교의 동역’으로 보았다. 포항선언문 중 ‘비전과 결의’ 넷째 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사 지원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지 사역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포한다. 우리는 현장 선교의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선교 현장의 자생적 부흥과 복음의 진전을 도모할 것을 선포한다.

또한 포항선언문 강령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밝힌다.

이들 현지 사역자들이 온전히 자립하도록 육성하고 더 나아가 세계 속 선교사로 퍼져나가는 사역의 동반자, 희망의 메신저로서 이 시대를 함께 섬겨 나갈 의무가 있다.

포항선언문은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일깨우는 미션 플랜팅과 함께, 현지 사역자들과 세계선교의 동반자로 서겠다는 미션 파트너링의 사명이 한국 선교사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본 선언문은 또한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비대면 온라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가상의 공간 또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며, 당면한 이 도전을 기회로 삼아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도모할 것임을 선포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위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사명임을 강조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시아선교협의회, 한인세계선교사대회, 그리고 필자가 섬기고 있는 필리핀 교회는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함께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에 동등한 동반자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목표가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현지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을 위한 제안

### 출발점: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폴 피어슨은 세계선교의 흐름이 ‘서구 문화적 교회 모델에서 비서구적 교회 모델로 변모’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sup>17</sup> Center for the Global Christianity에서 발표한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2020, in the Context of 1900-2050에 의하면, 2020년 중반 현재 개신교 선교사의 수는 425,000명으로 집계되었다.<sup>18</sup> 이 보고서는 서구권의 선교사 수와 비서구권 선교사의 수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서구권 선교사 수는 전체 선교사 수의 70%를 차지한다.”라고 보았던 하워드 브렌트의 말을 빌린다면, 약 30만 명의 비서구권

17. 폴 피어슨, p. 698.

18. Gina A. Zurlo, Todd M. Johnson, and Peter F. Crossing, “World Christianity and Mission 2020: Ongoing Shift to the Global South,”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January 2020).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셈이다.<sup>19</sup> 랄프 윈터의 표현을 따른다면, 이들 비서구권 선교사들은 ‘전형적인 서구적’ 선교관의 ‘범주’에 잘 맞지 않는 선교사들<sup>20</sup>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이 비서구권 선교사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라고 하는 고유한 문화 형식을 입은 선교사들로서 자신들의 상황에 적합한 선교 방법론으로 준비된 선교운동의 새로운 주자driving force로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는 말이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패러다임, 즉 선교는 더 이상 서구에서 비서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동시에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패러다임이 이 시대의 주류임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을 실행함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통섭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먼저, ‘선교’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도 변화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기준은, 전도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sup>21</sup> 또한, 선교란 기독교 국가에서 비기독교 국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제 선교지와 피 선교지의 구분이 느슨해졌다. 기독교 국가로 생각되었던 유럽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다. 필리핀의 경우는 선교지이면서 동시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교통 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타 문화 접촉이 용이한 시대가 되었다. 아세안ASEAN과 같은 국가연합체의 등장으로 회원국가들 간의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분야가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시점을 맞이하였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전도와 선교의 정의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선교를 ‘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으로 이해하고 국내전도와 해외선교를 동시에 강조하는 선교사 교회 Missionary Church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4개 지역(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서의 동시적 선교를 강조하는 선교 패러다임이 선교 현지에서 지속해서 강조되고 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선교사의 역할: 마중물

하워드 폴러는 선교회와 현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4가지 발전 단계(4P)를 말하였다. 그것들은 개척자 Pioneer(1단계), 부모 단계Parents(2단계), 참여자Participants(3단계), 협력자Partner(4단계) 단계이다. 특별히 윈터는 선교회가 협력자 단계에 이르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곳에서 1단계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22</sup>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이지만 본 4단계 모델의 약점이 몇 가지 발견된다. 첫째로는 개척 단계와 부모 단계에서는 외국인 선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조건들과 상황들이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모델이 서구 선교사와 현지 교회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것임을 생각할 때 비서구권 현지 토착교회가 타 문화권에서 동일한 4단계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랄프 윈터가 선교회와 현지 교회의 관계를 제안한 모델을 미션 플랜팅과 미

19. 크리스찬 투데이, 2009년11월11일자 보도. 하워드 브렌트는 2009년 당시 SIM 국제 부총재의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20. 랄프 윈터, 『비서구 선교운동사』 임윤택역(서울: 예수전도단, 2012), pp. 32-33.

21.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선교를 복음전도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서도 복음전도를 선교의 핵심요소로 보는 견해가 있다.(케인, 스토틀). 또한 미셔널 처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총체적인 사역으로 보고, 전도는 그 핵심을 이루는 실천으로써 명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증언해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22. 랄프 윈터, 스티븐 호든, 한철호 공동편역, 『퍼스펙티브스 1』 정옥배, 변창욱, 김동화, 이현모역(서울: 예수전도단, 2013[rvs]), pp. 557-558.

선 파트너링에 적용하고자 한다. 필자는 4P 대신 2P를 제안한다. 참여자 단계와 협력자 단계이다.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은 철저하게 현지 토착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사가 현지 토착교회의 최초 미션 플랜터가 될 수도 있지만, 현지 그리스도인과 함께 미션 플랜팅을 시작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선교 동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선교사의 분석과 판단에 기초한 미션 플랜팅이 아닌, 현지 교회의 필요와 시대성에 맞는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이 되도록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타 문화권 선교 경험을 가진 필리피노 선교사들이 필리핀 각 지역교회를 순회하며 선교 동원을 하고, 또한 이들이 청년 대학생을 위한 미션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섬기면서 젊은이들을 선교사역에 동원하는 것을 목격한다. 더 나아가 이 현지인 선교사들이 선교적 목회를 감당하면서 또 다른 현지 토착민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훈련가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세 안식일밖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지 교회가 미성숙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성령께 의탁하면서 주도권을 현지 교회에 양도하고 선교사는 함께 섬기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작 단계에는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처음 시작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현지 토착교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교회를 선교에 동원하고 선교사를 훈련하며 파송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협력해야 한다. 진정한 토착교회는 현지 토착민이 중심이 된 선교사 교회이며, 선교사의 역할은 마중물처럼 현지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한 후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 선교사와 현지 교회의 협업: 교회는 선교의 모판

교회는 선교의 모판이다. 현지 교회(교단)와의 협력을 무시한 채 선교사가 현지인 그리스도인을 선교사로 발굴하여 훈련하여 파송하는 것은 그 현지인 선교사의 생명을 단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현지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는 현지인 선교사가 그의 교단적 뿌리를 보존하도록 돕는다. 이 친밀성은 현지인 선교사가 타 문화권 사역을 마치고 모국으로 귀국하였을 때 그가 속한 교회의 선교 동원가로 재출발할 기회를 제공한다. 현지인 선교사는 중국적으로 외국인 선교사의 사역과 외국인 선교사의 단체가 아닌, 자신의 나라의 선교운동을 이끄는 현지인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바울선교회 사역 초기에는 바울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현지 토착민 제자 중에서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훈련하였다. 본 회 소속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나라에 파송하였고 본 회 소속 선교사의 사역 팀에 소속되어 3년 사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필리피노 선교사들과 모국 교회와의 관계가 느슨하다 보니 3년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본 교단에서 미션 플랜터로 섬길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되었다. 그 후부터는 현지 교단의 추천을 받은 후보생을 허입하고, 훈련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3년 사역 기간에 공동으로 멘토링하며, 필리핀 교단선교부가 추천하는 선교지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단체 소속 선임선교사 지도력 아래에 현지 토착민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그 결과 현지 모교단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였을 때 우리 필리피노 선교사들이 소속 교단과 교회에 미션플랜터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 케이스 스터디: 필리핀에서 팬데믹 기간의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

필자는 바울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필리핀에서 팬데믹으로 도시 봉쇄령이 발효한 날(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8월 6일까지 진행한 선교사역을 케이스 스터디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기간의 사역은 바로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이었다.

### 현지인 선교사 훈련과 미션 파트너링

필자는 바울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제11기 현지인 선교사 훈련(The 11th Frontier Missionary Training)을 2020년 2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필리핀, 미얀마, 미국, 한국에서 참석한 아홉 명의 현지인 선교사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훈련 시작 후 3주 후에 필리핀에서 봉쇄령이 선포되어서 예정되었던 강의와 세미나, 외부 훈련 일정 등이 모두 취소되었다. 필리핀 각 지역에서 선출된 훈련생들은 봉쇄령으로 말미암아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타국에서 온 훈련생들 역시 국경 봉쇄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훈련은 계획하였던 대면강의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 학생들의 발표, 코칭, 멘토링, 그리고 훈련생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course)으로 전환하였다. 실습이 필요한 과목들은 본 훈련원에서 사역하는 15명의 현지인 스태프들, 같은 장소에서 해외 타 문화 적응 훈련에 참여하고 있던 바울선교회 한국인 신임선교사 후보생들과 그들의 자녀 27명을 대상으로 전도 실습과 사역 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필리피노 선교사들을 영상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사역을 듣는 시간을 추가하여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방역지침 단계가 완화되었을 때 지방 정부의 허락하에 필리피노 강사진들 - 필리핀선교단체협의회, OM, New Tribe Missions Philippines, 어린이 전도협회 - 들이 본 훈련원에 대면강의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훈련’을 통해, 대면 훈련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익을 경험하였다. 그것은 바로 시공을 초월한 연합과 협력이다. 본래, 우크라이나에서 두 명의 현지인이 필리핀으로 와 훈련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마닐라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훈련을 통해 이들도 우크라이나에서 온라인 강의와 훈련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우리 필리피노 현지인 선교사들도 온라인 강의에 참석하였다. 이것은 결국 현장 선교사들에게는 선교사 연장교육의 효과를 가져왔고, 현장 선교사들과 훈련생들 간의 멘토링과 멘티의 관계가 형성되어 상호 유익을 주는 것을 경험하였다.

훈련과 파송예배를 마친 후에도 필리피노 선교사들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해외 출국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탄자니아로 출발하려던 다섯 명의 필리피노 선교사들은 출국 대기상태로 필리핀에 머물게 되었다. 그 중 한 명은 필리핀 복음주의형제교단(Philippine Evangelical Friends church, PEFC)에 소속한 선교사로서 베트남으로 파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에도 출국금지 상태가 지속되자 PEFC 교단에서는 필자를 찾아와 베트남으로의 출국이 허용될 때까지 이슬람 우세지역인 필리핀 내 민다나오섬에 일시 파송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하여 바울선교회와 PEFC 교단은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맺고 선교지를 베트남에서 민다나오 섬으로 임시 변경하여 해당 선교사

를 이슬람 지역으로 파송하였다. 더 나아가 바울선교회와 PEFC 교단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PEFC 교회들의 선교운동을 함께 주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바울선교회와 PEFC 교단이 국경이 열릴 때까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내 미전도종족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과감하고도 개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양자 상호 신뢰와 공동의 비전에 기초한 미션 파트너링의 정신 때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교회 미션코치 양성 훈련: 미션 플랜팅

2021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KMAP와 필리핀선교단체협의회PMA는 “The 1st Batch of Introduction To Strategic Mission<sup>ITSM</sup>”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필자는 KMAP의 선교 전략위원의 자격으로 PMA, 디지털 방송 사역단체인 Kalayaan Christian Network과 함께 본 훈련을 기획, 진행하였다.

ITSM 세미나는 선교 코치(mission coach)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필리핀 교단과 각 지역에서 추천받은 목회자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들이 목회하거나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체계적인 ‘선교 세미나와 선교 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개발하는 훈련이다. 1차 훈련을 마친 후 2차 훈련은 각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 2차 훈련이 마치고 각 교회에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미션 코치 자격을 KMAP, PMA, KCN이 공동으로 수여하고 지속해서 이 운동을 지역별로 확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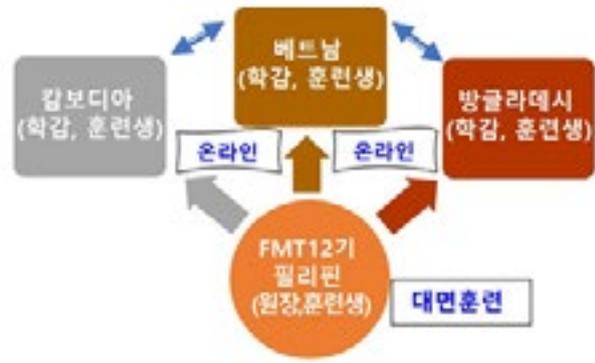
제1차 훈련에 106명이 필리핀, 미국, 한국,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6개 나라에서 106명이 참석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14개 도시, 14개 도에서 참석하였다. 특이한 점은 참가자 중 33명이 선교사들로서, 이것은 향후 필리핀 뿐 아니라 여러 선교지에서도 동일한 훈련 프로그램이 다발적으로 확산되고, 광범위한 선교 동원운동이 자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한다. 106명이 국가를 초월하여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지역 코디들이 참석자들을 선별하여 초청하였고, 참석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소식을 공유하고, 자료를 나누는 자발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 2022년 하이브리드<sup>23</sup> 선교사 훈련Hybrid Missionary Training

필자는 2022년 하반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제12기 현지인 선교사 훈련원 (FMT12기)을 시작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각국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필리핀에 모아서 대면훈련으로 진행하던 것이었다. 제12기 훈련은 필리핀에서는 필리피노 선교사들 대상으로 대면훈련을 진행하고, 온라인상에서는 현장 학감(Field Dean, FD)들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나라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도제(徒弟)식으로 지도하면서 훈련에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이 현장 학감들은 필리핀 현지인 선교사훈련원을 수료하고 현장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필리피노들과 그 나라 국적의 선교사들로서 학적으로, 그리고 사역 경험이 충분한 자들이다. 필자의 미션 플랜팅 사역과 선교 훈련 사역을 통하여 배출된 현지인 선교사들이 각자의 선교지에서 또

23. 필자는 ‘하이브리드’ (Hybrid)라는 말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진 것’으로 이해한다.

다른 현지인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학감으로 섬기는(미션 파트너링)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현장 학감들은 그 나라 기독교단과 친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에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교단 내에서 미션 플랜팅이 이루어지고, 현지 교단과 미션 파트너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4개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아침 경건회는 필리핀(아침 7시), 캄보디아(아침 6시), 베트남(아침 6시), 방글라데시(아침 5시)에서 동 같은 시간에 시작되며, 아침 강의는 필리핀(오전 10시-오후 1시), 캄보디아와 베트남(오전 9시-오후 12시), 방글라데시(오전 8시-11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러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저녁에는 네 지역에서 함께 접속해서 기도회를 갖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바울선교회 정신과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마지막 한 달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훈련생들이 필리핀에 함께 모여 훈련하면서 타 문화권 팀 사역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은 동일한 운동이 이들 현지인 선교사들을 통하여 재생산되는 것이다.

##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은 성경, 선교 역사,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타당하고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인 전략임을 볼 수 있었다. 미션 플랜팅과 미션 파트너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선교사와 현지 교회의 동등한 유기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며 이 상호 유기성은 교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드러내게 된다.

코로나의 위협으로 선교사에 의한 직접 선교와 대면 선교가 감소한 상황이다. 현지인들이 선교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자신이 사는 나라와 유사 문화권의 미전도 종족 복음화의 주체가 되며 주역이 되도록 한다면, 위드 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이 선교사역은 더욱더 역동적이고 강력하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Allen, Roland. *Missionary Methods*. Grand Rapids: Eerdmans, 1998(rpr.).

Bosch, David.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Orbis, 1991.

Kane, Herbert.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s*. Grand Rapids: Baker, 1975(2nd Edn.)

Neil, Stephen.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London: Penguin, 1990(rpr.).

Zurlo Gina A., Johnson, Todd M., and Crossing, Peter F. "World Christianity and Mission 2020: Ongoing Shift to the Global South,"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January, 2020).

랄프 윈터. 『비서구 선교운동사』 임윤택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2.

랄프 윈터, 스티븐 호돈, 한철호 공동편저. 『퍼스펙티브스 1』 정옥배, 변학욱, 김동화, 이현모 역. 서울: 예수 전도단, 2013(rvs).

루스터커. 『선교사열전』 박해근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2005(2nd Edn.).

폴 피어슨.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선교운동사』 임윤택 역. 서울: CLC, 2009.

아시아선교협의회 <http://www.asiamissions.net>

아시아선교협의회 2016 마닐라 선언문 <http://www.asiamissions.net/declaration-manila-2016/>

2021 제16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포항선언문(영문) <https://missionews.co.kr/news/583040>

<https://www.gordonconwell.edu/center-for-global-christianity/wp-content/uploads/sites/13/2020/12/Status-of-Global-Christianity-2021.pdf>

# 코로나19 이후의 선교신학 이슈와 시대를 아우르는 선교 전략 이슈

박 에 스 더

Glocal Leaders Institute 디렉터

GP USA 소속 선교사

전 세계적인 역병 코로나바이러스 사건을 겪으면서 설교를 통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과 말세가 가까운 징조라는 말씀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분이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바벨탑과 같이 인간이 쌓아 올린 교만의 탑을 반성하는 의미로도 들리지만, 이제 우리는 왜why보다는 어떻게how에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하나님의 역사 시간 속에서 겸손하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의 메신저이고 하나님 선교의 동역자들인 선교사인 우리가 이러한 시간에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를 성경적으로 풀어보며mission theology 어떻게 이 시대 상황에 대입contextualization해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 선교신학적 이슈

철학과 마찬가지로 신학도 자기 성찰self-reflection을 요구하는 학문이다. 어떻게 신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to do theology? 그러한 질문은 실천신학의 범주이다. 선교적 성경신학은 성경에서 선교의 정의와 목적 등을 찾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선교mission라는 단어는 성경에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 흐름에서 당연히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라고 했다 (행 20:27; 엡 1:9-10). 이러한 선교의 기원을 바탕으로 한 존 스토틀 목사의 “우리는 글로벌 비전을 가진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글로벌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글은 이러한 국제적인 눈으로 선교신학과 실천 방안을 생각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 선교신학이란?

2000년대에 필자의 박사 논문 중 한 챕터에 선교신학에 대해 보충하라는 시험관exam board의 의견으로 이 분야에 대해 몇몇 선임 선교사들에게 그들의 선교신학에 관해 인터뷰를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90년대에 선교지에 보냄을 받은 많은 한인 선교사들은 이 분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저 교단 신학denominationalism에 의한 교리를 그대로 선교지에 옮겨심는 것만 알고 있었다. ‘선교신학’이나 ‘선

교적 성경신학'이란 단어조차 생소해했던 기억이 있다.

과연 마태복음 28장에 근거한 대 위임명만이 (선교사 파송에 단골로 쓰이는 마 28:18~20) 성경에서 선교에 대한 근거로 인용할 만한 것이고,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게 된다. 이것은 선교학이라는 오래되지 않은 (실천신학에서 독립된) 학문을 가르치는 필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교신학이 무엇인가에 관해 앤드류 커크 Andrew Kirk는 “이 특정 학문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이런 목적이 어떻게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신앙인들의 질문에 답을 주어 이해를 돕는 학문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보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행동들의 지침이 된다. 이 학문의 목표는 더욱 나은 선교 지침의 기초를 다지고, 수정하며 발전시키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다.”라고 정의하며 하나님의 선교 성격과 목표를 말한다.<sup>1</sup>

## 성경적 선교 이해

### 1. 보냄send: 히브리어 살라흐와 라틴어 미토의 다양함

선교의 라틴 어원으로 ‘보낸다’라는 뜻의 mitto는 16세기 가톨릭 예수회 Jesuit 선교사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모든 크리스천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정확하게 선교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직접 가져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복음 전도(영어로 evangelism; 헬라어로 evangelion)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전도와 선교 과목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필자로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전도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단어인 선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곤 한다.

선교라는 단어 ‘보냄’의 성경적 예들을 살펴보면 먼저 히브리어 동사 ‘살라흐’는 보낸다는 의미이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례들을 신학적 차원의 보냄이라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 요셉은 기아에 허덕이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창 45:7).
- 모세는 억압과 착취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출 3:10).
- 엘리야는 국제정치에 항배에 영향을 끼치도록 보냄을 받았다(왕상 19:15~18).
-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렘 1:7).
-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눅 4: 16~19; 사 61:1).
- 디도는 신뢰할 만큼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고후 8:16~24) 교회를 관리 감독하게 보냄을 받았다(딤후 1:5).
- 아볼로는 교회 양육을 하는 전문적인 성경 교사로서 보냄을 받았다(행 18:27~28).
- 예수의 제자들은 구원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나타내 보이도록 보냄을 받았다(마 10:18~20). 또한 부활하신 예수의 모든 믿는 주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라고 보냄을 받았다(마 28:18~20).
- 그리고 수많은 익명의 형제자매들이 순회교사로 보냄을 받았다(요삼 5:8).

특히 사도행전에 의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개척하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특별 임무를 띠고 구제 사역에 동원되었던 사실을 볼 수 있다(행 11:27-

1. Andrew Kirk, *The Mission of Theology and Theology as Mission*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7), 7.

2. 크리스토퍼 라이트, 한화룡 옮김, 『하나님 백성의 선교』 (서울: IVP, 2012), 18.

30).

이렇게 보냄이 선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나 교회 개척만이 선교라고 단정 짓는 것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선교적 성경 신학의 관점에서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보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나 선교단체들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시대와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성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깊이가 있어야 하겠다.

## 2. 총체적 선교Integral Mission의 필요성: 전도Evangelism와 사회봉사Social Action 우선순위에 관한 소고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의 시대를 겪으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필자에게 처음 떠오르는 분이 존 스토틀John Stott 목사다. 필자는 요즘 들어 전도와 선교 과목을 강의하면서 그분의 저서 『현대사회의 기독교 선교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를 떠올린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이 책은 1975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2015년에 InterVarsity Press에서 증판되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교회 개척과 제자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선교를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로 들면서 사회 약자들에 대한 사회봉사에도 비중을 함께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이 책을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해오고 있었다. 신학생들이 속해있는 교단의 다른 선교 정책들을 고려해서 교과서로 지정해 강제로 모두에게 그의 총체적 선교Integral Mission에 동의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기에 복음주의 진영에서 다시 한번 존 스토틀 목사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존 스토틀의 대위임령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대위임령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의 모델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 예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에 나타난 대로 교회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신 예수그리스도처럼 해야 한다(요 20:21; 눅 4:18-19).

복음 선포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가위의 양쪽 날개와 같이 다 같이 필요하다.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은 전도의 동반자이다. 이 두 가지는 파트너이지만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다. 함께 가지만 각자의 위치가 있다. 서로가 다른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거나 현시로 보이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필요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뜻한다. 영생에 관한 소식을 급하게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 없이는 멸망한다는 것을 꼭 전해야 하겠지만, 또 다른 때에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복음을 전해 들을 상황이라면 이 두 가지가 당연히 함께 가야하며, 때와 장소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sup>3</sup>

대강령Great Commandment와 대위임령Great Commission의 상관 관계에 대한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요한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즉 아들이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섬김의 모델이 되어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셨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그리스도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겸손하게 섬길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기에 대위임령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레 19:18) 대강령을 전제로 실천해야 한다. 이웃 사랑은 산상보훈에서 잘 보여준다. 원수도 이웃에 포함된 아주 포괄적인 의미의 이웃에 대한 정의이다. 이웃을 사랑하면

3. John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Updated and Expanded* (IVP Books: kindle edition, 2015). 22-26.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역ministry이라는 단어를 섬김service으로 이해하고 몸과 영혼이 연합한 자들에게 선교사나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실천할 수 있게 접근해야 한다.<sup>4</sup>

전도와 사회봉사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sup>5</sup> 특히 존 스토틀 목사와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 두 거장이 중심이 되어 150개국에서 모인 2,400명의 복음주의 교회 및 선교단체들의 스위스 로잔에서 만든 1974년의 로잔선언문에서도 두 가지 모두 필요하기에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분리할 수 없다고 정의한다(로잔선언문 3. Integral Mission).

이 문제는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1982년 미시건 주 그랜드 래피드Grand Rapids, Michigan에서 열린 CRESRConsul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에서 ‘사회적 책임은 전도에서 초래되는consequences of 것,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파트너적인 것’ 이라고 결론 내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선교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균형balance을 맞추거나 따라 하려는 노력을 별로 보지 못한다.

필자를 포함한 보수진영의 복음주의 선교사들은 일단 WCC 진영의 사회적 책임social action 우선주의를 경계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가서 제자 삼으라.”에 대한 이해를 현지 교회 개척과 신학교 운영 등에 집중했다. 존 스토틀 목사 역시 1975년까지도 본인도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했다고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다. 필자도 최근까지 “나는 NGO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최악의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선교지를 향해 이제 존 스토틀 목사는 “때에 따라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급박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좋은 이웃의 책임을 다하고자 지구촌 가족의 책임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중이다.<sup>6</sup>

## 선교 영역에 관한 성경적·시대적 이해

### 1. 사도행전 1:8절에 의한 선교 영역에 대한 소고<sup>7</sup>

선교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명하기 위해 랄프 윈터의 E-scale 을 사용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루살렘, 유다 지방, 사마리아, 땅끝은 지리학적인 경계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을 말함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땅끝까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에 따라 지역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사마리아는 지리학적으로는 유대인 지역과 거리가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 보듯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남자와의 문화적 거리는 상당히 보인다. 윈터는 이러한 복음 전달에 있어서 문화적인 선입견과 어려움을 E-scale 로 정의하였다.

- E-1 전도는 예루살렘과 유대로 자유롭게 같은 언어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웃 전도’ 라고 한다. 현재 우리의 상황대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다는 한 가지 장벽만 넘으면 된다.
- E-2 는 사마리아를 들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멀지 않지만 언어dialect와 문화적 이질감이라는 두 가지의 장벽을 뚫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다.
- E-3 야 말로 ‘세상 끝’ 이라고 불리는 오지 선교지라고 말할 수 있다.

4. Ibid, 28-30.

5. 특히 자유주의 신학 진영의 ‘만인구원설(universalism)’ 을 주장하는 쪽에서 사회적 책임 우선에 무게를 두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볼 수 있다.

6. 필자가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GLI(Glocal Leaders Institute) 를 통해 적지만 선교지에 재난 지원에 나서고 있다.

7. Ralph Winter, “The New Macedonia: A Revolutionary New Era in Mission Begins” <https://s3.amazonaws.com/files.frontierventures.org/pdf/TheHighestPriority.pdf> accessed 08/12/2020

결론적으로, 대위임령은 각 나라에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각 족속<sup>ethne</sup>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라고 윈터는 강조한다.

## 2. 열방과 이방인에 대한 이해

하나님 선교의 최종 성취 목표는 모든 열방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는 것( 롬 1:5)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을 위해 어떻게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헬라어에 있어서 이방인과 열방은 동일 단어임에 주목하라고 독자들에게 말한다. 이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 선교지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통찰력이다. 이방인은 국경을 넘어 먼 지역에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계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는, 나의 이웃도 같은 지역에 살지만 많은 이방인에게 둘러싸여 있고 소통이 조금은 불편한 이웃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8</sup>

## 3. 랄프 윈터의 E-scale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적용

필자가 소속된 북미, 특히 미국의 예를 E-2 전도에 적용해 보자. 미국에는 다른 문화권의 소수 민족들이 무한대로 (\*필자는 이것을 사마리아 선교라고 부른다) 살고 있고, 같은 언어인 영어를 구사한다고 해도 지역적으로만 가까울 뿐 사회적 이질감을 가진 E-1/E-2 에 속한 선교지인 경우가 많다. 이 사마리아 선교에 대해서는 아래의 선교 전략 부분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 실천신학적 이슈들 –“Doing Theology, Coram Deo”

하나님의 선교<sup>Missio Dei</sup>를 실행하는 실천신학적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컨텍스트<sup>context</sup>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포스트모던<sup>post-modern</sup>, 세계화<sup>globalization</sup> 등으로 알려진 이 시대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해서 사회 발전과 함께 선교 전략도 개발되어야 한다.

## 세계화에 관하여

토마스 프리드먼<sup>Thomas L. Friedman</sup>는 기술 발달로 인해 비즈니스 패턴<sup>business pattern</sup>이 국제화 돼서 다국적 인재들을 통해 세계 어디서든지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이 세계화의 한 단면이라고 그의 책에서 말한다.<sup>9</sup> 세계화가 비즈니스 세계뿐 아니라 선교에도 여파를 가져온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하다면 세계화하는 이 환경은 선교적인 입장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세계화는 크리스천에게 좋은 일인가, 아니면 나쁜 일인가? 이번 지면에서 세계화 현상에 관한 것을 다 논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선교와 관계가 많은 부분만 다루도록 한다.

켄 엘드레드<sup>Ken Eldred</sup>는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 그는 세계화가 킹덤 비즈니스<sup>kingdom business</sup>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킹덤 비즈니스의 정의는 “경제 개발 도상국인 선교지에서의 크리스천 기업인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면의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 보는 입장을 표명했다.<sup>10</sup>

8. 크리스토퍼 라이트, 한화룡 옮김. 『하나님 백성의 선교』 (서울: IVP, 2012), 367.

9. Thomas L. Friedman,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5), 5.

10. Ken Eldred, *God Is at Work* (Ventura, CA: Regal, 2005), 61. Quoted in “Globalization and Missions” by Robert Reese, <https://fivestonesglobal.org/wp-content/uploads/2016/11/Globalization-and-Missions-revised.pdf> accessed 7/15/2020

필자의 필리핀 선교지에서의 경험은 이 견해에 반대하며 무척 우려한다.

## 1. 국제 기업들의 아웃소싱 유혹과 선교의 상관관계

아웃소싱out-sourcing은 자국보다 싼 고급 인력들을 영입할 수 있으므로 수많은 미국 회사들이 몇 주만의 훈련과정만 거치면 가능한 단순 노동인 텔레마케팅이나 소비자 상담에 투입될 수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필리핀에 우후죽순으로 발을 뻗쳐왔다. 교사나 간호사보다 더 많은 봉급을 미끼로(?)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당장의 이익을 좇아 전문직, 심지어는 목사직까지 뺏겨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런 현상을 두뇌 유출 brain-drain이라고 부른다. 이미 많은 전문직 젊은이들이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다른 영어를 쓰는 나라들로 이주하여 두뇌 유출이 나라 밖으로 일어나는 동시에 나라 안에서도 수많은 국제 기업들에 교사, 엔지니어, 간호사 등등 전문 요원들을 이러한 아웃소싱 회사들에 빼앗기고 있다.

필자도 열심히 제자화한 명문대 대학 졸업생들이 썰물 빠져나가듯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두뇌유출을 뼈아프게 경험했다. 특히 신학교육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안타까움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필자가 이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돈의 유혹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과 미국 근무시간에 맞춰 밤과 낮 구별없이 불규칙한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해서 건강과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치명적이다. 과거에 인도에 많던 회사들이 인도인들보다 억양이 조금 부드러운 필리핀을 선호하면서 국제 기업들이 밀려들고 있다. 선교사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다시 이들을 그리스도 중심Christ-center의 삶으로 전환하는 일에 나서기를 바란다.

한 사례를 들자면 A는 필자의 도움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인재로 신학교에서 강사로, 교회의 설교자로, 일반 대학에서 강사로, 또한 필자와 함께 캠퍼스 사역을 열심히 하던 젊은 아빠였다. 좀 더 나은 경제적 운행을 위해 아웃소싱 회사에서 관리자supervisor로 일하게 되었다. 주야로 교대되는 스케줄로 불규칙한 일상 때문에 교회와학교를 모두 떠나 일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집은 그저 부족한 잠만 자는 곳이 되어 버렸다. 또한 밤에 일터에서 만난 동료와의 불륜으로 가정이 깨졌고, 그것이 알려지면서 교회에서도 지도자로서의 발판을 잃고 나서야 영적 상담을 하게 되었다. 돈을 섬기면서 온 피해를 직접 체험하고 돌아선 경우이다. 제자로 키운 많은 젊은이가 이처럼 두뇌 유출로 나라 안팎으로 빠져나가는 현실로 인해 무척 혼란스러웠던 필자의 경험을 나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열심히 소그룹 리더로 길러낸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사명을 언젠가는 깨닫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가끔 소식으로 듣게 된다.

## 2. 후 식민주의와 신 식민주의<sup>11</sup>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현상이 제국주의의 지속화라고 본다. 제인 콜리어Jane Collier와 라파엘 에스테반Rafael Esteban은 인간을 경제적 존재로만 보는데 선교도 아직 제국주의적 지배적 구조로

11. Nkrumah E. Said, "Difference Between Post Colonialism and Neo Colonialism."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Difference-Between-Post-Colonialism-and-Neo-Said-Nkrumah/4b1f2ceb53a1eab482b66c423bf3754a95c5799f> accessed 08/15/2020

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은 피해를 불러온 제국주의에 공조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sup>12</sup>

과거에 오랜 기간 식민지국이었던 경우, 그 휴유증은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그들의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는 것을 본다. 특히 자신감과 국가 의식 부족과 지역주의 중심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심리적인 위축이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 학자들은 식민주의가 많은 병폐를 가져왔는데 사회적 관계성과 자본의 이동, 전통의 파괴 등등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sup>13</sup>

- 후 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식민주의자들이 지배지를 떠난 후에도 지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인데, 독립하였음에도 아직 나라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모든 분야에서 간섭을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 신 식민주의Neo-colonialism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를 뜻하며, 후 식민주의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식민주의자들이 떠났지만 이미 그들에 의해 길든 모든 물품을 지속해서 수입해서 써야 하는 경우가 그 특징이겠다.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이지만 유일하게 차tea 문화 대신 콜라와 설탕이 듬뿍 들어간 아이스티가 대세이다. 미국에서 살다간 필자는 정착 초기에 모든 미국 제품 (치약마저도) 을 대형슈퍼가 아니라도 아무 상점에서 판다는 사실에 놀란 경험이 있다. 다만 아주 작은 사이즈여서 의아했다. 미국과 같은 사이즈는 비싸므로 능력에 맞춰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드는 마케팅으로 미국 것을 지속해서 소비하게 만든 것이다.

선교사들은 주로 이러한 오랜 식민지화 되었던 상처를 지닌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된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들 선교지 국민들이 너무나 예민하다sensitive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 특히 영어가 완전치 못한 한인 선교사들이 여러 번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말투가 지시하는 어투라고 현지 지도자들이 반발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필자가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불만을 여러 번 들었는데, 이 때마다 나름대로 한국 선교사들을 변론하기는 했다. 하지만 “Please” 를 붙이는 미국인들을 상대하던 이들은 한국 선교사들의 지시하는 듯한 언어 구사가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불쾌해했다. 한인 선교사들에게 영어나 따갈로그 둘 중 한 언어를 잘 구사해줄 것과 현지 지도자들을 동료로 보고 고용인으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까지 교단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교단에 속한 한인 선교사들 앞으로 보내온 적도 있다.<sup>14</sup>

- 맥도날드화: 극치의 실용주의가 미치는 영향

조지 리처George Ritzer의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 는 모두 다 아는 맥도날드의 패스트푸드fast food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삶 전반에 걸쳐 만연한 실용주의를 뜻하는 현재 ‘사회의 맥도날드화’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1996)를 비판하는 글이다.<sup>15</sup> 리처의 연구는 20세기를 넘어 21세기

12. Jane Collier and Rafael Esteban, From Complicity to Encounter: The Church and the Culture of Economism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8), 11 Quoted in “Globalization and Missions” by Robert Reese, <https://fivestonesglobal.org/wp-content/uploads/2016/11/Globalization-and-Missions-revised.pdf> accessed 7/15/2020

13. Leonard A Tuggy and Ralph Toliver, Seeing the Church in the Philippines (Manila: OMF, 1972), 2; Landa F Jocano, Management by Culture (Manila: Punlad, 1999)

14. Kyo-sung Lee, “Missionary Work in Partnership: A case study of the Korean Presbyterian Missions Working Together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Philippines” (DMin diss. Fy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185.

15. Mark Alfino, John S. Caputo, and Robin Wynyard. Eds. McDonaldization Revisited: Critical Essays on Consumer Culture (); Douglas Kellner,

에도 자주 등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도 동의어로 쓰일 만큼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인용된다.

맥도날드화의 네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다.

- Efficiency 효율성 - 성공의 잣대는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개인의 사사로운 것들은 배제된다.
- Calculability 생산성 -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극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품질의 우수성보다는 대량 생산이 목표이다.
-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 - 모든 제품은 찍어내듯이 동일해야 하고 규격이 맞아야 한다. 독특성이 아니라 찍어낸 듯 일률적이어야 한다
- Control 통제성 - 예측 가능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 없는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든지 사람을 쓰더라도 생산량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맥도날드 사회 현상이란 이것이 정치,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있다는 의미로 맥도날드가 집단 동질성, 동일함, 균일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개성이나 특수성, 그리고 서로 다른 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교회나 선교 전략에서도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다. 맥도날드 기업이 질 좋은 햄버거를 만드는 것에 노력하기보다는 빅맥을 많이 파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을 비판하는 시각이 많은 것은 현시대의 실용주의 pragmatism에 대한 회의 때문이라면, 세계선교의 모든 결정이나 전략을 오로지 그래프로만 평가하거나 실적으로만 따지려는 이 사회의 실용주의 노선이 이미 우리에게도 전염되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좀 더 창의적 접근(특히 미전도 종족들을 위한 특수성을 위한 미디어 선교)이 필요하다. 교회 개혁과 상관없다고 차별받는 여러 특수 선교 분야에 교회가 인내를 가지고 후원해야 한다. 선교회는 선교지에 관한 연구와 선교사 훈련에 좀 더 문화 인류학적으로 접근해서 선교 후방 사역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질적인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리고 싶다. 그동안 양적 위주의 보이기식 선교였다면 이제는 40여 년이 넘는 세계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질적인 면에 치중하고 시대에 편향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강한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단순 무지한 시각에서 벗어나 각 단체가 함께, 또한 세계 단체들과 연합하여 좀 더 하나님의 선교에 촉각을 세우는 질 높은 수준의 세계선교를 연구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

### 3. 이동

세계화의 한 여파로는 많은 사람의 이동 migration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선교의 중심지였던 10-40 원도우에서 많은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2/3 세계에서 유입된 다민족들을 볼 수 있다. 식민지 시대가 끝난 1950~60년대에 식민지 국가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수백만의 인구가 자신들을 다스렸던 나라들로—같은 언어와 어느 정도 문화를 이미 익힌바 된 지라—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선교 전략의 필요성을 느끼고 선교사들을 보내온 지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는 비단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무슬림과 힌두교에서도 유럽의 여러 국가, 특히 영국과 프랑스 등으로 이들을 포교하기 위한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교회들은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많은 인력을 남미나 유럽으로 투입해 왔고, 이러한 형태는 이민자들

“Theorizing/Resisting McDonalidization: A Multiperspectivist Approach <http://www.gseis.ucla.edu/faculty/kellner/kellner.html> accessed 08/15/2020

이 이주한 나라에 동화되지 않고 스스로 떠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특히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2/3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의 교회들은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제외하면 많은 숫자의 소수민족 교회들이 아직 그리 크지 않은 소형 교회들로 존립하고 있고, 세계선교에도 아직은 적극적이지 못한 미약한 상태이다.

### 선교사 배치에 대한 조언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부터 (특히 2019년도) 중국에 거주하며 사역하던 많은 선교사가 정부의 탄압 때문에 파송 국가로 돌아가거나 미국 또는 필리핀 등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발이 묶인 상태에 있다. 필자가 있는 캘리포니아에도 적지 않은 중국 선교사들이 학생 비자로 신학교 등에서 공부하며 체류 중이다. 그들은 새로운 후임지를 고민하며 많은 스트레스가 있음을 본다. 그들 중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로 임지를 옮기기 위해 파송 교회를 찾기도 하고 언어와 문화를 새로 익히는 등 준비과정에 있다. 이제 중국은 외국인에 의한 선교의 문을 닫았다고 전망하고 있기에 돌아갈 희망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과거에 많은 선교사들을 아시아와 유럽으로 파송하였던 미국과 유럽을 선교지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고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필자의 경우도 소속 단체에서 북미주를 선교지로 보고 2017년 이사회에서 북미주 파송 선교사로 인준을 받았다. 그리고 필자가 파트너 선교사로 있는 미국 교단 CRCNA(Christian Reformed Church of North America)에서도 역시 같은 해에 북미를 선교지로 인정하고 필자의 제자 양성, 소그룹 인도자 양성, 유학생 사역 등을 후원하고 있다. 그동안은 미국은 선교사들의 무덤으로 볼 정도로 안식년에 미국을 방문한 선교사들이 이곳 한인 교회들의 청빙에 의해 선교지로 귀임하지 않는 것을 죄악시(?) 해왔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선교지로 인정하는 기류가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그리스, 독일, 터키 등 어마어마한 숫자의 난민들이 난민 캠프나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고 있어 이들 다민족, 다국적자들을 위한 선교 방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필자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그리스에 온 형제들이 그곳에 나가 있는 한인 선교사를 통해 지원받아 신학 교육의 기회를 얻었다. 이제 한국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도 이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선교사 파송 및 단체들을 통한 후원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 사마리아 선교 Samaria mission: ‘이웃’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이해

누가복음 10(10: 25-37)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유대인 율법 학자의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관해 먼저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것과 함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 막 12: 31; 신 6:45; 레 19:18)라는 대강령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이웃을 내가 사는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 유대인에게는 오로지 유대인만이 이웃이기에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을 빗대어 예화를 드신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유대인 질문자에게 어려움을 당한 자와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대강령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들려주셨다. 어려움을 당한 유대인을 도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는 개와 같이 상종하지 않는 ‘unclean 불결’의 상징이자 상당히 불편

한 민족이었다. 지역적으로는 가까운 이웃이지만 아주 먼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에 이 예화를 대입해 보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Korean-American)의 처지에서 본다면, 주변에 거주하는 이웃이 모습도 다르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또 그들만의 음식으로 인한 냄새를 풍김으로 인해 먼 이방인들로 취급한다. 오로지 한인, 특히 교인들만을 내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을 나누지는 않는지 이 예화를 통해 이웃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웃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길 바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전도의 영역도, 선교의 대상도 이 이웃 사랑에 의해 다시 조명해 볼 수 있다. 많은 선교 기관과 교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 선교의 영역을 “세상 끝까지”에 집중하여왔다. 멀리 아프리카와 아시아 정글에까지 주님의 오시는 maranatha 그날을 위해 서방 교회, 한국 교회 할 것 없이 “세상 끝”에 집중해왔다.

앞에서 세계화로 인한 이주 현상으로 수백만 명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했고, 이들을 위한 선교 전략들도 따라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노동자들의 이동으로 한국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사 배치 및 그들 안에서 배양된 지도자들에 의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지도했던 방글라데시에서 필리핀으로 유학 왔던 한 형제도 한국으로 들어가 이제는 모 교회에서 방글라데시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일한다. 또 필자가 소속된 지피선교회의 몇몇 선교사들도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에 동원된 사례들을 봐도 점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선교에 눈을 돌리는 모습이 10년 사이에 많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

### 신학 교육에 대한 소고

많은 수의 선교사들과 교회, 그리고 선교기관들이 신학 교육에 몸을 담고 있기에,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교사로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신학 교육에 관해 잠시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그동안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선교지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규 신학교육을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많고 여러 변수로 인해 많은 신학교육 기관이 축소되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제 질문은 지금의 신학교육 커리큘럼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이다. 그리고 졸업 까지 몇 년간 직접적인 커뮤니티 사역이 아닌 상아탑에 갇혀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학문과 씨름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부딪치는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교회 리더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선교지의 신흥 교회의 70~90% 정도는 교역자들이 어떠한 신학교육도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실정이다. 오랜 기독교 역사를 지닌 선교사 파송국들의 교회에는 노인층들이 주를 이룬다는 이슈도 기다리고 있다.

2006년도 IC 저널에 실린 머독연구(Murdock Study) (800여 명의 목사, 신학 교수,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신도와 목사와 교수들이 바라는 신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머독 연구에 따른 우선순위<sup>16</sup>

평신도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목회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신학 교수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1. 영성	1. 모범이 되어야 함	1. 신학적 지식
2. 인간 관계 형성에 대한 기술	2. 경영 기술	2. 인격 <sup>character</sup>
3. 인격	3. 커뮤니케이션 기술	3. 리더쉽
4. 커뮤니케이션 기술	4. 영성	4. 커뮤니케이션 기술
5. 신학적 지식	5. 신학적 지식	5. 카운셀링 기술

콜Kohl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신학 교육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들이 막상 이해는 하지만 고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말하고 토론하기는 좋아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없다.
-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 이슈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모금을 한다거나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인다.

결국 신학교 교육자들이 현시대에 맞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이는 현시점에서 많은 신학교가 직면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 설정이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신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필자가 속한 북미 신학교와 선교지에 글로벌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1. 고객 맞춤에 필요한 커리큘럼

이미 짝 짜인 커리큘럼에서 어떤 과목을 빼고 넣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하여 콜은 학계<sup>academia</sup>만이 아니라 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산하기 위한 자체 신학교를 설립하기에까지 이르렀다.

### 2. 영성 개발

앞의 머독 연구에서 보듯이 영성 형성은 교회가 (평신도와 목회자가) 중요시하는 항목으로 나와 있다. 훌륭한 교수의 명강의는 늘 만원사례지만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학과 현실과의 연결고리와 실천에서의 경험 나누기나 교감 나누기는 극히 몇몇 교수를 제외하고는 (학생처장이나 영성 관리를 담당하는 교수 외)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졸업 후 사역하는 과정에서도 성품<sup>charatcer</sup>과

16. The Murdock Charitable Trust The study was conducted in 1994 : M. J. Murdock Charitable Trust, P.O. Box 1618, Vancouver, WA 98668 or www.murdock-trust.org. quoted in Manfred W Kohl, ed. “Radical Transformation in Preparation for the Ministry” *International Congregational Journal* (Fall2006, Vol. 6:1), p39-51.

영성 관리를 혼자 해 나갈 자기 훈련discipline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라 본다. 다행히 필자가 공부한 신대원 경우는 대학생들을 위한 영성 훈련spiritual formation 수업이 있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매월 하루씩)을 가졌고 필자의 개인 영성 훈련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필자도 교회 카운셀링pastoral counseling 하는 선배가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조언과 경험을 나누어 심적 지도mental map도 그리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 3. 선교·전도·이웃 보살핌 중심

전도와 선교는 교회 목회자의 교인 양육과 더불어 빠질 수 없는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인데 신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과 실전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 할 수밖에 없다. 필자의 학생이었던 필리핀 현지 목사님이 “선교사 교수들은 전도하는 것을 안 배웠냐?”라며, “왜 현지인 목회자들에게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전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지도 않고 모범도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질타를 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그 학생은 필자의 캠퍼스 사역을 보면서 교수 활동 외에 다른 사역을 하지 않는 몇몇 교수 선교사들을 표적 삼아서 한 이야기였을 것이지만, 모든 선교사에게 하는 질문 같아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복음주의교회Evangelical Church of India, ECI의 비숍인 에즈라 살구남Ezra Sargunam 박사는 모든 목사는 반드시 선교사여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신학교와 교단에서는 졸업 전에 반드시 교회 개척이나 아웃리치outreach 사역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로 인해 인도 복음주의교회 교단의 교회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미 5년제 M.Div. 프로그램에서도 졸업 전에 반드시 교회 개척을 해야 졸업장을 수여한다는 엄청난 선교의 진보를 우리는 전해 들었다.

### 4. 결과 검토와 사역의 효과성

콜은 중동, 필리핀,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4지역의 신학교들을 집중적으로 한 지난 15년간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결론을 내었다. 특히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사항을 통해 어느 정도 답을 유추해 보는 노력을 하였다.

- 신학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 신학 교육에서 가장 가치가 있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현재 사역에 비추어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 만약 다시 신학 교육을 받는다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 앞에서 나온 머독 연구와 그리 다르지 않은 답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와 졸업생들의 사역과 공부의 효과성 같은 것들은 지속해서 검토하여 교과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 창조적 선교 전략: 북미주 교회를 위한 제언

### 1. 좋은 사례: 이민자 보호 교회

『한국기독교저널The Korean Christian Journal』에서 “이민자 보호 교회를 소개합니다”라는 글을 접했다.<sup>17</sup> 2015년 9월 2일, 3살 아기인 시리아 난민이 터키 서부 해안 도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진으로 세계적으로

17. 손태환, “이민자보호교회를 소개합니다” *The Korean Christian Journal* (July 2020), 11.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지게 했던 사진에 달린 기사 제목이 “세 살 아이 받아준 곳, 천국밖에 없었다.”였다. 자격 미달과 있을 곳이 아니라고 내몰린 서류 미비자들이 이민자의 천국이라는 미국 내에만 1천 2백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시민단체와 법률가들과 연계하여 어려움에 부딪친 이민자들을 돕는 이민자 보호 교회인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소개한 글이다. 이민자 보호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에서 기본 아이디어를 빌려온 운동이라고 한다(민수기 35장). 최근에는 코비드 covid-19 관련 경기부양책에 관한 상담 신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주 한인 교회들도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소수 민족이 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보냄받은 자 sender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에 보내진 역할)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2. 글로칼 glocal

선교사로서 이번 사건을 보는 통찰력은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글로칼(global + local = glocal)의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생긴 단어이다. 필자가 2017년에 15년 섬긴 필리핀 선교지를 떠나 오랜 주거지이자 파송지였던 캘리포니아에 돌아와 설립한 Glocal Leaders Institute ([www. Gli.center](http://www.Gli.center))에도 그 개념을 담고 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캐치 슬로건을 담고 있는 이 단어는 사고와 전략은 세계적으로 그러나 행동과 경영은 지역 상황에 맞게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 단어는 사회학자 롤랜드 로버트슨 Roland Robertson에 의해 알려져 사용되고 있는데, 1990년대 일본 기업의 세계화 작업을 관찰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앞에서 밝힌 TEE, 난민 지도자와 신학교 없는 지역의 선교지 현지인 양성을 위한 온라인 신학 교육, 유학생 사역 등등을 통해 북미 지역 local에서 사역하지만 국제적 global 영향력을 어우르는 글로칼한 선교 전략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 선교: GLI 는 최근 현지 지역의 교수들을 영입해 함께 사역한다. 이 사역은 로컬 과 글로벌을 함께 어우르는 사역의 좋은 예이다. 남가주의 인도네시아 교회 목회자 중 많은 숫자가 정식 신학 교육을 마치지 않고도 그동안 목회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 성장하는 교회로서 목회자들 스스로가 신학 교육의 절실함을 호소하였고, Grace Mission University와 연계해서 학사, 석사 학위 과정을 인도네시아 언어로 할 수 있게 되었다. 17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현지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을 통해 질 좋은 신학 교육을 받게 되었다.<sup>18</sup>

국경 없는 선교: GLI 를 2017년에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팬데믹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이번에 코비드-19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임을 새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앞에서 시작된 인도네시아인 선교와 함께 GMU 의 강의를 통해 만나게 된 중동 이슬람권 난민들의 예를 든다. 2020년에 교회사 수업에 온라인을 통해 7명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터키와 그리스로 망명 온 난민 M. Div. 과정 학생들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이들을 지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아마존을 통해 킨들 kindle을 구해보는 것도 배달이 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쉽지 않고, 열악한 온라인 환경으로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와 함께 좀 더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였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욱 연민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고 교수와 학생 관계를 넘어

<sup>18</sup> GMU 에서는 선교지의 GNP 에 따른 장학금 책정으로 80-90% 이상 학비를 삭감해주고 있다. 예: 인도네시아 학생 (현지) 한 학기에 \$420, 북미에 있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2,000 이상 (30% 장학금) 이 적용되고 있다. 2021년 가을 학기에 20명을 예상한다.

이제는 멘토의 역할까지 의뢰받게 되어 이들의 영적 성장과 앞으로 기대되는 중동 선교 전략에 한 줄기 빛을 보게 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sup>19</sup>

줌Zoom을 통한 소통의 장: 작고 큰 모든 모임이 줌이라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소통 방식을 통해 지역 또는 글로벌 규모로 교회와 교육계가 팬데믹 기간 내내 우리의 발과 입의 역할을 활발히 해주었다. 그중 한 가지 새로운 시도는 선교사와 그들을 후원하는 소그룹들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동역 교회조차도 선교사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몇 년에 한 번 방문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거나 새로운 교인들로 소그룹 멤버들이 교체되었기 때문에—이번 기회에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줌으로나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무척 신선하게 다가온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하였듯이, 마음껏 여행하던 시기에도 하지 못하던 일들이 줌 등의 새로운 소통 형식으로 지역 경계 없이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궁금한 질문이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 많은 교회가 이러한 새로 생긴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교사들과 교인들과 대면 기회를 주면 더욱 현장감 있게 선교에 동역할 수 있다고 본다.

유학생 사역International Student Ministry, ISM: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만도 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 공부하고 있다. 이 사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몇몇 단체와 교회들도 자체적으로 꾸준히 진행했다. 미국 내 한인 교회들은 관심은 있으나 아주 적은 숫자의 교회만이 참여하고 있다. 필자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당시에도 마닐라가 영어로 교육하기에 적합한 곳이라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네팔에서 온 유학생을 만나 한 의과대학에만 150명의 네팔 학생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들과 교제하며 (특히 한류 바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소그룹을 통한 제자화와 여름 캠프와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공휴일을 통한 짧은 캠프 등을 통해 힌두, 불교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유튜브를 이용한 미디어 사역으로 기독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는 ISM 사역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 이후 졸업하여 돌아간 학생들을 방문할 기회도 가졌다.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의 신앙생활을 위한 복안을 생각하게 되었고, 네팔 방문 시 그곳의 한인 선교사에게 그들을 소개하여주고 지속적인 멘토링을 부탁하였다.

미국으로 돌아온 2016년부터 ISM 사역을 새로운 선교지인 북미주에 맞춰 다시 세팅setting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2017년부터 GLI 를 통해 북미, 특히 LA 인근에 있는 대학들을 상대로 ISM 단체들과 함께 매년 모임을 하고 아이디어와 진행 과정과 문제점 등을 나누어 오고 있다.<sup>20</sup> ‘하나님이 우리 앞에 데려다 놓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나눠주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제자화로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서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먼 선교지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선교지에서와 같은 타 문화권 제자화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미 몇몇 교회를 순회하며 ISM에 대한 중요성과 선교전략으로서의 이점 등을 나누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교회는 1~2개 교회뿐이었다. 더 많은 선교단체들과 교회가 협력하여 ‘하나님이 나의 문 앞에 데려다 놓은 이방인들 (열방)’에 대한 사역이 확장되었으면 한다.

19. 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글쓰기를 위한 website 을 (이들을 학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www.jesusischrist.com](http://www.jesusischrist.com) 을 방문하면 그들의 life story 와 글 들을 볼 수 있다.

20. 매년 LA 지역(Orange County)에 ISM 연관된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InterGen Conference 를 진행하고 있고, GLI 도 초창기부터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Lausanne Movement ISM 분과에서도 지난 모임에 초대받기도 하였다.

## 결론

코로나-19을 계기로 미주에 있는 학교들의 강의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자도 캔버스 Canvas, 줌, 포폴리Populi 등 교육 시스템들을 새로이 익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적잖이 당황스러웠으나,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점차 비대면non-contact 방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왔기에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도 많은 수의 성도들은 그동안 익숙해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예배를 선호할 것이다. 이미 그러한 정황은 캘리포니아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면 예배를 허락하였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많은 보이지 않는invisible 성도들이 있다. 이제 과거로 온전히 돌이키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고 피부로 느낀다. 그래서 교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가야 하는 새로운 예배 방식에 익숙해져야 하게 되었다. 물론 대형교회는 팬데믹 이전에도 실시간 방송live stream을 진행해왔지만, 이제는 모든 교회가 돌아오지 않는 많은 보이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양육, 지도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절대 생각지도 못했을 일들이었다. 하나님의 선교는 환경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고 끝날까지 지속적이고 창의적이라 믿는다. 앞에서 살펴본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있는 일들이지만, 특히 이 재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의적인 선교 전략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지 이제 다시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필자 자신과 이 글을 읽는 하나님 선교의 동역자들에게 촉구해본다.

#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 요구되는 선교사의 전문성

차 남 준

선교사경력전환센터 대표

## 서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삶의 여러 측면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기대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인류는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급물살에 휩쓸려 원하던 원하지 않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안으로 어느새 들어오게 되었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속한 도래는 교회와 선교사 개인에게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변화에 적합한 선교 전략을 구현할 과제를 안겨주었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세계 전체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중 보건 및 행정 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 국가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아주 발달한 국가들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범유행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정치, 안보 등 모든 부분에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제이슨 쉐커 Jason Schenker는 ‘NOISE’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평온한 일상에 코로나19가 소음 noise 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Necessities 필수품 (식량, 물, 에너지, 주거지, 안전), Occupation 직업 (일자리, 소명, 취미), Information 정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 System 시스템 (금융, 보건, 대중교통, 교육), External 외부 요인 (국제관계, 군사, 공급망, 무역)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2020 : 133~137).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거대한 변화 앞에 선 교회는 당장 앞에 보이는 문제만을 처리하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변화 속도와 모습을 예측하고 기존의 선교 전략을 과감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선교사의 숫자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그동안의 선교 프로젝트들이 축소되면 어떡하나? 혹시 선교비의 중단으로 선교사가 떠나게 되면 현지 교회는 어떻게 되나? 등 표면적이고 단순한 고민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선교사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역할을 확인하고, 자신의 전문성이 다가오는 미래에도 적합할지 능동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선교적 전문성과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교사가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에 대한 문헌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혁명의 역사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봄으로,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앞당겨진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지 예측할 수 있

을 것이다. 그 다음에서는 선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세상에 대한 선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에서 요구되는 선교사의 전문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4차 산업혁명의 역사와 특징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쟁은 2016년 1월 21~24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의장으로 있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시작되었다. 나흘 동안 진행된 이 포럼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들은 그 후 전 세계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된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산업혁명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간추린 산업혁명의 역사

산업혁명의 간략한 역사는 건국대학교 글로벌GLOCAL 캠퍼스 자연과학대학 산림과학전공 교수 김범수의 “4차 산업혁명의 미래와 직업: 2주 차 기술 발전의 역사”라는 강의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그가 설명한 산업혁명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김범수는 먼저 농업의 발전을 제1차 산업혁명의 초석으로 보고 있다. 수렵, 채집하면서 살던 인류는 농업을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 농업의 발달은 잉여 생산물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의 분화된 많은 직업과 다양한 활동 공간들, 그리고 시설을 갖춘 도시를 형성하게 되었다. 도시들은 후에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농업의 발전이 제1차 산업혁명의 초석이 된 것이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발명된 범용 목적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인 증기기관은 제1차 산업혁명의 열쇠가 된다. 증기 기관의 발명에 따른 기계와 공장의 등장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량 생산을 통해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면서 농경 사회가 산업 사회로 바뀌었다. 생산의 수단이 농경이었던 인류가 기계와 공장을 통한 대량 생산으로 산업 사회를 형성하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제1차 산업혁명의 진원지가 영국이라면, 제 2차 산업혁명의 진원지는 독일과 미국이다.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 전자 제품의 발명과 그것에 따른 대량 생산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전기와 전자제품의 발명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었고, 전기, 전화, 철도가 세계화의 물결을 만들기도 하였다. 제2차 산업혁명은 1870년부터 1950년까지 1세기에 이르도록 발전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는 이념을 탄생 시키기도 하였다. 산업의 발전은 문화 운동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개성과 자율을 인정하고 다양성과 대중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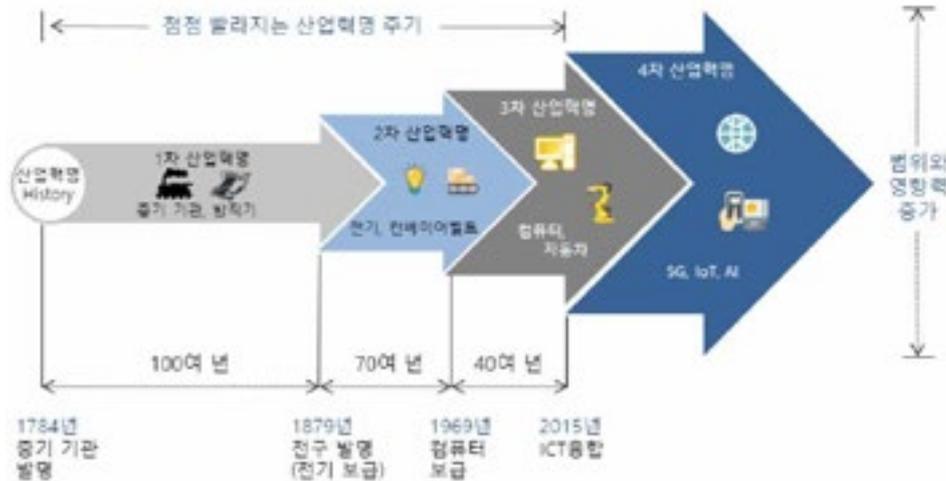
제3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범용 목적 기술인 컴퓨터와 인터넷이 일으킨 정보 혁명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파생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공업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에 소매, 금융, 보험업 등의 서비스업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사물 인터넷IoT의 기술을 통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되며, 기술이 사회뿐 아니라 인간의 몸속까지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혁명이다. 클라우스 슈밥은 인공위성, 자율주행

자동차, 생명공학 등 다양한 영역이 서로 경계 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파괴적 혁신을 일으켜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8: 2주 차).

아래 <그림 1>은 산업혁명의 역사를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설명한다.

<그림 1> 산업혁명 역사 (KT 경제경영연구소 2017: 16)



이상 산업혁명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 첫째, 산업의 변화는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일하고, 컴퓨터로 정보를 주고받는 등의 외적인 삶의 형태뿐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일으킨다. 둘째, 각 단계의 산업 구조가 다음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되거나, 더 축소되기도 한다. 또는 전혀 다른 산업 구조가 생기기도 하면서 직업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직업의 변화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선교사의 사역 종류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교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사역과 전문성은 필요 없게 될 것이고, 이와 반대로 새로운 전문성이 선교사에게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혁명은 선교 전략의 변화를 일으켰다. 과거 산업혁명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제1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서구 국가의 아시아, 아프리카 침략이 시작되었으며, 그들 국가의 식민지 정책 아래서 선교가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조동진은 AD 1750~1960년까지의 선교를 “식민주의 시대의 선교”라고 이름 지으면서, 이 시대는 ‘서구화’가 선교로 인식되던 시대라고 하였다(2011: 30). 이 시기부터 시작된 선교 단체sodality 중심의 선교는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서구 사회를 반영한 것이다. 즉,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가 선교사를 모집하고 영적,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선교단체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케리는 1761년 출생하여 1834년에 사망하였다. 그의 생애는 제 1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하였다. 케리는 농업 사회가 산업 사회로 변하면서 생긴 비즈니스 조직 체계를 선교에 사용한 것이다. 선교단체는 무역회사와 마찬가지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며 그 결과를 지표로 표현한다. 케리는 선교사를 모집하여 훈련

하고, 그들을 후원할 후원자를 찾으며, 선교사는 선교지에서의 실적을 본국에 보고하고 성과를 평가받게 되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선교에 차용했다.

제1차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선교단체를 통한 선교 활동은 제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계화와 제3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정보에 대응하여 왔다. 세계화와 정보 혁명은 선교사가 직접 가서 전하지 않더라도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복음<sup>Good News</sup>이라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여러 통로를 마련해 주었다. 선교사는 이제 이전과 비교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선교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도 줄어들고 있다. 이제 윌리엄 케리 시대에 요구되었던 많은 전업 선교사들의 수가 줄어들고 IT 선교사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선교사가 등장하였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선교 운동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됐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선교사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전적으로 선교에만 전념해야 할 선교사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선교사가 과거와는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이들 외에도 본인의 직업을 유지한 채 선교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등장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는 자신의 생계를 위한 직업,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직업, 생계와 선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단지 교회가 약해지고 현금의 액수가 줄어들어 선교 후원을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제 4차 산업 사회의 속성이 그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다중 직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 사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재능, 지식, 경험 등을 다양한 직업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 제4차 산업 사회의 특징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 달리 그 발전 속도<sup>velocity</sup>나 그 영향의 범위와 깊이<sup>breadth and depth</sup>에 있어서 사회 전체 시스템에 커다란 충격<sup>systems impact</sup>을 준다는 점에서 개인뿐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2016: 12~13). 제4차 산업 사회의 특징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제4차 산업 사회의 첫 번째 특징으로 ‘초 지능화<sup>Super-Intelligence</sup>’를 들 수 있다.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IC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속도, 집단적, 질적 초 지능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인간이 시키는 것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물들이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로 인해 산업이나 일자리의 체질 자체가 변화될 것이다. 생산이나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의료나 교육까지도 무인화가 될 것이다(Bostrom 2017 : 104~112).

둘째는 ‘초연결성<sup>Super-Connectivity</sup>’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사람과 사람, 로봇과 로봇, 사람과 로봇, 나라와 나라,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초래한다. 이러한 초연결성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그물망을 드리울 것이다. 오인택은 현실<sup>off-line</sup> 연결 사회와 가상<sup>on-line</sup> 연결 사회가 이중으로 함께 연결된 초현실 사회는 모든 영역을 정보 기술, 데이터로 연결하고 있는 사회라고 하였다(2017: 428).

셋째는 ‘초 개인화(Super-Personalization)’이다. 초 지능화와 초 연결성으로 인해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도 집안에서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의 영역에서도 ‘1인 기업의 시대’가 되었다. 아이디어 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집안에서 혼자 운영할 수 있는 1인 기업들이 곳곳에 생기게 될 것이다.

마지막은 ‘초 융합(Super-Fusion)’이다. 제4차 산업 사회에서는 산업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다. 제4차 산업 사회는 산업의 경계뿐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경계도 무너뜨리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될 것이다. 슈밥은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산업이 융합되는 제 4차 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서로 다른 과학 기술이 상호의존하여 창출한 획기적인 상품은 더 이상 SF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례로 디지털 제조와 생물학 분야의 합작이 성사되었다. 몇몇 디자이너와 건축가는 이미 전산 설계, 적층 가공, 재료공학, 합성생물학을 접목해 미생물과 인간의 신체, 소비재와 거주 건물까지 포괄하는 시스템을 개척하는 중이다(2016: 31).

이러한 제4차 산업 사회의 특징을 살펴볼 때, 인간성 위기의 상실, 대량 실업, 양극화의 심화 등이 염려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를 로봇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찾는 대상인 일, 사회, 가족, 정체성 등을 망가뜨릴 수 있다. 또한, 제 4차 산업혁명은 그 속도나 범위를 볼 때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특히 1, 2, 3차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명암이 있었다. 제 4차 산업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혹은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제4차 산업 시대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제 4차 산업 사회는 이전의 시대와 달리 자본이 부를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기술과 정보가 부를 결정하는 시대이다. 또한 제4차 산업 사회는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가치가 작동하는 시대이므로, 지식과 교육의 공유를 통해 교육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빈곤의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제4차 산업 사회의 속성 중 하나인 초연결성은 복음 전파를 매우 쉽게 할 수 있다. 굳이 비자를 얻어 국경을 넘지 않고 내 집에 머물면서도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혁명을 주도하는 이들이 있고, 뒤늦게 맞이하는 이들도 있으며,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이들도 있었다. 교회가 제4차 산업혁명을 손을 놓은 채 바라만 보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제 4차 산업 사회가 가져올 여러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지식과 기술을 모두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위임받은 우리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앞당겨진 제4차 산업 사회를 이해하고 관리할 책무가 있다.

한편, 기술의 진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기존의 경제 산업 분야에서의 고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환경에서는 기존의 산업 구조의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진다. 산업 구조로 인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선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의 선교 모습은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엇이 선교에 요구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

지 회자하였던 선교사 재배치, 비즈니스 선교Business As Mission 등과는 다른 차원을 요구한다. 선교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에 대한 선교사들의 인식

지금까지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앞당겨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제 는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에 대한 선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에 대한 선교사들의 인식을 진단하기 위해 14명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로버트 클린턴J. Robert Clinton은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NOW를 진단한 후에 가야 할 방향THEN을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1992: 2-21). 본 인터뷰는 선교사의 현재NOW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에 적합한 미래THEN의 전문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인터뷰 방법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변화할 세상에 대한 선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4개의 개방형 질문을 두어 인터뷰 응답자가 자유롭게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방법은 전자 메일과 SNS를 통해 인터뷰에 관한 자세한 취지를 밝히고 인터뷰 질문지(부록 1)를 첨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은 2008년부터 본인이 총무로 섬기고 있는 로뎀선교사케어Rodem Missionary Care, RMC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여성 선교사들과 그들의 배우자들로 총 14명이다. 솔직한 응답을 얻기 위해서 판단추출법 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자와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RMC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모집단인 한국 선교사를 대표할 수 있고 임의성을 떨 수 있는 집단으로 한국세계선교협의회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KWMA에 가입된 선교 단체들에 속한 한국 선교사들이 다.

## 현장 연구 결과

현장 연구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응답자의 진술을 <표 1>로 만들어 밝히고자 한다. <표 1>에 있는 일련번호는 인터뷰 질문의 순서이다. 질문 1은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사님의 사역지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2는 ‘현재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며,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사님의 사역에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질문 3은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은 선교사님을 포함하여 선교사에게 어떠한 전문성을 요구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질문 4는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의 변화를 위해 선교사 멤버케어 단체나 후원교회 그리고 소속 선교 단체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다.

인터뷰 응답자의 진술 자료는 에틱etic 관점에서 질적 내용을 분석한다. 질적 내용 분석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지에 대한 인식’ ‘현재 선교사의 주된 사역과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사역’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에서 선교사에게 요구

되는 전문성' 그리고 '선교사에게 필요한 외적 지원' 등 네 가지 범주의 검색창을 통해 정보를 추출한다. 범주별로 해당 정보를 배열하고 그 빈도와 백분율을 나타낸다.

<표 1>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에 대한 선교사들의 인식

R1 · 네팔 · 48세 · 18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다수의 모임이 어려워질 것이다.</li> <li>가정 또는 소그룹 모임 중심이 강화될 것이다.</li> <li>여건이 허락되는 지역과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기도회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li> <li>지역 선교사의 개념이 사라질 수 있다. 즉, 네팔에 거주하는 선교사가 아닌 네팔을 향해 사역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회자와 교회 지도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다.</li> <li>훈련은 향후 지역별, 단위별 소그룹 형태의 모바일 훈련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li> <li>여건이 허락하는 한 온라인을 통한 계속 훈련 및 자료 제공을 할 것이다.</li> <li>과거의 사역 형태와 미래의 사역 형태가 혼합된 사역이 필요할 것이다.</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 활용 및 성경과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와 요구사항이 높아질 것이다.</li> <li>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의 또는 훈련이 진행될 경우 이를 위한 기술적인 분야의 개발이 필요하다.</li> <li>소그룹 또는 가정교회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 훈련하여야 한다.</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 활용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장비의 지원이 필요하다.</li> <li>온라인 시대에도 대면 사역 및 물리적 관계 속에서의 사역이 필요하다.</li> <li>지속적인 기도 후원과 격려가 필요하다.</li> </ul>

R2 · 네팔 · 44세 · 18년	1	네팔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한동안은 개인과 지역 간의 교류에 긴장이나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기독교 모임에서의 감염은 힌두교들의 공격 빌미가 될 수 있다.
	2	현재의 주 사역은 목회자 훈련을 기반으로 한 교회 사역이다. 그동안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목회자 집중 훈련 과정은 각 지역으로 찾아가는 소그룹 중심의 훈련으로 전향될 것이다.
	3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선교 사역에 관한 주된 방향성은 비즈니스 선교라고 판단한다. 한국 교회의 경제적 여건의 나빠지고 있기에 자비량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훈련이 요구되고 있다.
	4	아직은 잘 모르겠다.

R3 · 두바이 · 59세 · 28년	1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가 함께 하는 인터넷 모임이 생길 것이다.
	2	중국 교회의 여러 모임을 zoom을 통해서 하고 있다. 소그룹과 성경 공부도 zoom을 통해서 하고 있어 중국만이 아닌 미국에 있는 성도도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 모임을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앞으로는 인터넷 사용이 빈번하게 요구될 것이므로,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다. 인터넷 모임에서 프레젠테이션의 사용이나 찬양을 같이하는 것이 아직은 미숙하고 불편하다. 인터넷 모임 안에서도 기존의 모임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 능력의 발전이 필요하다.
	4	아직은 잘 모르겠다.

R4 · 중국 · 50세 · 23년	1	사역지가 중국이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이동이나 만남에 더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지인들의 자발적 비대면 접촉과 외국인들의 동선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로 인해서 선교 활동이 더 위축될 것이라 여겨진다.
	2	교회 개척과 지도자 훈련, 제자 양육 등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에도 사역의 방향에는 별 변화가 없겠지만, 방법에서는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현지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현지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비대면 접촉이 일상으로 고착될 경우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	이전보다 외국인의 신분과 활동이 더 투명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일반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직업적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SNS나 인터넷을 통해 좀 더 세련되고 호소력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4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 컨설팅과 실제적인 훈련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R5 · 베트남 · 53세 · 20년	1	베트남은 국내에서는 자유로운 사회활동과 사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 외부와의 모든 왕래가 막혀 있기에, 인력 지원이나 단기 팀을 통한 지원 등 외부 지원으로 시작되었던 프로젝트는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2	남편의 주 사역인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제자 훈련은 현지에서 계속 진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나의 사역이었던 사모 세미나, 어머니 학교, 어린이 성품 교육, 교사 훈련은 현지인 스텝이 아닌 외부 강사진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던 사역이라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멈춘 상태이다. 사회적 격리 시기에 zoom과 YouTube로-모임과 예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된다.
	3	미디어 부분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변화하는 세상에 맞춘 사이버 세계 안에서의 교육과 전문기술들이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4	코로나 시기에 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서 ‘바로 지금Right Now’ 이라는 영상 사이트를 소개받은 적이 있다. 그 안에서 풍성하게 준비된 성경공부 교재들과 책들, 그리고 책 저자들의 강의 등의 자료들로 인해 개인적인 영성 함양에 도움을 받았다. 이런 미디어 매체를 통한 성경공부 교재나 강의 등이 현지인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R6 · 베트남 · 56세 · 23년	1	<p>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예상되는 변화는 첫 번째,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관리의 강화를 의미하기에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앞으로는 힘들 것이다. 두 번째, 대규모의 집회나 모임이 제한될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목적의 모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세 번째,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의 단절로 여행업과 국제무역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경제적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계속되는 경제 침체가 빈부 격차를 더 벌리고 사회적 빈곤층이 형성되어 사회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이 증가할 것이다. 네 번째, 사람들이 종말적인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종교심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인 변화는 복음을 전하기 좋은 기회라고 여겨진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이 천국 소망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p>
	2	<p>현재 청년 제자 양육과 소수민족 교회의 자립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대규모의 모임은 통제를 받겠지만 소그룹 모임은 확산해 나갈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도 소그룹 제자 양육 모임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모임과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격리가 시행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성경 공부 및 양육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수민족 교회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 역시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데, 이에 맞추어 원거리 비대면 지도력 개발과 현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주도의 지역개발 사역이 효과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선교사에게 중요한 사역은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지원하는 일이라 생각된다.</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을 통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li> <li>• 현지인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지도력 개발).</li> <li>•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 기술의 전문성이 요구된다.</li> <li>• 소규모 농업 사업과 도시에서의 소규모 창업을 도울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도시와 농촌의 소액 신용대출 사업의 전문성).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살아남아야 한다.</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전문성 훈련이 필요하다.</li> <li>•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li> <li>•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li> <li>• 후원 교회의 재정지원이 더욱 악화할 것이기에 후원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li> </ul>

R7 · 요르단 · 54세 · 12년	1	관광산업이 주된 국가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요르단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슬람 국가임에도 지역 봉쇄 기간에 라마단 절기와 모스크 예배가 금지되었던 것을 보면 모든 종교 집회와 모임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현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지역 봉쇄 기간에는 모임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나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예배를 재개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시리아 난민들과 이라크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집세와 전기세, 생필품 구매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3	기존의 교회나 건물 중심의 모임보다는 개인 전도와 양육이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다. 개인 전도에 필요한 접근 방법과 전도 방법, 양육에 필요한 교재,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성도들에게도 개인 전도와 양육 방법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설교, 양육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인터넷, 활용에 대한 지식과 공부도 필요하다.
	4	개인 전도와 양육에 필요한 교재개발, 난민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재정 후원 등이 필요하다.

R8 · 일본 · 54세 · 23년	1	일본은 코로나19범유행으로 3밀(밀폐, 밀집, 밀접)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 과제로 하고 있다. 또한, 한일관계의 악화로 한국으로부터의 단기 선교나 장기 선교의 발걸음이 멈춰졌다. 영적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 한국에서 온 선교팀들에 의해 전도도 하고 영적 공급도 받던 부분이 끊겼기 때문에 자력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교팀들에 의한 노방 전도가 아니라 본격적인 관계 전도를 교육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성숙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는 문화 사역을 통한 복음 전도가 효과적일 것이다. 한일관계의 악화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이 커진 이유로 젊은이들과 주부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어 강좌나 한국 요리 교실 등을 통해 한국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효과적으로 전도의 씨를 뿌리는 방법이다.
	2	지금까지는 대면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스카이프Skype나, 라인Line, 카카오톡KakaoTalk 등의 SNS를 이용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일대일로 하거나 여러 명을 한꺼번에 연결하여서 하기도 한다. 온라인상의 만남은 직접 만날 때와는 달리 모임 장소 정돈, 음식 준비, 이동 시간, 선물 준비 등이 필요치 않아서 번거롭지 않고 성경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익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사역이 기성세대에게는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3	인간에게 서로 만나고 접촉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필요하다. 접촉의 기회가 적어질수록 정신 건강에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외로움과 두려움 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 주는 심리 전문가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4	외로움과 두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조동진선교학연구소 <sup>DCMI</sup> 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도 현장 선교사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

R9 · 중국 19년 한국 2년 · 55세	1	예측할 수 없음.
	2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전 세계 대학들의 연합 사역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회원 대학들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각 나라 회원 대학들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후원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되기에 회원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나의 사역은 교육 선교 분야이므로 나의 전공을 살려서 전 세계 어느 대학이든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성과 학문적 전문성을 겸비해야 할 것이다.
	4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의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사역의 전환도 다양하게 인정해 주고 함께해 주기를 기대한다.

R10 · 케냐 · 9년 · 44세	1	코로나19 범유행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1) 그 상황에 맞게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며 2)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회복되고 3) 인터넷 등의 4차 산업 기술을 사역에 이용하여 4) 더 많은 일을 선교사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2	당장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1) 주님 앞에 더욱 깊이 예배하며, 2)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고 3)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예배하고 4) 사역을 위한 다양한 준비에 몰두하고(언어, 훈련, 건강...) 5) 인터넷, 온라인 등을 이용한 사역을 개발하려고 한다.
	3	1) 영성: 선교사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더욱 견고히 서는 것이 필요하다. 2) 준비: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연합: 현지의 사역자들은 물론, 선교사들 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4) 사랑: 사랑은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는 것으로 매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코로나19 범유행 현상이 지속되면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힘든 마음이 밀려왔다. 이러한 과정에 선교사들에게 멤버케어 단체로부터 온라인 나눔, 소그룹 혹은 개인 상담의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R11 · 태국 · 23년 · 60세	1	사람들의 만남이 적어지고 왕래가 힘들어졌다. 교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전도, 심방 등이 전보다 힘들어졌다.
	2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 교회 사역에는 심방이 중요한 사역으로 부상될 것이며, 신학교 사역은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3	온라인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역이 더욱 중요하게 떠오를 것이다.
	4	온라인 등 4차 산업 기술에 대해 훈련받을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이라 기대한다.

R12 · 태국 · 15년 · 52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면을 통하여 이루어진 예전과 같은 선교사역에 제한이 있을 것 같다.</li> <li>• 후원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교사와에게 재정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li> <li>• 그러나 단시간에 선교지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단 협력 선교사로서 지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교사 및 현지 사역자들을 코칭하고 있다.</li> <li>• 일시적으로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부분적으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세미나 혹은 워크숍 등의 모임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li> <li>• 현재의 사역에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역 내용의 개발 혹은 그에 따른 기술이 요구될 것이다.</li> </ul>
	4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

R13 · 태국 · 15년 · 48세	1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현재 방법으로 하는 중국 동원 사역에는 한계가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
	2	현재 중국 헌신자들이 치앙마이에 내려와 단기로 훈련을 받고 그들을 통한 중국 교회와 네트워크를 만들며 동원을 하고 있는데 현 방법에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3	유튜브(YouTube)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전문가의 영향력이 더해질 것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바꿔야 할 것이다.
	4	영성 교육이 필요하다. 선교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있어서 영성과 같은 근본적인 것이 확실해야 한다. 일시적인 세미나나 훈련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선교사에게 영성을 도전할 것을 기대한다.

R14 · 필리핀 · 16년 · 56세	1	코로나의 여파가 지속적이라면 달리 방법적인 면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사역도 현지인들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참여의 한계가 있다.
	2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수의 모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고 전도와 신앙상담으로 사역을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후원이나 구제와 문서 보급을 통한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인터넷이나 핸드폰의 보급이 넉넉하다면 이를 활용한 복음 선교는 더욱 유용할 것이다.
	3	접촉 대면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기에 IT를 매개로 하는 선교 사역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IT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한편, 제4차 산업 시대의 특성상 인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분야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4	지속적인 재정적 후원을 원한다. 특히,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재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을 기대한다.

### 검색창 1: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지 변화

응답자들이 진술한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의 변화를 <표 2>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2>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지의 변화

변화의 내용	빈도(명)	백분율(%)
모임이나 사역의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7	50
지역 간 이동 제한	6	42.9
경제적 침체	5	35.7
대규모 집회나 모임 제한	4	28.6
가정 혹은 소그룹 모임 강화	4	28.6
단기선교 등 외부 지원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의 축소	2	14.3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관리 강화	2	14.3
두려움과 함께 종교심이 증가하여 복음 전파가 용이	2	14.3
4차 산업 기술을 선교에 도입하여 선교 활동이 더욱 활발	2	14.3
단시간에 선교지의 큰 변화는 없을 것	2	14.3
비대면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짐	1	7.1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한국어 강좌나 요리 교실 등 문화 사역이 필요	1	7.1
지역 선교사의 개념이 사라질 수 있음	1	7.1

응답자 중에 7명(50%)이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선교지의 상황은 ‘모임이나 사역의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제 4차 산업 사회에서는 삶의 공간의 많은 부분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옮겨질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코로나 특별취재팀에 의하면 “대중문화 산업 전반이 동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가수들의 팬 미팅과 콘서트 등도 동영상 서비스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2020:189). 앞으로 온라인은 문화 예술뿐 아니라 성경 공부, 신학교 강의 등의 종교 교육에서도 크게 활용될 것이다.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에는 ‘지역 간 이동 제한’ 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의 수는 6명(42.9%)이다. ‘지역 간 이동 제한’ 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기간에만 보일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코로나19 범유행이 몰고 온 타인과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많은 전문가가 동의한다.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기빈은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몰고 온 인류의 근본적인 변화처럼 코로나19 범유행의 사태는 인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진행됐던 세계화가 무너질 것으로 예측한다. 생산의 산업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던 세계화가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나라마다 산업 과정 자체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개인도 재택근무와 같은 1인 기업의 시대로 바뀌면서 지역 간 이동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홍기빈 2020).

앞으로 ‘경제적 침체’ 가 올 것이라고 언급한 응답자의 수는 5명(35.7%)이다. 경제적 침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응답자가 35.7%이지만 이미 선교사 대부분이 경제적 침체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는 경제의 한 부분에서만 발생한 이전의 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비, 수요, 공급, 내수, 수출, 선진국 경제, 신흥 개발국 경제 등 경제의 모든 부분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는 1929년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장하준 2020). 이러한 경제적 침체는 선교사의 생존과 사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이러한 변화는 두려움과 함께 종교심도 증가하여 복음 전파가 오히려 용이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응답자(14.3%)도 있었다. 제4차 산업 기술의 도입은 장소의 제약 없이 선교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응답자도 2명(14.3%)이 있었다.

이상 응답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어느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지역 선교사로서의 개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 네팔의 R1 선교사의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제 4차 산업 사회에서는 복음 전파의 많은 영역이 선교사가 어느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느냐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IT 기술의 발달로 선교사는 지역을 쉽게 벗어나 사역할 수 있기에, 개인이 어느 곳에 있는지보다는 어떤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 검색창 2: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사 개인의 사역 변화

- 대면으로 진행하던 사역들을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된 방법으로 변화
- 센터 중심의 사역에서 지역별 소그룹 모임으로 변화
- 교회 개척, 리더 훈련, 제자 양육 등 사역의 방향은 변화하지 않지만, 사역의 방법은 창의적으로 변화
- 난민들의 기본적 생활 자금 지원이 필요
- 교회 사역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전도, 신앙상담, 구제, 문서 보급의 사역이 필요

본 검색창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 대해서 그 빈도와 백분율을 표로 만들어 표시하지 않은 것은 대학 연합 사역을 하는 응답자 R9을 제외하고는 모든 응답자가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제자 양육, 지도자 훈련 등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1월 14일 KWMA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으로 선교사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목사 선교사들의 교회 개척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현지인 선교 훈련 및 동원, 복지/개발, 캠퍼스, 일반교육 순으로 나타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KWMA 2020).

응답자들은 모두 기존의 사역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사역 방법의 변화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존의 선교지 입국이 계속 거부되면 본국에서의 사역도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있지만, 그 역시 사역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존의 사역을 계속하면서 방법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만나는 정도만을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 범유행이 앞당긴 제4차 산업 시대는 삶의 근본적이며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됨에도 선교사들은 선교 사역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 검색창 3: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응답자들은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으로 <표 3>과 같이 7가지의 영역으로 진술하였다.

<표 3>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빈도(명)	백분율(%)
미디어 활용	12	85.7
일반 직업적 전문성	6	42.9
영성	3	21.4
개인 전도와 양육	2	14.3
심리 상담	2	14.3
지도력 개발을 위한 소통 능력	1	7.1
성경 지식	1	7.1

12명의 응답자(85.7%)가 ‘미디어 활용’이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에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라고 진술하였다. 미디어는 제4차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어와 같은 것이다. 요즘에도 미디어를

모르면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복음을 전하려는 자라면 누구든지 미디어 활용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 미디어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도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이 미디어 전문가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앞으로 증강 현실AR과 가상 현실VR을 이용한 성경 공부가 필요할 수 있다. 증강 현실 혹은 가상 현실을 이용한 성경 공부를 통해 참여자들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보다는 생생하게 모든 감각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을 이용한 선교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문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직업적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라고 6명(42.9%)의 응답자가 진술하였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측면과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특성인 정보의 초연결성으로 선교사의 신분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생키는 2001년에 찾아온 경기 불황이 지난 20년 동안 그의 인생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찾아온 경기 불황을 보면서 향후 20년간 드리울 그림자에 대해 생각한다고 한다(2020: 179). 장하준 역시 소비, 공급, 내수, 수출, 선진국 경제, 신흥 개발국 경제 등 모든 경제가 마비되어 1929년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한다(2020).

이러한 세계 경기의 불황은 한국 교회의 선교 후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선교사가 가족의 생계와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교회의 후원에만 의지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선교사들이 신분을 감추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지금까지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일부는 그들의 신분을 위장하였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선교사가 신분을 위장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선교사가 현장에 남으려면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선교를 기존의 교회 개척, 신학교, 제자 훈련, 구제 사역 외에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도록 요청한다. 선교사는 이러한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흥미, 은사, 재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직업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영성’이나 ‘성경 지식’도 4명(28.6%)의 응답자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면 영성과 성경 지식은 누구나 꼭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선교사는 자신의 영적 성장뿐 아니라 세상에 영적인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사탄은 이전과는 또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을 미혹에 빠뜨릴 수 있다. AI의 등장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올바른 성경적 관점 없이 받아들인다면 기독교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사는 이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지도하는 영성 전문가가 필요하다. 영성 전문가는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특성과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대에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중 2명(14.3%)이 제4차 산업 사회의 비대면 활동의 증가는 외로움과 두려움 등으로 인한 정신 질환이 많아질 것이므로 ‘심리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IT와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사회에서는 자칫하면 인간의 가치가 축소되고 인간이 소외될 수 있다. 인간 가치의 축소와 인간 소외는 인간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최윤식은 미래 사회가 초래할 정신적

이고 신학적인 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무관심, 무기력, 무의미는 소외를 낳는다. 소외는 사회와 타인에게서 떨어져 혼자가 되었다는 고독감을 모두 포함한다. 자신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위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소외되는 교인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영적 우울증은 미래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최고 전략이다. 영적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신이나 타인을 영적으로 죽이는 극단적인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 염세주의적 태도, 기독교 윤리적 판단의 보류, 불가지론 등의 정신적이고 신학적 위기가 발생한다(2014).

영적이고 심리적인 3무(무관심, 무기력, 무의미) 상태의 위협에 놓여 있는 제 4차 산업 사회의 사람들을 위해 ‘심리 상담’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전문 분야가 될 것이다.

#### 검색창 4: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에 선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외적 지원

타 문화권에서 오랜 기간 사역에 전념하던 선교사가 혼자 힘으로 새로운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들이 새로운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할 때 개인적, 가정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선교사들이 새로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중년 선교사들이 다른 직업 혹은 전문성을 가지려고 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 ‘나이’ ‘건강’ ‘심리적 요소’ ‘재정’ ‘교회나 후원자의 이해’ 등이 있다(차남준 2019 : 135~149). 이런 면에서 선교사가 새로운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할 때, 가족, 동료, 교회, 선교 단체 등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응답자들은 선교사가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 4>와 같은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4>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외적 지원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외적 지원	빈도(명)	백분율(%)
미디어 활용 기술과 장비	6	42.9
전문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과 훈련의 기회	6	42.9
재정 후원	5	35.7
기도 후원과 격려	5	35.7
현지인을 위한 온라인 강의 자료	1	7.1
사역 변화에 대한 이해	1	7.1
영성 훈련 기회	1	7.1
재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	1	7.1

교회나 선교 단체가 선교사의 사역과 경력 전환에 대해 이해해 주고 그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다른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기간이 필요한데, 교회나 선교단체의 이해와 후원 없이는 선교사가 새로운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선교사 스스로가 자신에게 적합한 전문성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를 위해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는 선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참고로, 필자가 대표로 있는 선교사경력전환센터(Missionary Career Transition Center, MCTC)에서는 경력 전환을 해야 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경력 선택, 경력 개발, 그리고 경력 전환을 돕고 있다.

###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에서 요구되는 선교사의 전문성

문헌 연구와 현장 연구를 통해 발견한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에서 요구되는 선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NOW와 THEN을 <표 5>와 같이 목록화하였다.

<표 5> 선교사의 현재NOW와 코로나19 범유행 이후THEN에 필요한 전문성

NOW	THEN
특정 지역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 개척</li> <li>• 신학교 사역</li> <li>• 제자 훈련</li> <li>• 지도자 훈련</li> <li>• 현지인 선교 훈련 및 동원</li> <li>• 일반 교육</li> </ul>	특정 지역에 상관없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성</li> <li>• 인간 이해</li> <li>• 복지</li> <li>• 은사, 재능, 흥미, 경험 등을 고려한 개인의 고유한 전문성</li> <li>• 다중 직업</li> </ul>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권층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개인, 사회, 조직, 정부에 영향을 끼치게 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2018: 12~13). 우리가 선교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책임감 있게 맞이하고 재빠르게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술 시대를 창조 세계의 변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에 필요한 선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영성’이다. 영성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선교사를 비롯한 기독교 사역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기본적인 항목이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임과 동시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인간과의 관계이다. 깊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심도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민감히 반응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방법을 발견해야만 한다.

둘째, ‘인간 이해’이다.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소통과 융합은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소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넘어 신학적, 인문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특별히 의료 기술의 발달은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인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초고령 사회에서 인간은 신체적인 질병이 아닌, 우울증으로 자살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와 초고령 사회에서 인간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필요한 심리적, 신체적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상담, 코칭, 교육, 의료 등과 관련된 전문성이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삶은 전체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부가 편중되어 사람들 간의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부의 격차는 단순한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 더 나아가 국가 간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 이 시한폭탄과도 같은 부의 양극화는 복지 확대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교회는 부의 양극화와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교회는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노동이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현실에서 벗어나 노동이 인간의 가치 실현과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한편, 인간의 삶의 질은 가진 부로 측량되기보다는 자신의 은사, 재능, 흥미 등을 얼마나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개인이 자기 실현을 위해 살려면 그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회는 자본주의적 논리에서 벗어나, 한 개인이 생계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기초 생계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를 이루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인간의 가치 실현을 도우며, 생계에 염려 없이 개인의 은사를 발휘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자신만의 고유한 전문성’이다. 제 4차 산업 혁명 사회를 인간이 이끌고 나가려면 인공지능이 소유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전문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현하여야 한다. 자신만의 고유한 전문성을 개발하고 표현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는 소명<sup>klesis</sup>은 이신칭의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섬기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일은 자신의 흥미와 재능으로 결정 되어 한다고 하였다(엄진섭 2006 : 8-10). 선교의 모습이 이전과 같이 교회, 신학교, 구제 사역 등으로 국한될 필요는 없다. 선교사는 자신이 지닌 흥미와 재능, 은사,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이웃을 가장 신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을 찾고 익히고 숙달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다섯째, ‘다중 직업’이다. 앞으로 선교사에게도 다중 직업이 요구될 것이다. 제 4차 산업 사회의 특징인 초 지능화, 초 연결성, 초 개인화, 초 융합 등을 고려할 때, ‘다중 직업’은 인류가 창조 세계의 변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직업 형태이다.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자신의 생계를 위한 직업,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직업, 그리고 취미 생활을 통한 직업 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주어질 것이다.

## 요약과 결론

코로나19 범유행은 인류를 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안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범유행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를 교회는 외면하려 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 복귀와 출석 인원 회복에만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변화될 환경을 예측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에 불변

하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앞당겨진 제4차 산업 사회는 창조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인의 바른 인도를 요구한다.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계에 적합한 선교사의 전문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본 연구 초반부에서는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은 ‘초 지능화’ ‘초 연결성’ ‘초 개인화’ ‘초 융합’의 특징을 띠게 될 것이다. 이는 인류의 지금까지 변화의 속도나 모습, 그리고 내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범유행이 앞당긴 제4차 산업 시대는 인간의 정체성과 창조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회가 될 것이다.

중반부에서는 코로나19 범유행이 초래할 세상에 필요한 전문성에 대한 선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선교사들은 제 4차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미디어 활용법,’ 선교 현장에 기여하거나 지역을 뛰어넘어 사용 가능한 ‘직업적 전문성,’ AI의 등장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거부 또는 무비판적 수용이 아닌, 성경적인 해석과 대응을 위한 ‘성경 지식’ 과 ‘영성,’ 영적 심리적 3무(무관심, 무기력, 무의미) 상태의 위협에 놓여 있는 제4차 산업 사회의 사람들을 위한 ‘심리 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코로나 19범유행 이후의 세상과 선교사들의 인식을 토대로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에서 요구되는 선교사의 전문성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그것은 ‘영성’ ‘인간 이해’ ‘사회복지’ ‘자신만의 고유한 전문성’ ‘다중 직업’ 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범유행이 앞당긴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인류의 파멸로 몰아넣는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공공의 선을 촉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Schwab 2018: 12~13). 미래는 교회에 달려있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시기를 엄중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앞당긴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님의 대위임령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김범수

2018. 4차 산업혁명의 미래와 직업: 2주차 기술 발전의 역사. RISS 공개 강의.

김정욱, 박봉권, 노영우, 임성현

2016. 2016 다보스 리포트.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엄진섭

2006. “루터의 소명관” 『신학과 신앙』 (17):7-69.

오인택

2017.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52): 417-445.

장하준

2020. “[코로나19, 신인류 시대] 2부-1929년 같은 대공황, 해법은? (포스크코로나-경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20년 9월 20일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bV-\\_x7FkUDU](https://www.youtube.com/watch?v=bV-_x7FkUDU).

조동진

2011. 『다시 쓰는 세계 선교 역사』 서울: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차남준

2019. 『선교사 경력 전환』 서울: 동서선교연구개발원.

최윤식

2014.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드는 미래 영성” 코람데오닷컴. 2020년 9월 20일 검색.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3>

한국경제신문 코로나 특별취재팀

2020.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서울: 한국경제신문.

홍기빈

2020. “[코로나 19, 신인류 시대] 4부-지구화, 도시화, 다 무너 진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20년 9월 20일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AY6zCCt5Swk>.

Bostrom, Nick

2017. 『슈퍼인텔리전스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조성진 역. 서울: 까치.

Clinton, Robert J.

1992. *Bridging Strategies: Leadership perspectives for introducing Change*. Pasadena: Barnabas Publishers.

KT경제경영연구소

2017. 『한국형 4차산업혁명의 미래』 서울: 한스미디어.

KWMA

2020. “한국 선교사 작년보다 46명 증가... 은퇴 선교사는 2년 연속 800명 대” 『선교신문』 2020년 9월 20일 검색. <https://missionnews.co.kr/news/581786>.

Schenker, Jason

2020. 『코로나 이후의 세계 Recession-Proof Career Strategies After COVID』 박성현 역. 경기도: 다빈치하우스-미디어숲.

Schwab, Klaus

2016. 『제4차 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현재.

2018. 『제4차 산업혁명 The Next(Shap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김민주, 이엽 역. 서울: 새로운현재.

<부록 1: 인터뷰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께 문안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익숙하지 않은 일상을 지내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금번에 조동진선교학연구소DCMI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세상에 어울리는 선교의 모습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가지고 선교 전문 간행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교사경력 전환에 관심이 있는 본인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열린 질문이오니 선교사님의 생각을 제한 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지: \_\_\_\_\_ 사역 년 수: \_\_\_\_\_ 나이: \_\_\_\_\_

1.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사님의 사역지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2. 현재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며,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에 선교사님의 사역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십니까?
3. 코로나19 범유행 이후의 세상은 선교사님을 포함하여 선교사에게 어떠한 전문성을 요구하리라 생각하십니까?
4.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의 변화를 위해 선교사 멤버케어 단체나 후원 교회 그리고 소속 선교 단체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지 신학 교육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 대 학

플뿌리선교회 몽골 대표

## 들어가는 말

지금 전 세계는 오늘날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중이다. 대부분 국가의 국경 봉쇄와 국제선 교통편 중단, 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 이용 불허, 학교에 가서 대면 강의를 들을 수 없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강의 수강, 주일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자제하는 상황 등의 변화가 일상적 삶이 되고 있다.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sup>COVID-19</sup> (이하 코로나19로 표기)은 중국을 넘어서 올해 초부터 아시아와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산하면서 오대양 육대주 전 세계를 강타하였고, 현재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sup>WHO</sup>는 2020년 3월 11일에 전염병이나 감염병의 전 지구적 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sup>pandemic</sup><sup>1</sup>을 선언하였지만, 코로나19는 줄어들기 는커녕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2020년 6월 8일 9시 기준으로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의 국가를 필두로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몽골 인구<sup>2</sup>의 두 배가 훨씬 넘는 6,917,182명이며, 사망자는 401,616명이다.<sup>3</sup>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켜서 현대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가 되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뿐 아니라 기독교와 세계 선교 차원에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 선교의 차원에서 국제선 항공편이 대부분 중단되어서 선교지를 떠날 수도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고,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거나 예배 모임도 할 수 없으며, 교육 기관이나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아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비거주로 몽골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는 필자도 올해 전반기에 계획되었던 몽골서부연합신학교 강의, 몽골 지방 목회자들 대상의 소그룹 설교 코칭, 몽골 중견 목회자 재훈련 사역인 플뿌리 세미나, 몽골 교회 연합 이단 세미나, 몽골선교지수 연구 및 포럼 등의 선교 사역을 전면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2%94%EC%9C%A0%ED%96%89>,

자료검색일: 2020년 6월 8일.

2. 2018년 말 현재 몽골(Mongolia) 인구는 3,238,479명이다. 몽골 통계청 자료, [http://www.1212.mn/stat.aspx?LIST\\_ID=976\\_L03](http://www.1212.mn/stat.aspx?LIST_ID=976_L03), 자료검색일: 2020년 6월 8일.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e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4&e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자료검색일: 2020년 6월 8일.

없었다.<sup>4</sup>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미래의 세계선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선교사역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든지 간에 앞으로의 세계선교는 선교 전략과 정책, 사역의 방향과 방법, 선교사의 삶과 사역 등에 있어서 전면적인 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소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변화 속에서 특별히 선교지의 신학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고찰할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변화를 살펴보고, 그 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변화를 연구한 뒤에 마지막으로 선교지의 신학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변화

코로나19는 개인의 삶의 변화와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뛰어넘어 전 지구적인 대 변화를 초래하였다는데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는 개인의 삶, 개별 국가나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대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을 역임한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도 세계는 그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세계 질서는 영원히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전망한다.<sup>5</sup>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한 단어로 ‘리부트reboot, 재시동’로 정의를 내리면서 현재 상황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리부트! 우리는 ‘블랙 스완(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중의 블랙 스완’을 목격하고 있다. 현재는 재시동을 앞둔 ‘일시 중지pause’ 단계다. 재시동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변했고, 어떤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라고 계속 질문할 것이다.<sup>6</sup>

폴 크루그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우리는 현대 경제가 겪어본 적이 없는 미증유의 방역 경제 위기 속에 있다.”라고 현재 상황의 특별함을 평가한다.<sup>7</sup>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도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코로나19의 영향은 향후 수십 년간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디에 살며 여러 산업의 모습은 어떠할지 모든 부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한다.<sup>8</sup> 정채진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코로나19의 성격을 생명의 문제이자 부와 가난의 문제로 평가를 하면서 “2020년은 후세의 역사가들에게 매우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의 창궐 이래 인류가 전염병으로 가장 참혹하게 고통받은 해이다. 경제적으로는 대공황 기간 이후 가장 어려웠던 해로 말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분석한다.<sup>9</sup>

4. 필자는 1997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몽골에 거주하면서 사역을 하였고, 2015년 1월부터 한국에 살면서 비거주 몽골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1998년 9월부터 2014년까지 몽골연합신학교 교수 및 교무처장, 2005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몽골장로교연합신학교 교수 및 교장으로 사역하였다.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남고비 성경학교 교수 및 멘토, 2017년 9월부터 몽골서부연합신학교 교장으로 사역하면서 몽골의 지방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5. 한국경제신문사 특별취재팀 편(2020),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p. 8.

6. 조선비즈 2020년 5월 12일 기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3284.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3284.html), 자료검색일: 2020년 6월 10일

7. 폴 크루그먼 외 3인(2020), 이현경 외 역, 『코로나 경제 전쟁』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p. 5.

8. 제이슨 생커(2020), 박성현 역, 『코로나 이후의 세계』 고양: 미래의 숲, pp. 10-11.

9. 정채진 외 7인(2020), 『코로나 투자 전쟁』 서울: page 2, p. 5.

현재 전 세계는 가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전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전염병을 종식시키면 끝나겠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한국경제신문사 코로나 특별취재팀은 “인류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나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 다른 전선은 확산 방지이다.”라고 주장한다.<sup>10</sup> 설사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전쟁, 즉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또 다른 신종 또는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지도 모른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변화들 가운데 중요한 네 가지 분야의 변화, 1) 개인적 삶의 변화, 2) 경제적 변화, 3) 정치적 변화, 4) 지구촌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sup>11</sup>

〈표 1〉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분야	변화
개인적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해진 개인위생</li> <li>• 일상이 된 사회적 거리 두기</li> <li>• 빠르게 자리 잡아가는 재택근무</li> <li>• 학교에 가지 않는 홈 에듀케이션 시대</li> <li>• 사라진 개인 프라이버시</li> <li>•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 필요</li> <li>• 과학의 시대, 전문가의 시대</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시장의 새 시대를 여는 K 메디컬과 스마트 케어</li> <li>• 뜨는 홈 오피스 산업</li> <li>• 유통 산업, 온라인이 석권할 것</li> <li>• 부상하는 온라인 에듀케이션 산업</li> <li>• 직격탄 맞은 여행과 관광산업</li> <li>• 코로나에 흔들리는 대중교통 산업</li> <li>• 이자 없는 시대에 적응</li> <li>•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대중문화 산업</li> </ul>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스마트 정부: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 개입을 용인</li> <li>• 인간 안보: 전쟁 아닌 인간 자체가 안보의 궁극적 목표</li> <li>• 머니 풀리시: 각국 정부 역대 최대 돈 풀기 반복 전망</li> <li>• 네이션 퍼스트: 자국이 최우선, 각국 도생 시대 도래</li> <li>• 사생활 침해: 확진자 동선 공개</li> <li>• 국가 부채의 천문학적 증가</li> <li>•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른 정부 지지도</li> <li>• 세계화가 퇴보하고 지역주의가 대두</li> </ul>
지구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의 재발견: 세계적 ‘일시 멈춤’으로 더 깨끗해진 지구촌</li> <li>• 반세계화: 인적 이동 차단으로 ‘지역화’ 시험 마침</li> <li>• 신공동체: 위기 속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li> <li>• 탈 도시화: 쾌적한 교외에서 ‘에코로지 라이프’ 재촉</li> <li>• 선진국과 선도국: 전통적 국가경쟁력 평가 재정의</li> <li>• 탈 G2: 패권국 리더십의 상처- 당분간 다극 체제</li> <li>• 서구 우위의 균열: 부실 의료시스템 민낯에 선진국 신화 깨짐</li> <li>• 기업 유턴, 국제 공급망 재편 기로</li> </ul>

10. 한국경제신문사 특별취재팀 (2020), p. 6.

11. 한국경제신문사 특별취재팀 편(2020),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임승규 외 6인(2020),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문화일보 2020년 5월 4일 기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19가지 뉴 트렌드”를 중심으로 필자가 정리한 표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변화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상황과 시기를 ‘포스트post와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합성하여 포스트 코로나19Post COVID-19’ 라고 부른다.<sup>12</sup>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개인의 삶, 개별 국가와 전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등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데 특별히 교육 분야의 변화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 교육 방법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교사들로부터 직접 강의를 듣는 대면 교육방식 위주였다. 교육의 공간으로서의 학교, 교육하는 교사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도 없고, 교사들로부터 강의를 듣거나 급우들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제이슨 생커는 “온라인 교육이 대세다. 온라인 교육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 추세는 한동안 가속되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학생이 교실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라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변화를 설명한다.<sup>13</sup>

박남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증가하고 교육 주체의 역할이 변하게 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가운데서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학교가 사라지고 온라인 학교가 그 자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학교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학교와 교사의 역할, 부모와 사회의 역할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sup>14</sup>

임승규는 코로나19가 단순히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인 교육과 직장의 공간적 조건과 그로 인한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학생이 되고, 직장에서 우리는 회사원이 된다.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자체의 고유한 규칙과 리듬을 통해 작동하는 이 공간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인식해 온 것이다. 코로나19로 학교에 나가지 않는 학생,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공부하고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들이 스스로를 자각하는 방식부터 달라진다.<sup>15</sup>

코로나19 이전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분야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변화<sup>16</sup>

구 분	코로나19 이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장소(공간)	학교 교실	가정
교육 방법	대면 강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
교육 시간	정해진 수업 시간	자율적 조정 가능

12.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userEntry/koko/ce83e9398ac170f2c354a974965233d0>, 자료검색일: 2020년 6월 10일.

13. 제이슨 생커(2020), p. 34.

14. 박남기(2020),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는?”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서울:한빛비즈, p. 303.

15. 임승규 외 6인(2020),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서울:한빛비즈, p. 8.

16. 출처: 필자가 직접 작성.

교육 환경 조성의 핵심	외적 교육 공간과 시설	온라인 교육 환경 시스템
교육 효과의 극대화	교사, 학생의 충실도	온라인 강의 시스템 활용 능력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의 트렌드trend는 무엇인가? 제이슨 생키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첫 번째 트렌드: 교육 길드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교육에 들어가는 중간 비용이 사라진다.
- 두 번째 트렌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보다 많은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 세 번째 트렌드: 학습 경험을 향상할 기회가 있다.

박남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직접적 변수와 간접적 변수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직접 변수: 교육에 직접 미친 영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실행이 교육의 미래에 미칠 영향력을 의미한다. 전면적인 온라인 교육 시행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에도 디지털 교육 강화, 스마로그smalogue(smart+analogue)형 교육 강화 등 학교 현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sup>17</sup>

간접 변수: 교육과 함께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의 기술, 환경, 인구 자원 등등의 다양한 분야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되고, 그 변화가 다시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접 변수로는 탈세계화, 거대정부 등장, 일본식 장기 불황, 코로나 세대의 부채와 실업난, 재택근무 강화 등이다.<sup>18</sup>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그 이전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며 현재 변화된 교육의 현실을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적응해 가는 중이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많다. 전통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들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전인적 교육, 친구들과 친밀한 교제, 타인들을 돕고 함께 하는 협동심 배양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은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온라인 학습의 효율성과 교육 약자의 문제도 있다. 취약계층(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정)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를 비롯한 학습 장애 학생, 학습 흥미도가 낮은 학생, 기초 학력 미달 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등 교육 약자들을 위해서는 대면 교육이 추가되어야 한다.<sup>19</sup>

온라인 교육의 장점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과 콘텐츠 개발, 교사의 온라인 교육의 역량 강화,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의 숙달과 효과성 증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과 함께 오프라인 교육도 유기적으로 병행되어야만 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지 신학 교육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대 변화와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7. 박남기(2020), pp. 304-305.  
 18. Ibid, pp. 310-316.  
 19. Ibid, p. 328.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지 신학교 교육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교 교육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한국 선교사들의 신학교 사역 현황을 살펴보고, 그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전 선교지의 기존 신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변화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지의 신학교 교육에 대하여서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 선교사들의 신학교 교육 현황

한국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빛진 자로서 선교지로 향하였다. 그들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뿐 아니라 현지인 목회자 자원을 선발하여 신학 교육을 했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역 중의 하나가 바로 신학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발표한 2019년 12월 한국 선교사 파송 집계를 살펴보면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10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신학 교육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은 교회 개척, 현지인 선교 훈련 및 동원, 복지/개발, 캠퍼스, 일반교육, 의료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다중 사역이 많아서 많이 상위 5개 영역 이외에도 어린이·청소년 사역, 신학교 사역, 비즈니스, 문화·스포츠 관련 사역에도 많은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sup>20</sup>

김활영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2013년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자료를 근거하여서 다수의 한국 선교사들이 신학 교육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KWMA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 선교사 24,742명 중 6,883명이 제자 훈련을 주사역으로 하고 있다. 28%의 한국 선교사는 신학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교회 개척을 위시하여 다른 사역을 주사역으로 하면서 신학 교육에 관여하는 선교사를 합하면 숫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 이는 신학 교육 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sup>21</sup>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신학 교육을 담당하고,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ATEA를 조직해 선교지 신학 교육의 연합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던 김활영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들의 신학 교육 사역을 다음과 같은 8가지 항목으로 분석하는데 그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2</sup>

〈표 3〉 한국 선교사들의 신학 교육 분석<sup>23</sup>

항 목	분 석
1. 운영 주체	한국 선교사들이 설립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지 않는 강의만 하는 기존 신학교로 나누어진다.
2. 선교 철학	성경적인 지도자상 확립이 필요하다(답전 3). 대부분 신학교가 교회성장학 관점에서 지도자 개발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9년 12월 한국 선교사 파송 집계, p. 5. 자료 출처: [https://kwma.org/cm\\_stats/37366](https://kwma.org/cm_stats/37366), 자료검색일: 2020년 6월 12일.

21. 김활영, “한국 선교사들의 신학 교육 사역에 대한 소고”, p. 6. 자료출처: <http://skwma.kr/kwma/ncowe-part/np-01-1-2.pdf>, 자료검색일: 2020년 6월 12일.

22. Ibid, pp. 14-15.

23. 출처: 필자가 직접 작성.

3. 교수 문제	초기에는 한국 신학교 교수를 활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으나 기존 교회가 많은 곳일수록 현지인 교수를 채용하여 학교를 시작한 곳이 많았으며, 아직도 자체 양성한 교수가 많지 않으며, 상당한 신학교가 통역 강의를 하고 있다
4. 학생	학문적인 수준이 초점이 되고 있다. 나이나 경험 그리고 성숙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입학에 경쟁이 별로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5. 학교 형태	대부분이 전통적인 성경학교와 신학교를 모델로 하고 있다. 목표와 커리큘럼, 그리고 훈련 기간과 방법 등 미국과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의 학교를 옮겨 놓으려 애쓰고 있다.
6. 프로그램 규모와 협력	선교 단체나 팀이 신학교를 구상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수의 학교는 선교사 개인의 리더십으로 설립되고, 후원되고 있다.
7. 토착화와 상황화	대다수 신학 교육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개발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개발한 수입품이다. 내 것이 없으니 선교사가 창안한 프로그램이 드물다.
8. 재정 문제	돈만 있으면 교회나 신학교 무엇이든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선교사들에게도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팽배해 있다.

적지 않은 한국 선교사들이 주 사역이든지 아니면 보조 사역이든지 간에 선교지에서 신학 교육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선교사들은 신학 교육 사역을 통하여 선교지 현지인 지도자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의 신학 교육 사역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양면이 존재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전의 선교지 신학 교육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선교지의 신학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필자도 몽골에서 20년 이상 신학 교육 사역을 하였다. 2005년에 개혁주의 장로교단 선교사들 30여 가정과 함께 몽골 장로교연합신학교를 설립하여 초대 교장으로 섬겼으며,<sup>24</sup> 2017년에는 몽골 현지 교회들과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몽골서부연합성경학교를 설립한 바가 있다.<sup>25</sup>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전 기존의 전통적 신학 교육은 대부분 신학교와 성경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였으며, 이들 신학교(성경학교)는 교단 신학교와 초 교파 신학교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은 주요 교단의 신학교들이다.

신학 교육을 위하여서 먼저 신학교(성경학교)를 세우는 것이 우선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선교지에서 신학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과 단계를 거친다.

24. 2005년에 세워진 몽골장로교신학교는 예장 합동, 고신, 고려, 합신 등 한국 개혁주의 장로교단 선교사 30여 가정이 연합하여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세운 신학 교육기관이다. 필자는 학교 설립 추진 위원과 초대 교장으로 섬겼으며, 현재에 예정(고신) 교단의 K 선교사가 교장으로 섬기고 있다.

25. 몽골서부연합성경학교는 2016년 몽골 서부지역 5개 도의 40여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세워진 초 교파 신학 교육 기관이다. 이 학교는 선교사, 현지 교회와 지도자, 수도 울란바토르의 목회자들이 힘을 모아서 동반자 협력 사역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현재 필자가 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 1) 신학교 설립 계획 수립(개인 또는 팀)
- 2)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설립을 담당할 조직)
- 3) 필요한 재정 마련(필요할 시 후원회 조직 등)
- 4) 학교 건물과 시설 준비(자체 건물 또는 임대)
- 5) 교수 요원 확보(선교사, 외부 교수, 현지인 등)
- 6)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커리큘럼) 구성
- 7) 학력 인준 문제 해결
- 8) 학생 모집
- 9) 신학교 운영과 학사 진행
- 10) 교재 개발과 번역
- 11) 현지인 신학교 교수 요원 양성
- 12) 현지 지도력 이양 준비 및 이양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신학 교육 기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적지 않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였다. 신학 교육을 하기 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기 위한 학교 건물과 시설을 건축하거나 임대하는데 많은 재정이 소요되었고, 외부에서 교수들이 와서 강의하기 위해서 교통비와 숙식비 등이 필요하였고, 학교 운영과 직원 급료 등에도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재정만 확보되었다고 신학 교육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선교 현지에서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학적으로도 인정할만한 양질의 교수 요원의 확보, 신앙이 성숙하고 사역자로서의 소명이 분명하면서도 학습 능력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있는 학생 수급,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으면서도 선교지의 상황과 실정에도 맞는 교육 과정 curriculum 마련, 신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선교 현지와 국외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력 인준 등의 문제도 선교지에서 신학 교육을 할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교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교지에서 신학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선교지에서 과거에 행하던 기존 방식으로 신학 교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 세계 각국의 강력한 이동 제한 및 봉쇄 조치로 인한 국제선 항공편 중단과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신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교수들이 선교지에 갈 수도 없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수업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학교에 가는 것도,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sup>26</sup>

앞서 언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변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선교지 신학 교육도 온라인 교육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선교지 신학 교육을 위하여 선교사들과 선교단체, 교회들의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지의 신학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26. 몽골의 경우 2020년 1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각종 학교의 수업을 중단시켰고, 대면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전환을 하였다. 또한 모든 집회와 모임도 금지하고 있다.

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1. 교육 공간

과거에는 신학 교육을 위한 공간, 즉 학교 건물과 강의실 및 기숙사 등 외형적 공간 마련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힘들여 지은 신학교 건물과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상시로 필요한 재정도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많은 선교지의 신학교가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만 생존하는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큰 신학교 건물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큰 건물이 있어도 많은 학생을 모아서 공부시킬 수도 없다. 신학 교육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최소한도로 준비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선교지 신학 교육의 수준을 건물 크기와 학생 숫자로 평가하는 잘못된 생각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 2. 교육 방법

교육의 방법은 온라인 교육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만약 선교지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안 되면 강의를 녹화하고 현지어로 자막을 넣은 영상으로 제작하여서 영상 강의를 할 수도 있다. 많은 학생을 도시의 한 공간에 모으기보다는 신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3~5명의 소규모 학생들이 모여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신학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선교사나 교수가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면 보완 교육을 시행하고, 학습 상황을 평가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강의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어야 한다.

### 3. 교수진 구성

신학 교육을 위한 교수진을 구성함에서도 선교사들이 모든 강의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선교지 현지인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교수로 세우고, 그들이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선교사나 외국인 교수가 가서 직접 학생들에게 강의하였다면 이제는 선교사나 외국인 교수가 가서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지 말고, 자신이 할 강의를 현지인 교수에게 1대 1로 지도하여서 그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몽골을 비롯한 웬만한 선교지에는 기초적인 성경을 강의할 수 있는 현지인 목회자가 적지 않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외부인 선교사나 교수에게는 길이 많이 막혀있지만, 현지인 교수들이 소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신학 교육은 더 많이 열려 있다.

### 4. 커리큘럼

선교지에서 신학 교육 커리큘럼 마련할 때 과거처럼 한국과 미국 등의 신학 교육 커리큘럼을 무조건 답습하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 등의 신학적 기본 토대를 든든히 하면서도 너무 이론적인 신학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교지 현지 목회자들이 전도와 제자 훈련, 그리고

교회 개척과 성경적인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실천적 훈련이 필요하다.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신학 교육이 아니라 삶과 사역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커리큘럼이 중요하다.

선교지 현지 목회자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가르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선택과 집중해야 하며, 한 번의 신학 교육으로 끝내려 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목회자 재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5. 교육 인프라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신학 교육을 하기 위하여서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온라인 교육을 위해 교수는 온라인 강의를 잘 준비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교수 방법과 기술에 숙달해야 하며, 인터넷 강의 진행과 전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양질의 신학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선교지의 신학 교육을 위한 인터넷 환경도 잘 점검해야 하고, 선교지에서 접속하여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시스템과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선교사가 다 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적지 않은 재정과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 6. 학생 선발 및 관리

신학 교육을 받을 학생들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일도 선교지 신학 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많은 학생을 모아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소수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온라인 강의의 효과는 학생이 적을수록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

학생 관리도 온라인상에서 해야 하므로 교수와 학생이 이메일이나 메신저, 다양한 SN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선교지의 신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소통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3~5명의 신학생 가운데서 온라인 의사소통에 익숙한 리더를 한 명 선출하여 중간자 역할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 7. 재정 문제

과거에는 선교지의 신학 교육을 위하여 적지 않은 재정이 상시로 필요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선교사가 과거처럼 많은 재정을 모금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외부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선교지 현지인들의 의존심이 높아져 자립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해야 한다. 사실 선교지 신학 교육을 위한 건물과 시설 투자를 줄이고, 외부에서 방문하는 교수들의 비용을 줄이고, 선교지 신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줄인다면 선교지의 신학교들의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 8. 협력과 연합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협력과 연합’ 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지 신학 교육

도 과거처럼 개별 선교사 리더십 중심의 신학 교육, 교단 중심의 신학 교육, 선교사 주도의 신학 교육, 서구 신학교를 무조건 답습하는 신학 교육을 전향적으로 탈피하여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단과 선교 단체 간에 연합할 뿐 아니라 선교지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과 동반자적인 협력을 실행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맞추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교지 신학 교육의 성패는 선교지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과 얼마나 연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 나가는 말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교지 신학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코로나19는 개인과 국가, 세계에 되돌아갈 수 없는 대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는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대변화와 영향은 기독교와 세계 선교에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현대의 실제 상황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지 신학 교육의 방향과 방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선교지의 신학 교육을 반성하고 재검토하는 것, 즉 리부트(reboot)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교지 신학 교육에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콘텐츠를 구축할 뿐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을 위한 기술을 배우고 숙달시켜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부족함과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서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의 병행과 상호 신뢰와 전인적 성숙함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방법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결코 완전할 수 없으며, 적지 않은 실수나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시대적 대 변화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사는 길이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글을 마친다.

## 참고 문헌

임승규 외 6인 (2020)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서울: 한빛비즈.

정채진 외 7인 (2020). 『코로나 투자 전쟁』 서울: page 2.

제이슨 생커 (2020). 박성현 역, 『코로나 이후의 세계』 고양: 미래의 숲.

폴 크루그먼 외 3인 (2020). 이현경 외 역, 『코로나 경제 전쟁』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 특별취재팀 편 (2020).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김활영. "한국 선교사들의 신학 교육 사역에 대한 소고." <http://s.kwma.kr/kwma/ncowe-part/np-01-1-2.pdf>.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2%94%EC%9C%A0%ED%96%89>.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userEntry/koko/ce83e9398ac170f2c354a974965233d0>

몽골 통계청 자료. [http://www.1212.mn/stat.aspx?LIST\\_ID=976\\_L03](http://www.1212.mn/stat.aspx?LIST_ID=976_L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한국세계선교협의회. [https://kwma.org/cm\\_stats/37366](https://kwma.org/cm_stats/37366)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3284.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3284.html)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0401031442000001>

\* 이 글은 KMQ 75호, 2022년 가을호에 먼저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 코로나19 이후의 선교 동원에 대한 고찰

윤 석 원

WEC 국제선교회 IMM 태국 선교동원가

## 서론

우리의 삶이 직면하는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자기 훈련의 상실이고 편안하고 기름칠이 잘 된 기계적인 삶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다(David Bosch 2000:10).

데이비드 보쉬의 선교적 영성에 대한 고찰을 접하면서 필자는 어쩌면 코비드-19는 편안하고 기계적인 선교 상황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익숙함에 빠질 수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본다. 필자가 사역하였던 중앙아시아의 나라에서 한겨울에 경험했던 일이 기억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평소 기다리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버스가 오지 않았다. 매서운 영하 겨울 기온 속에서 약속 시간에 맞춰 일찍 나와 기다리던 버스가 오지 않아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원래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던 버스를 기억하며 조금 더 기다리면 오겠지 생각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았다. 결국 정류장에서 있던 현지인에게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혹시나 해서 버스 번호를 말해줬더니 버스 노선이 바뀌어 그 버스는 이제는 오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무엇인가에 익숙했던 일에 변화가 생겼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마냥 버스를 기다렸다면 그날은 중앙아시아의 겨울 추위를 더욱 혹독히 맛보았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어쩌면 너무 익숙한 일에 빠져 있다 보면 새로운 변화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때도 있다.

현재 필자는 한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익숙할 것 같았던 선교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세미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전체 세미나를 위해 중요한 개념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잘 끝내기 위해서는 배움learn - 비움unlearn - 채움relearn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대행 2020.10.21 LAMS 강의). 개인에게 익숙했던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움으로 채우는 시간은 도전이 될 수 있다. 소망하기는, 그 새로운 도전이 필자가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새롭게 단련시키는 성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COVID-19는 선교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움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단련시키는 새로운 적응의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필자가 기대하는 새로움이란 선교의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교의 내용까지 포함된 새로운 이해까지 포함한다.

필자는 본 소논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고자 한다. 필자는 먼저 선교에 대한 개관과 관련된

선교 동원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이다. 그 후 선교 동원의 장애요인을 살펴봄으로 선교 동원의 도전을 생각해 볼 것이다. 연이어 선교 동원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고 선교 동원의 방법으로 선교단체가 갖춰야 할 태도를 살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코로나 이후의 선교 동원과 관련된 짧은 제안과 더불어 결론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본 소논문은 다양한 동원가들의 생각으로부터 정리된 일반적인 개념들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제안과 결론에 이르는 연구라는 제한을 가진다. 선교지라는 상황상 선교 동원과 관련된 서적을 충분히 참고하지 못한 점은 본 소논문의 또 다른 한계임을 밝힌다. 필자의 글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선교 동원의 논의를 위한 하나의 마중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할 뿐이다.

## 본론

### 모든 인간은 실수한다

인간의 실수는 불완전성에서 출발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어쩌면 필자의 개인적인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다. 필자가 선교를 직접적으로 접한 것은 아직 청춘이던 1992년 여름부터 1년 동안 인도에서 경험했던 단기선교이다. 인도는 매우 흥미로운 나라이다. 모든 종교와 인종과 언어가 뒤섞여 여유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안에는 계급과 단절됨이 존재하는 곳으로 기억한다.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을 만나며 그들의 열정과 헌신과 현지인에 대한 사랑에 감탄할 즈음, 또 다른 이면에 보이는 갈등과 경쟁과 분리를 보면서 막연하게 이해하던 선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회가 열려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준비되었다는 착각을 했다. 젊은 시절의 선부른 선교 경험과 미숙한 이론 배경, 그리고 선교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선교사로 나아갈 때 불균형의 열정과 불완전한 지식이 실수에 실수를 더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은 추후도 생각하지 못했다.

실제로 성경은 얼마나 많은 인간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고 온 열방에 복을 통로가 되었던 아브라함 역시, 실수의 연속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본다. 어디 아브라함 뿐일까? 성경에 나오는 정말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필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은 실수가 기록이 안 된 것이지 모두 불완전하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진다) 인간은 모두 실수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점이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복된 소식은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담긴 선교를 맡기셨다는 점이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 것은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선교 동원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 불완전한 인간과 완벽한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선교 계획을 불완전한 인간에게 맡기셨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저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선교는 예수님의 대위임령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로 이어진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으로 이해한다(Christopher Wright 2012:50). 다른 말로 하면, 선교는 온 세상을 창조하는 시작부터 진행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얼마

나 확고하고 분명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온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 아브라함의 복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선택과 탄생,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동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필자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족장시대를 거쳐, 사사시대, 왕권시대에서 나타난 인간의 불완전성이 완벽한 하나님의 선교를 얼마나 훼손했는지를 보게 되었다. 구약성경은 온 열방에 복이 되고 복을 전해야 할 소명을 망각한 이스라엘의 실패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끝이 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어진다. 마치 연극의 1부가 끝나고 휴식시간 후에 아직 끝나지 않은 2부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는 선교를 위해 태어나고 죽고 부활했다. 그리고 그 선교적 열정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새로운 선교적 소명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완벽한 하나님의 선교가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 제자들에게 맡겨진다는 점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실수 투성이인 제자들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선교적 부르심을 깨닫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실수와 오해가 뒤범벅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선교적 인물 사도 바울이 등장한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선교를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평가보다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디모데전서 1:12). 여기 까지만 들으면 마치 하나님의 선교가 그 일을 감당한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겨져 진행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세 구절 뒤에 들려지는 그의 고백은 가히 충격적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디모데전서 1:15). 필자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렇게 들린다. ‘나는 선교적 부르심과 사명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지식이나 능력이나 전략이나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아는 한,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발견된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고린도후서 12:7-10).

선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계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동원하시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선교를 진행하신다. 선교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나누는 것이다(Christopher Wright 2012:21). 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온 세상도 아니고 온전한 복음도 아니다. 문제는 선교에 동참해야 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선교 동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선교 동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 선교 동원의 의미

동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사전에서는 동원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병력이나 전쟁용 물품을 모으고 전쟁 때의 체제로 바꾸는 일” 또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사람이나 물건, 방법 등

을 한데 모음”이라고 정의한다(네이버사전, 2020). 이와 같이 동원이라는 단어는 군사용어로도 사용돼 군대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일을 의미한다. 군사적 의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동원이란 사람을 모아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사용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선교를 위한 동원도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인간이 동원돼 당신의 선교적 목적을 이룬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하는 이유가 당신의 선교적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 사람을 부르고 사용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 동원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선교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일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가? 필자는 구약의 한 사건과 신약의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선교와 관련된 동원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고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도록 한다.

### 1. 요나서 3장과 4장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이해할 수 없었던 요나가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한 요나는 결국 자신에 의해 파선 위기에 처한 배에서 바닷물에 던지움을 당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요나 1:9). 이것은 그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대한 지식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기록이다. 하지만 그 정확한 지식이 결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본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무성의한 태도로(삼일 길을 걸어야 할 성을 하루 만에 끝내 버린다) 멸망(소망이 담긴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멸망으로 파멸된다는 메시지이다)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아이러니하게도 큰 성 니느웨에 속한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 요나서는 한 선지자의 사역이 마쳐지고 난 후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선교의 결과가 기록된 3장에서 멈출 수도 있었다. 그것이 요나서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끝나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나서는 아직 4장이 남아있다. 요나서 4장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이다. 하나님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그가 동원한 한 사람 요나를 다루는 장면으로 전체 네 장 가운데 한 장을 소비한다. 그것은 선교의 목적이 완성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소비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 요나를 단순히 하나님의 선교 목적 성취를 위한 동원의 도구로 취급했다면 나올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요나서 4장이다.

### 2.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마가복음 3:13-15).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습에서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에 관한

관심과 사역을 완수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소명이다. 함께 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소명에 대해서 기록한다. 그것이 선교 사명이 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선교 사명의 이유만으로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구약과 신약의 이 두 장면은 선교 동원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선교적 동원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동원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한 후 폐기처분 하지 않고 그들을 인격체로 대하며 함께 하는 동역자로 그리고 함께 그 선교의 과정을 나누는 사람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피터 슈드롭스키는 동원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한다. “선교 기관의 기본 과제 중 하나는 복음 전파를 완수하기 위한 헌신과 그 일을 감당하는 선교 인력을 돌보고 개발시키는 것에 대한 헌신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Peter 1992: 247). 선교 동원은 어떤 목적을 위한 부름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부름 받은 사람들을 돌보며 성장시키며 함께 그 결과물을 나누는 기쁨에 초대한다.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선교 완성의 그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선교를 위해 동원됐던 사람과 선교 동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이 선교의 완성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점이다(요한계시록 7:9, 10).

선교 동원 이해에 대한 또 다른 변화를 언급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GBT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선교 동원이라고 쓰지 않고 교회 협력이라고 표현한다(홍현민 2020.11.13 LAMS 강의). 한국 인터서브선교회에서는 변화하는 선교 상황 가운데 그동안 해오던 선교 동원의 노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교회 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높였다고 한다(조샘. 2020. 11.18. LAMS 강의). 교회 협력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는 선교 동원의 이해와 실천에 대한 한국 선교단체와 한국 교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준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원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관한 관심과 함께 그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 동원은 기본적으로 관계에 기초한다

선교는 선교사 자신이신 하나님의 일 하심과 그의 선교적 소명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일 하심만 이해한다면 마치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을 18절부터 이해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대위임령은 하나님의 선교적 메시지인 18절부터 시작이 아니라 16절인 그 선교 대위임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야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대위임령이라는 소제목 아래 선교 대위임령이 18절이 아니라 16절부터 시작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다시 마태복음 28장 16~20절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랑하는 일,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동원 전략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이라는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마태복음 22:27~29)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선교에서 인간은 도구가 될 수 없다. 소명을 받고 동원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 받은 인격체이며 사랑하는 대상이지 일을 이루어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선교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후 어떤 일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동원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선교의 완성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선교의 완성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선교의 완성을 위해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완성 이후 새롭게 시작될 관계까지의 연결선상 안에서 동원으로 생각하면, 선교를 위해 동원된 사람들을 일회성 목적의 도구나 일꾼이 아닌 영원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진행할 동역자로 서로에 대한 깊은 헌신과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다.

### 선교 동원의 절묘한 조화

선교 동원은 사람과 사역 사이의 절묘한 조화이다. 동원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사역을 이루어 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행하려는 사역이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을 잘 세우고 동원하면 생각지도 못한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람과 사역의 역학 관계는 어떤 것을 우선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사람과 사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필자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선교사역도 마찬가지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역에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내기 위해 사람을 동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필자가 위의 요나 선지자와 예수님의 경우를 예로 든 것처럼, 사역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함을 어느 한 쪽에 두는 것은 어렵다. 성경은 때로 아무런 사역의 연고 없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원된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동원된 사람들이 동원가의 입장으로는 본인들의 사역에 별로 필요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하다. 다윗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별로 동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낙오자들 온갖 실패한 사람과 부랑자와 부적응자들도 모두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두 사백 명쯤 되었다.”(삼상 22:2 메시지성경).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모여든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며, 기대와는 달리 여러 연약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본인이나 본인의 사역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할 것인가? 오히려 주변의 매우 평범한 사람을 세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동원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제까지의 생각 나눔은 필자가 서론에서 질문한 것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기초를 놓아주는 데 필요한 작업이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 동원을 방해하는 몇 가지 장애요소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어떻게 선교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과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자.

### 선교 동원의 장애요인들

선교 동원을 제안하기에 앞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의제들이 있다. 그것들은 선교와 관련된 생각이기도 하며 그 생각들은 선교적 행동의 기본을 이루어 선교 활동을 위해서 선교 동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다. 참고로 이곳에서 다루는 장애요인들은 일부일 뿐이며 개인적인 경험

에서 나온 주관적인 것들이기도 하다. 아래의 세 가지 장애요인들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 선교 동원의 가치의 틀을 놓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 인간적 성취와 업적과 비슷하게 선교도 인간이 성취 가능한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 인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선교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선교를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목적의 무엇이라고 이해한다.

#### 1번에 관한 생각:

선교를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 인식했던 선교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다. 랄프 윈터는 선교가 하나님인 선교인 점을 강조하면서 선교가 인간의 노력과 그 보상에 대한 업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그의 저서 『25년의 선교 역사』를 통해 보여준다. 랄프 윈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구 식민 통치가 끝나자 서구 선교단체들은 세계선교운동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점을 언급한다. 수많은 선교사가 추방되었고 사역지의 선교 활동이 중단되어 아직 연약했던 비서구 교회는 곧 사라지고 서방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땀과 헌신으로 일구었던 선교 사업이 곧 끝날 것처럼 보였던 시기이다. 그러나 그들의 절망과는 달리 비서구 선교는 쇠퇴하지 않고 계속 진행될 뿐만 아니라 걱정을 뒤로한 채 오히려 부흥을 경험한다고 랄프 윈터는 밝힌다. 1945년에서 1969년 사이 서양 선교사들의 사역이 중단된 것처럼 보인 그때 비서구 선교는 오히려 모든 사람의 기대를 뒤집었고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선교적 열망이 일어났다. 그 후 세계 기독교 선교의 주도권은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겨진다고 랄프 윈터는 소회한다 (Ralph Winter 1969:5).

선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다. 선교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 동원은 인간의 노력과 업적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될 수 없다. 선교 동원은 그러한 노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가끔 동원된 선교사들이 업적에 따라 평가받는 모습을 본다. 업적을 이루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선교사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인간적인 평가이고 하나님의 선교는 그러한 인간적인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 2번에 관한 생각:

“나도 선교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동남아시아에서 선교 동원 사역을 하는 필자가 자주 접하는 질문이다. 그들의 고백은 “우리는 당신들만큼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교회적 배경도 없고, 학문이나 경험의 배경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라는 반문으로 들린다. 마치 선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자의 전유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반문이지만, 슬프게도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것은 어쩌면 힘을 가지고 선교했던 일부 선교사들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본다. 바울의 약함을 신학적으로 연구한 알랜 블랙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기록한다.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만약 인간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약한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 하지만 인간은 조금만 강해지면 그 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며 인간이 강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다 (Black 1984:92).

데이비드 보쉬 또한 기독교의 독특성을 십자가로 설명하며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은 힘이 아니라 약함이라고 말한다 (Bosch 1992:354). 약함은 선교를 막는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며 예수님은 약함의 모습으로 오셔서 약함 가운데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셨다. 십자가는 약함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선교적 모델이다.

3번에 관한 생각:

그동안의 선교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이해되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필자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과 분리돼야 하는 경험을 했다. 가족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필자는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두려움, 그리고 선교사역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생각했던 선교사로서의 ‘의무와 특권’ 이 하루아침에 마비되면서 필자는 외부 상황에 의해 약한 사람이 되었다. 혼자 힘으로 선교를 할 수 없으며 내가 선교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 되심을 피부로 경험하였다.

필자는 아래의 도표를 통해 필자가 경험한 선교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정리해 보았다.

코로나 경험 이전	코로나 경험 이후
기관과 사람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특별한 사람과 선교사에 의한 선교	이름 없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
특별한 사람과 지역의 선교	모든 사람과 모든 영역의 선교
독립적이며 강한 사람의 선교	연약한 사람들의 연대를 통한 선교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교를 행하는 선교사나 선교단체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생각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이나 선교적 은사가 있는 소수라고 생각했다. 대표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라 불린 사도 바울은 범접할 수 있는 선교사 부류라고 생각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오히려 흠어진 사람에 의한 풀뿌리 선교를 말한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 무리 중 한 명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백성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지역에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도 선교라고 말할 때 많은 경우 해외선교에 치우쳐 생각한다. 하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영역과 모든 사람을 위한 선교여야 한다. 단언컨대, 이러한 생각이 해외선교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선교의 영역과 범위를 넓히며 그동안 간과했던 하나님의 선교 영역을 더욱 넓게 이해하고, 더욱 깊고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으며 더 다양한 선교적 자원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

선교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 무엇인가 나눠 줄 것이 있고 베풀어 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존경을 받는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교는 오히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들에게 찾아간 선교였으며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변 동료들과 연합을 이루는 선교로 진행돼 왔다.

이상에서 언급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실제로 선교 동원이라는 주제 아래 어떤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5개의 주제로 나뉜 실천적 생각들이 질문으로 연결돼 더 많은 정체된 생각들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 동원을 위한 실천적 생각

### 1.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

중앙아시아로 선교사역을 들어가기 전 답사를 한 적이 있다. 필자의 생각보다 선교사들이 많아 보여서 시니어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께 당돌하지만 궁금한 질문을 했다. “이곳에 선교사들이 더 와야 할까요?”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다. “당연히 더 와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선교사가 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선교사란 누구이며 어떻게 더 좋은 선교사를 동원할 수 있을까? 좋은 선교사란 개념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여 여기서는 다루지 못하지만 좋은 선교사를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제안하려 한다.

좋은 선교사를 동원하려면 좋은 선교단체가 필요하다. 서두에서 거론되었지만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것은 선교사에게도 예외가 없다. 하지만 실수하는 것과 그 실수가 계속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선교사에게 주어진 환경은 일반적으로 외로움을 동반하는 열악한 곳이다. 하지만 다행히 선교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고 선교사에게는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룰 꿈이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선교사에게 공동체는 선교단체가 될 수도 있고, 동료 선교사 또는 현지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필자는 선교단체를 지목하여 말하고자 한다. 선교단체는 선교사가 함께 일하고 싶은 선교단체가 되어야 한다. 선교단체는 의와 공도를 지키며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행복한 단체가 되어야 한다. 선교단체는 함께 할 때 행복하고, 선교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성장을 촉진하며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한 폐기품을 구석에 버려두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관련 질문: 선교단체로서 함께 하는 선교사들은 일꾼인가 동역자인가? 더욱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우리의 모습과 노력은 무엇인가?

### 2. 정상에 세우기

미국의 원정대가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데 가장 건강한 두 사람을 뽑아서 내려가서 음식을 가지고 오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올려보냈다고 한다.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함께 이루어 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함께 길을 걷고 있는 내 옆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된다.

선교사 자원을 정상에 세워야 한다. 정상에 세운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여 인정받게 한다는 뜻이 아니

다. 큰일이 아니어도 된다. 오히려 어떠한 일이든지 선교사 자신이 리더십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하는 것이 정상에 세우는 것이다. 단체 안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공로는 감춰지고 그 기쁨과 영광을 단체의 리더가 독차지하는 경우를 본다. 동료 의식은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 가운데 경쟁 의식을 배제하게 만든다. 혹시 동료의 사역에 경쟁심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0:24-27).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로 돌아가 예수님이 보여준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 됨을 취하지 않고...”(빌립보서 2:6-11).

관련 질문: 공동체는 멤버들의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멤버들은 자신이 정상에 세워짐을 경험하고 있는가? 공동체의 리더는 정상에서 무대 뒤로 언제든지 물러서고 동료 선교사들이 마음껏 무대 위를 뛰어다니고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줄 마음이 있는가?

### 3. 전문가와의 협력과 자원 개발

될 수 있으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오픈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배우며 성장하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원가는 동원된 사람들이 가진 전문 영역을 잘 사용하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한다. 다른 말로,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를 돌려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는 일도 중요하다.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여 전문가가 되고 전문적인 일을 감당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 로버트 클린턴의 저서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는 리더십 개발에 대한 책이지만 동원된 자원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활용하는 실제적인 참고서로 참고할 수 있다.

관련 질문: 우리에게 어떤 전문 자원들이 필요한가? 전문 자원들이 선교단체에 노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맞는 지역과 장소와 위치와 사역을 제공하거나 연결해 줄 수 있나?

### 4. 마중물의 역할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니까’ ‘우리만큼 잘’ 이런 단어들이 ‘우리만의 선교’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영원할 수 있는 선교단체는 없다. 선교단체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생길 수도 있으며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를 마중물로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며 헌신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변하지 않을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위해서 마중물이 될 것이며, 섬길 것이며, 사랑할 것이며,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관련 질문: 마중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마중물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가? 마중물이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하는가?

## 5. 개인 성장과 사역의 관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와 역할을 이해한다고 가정하고, 자신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는가 생각해보자. 사람들의 성장은 결국 사역에서도 같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학습 기회와 기술의 습득, 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동체의 분위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인생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선교사에게는 다음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 변속 기어를 넣어야 할 시기가 필요하다. 때로는 고속으로 평지를 달려야 할 때도 있고 저속으로 내려가야 할 때도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또한 현장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면 멤버들이 과거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중국인 사역자들이 추방되었는데 중국에서 중국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사역하던 선교사는 그의 중국 사역을 다른 곳에서도 확장되어 섬길 기회가 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의 안식년을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단체는 선교사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선교사에게 안식년만큼 긴 휴식을 취하면서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미래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은 없다. 안식년에 지속적인 교육(가능하다면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개인 성장을 위한 훈련 그리고 필요하다면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기회를 가지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식년이 너무 길다면 안식월 또는 특별한 훈련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성장과 연관성이 있다. 코비드-19 기간은 그런 의미에서 잠시나마 바쁘던 사역을 본의 아니게 내려놓는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성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할 것이다.

관련 질문: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동역자들의 은사와 역할, 기술습득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인가? 단체로서 선교사들의 성장을 위한 정보와 지원 그리고 격려와 상담 등이 가능한가?

이상으로 선교 동원과 관련된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이제 미래를 살아갈 선교 동원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동원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간단하게 투영해 보고 결론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제안될 선교 동원을 위한 가치와 행동은 앞에서 풀어낸 이야기들로 인해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결론

조동진 박사는 아시아 교회의 선교 동원을 위해 그의 인생을 드렸다.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은 조동진 박사의 선교 정신을 이어 아시아 교회들이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소원하며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아시아 교회들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동력이며 자원이다. 아니 이전부터 그런 교회들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이 일에 동역자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교회들이 선교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고 그들이 선교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며 함께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동원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

게 보면 동원이야말로 선교의 꽃이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 피어난다. 꽃은 피고 지며 그렇게 선교의 열매들은 자라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온 세상에 맺혀진 복음의 열매들이 외칠 영광의 함성이 울려 퍼질 그날까지 더 많은 선교의 꽃을 피워야 하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주인은 따로 있다. 우리는 다만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일 뿐이며 주인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장거리 달리기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우리의 일이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결국 저들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고 격려해야 하는 일이 마지막에 동원가가 할 일이다. 저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 배웠던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고 맡겨야 한다. 이것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정리해 본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동원이라고 생각하면 동원은 어쩌면 매우 쉽게 진행될 수 있지만 고도로 어려운 섬김과 사랑 그리고 이양과 믿음의 사역인 것 같다.

### 제안: 코비드-19 이후 선교 동원을 위한 가치와 행동

1. 공동체적 선교를 통한 동원: 사랑 실천의 공동체, 하나 됨의 공동체, 협력하는 공동체의 일원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선교를 지향한다.
2. 약함으로의 선교를 통한 동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과 실천에 기초한 사랑과 섬김을 통한 동원을 추구한다.
3. 소비 자원이 아닌 성장 자원으로의 동원: 일회성과 소모성을 지양하며 개인의 은사와 성장을 함께 경험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한다.
4. 제한이 없는 영역과 다양한 소명을 위한 동원: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인 삶을 학교와 직장과 자신의 범주 안에서 선교할 뿐만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협력한다. 전문성을 담은 큰 그릇이 되도록 힘쓰며 각 선교단체의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양함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힘쓴다.

선교사에게 느꼈던 생각을 나누는 아래의 말을 되새기며 동원에 대한 생각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우리가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는 않습니다(Fleming 1925:27).

### 참고 문헌

Black, Alan David

1984. "Paulus Infirmus: The Pauline Concept of Weakness" *Grace Theological Journal* 5.1: 77-93. Hither Bound in Missions. New York: Association press.

Bosch, David J.

1992. "The Vulnerability of Mission" *Baptist Quarterly* 1992 October Volume XXXIV No.8 : 351-363.

2000. *A Spirituality of the Road*,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Fleming, J. Daniel

1925. *Whither Bound in Missions*. New York: Association Press.

Shedlosky, Peter

1992. "Career Development and the Mission Agency." In K. O'Donnell(Ed.),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zation* (pp.247-259).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Winter, Ralph

1969. *The 25 Unbelievable Years 1945-1969*.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3rd printing edition.

Wright, Christopher J. H.

2012. 『하나님 백성의 선교The Mission of God's People』 한화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이대행. 2020.10.21. LAMS 강의, 치앙마이.

조샘. 2020.11.18. LAMS 강의, 치앙마이.

홍현민. 2020.11.13. LAMS 강의, 치앙마이.

네이버사전. 동원의 의미 2020.11.18.<https://korean.dict.naver.com/english/krenEntry.nhn?sLn=kr&entryId=36e1832ee7a042158bfa9a9aef950004>

# 코로나19 시대 선교사역의 이양과 정착

고 경 호

Hope for Families 국제 디렉터

## 서론

지난 10여 년은 국제화(globalization) 시대였다. 국제화가 선교에 준 큰 이익은 나라 간 경계를 넘는 용이한 협력으로 여러 선교 활동이 활성화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움직인 그 협력의 현장에는 현지에 자리 잡은 거주 선교사의 수고, 방문 전문 선교 사역자의 수고, 그리고 선교지를 찾은 평신도 단기선교 자원자의 후원과 수고가 있다. 그 과정에는 모여서, 함께 도모하고, 경험을 공유한 연대성이 큰 역할을 차지했다.

2020년 봄부터 코로나19로 국가 간의 국경이 닫히고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대성을 쌓을 기회가 제한됐다. 모여서 현장을 공유하는 연대성에 기초한 전통적 선교사역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미 선교사들의 현장 철수, 많은 선교사역의 잠정적 보류가 현실이 되었다.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제 연구가 긍정적 결과를 얻고 있지만, 바이러스의 진화 또한 확인되고 있다. 아직 기승을 부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위기를 넘겨도 완전한 일상의 복귀는 대부분 2022년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후로도 전염병과 삶의 공존이 예견된다. 따라서 우리는 더는 코로나19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가 아니라 전염병과 일상을 같이 가는 위드 코로나(with-Corona) 시대를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익숙했던, 활발하고 신속한 지역 간, 국가 간의 교류에서 있던 국제화 시대에 특화된 선교도 변해야 하는 시간이다.

## 익숙하던 것을 멈춘 시간의 과제

하나님의 선교는 어느 때이고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도 여러 선교 현장에서 현지 리더들과 고민하며 현지 성도를 돌보는 선교사의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선교사가 현지에 있지 못해 어려운 선교 사역도 있다. 멈춰진 사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갑자기 주어진 공백의 시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따라 이 시기가 주는 의미가 달라진다. 이 시간은 '견딜'을 넘어 미래에의 투자가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

물리적으로 선교사와 현지가 멀어지며 선교사와 현지 리더 사이에도 뉴 노멀(new normal)이 생긴다. 그것은 선교사가 현지에 갖는 영향력의 축소로 연결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다시 국가 간 왕래가 익숙해지더라도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음을 감지한다. 변화하는 시대마다 모든 영역에서 새로

운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전체 하나님의 선교 역사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시기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늘 막다른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정체된 듯 보이는 이 시대가 품고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을 단순히 선교 현장 사역의 잠정적 보류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껏 해오던 선교 방법을 점검하고 그동안 막혔던 부분을 풀어, 새로운 선교가 태동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코로나19 이후의 선교를 위한 접근

이런 고민, 막힌 곳을 뚫어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고민은 사실 코로나19 사태 발생과 관계없이 선교공동체 전체가 언제나 묻고 찾아야 할 고민이다. 필자는 평신도 자비량 사역자로 회복 전문 선교를 하며 지난 12년을 현장의 현지 리더나 거주 선교사들과 동역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선교학을 통해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며 만난 많은 선교공동체 가족의 헌신과 수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 동시에 전임 사역자가 아님에도 전문 선교를 위해 삶을 쪼개어 훈련받고 자비량으로 사역해 온 사람으로, 일종의 ‘외부인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 외부인의 시각은 전문가에게 익숙한 일을 다르게 봄으로 문제 전환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Drucker 2006, 85). 필자의 이런 관점은 전임 선교 사역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선교 현장의 많은 부분을 다르게 인식하게 한다.

그런 관점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선교지의 낮은 자립도이다. 물론 절대적 빈곤의 현장에 현지인의 생존을 후원하는 에큐메니컬 선교는 복음 전파와 더불어 지속해야 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수고하는 거주 선교사를 위한 후원, 격려, 중보기도, 그리고 때에 따른 단기 팀의 방문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모든 선교가 결국은 복음으로 삶이 회복되어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 (Shenk 2001, 294)로 현지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믿는다. 회심 후 훈련받고 성장한 현지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자율적 선교를 위한 비전을 심고 훈련이 제공된다면 성숙의 속도가 빨라지고 복음 전파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일에는 현지 리더와 그곳의 거주 선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성숙한 거주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을 재점검하도록 도와 현지인이 자신의 삶과 복음 전파에 주체적 존재로 도전하고 성장하도록 한다(Hiebert 1996, 40). 이 과정에 외부에서 온 단기선교 팀이 간혹 현지 선교사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후유증을 남기거나 재정 보조나 일회성 이벤트에 국한된 선교를 하는 것을 보았다. 단기선교 사역 팀의 전문성이 약하거나 그들을 맞는 선교사들의 일률적인 동역 방식이 현지 리더를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현지의 서구에 대한 의존 성향(1996, 331)과 관련이 있고 이를 전환하기 위해 현지 리더를 대하는 선교사의 인식이 변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10년 넘게 단기 전문 선교사역 팀을 이끈 필자에게 여러 현지 동역자가 했던 반응 중 가장 용기와 영감을 준 것은 “가르쳐주면 직접 하겠다.”라던 현지의 바람이다. 이것은 일시적 혜택을 받는 것을 넘어 그 만남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는 현지의 열망이다. 훈련을 통해 직접 할 만큼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선교 사

역의 이양과 정착'의 이야기이다. 물론 이런 과정은 선교사와 현지 리더 사이의 여러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란다는 이치를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을 담은 복음의 사역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자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현지 리더들이 직접 사역하도록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세우고,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가진 '선교 현장과의 분리 시간'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시간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사역을 조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필자가 2019년에 발표한 "선교 사역 이양과 정착을 위한 4단계 방안: PASS 모델" (이후 PASS 모델)의 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겠다.

## 본론

이 글에서 필자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하는 대상은 현재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해 사역이 중단된 곳과 필자를 포함해 방문 사역을 주로 하던 전문 선교사역이다. 지금은 멈춘 듯 보이는 그 사역들이 처한 상황에서 힘써야 할 대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현황 파악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과 함께 들려오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소식은 코로나19 이후의 선교 정상화가 우리 바람만큼 빠르지 않을 것임을 알려준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선교 대상자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 그들과 비대면 모임으로 교류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지도하고 지적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와 떨어져 스스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우리는 그들이 잘 해내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이 멈출 수도 있다. 또 그들은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미흡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현지 리더들의 역량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믿고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최선책이다.

## 선교지의 자립, 그 아쉬운 현실

사실 이런 현실은 선교 현지 리더들을 인정하지 못하면 불안한 일이다. 이미 많은 선교의 선배들이 현지인들의 자율권에 대해 불안해해 왔다. 그들의 자신학화나 상황화에 대한 불안은 선교사가 가진 전문성과 현지 리더의 결핍을 비교하면 거의 정당한 걱정이다.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를 알기에 갖는 불안감. 그러나 이런 불안의 원인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진 일방적인 기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부터 선교지 리더들의 성장을 위한 의도적이고 단계적인 지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체험하는 현지 지도력에 대한 불안감은 이후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 변화의 방향은 '힘의 선교'가 가진 일방적인 힘의 방향 잔재를 씻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부분적일지언정, 복음의 전파 방식에는 식민 제국들의 확장에 편승한 '힘의 논리'가 스며져 있다. 거기 있는 불순한 이념들을 먼저 인지하고 골라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추구하는 성과 지향주의, 모르는 사이에 현지인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 단기간에 구체적 성과를 내고자 재정으로 접근하는 물질 만능주의, 조직이 주도하여 개별성을 망가뜨리는 전체주의, 자신

의 방식이 복음적이라 믿는 자문화중심주의. 이런 여러 성향과 이념들은 복음 전파라는 숭고한 사명을 오염했다. 그 사명을 따르는 선교 헌신자 속에 부지중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복음적이어야 하는 선교 방식이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현재 선교지가 가진 미자립의 문제를 재고하기 위해 우리는 성급히 ‘무엇을’ 혹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서는 안 된다. 오랜 선교 방식에서 불거진 문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기에 이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위협하다. 이미 해오던 방법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우리가 가진 ‘집단적, 개인적 행동의 인식과 관심의 질’을 바꿔야만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Scharmer 2014, 39).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길 때이다. 이런 고민이 선교사의 자발적 의무인 것은 현지인이 가진 ‘비인간적, 관념적 문화에 오염된 영역 발견’은 외부인의 관점에서 이미 선교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Bevans 2002, 57). 우리의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현지인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물론 현지 리더들이 그 일을 위해 완전히 준비되었다고는 믿기 어렵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선교를 위해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발적 낮아짐으로 이 땅에 임했다. 복음은 예수의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하심, 그리고 부활을 믿는 신앙에 담겨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의 가장 낮은 자들이던 로마 식민지 유대인 제자들과 이방인을 통해 전해졌다(Glasser 2006, 346). 복음을 접한 ‘약한 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던 복음 전파,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인정함으로써 함께해온 초대교회 선교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불거지던 선교사와 현지 리더 사이의 갈등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조용한 듯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역하려면 반발을 살 것이다. 그들은 이미 선택의 여지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후로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시대에 복음이 가장 역동적으로 퍼질 수 있는 방식으로 선교를 조정하려면 리더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선교 리더들이 선교지를 대하는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 비서구권 세계는 힘 있는 서구 혹은 세력을 가진 어떤 집단을 향해 터는 무조건 열려 있지 않다. 그들은 타 문화에서 온 권위자가 그들을 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을 단순히 가르치고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파의 동역자로 봐야 한다. 선한 믿음의 경주인 선교에서 배턴baton을 넘겨줄 다음 주자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자는 선교사와 선교지의 관계 변화를 ‘사역 이양과 정착’의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선교 현지 리더들을 인정하고 권위를 위임하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 현실을 유의미하게 전환하기 위해 지금 집중해야 한다. 이것을 “선교 사역 이양과 정착을 위한 4단계 방안 :PASS 모델”의 틀로 설명하겠다.

### 선교 사역의 이양과 정착 4 단계 방안: PASS 모델 소개

PASS 모델은 필자가 2019년 박사 논문에서 소개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여성 회복 선교사역, Hope for Families (이후 Hope Fam) 여성세미나의 이양과 정착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Hope Fam 여성세미나는 여성 회복 전문 사역이다. 지난 12년간 12개국의 21개 도시에서 사역하며 10곳의 이양지에 사역 이양과 정착을 실행했다. 그 과정은 2020년에 출판된 필자의 『여성 회복, 그 갈망』에 기술되어 있다(고경호 2020). 저자는 그 연구에서 선교사역을 건강히 성장시키고 선교 현지가 스스로 하도록 돕는 모델로 PASS 모델을 제시했다. 코로나19를 겪는 지금과 그 이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PASS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PASS 모델의 배경

Hope Fam 여성세미나 사역의 중남미와 아시아권 사역 이양 과정에는 다분히 국제화 물결이 준 혜택이 있다. 그 혜택은 외부인이 주관하는 단기선교 사역에 대한 현지의 열린 환영, 그리고 동역자들의 해외 방문 단기선교 사역에 대한 수용적 자세이다. 선교사들의 수고로 건강히 자리 잡은 현지 신앙공동체가 준비된 자세로 사역 이양을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혜택에 힘입어 여성세미나 사역을 현지에 이양하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훌륭한 선교 헌신자들이 많은 선교사역을 선교지에 공급하지만, 그 사역이 현지에 이양되고 정착된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다.

필자에게 그것은 마치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부모에게서 계속 영양을 공급받은 아이가 덩치는 커졌으나 스스로 책임 있는 성인이 되거나 다른 이를 돕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오랜 선교 혜택을 받은 선교지가 독립하지 못한 여러 이유를 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 처음부터 현지 교회를 독립된 선교 객체로 성장시킬 기대로 접근하지 못한 선교 공동체의 책임이다. 둘째는 현지가 선교공동체의 도움을 통해 성장하고 독립하겠다는 인식이 없었던 까닭이다.

모든 선교지가 단기간에 자치, 자전, 자립하도록 독립할 수는 없다. 생존을 위한 자생력이 없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을 후원하며 돕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병행해야 하는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받아드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추진할 일이다. 그런 인식을 하며 복음의 전달자와 현지 리더들이 협력하면 현지가 자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어디를 목표로 걷느냐에 따라 걷는 이들의 행로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목적 없이 걷는다면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도중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한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몸을 가볍게 하고 끝까지 걷는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선교 현지인들에의 복음 전파와 그들의 삶의 회복을 돕는 선교사역의 현지 이양과 정착은 사역 시작 전부터 계획에 들어 있어야 한다. 마라톤의 행로처럼, 전쟁의 작전지도처럼, 사역의 시작과 과정을 파악하고 이양과 정착이라는 끝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PASS 모델 설명

사역이 전해져 이양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설명한 PASS 모델의 이름은 이양과 정착 과정을 영어로 표현한 Planting, Adapting, Standing, Sharing의 약자를 딴 것이다. 이 모델의 제1단계인 Planting(P)은 선교 사역을

선교지에 소개하는 단계로 현지인들이 충실히 사역을 경험하도록 섬겨서 현지인들에게 비전을 심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인 Adapting(A)은 선교사역을 소개받은 현지 리더들이 복음이 담긴 선교사역을 배우며 직접 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세 번째 단계는 현지 리더들이 직접 사역을 주도하며 자신의 지역을 섬기는 Standing(S)이다. 마지막으로 4단계인 Sharing (S) 단계는 본부팀과 사역을 배워 독립한 이양팀이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단계이다.

이런 사역 이양의 단계를 본인은 “나무를 현지에 심고plant, 토양에 맞춰 뿌리 내리고adapt, 든든히 서고stand, 그 그늘과 열매를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협력하는 것share” 으로 표현한다(고경호 2020:303). 이 단계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교 사역의 이양과 정착 방안: PASS 모델  
(고경호 2020:303)

단계	내용	약자	원어	특징	주도자
1단계	심는 단계	P	PLANT	사역이 현지에 소개됨	선교사 (본부팀)
2단계	적응 단계	A	ADAPT	현지가 사역을 받아들임	본부팀과 현지 (이양팀)
3 단계	서는 단계	S	STAND	현지에 이양팀이 홀로 섬	이양팀
4 단계	나누는 단계	S	SHARE	본부팀과 이양팀이 협력함	이양팀과 본부팀

타 문화권 선교사역의 최종 목표를 현지인들이 직접 선교하도록 하는 것으로 잡고, 위의 표를 보충 설명한다. 여기서 ‘복음 전파’는 ‘말씀 선포’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복음 전파에의 참여를 포함한다.

제1단계 Plant(P)에서 사역 본부팀은 복음 전파 사역을 현지에 소개한다. 사역을 위한 실제적 준비를 하며 현지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현지는 본부팀이 소개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신실하게 경험해야 한다. 이미 선교사가 현지에서 사역하던 모든 사역지는 이 단계를 거쳤다고 본다.

제2단계는 적응 단계로 Adapt(A)이다. 이 단계는 선교사와 현지인이 동역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고정 문화가 충돌하는 시기이다. 서로 용납하며 어느 한쪽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추어 서로를 조정해야 한다.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현지인의 선교 참여’ 까지 가는 과정이다. 본부팀은 영적 분별력과 인내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선교에 열려있어야 한다. 자문화 중심적이거나 권위적, 목표 지향적 태도는 현지와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현지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도록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어야 한다. 이 단계에는 현지에서 벌어지는 선교사와 현지인의 갈등이 존재하며 그 갈등의 해결이 차후 선교 활성화의 차이를 가져온다.

제3단계인 Stand(S)는 선교사가 빠지고 현지가 스스로 사역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가 필요한 이유는 권위

자인 선교사가 빠짐으로 현지 리더십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이때 현지 리더와 현지 성도들이 함께 복음적 삶을 고민하며 만드는 대조적 공동체는 구심적 선교로 복음 전파를 감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들의 선교 참여 기회가 늘어나 많은 은사가 개발된다. 대부분의 초기 선교사역은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2단계에 머물곤 한다. 코로나19의 시간에 현지가 자체 사역이 가능하다면 3단계를 거치는 중으로 볼 수 있다.

제4단계는 이미 자체 사역이 가능한 현지와 선교사가 협력하는 시기이다. 더는 선교사가 가르치고 현지가 배우는 시기가 아니라, 서로가 가진 장점을 나누는 시기이다. 특히, 현지 리더들이 상황화를 통해 발견한 자신들의 현장에 특화된 'know how'를 선교사에게 나누면 선교사는 유사한 상황의 선교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선교사는 현지 리더에게 공적으로 권위를 위임함으로써 현지 리더의 권위를 안정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지 리더를 위한 고급 과정의 리더십 훈련이 도움이 된다.

4단계의 마지막에는 선교사와 현지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는 동역자의 관계가 된다. 이 단계에 이른 현지와 선교사는 계속 같은 지역의 사역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서 함께 사역하며 다른 현지를 훈련할 수 있다. 이러면 사역의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3세대를 돕는 것이다. 물론 1세대(선교사)와 2세대(현지 이양지)는 기능 면에서 동등한 사역을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서로 겹치는 지점을 찾게 되고 자발적 동역의 기회를 만들어 상승효과를 갖게 된다. 이 단계는 궁극적으로 모든 선교사역이 도달해야 하는 바람직한 단계이다. 각 단계의 주요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PASS 모델의 단계별 구성 요소  
(고경호 2021)

단계	요소	설명
1 단계 PLANTING	사역 소개	선교사가 사역을 소개함
	신뢰 형성	긍정적 관계 형성으로 서로를 신뢰함
	관찰과 경험	현지인과 선교사 쌍방간의 관찰과 경험
2 단계 ADAPTING	문화 충돌	문화적 차이가 빚는 갈등
	용납하기	문화적 차이를 넘는 이해와 사랑
	성령의 선교	갈등과 불편을 넘어 추구하는 하나님의 선교
	용기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현지인의 자세
3단계 STANDING	리더의 지도와 격려	복음적 삶의 변화를 위한 필수 조건
	대조적 공동체	복음적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은사 개발	현지 리더들의 성장
4 단계 SHARING	상황화	선교사의 지식을 능가하는 현지의 해법들
	권위 위임	현지 리더들을 향한 선교사의 축복
	상호 나눔	성장한 현지 리더와 선교사의 관계

## PASS 모델에서 코로나19의 의미는 3단계, ‘홀로서기’ 실습 시간

위에서 소개한 PASS 모델은 모든 선교사와 현지의 관계에 대입해 볼 수 있다.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선교가 막 시작된 곳이라면 1단계 P(Planting), 선교사와 현지가 협력하여 사역을 진행하는 곳이라면 2단계 A(Adapating)라고 볼 수 있다. 아마 많은 선교사와 현지의 협력 단계가 2단계인 적응 단계일 것이다.

필자는 코로나로 현지와 떨어져 있는 선교 사역자가 PASS 모델에서 제3단계인 Standing(S)을 주목하기를 권한다. 지금 현지와 분리된 시간을 현지가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다. 이 시간을 코로나19가 물러가기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허비한다면 멈춰선 선교는 약화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현지에 돌아간 선교사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선교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가져온 여러 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을 피할 수 없는 ‘홀로서기 훈련 시간’으로 삼는다면, 현지 리더십 개발과 자립을 위한 발전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현지 리더십은 도전과 위기를 겪을 것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상황을 살아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지 리더십은 성장하고 협력자들 사이에는 대조적 공동체(Goheen 2012, 356)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시간은 그동안 해왔던 선교사역을 돌아보고 이후에 현지가 스스로 사역하도록 돕는 실습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과정은 리더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현지에 대조적 공동체를 형성되고 현지 리더의 은사가 개발돼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 과정을 지나 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안을 한다.

### 1.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아마도 많은 선교 사역자들이 선교지에서의 철수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을 것이다. 헌신된 선교사일수록 가지고 있던 많은 계획과 실행들이 중지된 상태일 것이다. 이후로 맞게 될 위드 코로나<sup>with-Corona</sup>, 즉, 전염병과 함께 가야 하는 선교 시대에서는 이런 급작스러운 환경에 늘 대비하며 사역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추구해야 한다. 앞으로는 선교사의 현지 부재에도 사역이 진행되도록 토대를 잡아야 한다. 이미 떠나온 선교지의 현황을 파악하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행되던 사역을 맡을 현지 리더십의 성숙도, 재정 마련 방안, 필수 보충 자료 파악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된 현지 리더와 지속적 연락을 통해 그들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 2. 비전 지키기

선교사는 코로나19로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현지를 위해 연락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사랑으로 현지 리더와 소통함으로 현지 리더들이 잊혔다는 감정이나 고립된 감정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복음을 통해 시작된 현지인들의 삶의 변화가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선교 비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교라는 공동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가족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 3. 자료 개발

현지와 떨어져 있는 동안 선교사는 현지 자립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그것은 사역 매뉴얼, 영성 훈련 자료, 리더십 훈련 자료, 혹은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일 수도 있다. 창조적 사고로 현지인이 수용할 수 있는 자료와 방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련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현장 조사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현지와 비대면 접촉을 통한 동역을 계속할 수 있다. 기록 정리를 포함한 자신의 경험을 농축한 자료 개발은 자신과 현지에 모두 유용한 작업이다. 선교사 개인의 학문적 발전을 겸해서 연구과제로 개발된다면 더 바람직하겠겠다. 현장에 근거한, 현장에 필요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그 현장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오즈월드 샌더스가 일찍이 간파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결점이 있는 리더도 사용하신다(Sanders 1982, 25). 또한, 이 시대는 직접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리더를 필요로 한다(1982, 238). 현지와 떨어져 있는 이 황망한 상황에 현지 리더 훈련 방법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과 능력을 주시어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 4. ‘같이’ 혹은 ‘따로’를 준비하기

이 시간이 지나 다시 자신이 해오던 사역을 같은 사역지에서 계속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임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 전체를 위한 대승적 자세로,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나온 현지를 사랑하는 진실함으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에도 현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방법으로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현지의 성장을 통해 본인이 성장하고 더 성숙한 존재를 통한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Clinton 2008, 58). 그들과 같이, 그리고 따로 하는 사역을 현지에 훈련하여 그들이 올바른 ‘홀로서기’를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가 넓어지고 그의 백성과 군사가 늘어나는 일이다.

## 결론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이 시간을 ‘견딤’의 시간이 아니라 선교 현지의 자생력을 실습하고 그것을 돕는 시간으로 대하기를 제안한다. 자립 준비가 안 된 선교지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닥칠 전염병과 공생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 사역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 그를 위해 필자의 선교 사역의 이양과 정착 4단계 방안: PASS 모델을 소개하고 그중 3단계인 ‘홀로서기’에 입각한 실행을 제시했다.

이미 선교사와 현지의 협력이 이뤄지던 곳은 2단계인 ‘적응 단계’를 통해 많은 훈련이 진행되고 복음 전파의 기쁨이 현지인들에게 심어졌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닦인 이 시간은 현지 리더들이 ‘홀로서기’를 실습하는 3단계이다. 물론 PASS 모델의 2단계인 ‘적응 단계’가 끝나지 않은 곳에서는 비대면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적응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은 서로 간의 문화 충돌을 지나, 용납을 통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교 속에서, 복음으로 삶에 비춘 빛을 지키려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미 갈등의 시간을 지나고 신뢰가 형성된 곳은 자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지를 응원하고 도울 시기이다. 그것은 PASS의 3단계인 ‘홀로서기: Standing(S)’ 을 실천하는 일로 (1) 선교 리더의 지도와 격려로 (2) 현지가 복음적 삶의 변화로 대조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3) 그 과정에서 현지 리더들의 은사가 개발되는 것이다. 이미 시작된 격리의 시간 속에 숨은 현지 자립의 기회를 포착하고 멘토링을 통한 지도로 현지의 잠재력을 풀어줘야 한다. 현지 리더들은 여러 시련과 도전을 통과할 것이나 그들의 리더십은 성숙하게 될 것이다. 영적 리더는 타고난 재능이 삶을 통해 훈련되고 거기에 섭리적 기회를 성실히 섬기며 영적 은사가 더해질 때 가장 효과적인 리더로 성장한다(Clinton 2008, 38). 현지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낼 현안의 해법과 대안들은 차후 선교사와 현지 모두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선교사와 현지가 선교의 동등한 주체로 동역하는 PASS 모델의 4단계, ‘나눔: Sharing(S)’ 은 현지의 ‘홀로서기’ 시간을 거쳐야만 가능한 단계이다. 그때는 현지가 이제는 의존이 아닌 사랑의 나눔으로 선교사와 교제하고 동역하는 관계로 성장하는 단계이다. 서로 장점을 나누고 부족한 점을 돕는 파트너가 되어 서로의 존재에서 힘을 얻고 배우는 그런 관계의 단계이다.

현재 우리가 겪는 코로나19의 시간은 과거 우리의 삶에서 미처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상황과 아픈 현실의 시대이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모든 시대를 타고 복음은 전파되었다.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은 새로운 선교를 여는 전주곡이다. 익숙했던 일들이 더는 가능하지 않고, 모든 것이 멈춰질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이전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코로나19 시대가 가져오는 많은 불편과 공포,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상실을 통해 당연하게 여겨오던 일상의 소중함을 배운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인식 전환과 실천적 시도로 각자의 선교사역의 이양과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제안한다.

## 참고 문헌

- 고경호. 2020. 『여성 회복, 그 갈망-Women's Restoration, The Divine Desire』서울: 동서선교연구개발원
- Bevans, Stephen B. 2002. 『상황화 신학-Models of Contextual Theory』 최형근 역. 서울: 조이 선교회.
- Clinton, Robert. 2008. 『영적 지도자 만들기-The Making of a Leader』 서울: 베다니출판사.
- Drucker, Peter. 2006. 『피터 드러커의 위대한 혁신-Peter Drucker on Innovation』 권영섭, 전미옥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
- Glasser, Arthur. 2006.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Announcing the Kingdom』 임윤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Goheen, Michael. 2012. 『열방에 빛을-A Light to the Nations』 박성업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 Hiebert, Paul. 1996. 『선교와 문화인류학-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외 3인 역. 서울: 조이선교회.
- Sanders, J. Oswald. 1982. 『영적 지도력-Spiritual Leadership』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 Scharmer, Otto. 2014.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Learning from The Emerging Future』 엄성수 역. 서울: 티핑 포인트.
- Shenk, Wilbert. 2001. 『선교의 새로운 영역-Changing Frontier of Mission』 장훈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코로나19 위기와 능동적인 GMS 지역선교부 전환에 관한 연구

- GMS 동남아 지역선교부를 중심으로

오 영 철

GMS 동남아지역지역 연구소장

치앙마이 카렌신학교 교수

## 서론

"건축을 위하여 2천만 원 이상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님의 손길만 바라보게 되며..."<sup>1</sup> A 국에 있는 선교사가 6월 말에 GMS 본부로 보낸 편지이다.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선교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어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GMS 본부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발 빠르게 움직였다. 코로나19 위기관리팀을 통해 입국한 선교사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현장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다.<sup>2</sup> 그렇지만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더 악화되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위기는 사역을 멈추게 하였고, 한국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 교회가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교 구조와 선교사역은 건강한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다.

GMS 선교 현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로널드 하이페트의 관점으로 보면, 현재 GMS 선교 현장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혁신적인 문제가 심각하다.<sup>3</sup> 선교사들에게 기술적인 문제란 선교사의 역량이다. 예를 들면 언어 능력과 선교지에 대한 이해이다. 현지 사역자들과의 관계, 영성 관리와 선교사의 개별적인 영향력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혁신적인 문제란 변화하는 세계선교 상황에 대한 대처, GMS 전체의 전략적 사역, 국제적인 GMS의 역할과 네트워크, 한국 교회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준비, 그리고 각 지역선교부의 전략적인 사역 등이다. 이런 혁신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개별적인 선교사들의 사역은 나름대로 진행되겠지만 전략적인 GMS 선교사역<sup>4</sup>은 어렵다.

이런 상황은 GMS 지역선교부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왜냐하면 지역선교부의 정상적인 가동은 기술적인 문제와 혁신적인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방향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MS는 2009년에 전략적인 사역을 위하여 지역선교부를 하기로 결정하였다.<sup>5</sup> GMS 지역선교부는 이전과는 다른 선교 현장이 됨을 의미한다. 이런 결정은 개혁주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개혁주의 관점은 정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1. GMS COVID-19 대책 상황실. (화성: GMS 김정환 편집 2020). COVID-19 선교지 소식. "채민철 선교사 2020년 6월 30일 기도편지"

2. "GMS, 해외선교사긴급구조", 『기독신문』, 2020년 8월 3일.

3. Heifetz, Ronald & Linsky, Marty; 『실행의 리더십』 임창희 역(서울: 위즈덤, 2006), p. 38.

4. GMS의 선교부 행정 조직은 GMS 본부 운영세칙(2020년 8월 6일 12차 임원회의 의결) 제1장 선교부 행정 조직에 선교부(본부), 지역 선교부 그리고 지부로 나눈다. 제1절 2조: 선교부(본부)는 선교사 후보생 훈련 및 선교사 계속 교육, 현장 선교사 지도 관리, 멤버 케어, 이사회에서 입안한 선교 정책을 선교사들을 통하여 선교 현장에 이루어간다. 제2절: 지역 선교부는 본부와 지역위원회 지도하에 지역 선교사와 지부의 제반 사역을 관장한다. 제3절: 지부의 성격은 GMS 선교사를 돌보며 행정과 사역 조직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며 변할 수 없다.

5. GMS. 제18절 지역선교부. GMS 정관(2020년 9월 23일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 지역별로 전략적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선교부를 둔다. GMS의 지역 선교부 운영규칙은 2009년 8월 21일 임원회.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정되었고 2009년 9월 3일 제12회기 이사회 정기총회에 보고되어 확정되었다.

과거 개혁자들의 신학을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sup>6</sup> 라는 김철수의 주장은 GMS의 건강한 선교 현장을 위한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이 다양한 도전 앞에서 적절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현재 선교지에서는 전략적인 지역선교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7</sup> 이런 상황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는 한국 교회와 선교의 후원, 그리고 선교 현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갑작스러운 새로운 선교 환경은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선교 방향과 전략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는 GMS가 2009년에 결정한 지역선교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하여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GMS 선교 현장의 변화와 GMS의 지역선교부로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동남아 지역(불교권) 선교부의 운영위원 14명<sup>8</sup>과의 인터뷰가 중심이 되었다. 인터뷰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코로나 위기가 개인 선교사들과 선교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 둘째 이런 영향이 지역선교부 전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셋째, 이런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제안들은 무엇인가?

이상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선교 역량의 약화라는 위기 상황이 오히려 GMS 선교 현장이 건강한 지역선교부로 전환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코로나 사태가 선교사들에게 주는 영향

코로나 상황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고 선교 현장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선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선교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선교비, 후원교회의 선교지 방문, 현지 지도자의 선교지 방문, 현지 사역자 사례비 지원, 교회 건축 지원, 그리고 선교사의 역할로 나누어 알아본다.

### 선교비

#### 1. 선교비 현황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선교비의 감소이다. 2020년 10월까지 GMS 동남아 지역선교부 선교사들의 선교비는 많이 줄지 않았다. 인터뷰를 한 14명의 운영위원 중에 지역교회 일반 후원금이 줄어든 경우는 거의 없었다.<sup>9</sup> 교회의 일반 재정에서의 선교비 운영 상황을 보면, 코로나의 심각성이 당장 선교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한국 교회의 재정은 축소되었으나, 선교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후원금은 교회 후원금과 대조적이다. 약간 위축했다고 답한 선교사가 8명이므로 절반 이상이다. “일부 사업하는 후원자는 경제가 어려워 후원을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sup>10</sup> 라는 최동익의 말대로 개인 후원자 일부는 후원을 중단했다.

6. 김철수, 『선교학 총론』 (화성: 총회세계선교회, 2020), p. 10.

7. 지역선교부로 결정하였지만,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은 후원교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2018년 GMS 2018 세계선교대회에서 당시 김찬곤 이사장의 선교특강(GMS 2018 세계선교대회, p. 143)이나 2020년 4월 29일 GMS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포럼 ‘GMS 미래 발전 방향’에서 권순웅 GMS 비즈니스 위원장의 발제에서 확인(기독일보 2020년 4월 28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89470>)할 수 있다.

8. 동남아 지역 선교부 운영위원은 14명인데, 3조: 운영위원회는 지역 대표, 지역 부대표, 지역 서기, 지역 회계, 각 지부장으로 구성하고 지역선교부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결의하며, 임기와 직무는 GMS 운영세칙 및 본회 운영규칙을 따른다. 동남아 지역선교부 정관, 2020년 7월 12일 의결.

9. 선교비에 관한 부분은 개인보다는 지부원들의 현황을 질문하였는데, 대부분 지부원의 선교비 현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일반 선교사들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최동익, 동남아 지역선교부 부대표, 오영철 인터뷰, 2020년 10월 24일.

선교사들의 특별 수입의 중요한 통로였던 단기팀의 경우, 코로나 이후 올해는 전무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현금은 없었다. 현재 선교지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은 단기팀과 관련된 수입이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특별 선교비가 있었는데 큰 규모는 아니다. 예외적으로 한 명만이 예년보다 더 많은 선교비가 들어왔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교비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으로 많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선교비의 통로인 지역교회의 후원이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 후원의 감소와 단기팀 특별 수입 중단은 분명하지만, 2020년 한국 교회의 현금 감소가 선교지의 급격한 선교비 감소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 2. 전망

앞으로의 선교비 수입은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4명 모두가 같은 대답을 하였다. 내년이 되면 선교사들의 선교비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터뷰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교지에서 느끼는 변화의 핵심은 재정이었다. 재정 감소한 가지만으로도 선교지에는 변화의 큰 물결이 밀려온다.

## 후원교회의 선교지 방문

### 1. 현황

예년과 비교하여 올해 동남아 지역선교부의 선교지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단기선교팀 방문의 감소이다. 2월 이후 한 팀도 선교지를 방문하지 못하였다. 14명의 선교사가 같은 대답을 했다. 후원교회의 선교지 방문은 사역지 방문일 뿐 아니라, 특별 선교비의 출처이고, 새로운 후원자 발굴의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원교회의 단기선교팀 방문 중단은 코로나로 인한 선교 재정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2. 전망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약간 위축될 것이라고 직접 말한 선교사는 1명이고, 나머지 13명은 장기적으로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단기팀의 또 다른 유익은 새로운 선교 자원의 발굴이다. 이런 기회도 당분간 없게 될 것이다.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자 단기선교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1</sup>

## 현지 지도자의 한국 방문

### 1. 현황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 중 하나는 현지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여러 목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방문은 한국 교회의 관심을 끌 좋은 기회이다. 체류비와 교통비 모두를 한국 교회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교통비는 현지인들이 부담하고 체류비는 한국 교회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교통비와 체류비를 현지 교회가 모두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올해는 모든 방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11. 한철호, “코로나, 교회, 그리고 선교.” 코로나 시대의 과제와 선교에 대한 방콕위원회 온라인 토론. <방콕포럼: 미출판 자료 2020> , p. 10.

## 2. 전망

14명 모두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올해 방문을 위해 여권을 준비하였으나 코로나로 방문이 어렵게 된 경우도 있었다. 주목할 의견이 있었다. “이제 선진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굳이 한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에도 목회 사역을 가르칠 좋은 강사들이 충분히 많습니다.”<sup>12</sup> 이문기의 이같은 의견은 현지 교회의 모습을 말해준다. 현지에도 선교사가 배워야 할 교회와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침체한 한국 교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유학이나 중요 회의와 같은 특별한 목적이 아닌 경우 한국 교회 방문을 지속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 현지 사역자 사례비 지원

#### 1. 현황

현재까지 현지 사역자 지원에는 큰 차이가 없다. 14명 중 9명이 현재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 교회에서의 지원이 거의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는 현지 교육 사역이 코로나로 중단되었지만 사례비는 지원하고 있다.

약간 위축된 경우는 4명이다. 개인 후원의 감소와 단기팀 방문 중단이 원인이었다. 미얀마와 태국 간에 차이가 있었다. 태국 내에서도 직접 개척하는 교회와 현지인 사역자 고용에 차이가 있었다. 직접 목회하는 경우는 부담이 없지만 고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선교사의 역할, 그리고 현지 교회의 미래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현지 교회가 스스로 사역자 사례비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이것은 선교사들이 이해하는 자립 원리와 실제 사역에서 발생하는 지원의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사업이나 교회 개척에서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경우 이럴 가능성이 크다. 자립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고, 현지에서 재정 지원의 출처를 찾아야 하지만, 결국에는 선교사의 지원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2. 전망

대부분이 앞으로 현지의 사역비 지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10명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두 명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의 지원이 전과 같이 계속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역비를 줄이면 사역이 중단되기 때문에 다른 경비를 줄이거나 현지에서 수입원을 찾아서라도 후원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자립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표한 경우가 4명이다. 물론 대답을 직접 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도 모두 자립을 원한다. 질문을 직접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명이 의견을 표출한 것은 이 부분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은 자립의 방향으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본부의 정책이기도 하다.<sup>13</sup> 이것은 또한 지역선교부로 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본부의 자립 정책이 지역선교부의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이 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동남아 지역선교부 국가에는

12. 이문기, 동북 지역 지부장, 오영철 인터뷰, 2020년 10월 28일.

13. GMS 운영규칙 부록. 선교신학, 현장, 역사, 정책. 제3절 선교목표 및 원리와 정책 1의 2) 선교 현지에 토착 교회를 설립하여 자립, 자치, 자전하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자립하는 교단들이 적지 않다. 그들을 통해 배울 수 있다. 현지 교회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 교회 건축 지원

### 1. 현황

교회 건축 지원은 한국 교회 선교의 문화처럼 일반화되었다. 현지 교회가 최선을 다한 뒤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유익하겠지만, 한국 교회나 선교사가 주도한 선교지 건축 지원은 현지 교회를 의존적인 교회로 만든다.<sup>14</sup> 13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현재 교회 건축 지원 사역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미 위축이 되었고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전과 같다고 대답한 경우는 1명이다. 하지만 이 한 명에 주목해야 한다. 그의 경우, 올해만 해도 세 번 교회 건축 지원과 관련된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 건축 지원할 장소 부탁을 받았다. 그는 건축 지원이 현장에 적합하고 전략적인 선교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후원 교회의 요청으로 안내를 해야 했다. 교회 건축 지원을 통한 선교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2. 전망

14명 중 12명의 응답자가 앞으로 교회는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두 명은 현지 교회가 현지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하였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관계가 좋다면 한국 교회는 어렵지만, 개인들이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도 두 명이 있었다.

한 명은 약간 위축은 되겠지만 중형 교회를 중심으로 동일한 방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교회 건축 지원은 선교사에게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다. 한국 교회와의 관계 유지와 발전, 후원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현지 교회의 요청에 응함으로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다. 그 유익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현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가능하면 현지 교회가 스스로 감당하도록 하는 방향을 지역선교부의 정책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본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건강한 현지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코로나의 상황이 이것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선교사의 역할

### 1. 현황

선교사들의 현재 선교지에서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선교사가 주도하는 경우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미얀마의 경우는 선교사들이 대부분 주도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 교회 개척이나 교육 사업 등에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사역을 확장한다. 태국은 선교사가 주도하는 경우도 많지만, 규모 있는 현지 교단과 동역할 때는 동역자fraternal worker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선교사가 있으면 현지 교회는 선교사를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sup>15</sup> 라는 이응운의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가 오히려 자립을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한 선교사의 경험만이 아닐 것이다.

14. 오영철 “선교지 교회 건축 지원이 자립 인식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미출간 논문> 2019. P. 22.

15. 이응운, 태국 북부 2지부장, 오영철 인터뷰. 2020년 10월 24일.

재정의 약화로 인하여 재정을 이용한 다양한 선교 사역이 어렵게 되었다. 사례비를 주는 것과 교회 건축, 그리고 프로젝트가 그 예이다. 물론 재정이 필요한 사역들이 있다. 그런데 재정을 사용하는 사역은 선교 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상황은 선교사의 사역 방법과 방향에 대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준다.

## 2. 전망

응답자들은 재정이 줄어들게 되어 재정 관련 사역은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상황은 선교사의 역할이 주도적인 역할에서 보조적인 역할로 가게 한다고 했다. “현지인들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향, 자생력을 갖게 하는 방향, 선교사들은 보조적인 역할로 가야 합니다.”<sup>16</sup> 라는 임중식의 의견은 선교사와 현지인들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준다. 그 외의 표현들도 비슷한 의미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재정 지원에서 질적 성장으로,’ ‘주도적인 역할에서 보조적인 역할로,’ ‘초기부터 자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재정적인 필요를 줄이고 성경공부나 세미나 인도로,’ ‘재정적인 것을 줄이고 제자 양육과 같은 지도자 양육으로,’ ‘자립 방안 연구,’ ‘이양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전개해야,’ 등이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주된 내용은 현지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선교사는 동역자나 보조자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변화된 현실을 이미 느끼는 경우도 있다. “현지 교회는 이제 어린 교회가 아닙니다. 안정된 교단에서는 선교사들이 중심에서 사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어려운 곳에서 교회 개척을 원하고 있습니다.”<sup>17</sup> 라는 이문기의 주장은 태국 일부 지역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전형적인 선교지가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 교회의 재정이 줄어들어 기존의 사역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다. 현지 교회를 재발견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역을 지양하고, 현지인 스스로가 자립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태국과 미얀마에는 자립은 물론이고 선교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현지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이다.

선교사들 때문에 현지인들의 자립이 더 어렵게 되었다는 의견도 2명이다. 코로나는 선교사들에게 역할 변화가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것은 주도자에서 보조자로의 변화이다. 동남아 지역선교부의 리더들은 이에 모두 동의한다. 코로나의 상황은 위기이지만, 현지 교회를 재발견하고 현지인들의 보조적인 역할로 방향 선회할 기회이기도 하다.

### 지역선교부 운영의 핵심 요소에 대한 관점과 코로나 위기와의 상관 관계

필자는 응답자들에게 지역선교부 운영의 필수 분야에 대한 현 상황을 먼저 질문하고 코로나 위기와의 상관 관계를 질문하였다. 질문한 분야는 선교사 관리, 사역, 선교사역 보고, 재산 관리, 프로젝트와 사역의 승인과 모금, 전략적 선교지 및 사역 단위 개발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대표와 코디네이터에 관한 것이었다. GMS 본부 운영세칙에 나온 지역선교부와 관련된 중요 내용을 근거로 질문지를 만들었다.

16. 임중식, 복부 3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1일.

17. 이문기, op. cit.

## 지역선교부 선교사 관리<sup>18</sup>

지역선교부에 처음 입문하는 과정은 언어 훈련과 문화 훈련을 포함한 초기 정착 단계이므로 중요하다. 선교사 관리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본 질문은 주로 초기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 지역선교부나 지부가 언어 훈련 관리(기간 및 통과 여부)
- 그리고 이후 선교사의 사역과 선교지 변경을 주도할 수 있는가?
-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 1. 현 상황에 대한 관점

응답자 모두가 선교사 관리는 지역선교부가 운영세칙에 나온 방향으로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런데 지역선교부나 지부에서 시행세칙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현상과 이해에 관련된 의견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한 원인은 팀이다. 팀에 대한 의견들은 대조적이다. 1명은 팀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1명은 팀에 속했지만 방치되었다는 경험도 있었다. 반면 팀처럼 하면 된다는 의견도 4명이 있었다. 이것은 지역선교부 내 팀의 성격이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부 팀은 선교사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일부 팀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어떤 팀에 속했고 관계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원인은 구조와 인력에 관한 것이다. 구조와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자격을 갖춘 멤버케어 선교사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3명이다. “구조와 인력이 문제인데, 코디네이터가 준비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sup>19</sup>라며 김용섭은 이 부분을 강조하였다.

현재 지부장은 행정 지원 역할만 하고 있다. GMS 운영규칙에는 지부장이 지부원들의 인사, 행정, 재정을 관할하는 기능이 있지만 실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sup>20</sup> 지부장에게 선교사 관리 경험이 거의 없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파송교회가 주도하거나 모집한 선교사의 책임이라는 의견은 지역선교부에 선교사 관리 구조가 없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지부 안에 담당자가 초기 언어 관리 등을 잘하고 있다는 미얀마 지부장의 설명이다.

이상의 것을 종합하면, 지역선교부에서 선교사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구조와 인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구조와 인력이 있는 팀은 선교사 관리가 가능하였고 그렇지 않은 팀은 관리가 안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지역선교부의 선교사 관리를 위하여 자질을 갖춘 멤버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미 이런 구조와 인력이 있는 미얀마와 일부 팀은 선교사 관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 코로나 위기의 영향

코로나 위기가 지역선교부의 선교사 관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질문을 보자. 모두 4명의 리더

18. 선교사 관리란 선교사 허입에서 은퇴까지 전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GMS 본부운영세칙과 운영규칙에 다양한 곳에서 기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GMS 본부운영세칙 3장 선교사 관리의 제2절 사역에서 23조 수습선교사 지부 선임선교사, 24조 문화 적응 및 언어 훈련, 24조 사역 배치 결정 절차를 기초로 하여 질문하였다.

19. 김용섭, 지역 대표,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1일.

20. GMS 운영규칙, 제1장 조직, 제6절 지부, 4. 지부장의 임무, 2020년 9월 3일 이사회 결의.

의 영향을 꼽았다. “코로나로 인한 한국 교회의 재정 축소로 선교 후원이 줄고 현지 사역은 축소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며 사역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역선교부의 선교사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반면 영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도 4명이다. 하지만 이런 대답은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3명은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을 희망한다. 영향이 없다는 것은 코로나의 위기 상황이 직접적으로 지역선교부의 선교사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현실적인 어려움 자체가 능동적인 지역선교부 변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 3. 능동적 전환 가능성

코로나 위기 상황을 지역선교부의 능동적 변화의 기회로 삼고 준비하는 경우는 없었다.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이 가능하다.

첫째는 지역선교부의 선교사 관리를 위하여 공식적인 구조를 만들고 코디네이터를 세워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지역선교부 차원의 선교사 관리는 불가능하다.

둘째는 파송교회 대표로 이루어진 지역위원회와 함께 선교사 관리를 위하여 초기부터 협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는 중요하다.

셋째, 이미 지역선교부에서 선교사 관리를 하는 미얀마 지부와 일부 팀<sup>21</sup>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선교사 관리팀은 지역선교부의 걸림돌이 아니라 자산이다.

넷째, 지역선교부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구조와 코디네이터가 있더라도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각 선교사가 지역선교부로 인식을 전환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지역선교부 사역

지역선교부는 현장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는 이미 본부 행정세칙에 기술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GMS 본부 운영세칙 제2편 선교사 행정세칙 3장 선교사 관리 제2절 제17조’<sup>22</sup>를 기술하고 난 뒤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사역 관련 질문:

- 사역의 결정권이 개인이 아니라 지역선교부나 지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사역의 결정권이 코로나 사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 1. 현 상황에 대한 관점

원칙적으로 지역선교부의 리더들은 전략적 사역과 체계적 사역을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선교부의 사역은 전략도, 방향도 없고 개인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sup>23</sup>라는 장성영의 설명이 동남아 지역선교부 사역의 현재를 크게 보여주는 그림이다. 일부 팀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선교사 상황과 팀의 비

21. 태국에는 GMS가 조직되기 전에 총회 파송 선교사들이 팀을 만들어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양한 팀이 존재한다. 이 팀에 대한 동남아 지역선교부 안에서의 의견은 다양한데, 일부 팀은 선교사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22. GMS, 본부 운영세칙 23회, 2020년 8월 6일 결의.

23. 장성영, 치앙라이 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1일.

전을 따라 사역하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상황과 비전과 목표를 따라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선교사의 개별적 사역 선호와 파송교회의 영향력에 따라 사역한다. 파송교회가 현 사역 현실의 원인이라고 3명이 대답을 하였지만, 개인의 사역 선호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인이 사역을 결정하고 확장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 교회 선교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교회가 특정 선교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선교사를 모집하고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라도 해당 선교사가 선교지 경험과 이해로 전략적 선교를 위한 안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일부 후원교회의 선교 정책과 선교사의 개별 사역 선호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팀에 관하여 두 가지 대조적인 의견이 있다. 팀이 연합사역을 방해한다고 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팀에서는 전략적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 경우도 있다. 어떤 팀은 전략적 사역 계획에 따라 선교사를 모집하고 배치하고 사역한다. 반면 어떤 팀은 사역을 개별적으로 한다. 팀의 성격에 따라 사역의 결정과 실행은 대조적이다.

셋째는 사역 코디네이터와 구조가 없어서 연합사역을 못 한다고 한 이 문제는 선교사 관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역선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 2. 코로나의 영향

모두 5명의 응답자가 코로나가 지역선교부의 사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사역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교사 관리에서는 부정적이었던 경우도 성찰의 계기가 되어 간단한 연합사역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비대면으로 지역선교부에 관한 회의를 자주 하는 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가 지역선교부의 사역 방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3명이 있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재정의 문제이지 행정적 문제가 아니며, 위기가 오히려 사역 공개를 더욱 꺼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미얀마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지역선교부 사역 활성화를 약화시켰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GMS의 코디네이터 훈련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의견은 재정의 감소가 협력의 장의 기회도 되지만, 반대로 한국 교회와 GMS 영향력이 떨어져 선교사들은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선교부의 방향보다는 개인 위주의 사역이 많아질 수 있다.

## 3. 능동적 변환 가능성과 이를 위한 방안

응답자들에게 코로나의 상황을 지역선교부의 사역을 제도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는 의지는 없었지만,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로 이루어진 지역위원회<sup>24</sup>와 협력 추진이다. 사역에 관한 결정적인 역할이 파송교회에 있다고 응답자들은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위원회에 파송교회를 참여시키고 위원의 역할을 활

24. 지역위원회는 전략적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을 구분하되 지역선교부를 지도하며 필요에 따라 실행이사회 결의로 통합 혹은 분할할 수 있다. GMS 정관, 제3장, 제7절 회의 5. 위원회 2020, 09, 03 이사회 총회 결의.

성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구조와 사역 코디네이터에 관한 것이다. 지역선교부에서 신뢰받고 검증된 코디네이터와 체계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사역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지역대표가 이 점을 직접 지적했다. 코로나의 상황은 지역선교부의 선교사 관리를 위해 좋은 기회이고 더욱 개인 사역으로 고착화할 수도 있다.

셋째는 두 번째와 관련이 있는데, 기존 팀 가운데 사역을 관리하는 구조가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팀을 지부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넷째로 사역을 지역선교부 차원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미안마 지부를 격려하고 좋은 모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지역선교부 선교사역 보고

지역선교부가 정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선교사역 보고는 필수적이다. ‘GMS 본부 운영세칙 제2편 선교사 행정세칙 3장 선교사 관리 제2절 제19조’<sup>25</sup>를 기술한 뒤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사역 보고 관련 질문:

- 선교사가 사역할 때 지부나 팀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역에 대하여 지역선교부나 지부는 관리, 통제할 수 있는가?
-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역선교부로의 선교보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 1. 현 상황에 대한 관점

선교사역 보고에 관련된 총회의 시행규칙에 대하여 2명은 반대하였지만,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선교사역 보고는 단지 보고의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선교사의 중복 투자,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조정하기 위해 코디를 세워야 합니다. 각 선교사의 보고를 통하여 파악되면 지역에서 적절한 계획과 배치에 도움이 됩니다.”<sup>26</sup>라는 김명희의 의견은 정상적인 지역선교부를 위한 선교사역 보고는 전략적인 선교를 위하여 중복 투자와 비효율적 재정 집행을 방지하고 사역 계획과 선교사 배치에도 관련됨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현재 선교사역 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응답자의 가장 많은 의견은 선교보고 관련 구조와 인력이 없는 것이 그 이유라고 했다. 14명 중에 6명의 리더들이 비슷하게 대답했다. 현재 선교보고는 지부장이 담당하는데 경험과 연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지부장 자신들도 이전에 GMS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정확한 선교사역, 재정을 보고한 경험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부원들에게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 다른 이유는 선교사들 간에 신뢰가 없고 사역보고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 2. 코로나의 영향

코로나 상황이 사역보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5명이 관련이 있다고 답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코로나로 사역이 위축된 것을 지역선교부에 보고하면 지역선교부에서 구체적으로 도

25. GMS, 본부 운영세칙 23회, 2020년 8월 6일 결의.

26. 김명희, 미안마 화련 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2일.

움을 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선교부가 선교사의 사역에 동의한 경우 거의 동일하게 사역보고에 서도 동의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는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경우라고 판단된다.

코로나가 사역보고에 직접 관련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6명이다. 사역에 관련해 응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 축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사역보고는 코로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미얀마의 경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역선교부의 활성화를 위해 코디네이터와 지역위원회로부터도 특별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 예상보다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지역선교부의 활성화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임을 보여준다.

### 3. 능동적 변환 가능성과 이를 위한 방안

사역보고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역선교부 하에 적절한 구조가 필요하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한다. 사역보고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인력이나 구조적인 해결만으로는 어렵다. 사역보고가 본인에게 유익함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리더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일반회원들에게 확대하면 지역선교부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지역선교부의 재산 관리

선교지의 재산 관리에 관한 부분은 본부 운영세칙에 잘 기술되어 있다. ‘GMS 본부운영세칙 제2편 선교사 행정세칙 3장 선교사 관리 제2절 제 20조(선교지 재산 관리)’<sup>27</sup>를 기술하고 난 뒤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재산 관련 질문:

- 선교지 재산 관리 권한이 개 선교사가 아니라 본부, 지역선교부 및 지부 (또는 GMS의 정책에 따른 현지 교단이나 단체)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보는가?
- 지역선교부의 재산 관리와 코로나 사태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

### 1. 현 상황에 대한 관점

선교지에서 선교 관련 재산 관리 방법은 모두 같지 않다. 태국에서 현지 교단과 일을 하는 경우는 교단의 법인체로 자동으로 등록된다. 선교사의 70% 정도는 개별로 법인 등록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관리한다. GMS 동남아 지역은 GMS 법인체를 만들어 재산 관리와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권오혁은 “현재 태국에서 GMS 법인체는 유명무실합니다. 실질적인 GMS 법인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sup>28</sup> 3명이 이 법인체를 활용하였으면 하였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8명의 리더가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구조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기존 GMS 법인체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태국의 일부 선교사들이 부동산 구입과 등기에서 GMS 법인체를 이용하고자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미얀마는 선교사들이 법인체를 만들 수가 없

27. GMS, 본부운영세칙 23회, 2020년 8월 6일 결의.

28. 권오혁, 남부 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3일.

어 현지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구입한다. 시니어 선교사들은 본을 보여서 GMS 관리하에 재산 관리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 MRPC(Myanmar Reformed Presbyterian Churches)에 속한 선교사들은 재산을 현지 교단에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모두 GMS 본부 운영세칙과 동일한 방향이다.

## 2. 코로나의 영향

14명 중 7명의 응답자는 코로나 상황과 재산 관리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답하였다. 3명이 관련이 있다고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선교사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선교지의 재산 사유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한 명이지만 선교지에서 사유화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답이 있었는데<sup>29</sup> 한국 교회의 지원이 코로나 사태 이후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이다.

## 3. 능동적 변환 가능성과 방안

8명의 리더가 재산 관리를 위하여 법인체의 올바른 구조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유명무실한 현재의 GMS 법인체를 공식화,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3명이다. 이 대부분 리더들은 재산 관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총회의 시행규칙에 동의한다는 의미이다. 신뢰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행정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인체에 귀속하는 것이 선교의 원리에도 맞고 한국 교회와 GMS 전체에 유익이라는 사실이 체감적으로 다가오도록 해야 한다. GMS 법인체의 활성화는 비자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선교지 부동산은 대개 선교사 본인의 사역 결실이라고 여긴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GMS 법인체로 귀속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은퇴 후 선교사 복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선교지의 재산을 은퇴 이후 선교사의 노후를 위한 방편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는 선교 전체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선교지 재산권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지역선교부 프로젝트와 사역의 승인과 모금

재산권과 프로젝트 사역 승인과 모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GMS 본부 운영세칙 제2편 선교사 행정세칙 3장 선교사 관리 제2절 제21조, 22조’<sup>30</sup>을 기술하고 난 뒤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사역의 승인과 모금 관련 질문:

- 사역을 위한 재정 모금의 결정권이 지역선교부나 지부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사역과 모금 승인 절차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연관이 있는가?

### 1. 현 상황에 대한 관점

프로젝트와 사역의 승인과 모금은 주로 선교사 개인이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본부, 지역, 지부가 재정 능력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데,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sup>31</sup> 라는 김농원의 대답이 대표적인 의견인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다. 개인이 결정하

29. 심창섭, “지역 선교부 역량 강화하라” 「기독신문」, 2018년 8월 26일.

30. GMS, 본부 운영세칙 23회, 2020년 8월 6일 결의.

31. 김농원, 동남아 지역 선교부 부지역 대표,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0일.

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고, 본부는 재정 능력이 없으며, 지부장은 경험이 짧아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지부장들이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하는데, 지부장 자신들도 신청하여 본 적이 거의 없다. 일부 팀은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에 따르고 있다.<sup>32</sup> 전체적으로 보면 GMS의 시행규칙에 이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 2. 코로나의 영향

5명의 응답자가 사역 승인과 모금이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재산 관리와 거의 비슷한 대답이다. 후원 약화로 사역이 축소되고 프로젝트 사역의 승인과 모금에 지역선교부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7명은 무관하다고 하였다. 무관하다고 한 이유는 코로나 위기는 재정 감소의 문제이지 프로젝트를 위한 사역의 승인과 모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선교부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선교사들의 교제의 폭을 넓히거나 초기 선교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선교사 관리는 물론이고, 사역과 사역 보고, 프로젝트의 승인과 모금까지도 지역선교부의 큰 사역 전략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각 선교사의 개인 사역에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 3. 능동적 변환 가능성과 방안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지역선교부의 시스템과 행정 재정 코디네이터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6명이다. 이들은 원칙적인 동의를 넘어서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에 관심이 있다. 둘째는 이 상적인 의견인데, 본부도 지역도 모금에 참여하면 더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안이나 의견은 평소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제안이나 의견이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에 긍정적이지 부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지역선교부의 전략적 선교지 및 사역 단위 개발 정책

지역선교부는 전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전략적 선교지 및 사역 단위 개발 정책’<sup>33</sup>을 기술하고 난 뒤 질문을 하였다.

전략적 사역 관련 질문:

- 현재 각 선교사의 사역은 GMS의 전략적인 사역과 연계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또는 GMS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여 시작하였는가?
-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연관성이 가능한가?

### 1. 현 상황에 대한 관점

지역선교부의 전략적 사역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은 본부와 지역, 그리고 파송교회가 현장에 적합한 전

32. 태국에 있는 KGAM과 아가페가 그런 경우이다.

33. GMS 운영규칙, 부록 선교신학, 현장, 역사, 정책의 제3절 선교목표 및 원리와 정책 3의 4) 전략적 선교지 및 사역 단위 개발 정책, 2020. 09. 03. 이사회 총회 결의.

략 연구 없이 사역한다는 점이다. 이 의견에 대하여 6명은 직접적으로, 3명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하였다. “총회 차원의 전략과 정책은 현장을 아는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전략과 정책이 지역과 지부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sup>34</sup>라는 임중식의 발언은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한 의견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에는 있지만, 본부에서도 지역선교부에서도 지부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역선교부가 전략적이지 않은 원인에 대하여 김농원 부대표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선교사들은 개인 선교사들의 사역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역선교부의 전략적 사역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sup>35</sup>라는 김농원의 의견은 많은 선교사가 동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의견은 내용상으로 여러 사역 중의 하나가 전략적 사역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략적 사역 가운데 본인 사역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분리하는 듯하다. 전략적 사역을 하려면 혼자서 아니라 팀이나 지부가 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경험이 부족해 자영업과 같은 형태로 개인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자연스럽게 전략적 사고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동남아 지역에서 GMS는 가장 규모가 있는 단체이고 전략적 사역 잠재력이 크지만 친목단체와 다름없음이 오늘의 현주소이다.

## 2. 코로나의 영향

14명 중 6명의 리더가 코로나 상황이 전략적 선교를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원인은 한국 교회의 후원 약화인데 현지 사역이 위축되기 때문에 협력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보았다.

4명은 무관하다고 하였다. 그중 한 명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본부와 지역이 능동적으로 전략적 배치를 했어야 하겠다고 지적하였지만, 좋은 대책을 세우지 못한 예를 들었다. 한 명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는데, 비자와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역이 축소되면 전략적 사역보다는 개인 사역을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선교사는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위기에서 전략적인 지역선교부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거의 없다. 인식 전환이 첫 단계로 중요하다.

## 3. 능동적 변환의 가능성과 방안들

계속 나온 의견은 올바른 구조와 인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연 구조와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소수이지만, 현실적인 의견도 있다. 지역교회, 지역위원회, 지역선교부와 협력하여 지역에 맞는 전략을 만들고 지부회의를 통하여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2명의 의견이지만 사실 다른 의견도 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지역선교부 활성화를 위한 지역위원회의 역할은 전략적 선교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전략적인 관점과 이해로 이미 사역하고 있는 팀이 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팀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선교부에서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선교부가 전략적인 사역을 위해 각 개인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한다면 출발점으로는 의미가 있고 현실성이 있다. 미얀마의 경우, 지역선교

34. 임중식, op. cit.

35. 김농원, op. cit.

부의 전략적 사역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동의는 전략적 사역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 지역선교부 구조/ 대표와 코디네이터의 역할

지역선교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조가 필요하다. 구조에 필수적인 요소는 지역 대표와 코디네이터들이다. “GMS 본부 운영세칙 제2편 선교사 행정세칙 제1장 선교부 행정 조직 제2절 지역선교부 제5조 지역대표의 역할과 임무”<sup>36</sup>를 기술하고 난 뒤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 지역대표가 실제로 지역선교부의 재정, 행정, 사역의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한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 지역 코디네이터<sup>37</sup>(사역, 행정과 재정, 멤버 케어, 언어생활, 여성 등) 임명과 지역 코디 사역 진행은 적합한가(역할, 훈련, 헌신, 자격, 실제 사역)? 코로나와 관련하여 어떤 연관이 있는가?

### 1. 현 상황에 대한 관점

현재 지역선교부가 가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지역선교부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지역 대표는 있지만, 지역선교부의 제반 분야를 담당해야 할 코디네이터가 없고 매뉴얼도 없다.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표와 코디가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지부장은 한계가 있습니다.”<sup>38</sup>라고 전영상은 현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다른 지부장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부는 현장을 모르고 지역선교부는 각 선교사의 상황을 모른다고 하였다.

이런 의견들은 지역선교부의 현재 상황을 리더들이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동남아 지역선교부는 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지부장들은 회의를 주재하거나 지부의 친목과 일부 행정을 돕는 정도이다. 지부장들도 지역선교부의 코디에 의해 지도를 받은 적도 없고 매뉴얼에 따라 사역을 해본 것도 아니다.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선교부를 위하여 일단 하드웨어, 즉 구조, 코디와 매뉴얼을 준비하자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코로나의 영향

코로나가 지역선교부의 구조와 코디 그리고 매뉴얼 준비를 위하여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명으로 거의 반이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안정한 환경은 사역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것은 연합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역’에 영향이 있다고 한 경우와 내용과 숫자에서 거의 일치한다.

반면 코로나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6명이다.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미얀마의 경우는 지역선교부로의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를 어렵게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코로나가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다. 일부는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에 원칙적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전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지역선교부의 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36. GMS, 본부 운영세칙 23회, 2020년 8월 6일 결의.

37. Ibid. 제5조 지역대표의 역할과 임무의 5는 코디네이터에 관한 것인데 다음과 같다. “지역 선교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멤버케어, 전략 등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

38. 전영상, 태국 북부 1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0일.

### 3. 능동적 변환의 가능성과 방안들

응답자들은 구조, 인력, 매뉴얼이 실제로 가동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7명의 제안이다. 대표는 있지만 코디네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제안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역 선교부가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보완적인 의견들이 있었는데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다. 첫째는 코디네이터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는 전문성 있는 코디네이터와 시니어 선교사 그리고 초청한 선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두 가지 제안은 독립적이지 않다. 코디네이터가 전문성이 있고 신뢰가 있으면 선교사들과 팀에게 신뢰를 받고 그의 안내에 따를 것이다. 셋째, 지역선교부, 파송교회(지역위원회) 그리고 선교단체(팀)가 의논하여 동의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한다윗 서기의 의견은 주목할 만하였다. “멤버 케어 차원에서 선교사를 초기부터 관리하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sup>39</sup> 한 명의 의견이지만 중요한 출발점을 제시하였다. 기존 선교사들은 변화에 대해 주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교사 관리에서 초임선교사 관리는 공감대가 쉽다. 언어 훈련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코디네이터들이 돌보고 그것이 선례가 되면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 능동적인 지역선교부 전환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제안

“코로나 위기가 능동적인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sup>40</sup> 라는 전영상의 의견은 아마도 지역선교부 리더들의 보편적인 의견이다. 대부분 이런 큰 위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을까가 주요 관심이다.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은 GMS가 건강한 선교를 위하여 오랫동안 연구하여 결정한 정책이다. 코로나 사태는 GMS의 지역선교부 전환에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이다. 왜냐하면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코로나 위기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에 있어서 선교사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선교사, 지부, 지역선교부, 그리고 본부이다. 본 장에서는 지역선교부 운영위원들이 선교사와 직접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선교부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다.

#### 선교사

코로나 위기에서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6명이 하였다.

첫째, 관계를 발전하자. 각 선교사가 지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배 선교사들에게 사역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선배들은 후배들을 잘 섬기고 도와야 한다. 두 명의 의견이지만 현재 지역선교부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일부 선교사들은 지부 모임에도 참석을 잘 하지 않는다.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신뢰관계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관계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서로 신뢰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교제권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사역을 나눠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지역선교부의 전략과 연계하자. 지역선교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하고 각 사역을 팀이나 지부 그리고 지역사역부와 연계하자. 현재 지역선교부에 명시된 전략은 없다. 현실적인 대안은 이

39. 한다윗, 지역대표부 서기,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4일.

40. 전영상, op. cit.

미 하고 있는 각 선교사의 사역을 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태국과 미얀마 복음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연결하여 종합하면 1차 전략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사역이 전략적인 차원의 전체 그림 속에서 이해가 되고 연계와 네트워크를 위한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셋째, 위기를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에 대한 기회로 활용하자. 한 사람의 의견이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해야 합니다. 위기는 오고 있고 언제든지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예상하여 가능하면 사역 구조 조정을 생각해야 합니다.”<sup>41</sup>라며 한다윗은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심지어 선교사가 철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고 그것은 사역의 구조 조정이다. 인식 전환과 구조 조정, 두 요소 모두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지부

첫째, 지부가 사역 나눔의 선순환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자. 현재 지부는 사역 나눔이 없다. “친목단체 이상의 지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유, 사역 나눔, 서로 격려와 교제,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안식년 평가를 시스템을 만들어 시니어와 지부장이 같이 평가하면 좋겠습니다.”<sup>42</sup>라는 김용섭 지역대표의 의견은 현재 지부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잘 말해주었다. 위의 내용은 지역선교부의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조정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역을 위한 지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지역선교부의 방향이다. 지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평회원일 때는 하지 않았는데, 임원이 되고 난 뒤 권위를 세우려는 자세는 곤란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sup>43</sup>라는 안기호 지부장의 말은 일부 지부원들이 지부장들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 지부장이 본을 보여야 한다.

둘째, 지부를 시스템화하자. 현재 지부는 친목모임 수준이기 때문에 운영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지역선교부가 되면 다른 수준을 요구한다.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영규칙과 세칙에 따라 중장기 계획과 매뉴얼이 필요한데, 지부원들과 같이 생각이 정리되면 방향성과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sup>44</sup>라는 주은찬의 의견은 이것을 잘 표현하였다. 지역선교부와 의논하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현실적으로 가능한 멤버케어부터 시작하자. 사역을 나누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 목표와 거리가 멀다. “지부는 그동안 행정을 위한 구조였는데, 조금 더 멤버 케어 차원으로 전환하였으면 좋겠습니다.”<sup>45</sup>라는 한다윗의 말은 지역선교부 서기의 의견은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다. 사역을 당장 다룰 수 없지만 서로 돌보는 사역은 가능할 수 있다. 멤버 케어 코디네이터와 연동한다면 상호 간에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 전체 지부가 동일하게 시행하기는 어려우니 가능한 지부부터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선교부

첫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키우자. 지역선교부를 가동하는 데 가장 큰 요소는 사람이다. “지역선교부

41. 한다윗, op. cit.

42. 김용섭, op. cit.

43. 안기호, 태국 화련 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1일.

44. 주은찬, 미얀마 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0일.

45. 한다윗, op. cit.

실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았습니다.”<sup>46</sup>라는 김용섭의 말은 현 지역대표의 의견은 모두가 공감할 의견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한다. 지역선교부를 가동하면 우려하는 것이 있다. “지역 대표와 코디는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개인 목적으로 그 직책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sup>47</sup>라는 김철수의 말은 이것은 과거 경험을 근거한 우려이다. 전문성이 있는 지역 대표와 코디네이터(실행위원회)<sup>48</sup>라면 사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코디 훈련을 받았다고 전문성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코디네이터에게는 전략적인 사역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지부나 팀의 구조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나 본부는 코디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안내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자. GMS 선교사들은 대부분 파송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일부 지부에서 파송교회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지부의 전략적 사역에 어려움을 예상한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송교회의 선교 방향이기도 하지만 각 선교사의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고자 함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교회 대표들이 모인 지역위원회는 더욱 중요하다. “지역선교부는 선교사가 파송 전에 관리와 사역에 관하여 지역위원회와 파송교회가 동의하면 지역선교부의 관리가 가능합니다.”<sup>49</sup> 라는 김농원의 의견은 위의 내용을 다시 강조한다. 교단 선교부인 GMS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동역은 지역선교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 조건이다.

셋째, 지부, 선교사, 팀과 소통하고 그들을 존중하자.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4명의 리더가 다양한 표현으로 강조하였다.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에 대하여 원칙적인 동의는 하지만 일부는 우려한다. 아직 인식 전환이 안 되었고 개인이나 팀에서 유익이 올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선교부는 개인 사역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설명해야 한다. 전략적이고 리더십을 발전할 방안임을 설득해야 한다. 존중 받고 있다고 여겨지면 협력의 장이 되지만 무시 받는다고 느끼면 방향이 올바르게라도 협력은 쉽지 않다.

넷째, 모델링하자.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은 에너지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되어 두 명이 의견을 주었다.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대표와 코디네이터가 신임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멤버케어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sup>50</sup> 라는 주은찬의 주장대로 좋은 모델의 예로 신임선교사 관리를 잘하고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동의된다. “지역선교부로 가려고 할 때 코로나 위기의 변화를 인식하여 필요한 코디네이터를 선정하고 운영하여 보고 그것이 물꼬를 틀 수 있는 모멘텀의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sup>51</sup>라며 가능한 영역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북부 3지부장의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회원들의 삶을 터치할 수 있는 멤버 케어에 관한 코디네이터를 예로 들었다.

모델링에서 기존의 팀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경우 팀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자는 의견이 한 명 있었다. 각자의 사역을 해체할 수 없듯이 팀도 해체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다. 기존 팀 가운데 일부는 GMS 사역 원리에 따라 선교사 관리나 사역 그리고 사역 보고와 프로젝트 승인 등을 실천하는 팀이

46. 김용섭, op. cit.

47. 김철수, 중부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8일.

48. GMS 동남아시아 지역 선교부 정관, 제4장 조직과 임무, 4조. 실행위원회는 다수의 코디네이터로 구성하고 임기와 직무는 본회 운영규칙을 따른다. 2020, 07, 12 통과.

49. 김농원, op. cit.

50. 주은찬, op. cit.

51. 임중식, op. cit.

있다. 이런 팀을 모델링하고 그 경험은 나누는 것은 지역선교부의 전환을 위하여 유익하다.

## GMS 본부

첫째, 현장을 존중하자. 선교의 많은 부분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수행한다. 본부가 존재하는 것은 결국 이들의 사역을 위함이다. 여섯 명의 리더 모두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요청하였다. 현장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가장 많이 지적한 내용이 시행규칙과 세칙에 나와 있는 단어에 관한 것이다. 현장을 존중하기보다는 관료적이라는 지적이다. “본부는 상명하복식의 시행규칙과 세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자세도 지역선교부를 섬기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sup>52</sup>라고 미얀마 화련 지부장은 직접적으로 단어의 표현을 지적하였다. 미얀마 화련지부는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문구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운영규칙에 지역선교부, 본부, 지부에 관련된 단어들과 표현이 너무 강합니다. 지역선교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배려, 단어와 표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sup>53</sup>라며 북부 2 지부장도 동일한 의미의 의견을 주었다. 일부는 원리는 좋지만, 현실성과 적합성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본부가 현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관료적 문구로 인한 불편함을 시정하는 것부터 현장을 존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계발 하고 지원하자. 지역선교부 성패의 요소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여부이다. 현실적으로 지역선교부는 전문 인력 개발이 어렵다. “본부가 코디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sup>54</sup>라는 권오혁의 주장은 코디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은 지역선교부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 리더십 프로그램 훈련, 전문 강사를 통한 효과적인 코디 교육의 필요성을 지역 대표가 요청하였다. 지역선교부 운영과 유지를 위한 재정과 인력 요청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실제 운영이 될 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정책과 전략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자. GMS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선교기관이지만 정책과 전략은 일관성이 없었다. “본부의 수장이 바뀌면 정책이 확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본부가 정책과 비전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sup>55</sup>라는 주은찬의 의견은 본부가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다른 몇 선교사들도 동일한 의견을 주었다.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바뀌면 기존 정책이 흐지부지되었음을 지적하였다.<sup>56</sup> 지금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에 대하여서도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 본부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면 과연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좋은 정책과 전략이라도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가 상실된다.

넷째, 지역선교부의 복지 대책을 마련하자. 현장의 선교사들이 노령화되면서 가장 현실적인 걱정은 선교사의 복지이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은 현실적이다. “본부는 선교사들의 은퇴 후의 삶 등과 관련된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습니다.”<sup>57</sup>라는 이응윤의 말에 세 명이 같은 요청을 했고, 이런 의견은 현장에 있는 대부분 선교사들이 동의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선교부와 직접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52. 김명희, 미얀마 화련 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2일.

53. 이응윤, 북부 2 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4일.

54. 권오혁, op. cit.

55. 주은찬, op. cit.

56. 안기호, op. cit.

57. 이응윤, op. cit.

선교사 관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은 중요하지만, 은퇴 후 보장이 안 되면 소속감이나 자부심이 약화한다. 결국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에 대한 동력도 약화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선교부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알리고 자원을 개발하자. 지역선교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본부가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지역선교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자원 개발 그리고 후보생 발굴이다. 한 다윗은 “본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선교부의 필요성을 알려야 합니다.”<sup>58</sup> 라고 말한다.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한국적인 상황에서 지역선교부가 각 지역교회에 선교지 정보, 선교사의 역할, 제도와 사역적인 부분을 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우 적절한 의견이다. 자원 개발과 후보생 발굴도 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본부에 ‘후원 개발’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있다.<sup>59</sup> 그러나 동남아 지역선교부에서 행정부로부터 후원 개발에 대한 도움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재정적, 인적 자원에 대한 후원 개발을 담당하는 본부의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GMS의 선교 현장의 변화 요구와 능동적인 GMS의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을 위한 관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 요약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선교사들의 현재 상황과 전망은 다음과 같다. 선교비는 현재까지는 지역교회의 후원이 거의 줄지 않았으므로 올해는 큰 영향이 없지만, 내년부터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지도자들의 한국 교회 방문도 앞으로 많이 축소될 것이고, 한국 교회의 선교지 방문도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사역자들의 사례비 지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건축비 지원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교사의 역할은 주도적인 역할을 지양하고 보조적인 동역자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 선교사역의 환경과 선교사 역할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임을 의미한다.

지역 리더들의 지역선교부의 각 분야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다양하다. 먼저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패턴이 있었다. 동의 내용은 한국교회의 재정 약화에 따른 선교비 축소, 사역의 축소, 그리고 선교사의 역할 변화이다. 이런 역동적 상황 가운데 지역선교부 운영을 위한 분야별 입장은 변화를 지지하는 입장과 소극적인 관망으로 나뉘었다. 모든 리더는 지역선교부로의 변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코로나 위기로 인한 큰 변화의 물결이 왔기 때문에 변화의 기회는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지역선교부의 능동적 변화를 위한 현장의 이해 당사자들은 선교사, 지부, 지역선교부 그리고 본부이다. 지역선교부에 대한 선교사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지역선교부가 본인과 전체에게 유익하며 사역적으로 긍정적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 전체 전략을 수립할 때 기존 사역을 재조정하기보다는 각 선교사의 사역을 조합하여 전체 그림에서 자신의 사역이 관련됨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

58. 한다윗, op. cit.

59. GMS 정관 제14절 본부, 2020년 9월 23일 의결.

다. 현장에서 필수적인 것은 전문성 있는 인력 개발, 구조 확립과 매뉴얼을 작성하는 일이다. 그리고 파송 교회 대표들의 모임이 지역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면 동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지역선교부 안에 이미 지역선교부 원리에 따라 운영 중인 지부나 팀을 잘 활용하여 가능한 부분과 가능한 지부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도 유의할 것이다. 본부는 현장을 존중하고 관료적 자세와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의 목적은 능동적인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함인데 한계가 있다. 첫째는 능동적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고, 참여자들도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목과 많이 동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을 사용하는 것은 개혁주의 관점으로 볼 때 현재 상황이 지역선교부로의 전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면서, 다양한 도전을 성경의 원리로 변화시킨다.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인이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GMS는 세계적인 선교 잠재력이 있지만, 자영업자 모임 같은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 현장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 말은 현재의 구조가 지역선교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시기적으로 볼 때 선교사들이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유의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이 동남아 지역선교부의 정확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 첫째,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역 임원들과 지부장들인데 사역의 경험으로 주로 중간 이상이다. 주니어선교사들은 물론이고 고참 선교사들의 상황이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미얀마와 태국의 상황이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미얀마는 지역선교부로의 의지가 강하고 시도 중이다. 반면 태국은 다양한 상황이 고착된 경우이다. 다른 상황을 비교하는 것만 해도 하나의 주제가 될 정도인데, 하나로 묶어서 기술하는 것도 한계이다.

## 연구 제안

연구를 하면서 의미 있는 연구 제안들을 발견하였다. 선교 역사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변화를 이끌었던 사건들과의 비교연구이다. 첫째는 1830년대 미국 경제공황이 토착교회 이론의 배경이 되었다. 삼자원리인 자립, 자치, 자전은 파송교회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선교지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생각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의 위기 극복과 네비우스 정책 적용이다. 한국에 온 초기 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젊은데다가 다양한 배경 등의 원인이 되어 연합사역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네비우스 선교사를 초청한 것이 한국 교회 성장의 기초가 되었다. 세 번째,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이다. 1980년대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통한 ‘미전도종족 선교’도 단체별 사역의 한계를 선교 협력으로 이끈 경우이다. 이런 사건들과 현재 GMS 지역선교부 전환과 비교 연구를 하면 유의한 방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영역에서의 연구 제안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지역위원회 활성화와 지역선교부와의 협력 방안이다. 지역선교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

역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선교부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셋째, 지역선교부의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나가며

현재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선교단체들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교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합병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로써 중복 비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다.”<sup>60</sup> 라는 손창남의 제안은 변화를 앞둔 GMS가 깊이 숙고할 대목이다. ‘세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친목모임 같은 GMS’를 전략적인 선교단체로 만들기 위해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개혁주의 선교단체는 급작스럽게 찾아온 팬데믹의 의미를 먼저 찾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GMS는 전략적인 선교단체가 되기가 어렵다. “선교사들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초조와 불안으로 뭔가 대책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sup>61</sup>라며 현실만을 걱정하고 있다는 이승준의 말에 주목해야 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개혁주의 선교사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선교 운동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적응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sup>62</sup>라는 앤드류 월스의 주장도 이 시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남아 지역선교부 운영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이 연구가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을 위한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본 논문의 한계나 새로운 제목들이 이것을 증명한다. 그렇지만 이 논문은 코로나 위기에서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에 중요한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남아 지역선교부 현장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중심 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였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GMS 조직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이다. 선교 현장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의 방향을 선교 재정의 축소 보완 정도나 현재 사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로 정한다면 개혁주의 선교단체의 방향으로서는 미진하다.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주권을 믿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식하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현 상황을 반성하며 한 몸으로 부른 GMS를 돌아보아야 한다.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이 코로나 상황에서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은 아니지만, 한 몸으로 부른 GMS 선교 현장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각 이해당사자가 능동적인 지역선교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이다. 이 글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교부로의 방향 전환에 대하여 현지 선교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60. 손창남, “COVID-19가 가져다줄 변화: 선교단체의 관점.” 코로나 시대의 과제와 선교에 대한 방콕위원회 온라인 토론. <방콕포럼: 미출판 자료 2020> p. 1.

61. 이승준, 오영철 개인 면담, 2020년 9월 19일.

62. Walls, Andrew, 『세계 기독교와 선교 운동』 방언상 역,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8), p. 456.

## 참고 문헌

- Heifetz, Ronald & Linsky, Marty. 『실행의 리더십』 임창희 역. 서울: 위즈덤, 2006.
- Walls, Andrew. 『세계 기독교와 선교 운동』 방연상 역.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8.
- GMS. 본부운영세칙. 2020년 8월 6일. 제12차 임원회에서 수정.
- GMS. 운영규칙. 2020년 9월 23일 이사회 총회 결의.
- GMS. 정관. 2020년 9월 23일 이사회 정기총회 결의.
- GMS Covid-19 대책 상황실. 화성: GMS 김정한 편집 2020. Covid-19 선교지 소식. “채민철 선교사 2020년 6월 30일 기도편지”
- GMS 동남아시아선교부. GMS 동남아시아선교부 정관. 2020년 7월 12일 통과.
- 권승웅. GMS 정책 위원회 포럼 GMS 미래 발전방향-변화하는 세계 속에 GMS의 선교적 역할 “GMS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방향” 2020년 4월 28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89470>, 2020년 12월 27일 접속.
- 김찬곤. GMS 2018 세계 선교대회. “GMS 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GMS 선교의 반추와 전략” 화성: 총회세계선교회. pp. 138-147.
- 김철수. 『선교학 총론』 화성: 총회세계 선교회, 2020.
- 노충현. “GMS, 해외선교사긴급구조.” 『기독신문』 2020년 8월 3일.
- 손창남. “COVID 19가 가져다 줄 변화: 선교단체의 관점.” 코로나시대의 과제와 선교에 대한 방콕위원회 온라인 토론. 방콕포럼: 미출판 자료 2020.
- 심창섭. “지역 선교부 역량 강화하라.” 『기독신문』 2018년 8월 26일.
- 오영철. “선교지 교회건축지원이 자립인식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미출간 논문, 2019.
- 한철호. “코로나, 교회, 그리고 선교.” 코로나시대의 과제와 선교에 대한 방콕위원회 온라인 토론. 방콕포럼: 미출판 자료 2020.

## 인터뷰

- 권오혁. 남부 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3일.
- 김농원. 동남아시아선교부 부대표.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0일.
- 김명희. 미얀마 화련 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2일.
- 김용섭. 지역 대표.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1일.
- 김철수. 중부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8일.
- 안기호. 태국화련 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1일.
- 이문기. 동북지역 지부장. 오영철 인터뷰. 2020년 10월 28일.
- 이승준. GMS 선교사. 오영철 개인 면담. 2020년 9월 19일.
- 이용윤. 태국 북부 2지부장. 오영철 인터뷰. 2020년 10월 24일.
- 임중식. 북부 3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1일.
- 장성영. 치앙라이 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1일.
- 전영상. 태국 북부 1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0일.

주은찬, 미얀마 지부장,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0일.

최동익, 동남아지역선교부 부대표, 오영철 인터뷰, 2020년 10월 24일.

한다윗, 지역대표부 서기, 오영철 개인 인터뷰, 2020년 10월 24일.

\* 이 글은 GMS 선교저널 『교회와 선교』 2021년 봄/여름호에 먼저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 및 생존 전략에 관한 연구

오경환 · 윤희경

SIM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교사

##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또한, 기독교 역사에 전례 없던 교회 예배가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선교사들은 각국 정부가 팬데믹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국가 봉쇄조치lockdown로 사역을 중단, 축소하거나 고국으로 철수했다. 현지에 남아 있는 선교사들은 장기화하는 봉쇄조치로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는 듯한 단절감과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 사역의 위축으로 인한 답답함, 그리고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를 위기감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고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들은 불확실 속에 선교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 선교기관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있지만 아무도 코로나19 상황의 전개 방향과 선교에 미칠 여파를 예측할 수 없다.

선교학자 데이비드 J. 보쉬David J. Bosch는 그의 명저 『변화하고 있는 선교』에서 “위기는 선교에 관련된 위기만이 아니라, 전 교회, 참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cf Clazik 1979:152). 지난 수십 년간 선교가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온 자체에 놀랄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있지 않는 것이 비정상인 것이다.”라고 지적한다.<sup>1</sup>

“격변의 시기에 가장 큰 위험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다.”<sup>2</sup> 라는 피터 드러커의 명언처럼, 지금은 과거의 논리가 아니라 미래의 논리를 위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역사의 진리로 위기는 단연코 기회이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는 기회의 장으로 삼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선교 전략이 필요한지 예측하며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동진선교학연구소의 취지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 및 생존 전략’에 관하여 논하려고 한다. ‘전략’이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전망을 포함하는 전략을 의미하는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전통적으로 남부 아프리카에서 한인 선교사들이 전개했던 사역들은 무엇이며 코로나 사태를 맞아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선교 전략은 무엇인지 고찰해본다. 또

1. 데이비드 J. 보쉬,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공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Pp.23-28

2. Peter F. Drucker, *Managing in Turbulent Times*, 1980, www2.deloitte.com

한, 팬데믹과 같이 격변하는 위기의 시대에 한인 선교사들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해야 할지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 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의 전통적 선교

1980년대부터 시작된 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의 사역은 교회 개척, 제자훈련, 교회 지도자 개발, 신학교 및 교육 사역, 어린이 사역, 대학캠퍼스 사역, 구제 사역 등이다. 필자가 2006년도에 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인 선교사 252명 중 교회 개척과 제자훈련, 교회 지도력 개발, 신학교 및 교육 사역, 대학캠퍼스 사역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은 61.88%였고 구제 사역에는 4.76%가 참여하였다.<sup>3</sup> 2020년 2월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한인 선교사 459명 중 교회 개척과 제자훈련, 교회 지도력 개발, 신학교 및 교육 사역, 어린이 사역에 참여하는 선교사들은 67.51%로 증가하였고 구제 사역은 2.61%로 감소하였다.<sup>4</sup>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남부 아프리카에서도 대면 모임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서 기존에 진행하던 대부분의 선교사역이 중단되었다.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혹은 이보다 더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선교사역을 전개해야 할 것인가? 선교사들은 전통적 선교의 한계를 통감하며 코로나 시대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고심하고 있다.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현 사태를 전례 없는 위기로 인식하고 광범위한 변화의 파도를 예측하고 분석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 분주하다.<sup>5</sup> 하지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필자도 지난해부터 코로나 시대 선교와 관련된 아티클을 찾아 읽거나 남부 아프리카의 한인 선교사들과 온라인을 통해 연구모임을 지속하면서 미래의 선교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본다.

#### 1. 철저한 성경 교육과 기도 훈련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나 모임이 불가능해지고 제한되는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현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안전한 시대에는 언제든지 교회에 모여 말씀을 배울 수 있지만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 성도들 스스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소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므로 역경 속에도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남부 아프리카 현지 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꾸준히 성경 통독을 하도록 독려하고 훈련하

3. Kyung Hwan OH, "Korean Missionaries in Southern Africa: A discussion and evaluation of Korean missionary activity on Southern Africa," 1980-2006, University of Pretoria 박사학위 논문, 2008.

4. 오경환, "중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의 현황분석" 발표, 포트엘리자베스. 2020.2.18-21.

5. 지성은, 포스트 코로나19 연구프로젝트 제1차 발표회, 서대문교회, 2020.6.25. P6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말씀 묵상, 암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돕는 말씀 중심의 사역이 선교의 본질이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기도생활에 힘쓰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현지인 지도자 양성 및 사역 이양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선교사가 갑자기 몰아닥친 위기 상황 속에 선교지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선교사의 사역을 이양받을 수 있는 현지인 사역자가 없으면 오랫동안 진행되어오던 사역들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사는 사역 초기부터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에게 사역을 이양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 날이 길지 않을 것을 아시고 3년간의 짧은 공생애 기간에 열두 제자들을 양육하시며 사역을 위임하신 것이 우리의 선교 모델이다. 신실한 사람을 만나고 훈련하며 리더십을 개발하여 사역을 이양하는 일에는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 인내가 필요하다.

윌터 A. 헐릭슨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주장<sup>6</sup>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남아공은 25세 이하의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약 50%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아서, 전략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제자훈련을 통해 이들을 차세대 리더로 키워야 한다.<sup>7</sup>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돌발상황으로 인해 선교지를 떠나게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현지인 목회자 리더십 개발과 사역 이양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 포트 엘리자베스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는 K 선교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앞으로는 현지인들을 훈련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다고 말했다. 강승삼 전 KWMA 사무총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평신도들의 제자훈련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지적한다.<sup>8</sup> 남아공 한인 선교사들의 온라인 연구모임에서, J 선교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와 초연결 시대의 선교에 대해 “현지인 중심의 선교, 제자화, 재생산, 이양, 철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9</sup>

얼마 전에 필자가 남아공 사역 초기에 양육했던 모하우 모포켕 Mogau Mofokeng 목사로부터 “청년 시절 신앙생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선교사님이 보여준 제자의 삶과 사역 방법이 제 머리에 각인되어 있고 그것을 본받아 교회에 적용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며 제자 삼는 사역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략적으로 현지인 리더십을 개발하고 적절한 때에 사역을 이양하며, 또한 현지 교회 및 관계 기관들이 자립, 자치, 자전하도록 준비하는 선교 전략이 요구된다.

## 3. 구제 사역의 확대

남부 아프리카에서 국가 봉쇄정책이 장기화하면서 일용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6. 윌터 A. 헐릭슨, 『훈련으로 되는 제자』 네비게이토, 2017.

7. South African Statistics 2015 P23 <http://www.statssa.gov.za/publications/SASStatistics/SASStatistics2015.pdf>

8. 강승삼, Ibid

9. 전성진, 코로나 시대 이후와 초연결 시대의 선교 1, 2020.9.18 남아공 선교사 연구모임 줌 강의안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06년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 중 4.76%가 구제 사역에 참여했으며<sup>10</sup> 2020년도의 설문조사 결과에는 전체 한인 선교사들 중 2.61%가 구제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sup>11</sup>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세계 문제로 고통받는 현지인들이 증가하면서 한인 선교사들은 현지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주식인 쌀과 옥수수가루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 식료품을 보급하는 구제 사역을 확대하고 있다. 필자도 코로나 사태 이후 기존의 사역들을 중단하고 현지 교회들과 보육원을 중심으로 구제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필자와 협력하고 있는 현지 교회 목회자들은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내일 먹을 양식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며 오늘 밤 성도들이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힘든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보쉬는 그의 저서 『변화하고 있는 선교』에서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구약과 신약성경을 기초로 고찰하였고, 초대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연대기적으로 그 특징들을 연구한 탁월함을 보여준다.

필자는 보쉬의 역작을 주의 깊게 읽으며 그가 내린 결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가장 큰 계명들 -서로 사랑하라- 의 의미를 실행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당하게 예전에 교회가 선교사역을 할 권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지 물을 수 있다. 선교는 아주 간단하게 미래를 걸고 예수님의 해방하는 선교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Hering, 1980:78). 그것은 공동체의 증거 속에서 성육신 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다.”라고 보쉬는 선교에 있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다.<sup>12</sup>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김성태 교수는 “보쉬의 선교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이 동인이 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완성이다.”라고 보쉬의 주장을 지지하였다.<sup>13</sup>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자 여러 마을로부터 모여든 수천명의 굶주린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마 14:13-21),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구제 사역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

#### 4. 거주residential 및 비거주non-residential 선교의 양면 전술

선교사를 추방하거나 비자를 제한하는 국가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는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를 떠나 안전한 고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늘어간다. 남아공의 경우, 최근 실업률이 약 40%인데 자국민의 일자리를 주변 아프리카 국가에서 몰려드는 값싼 임금의 노동자들에게 뺏기는 일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사회의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했는데 이는 선교사 비자에도 영

10. Kyung Hwan OH, “Korean Missionaries in Southern Africa: A discussion and evaluation of Korean missionary activity on Southern Africa, 1980-2006,” University of Pretoria 박사학위 논문, 2008

11. 오경환 Ibid

12. 데이비드 J. 보쉬 Ibid, P. 763

13. Ibid, P.5

향을 미치게 되어 더이상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여 남아공을 철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 탄자니아 정부는 모든 외국인이 자국에서 떠나도록 비자 발급과 연장을 제한해서 많은 선교사가 이미 철수했고 남은 사람들도 계속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위의 경우들과 같이 선교지 상황에 의해 비자발적 철수를 감행하지만, 사역은 지속되어야 할 때 대안은 무엇일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여 선교사역이 현지인들에 의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철수 후에도 여행자 비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하여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지속하는 것도 유익한 전략이다. 전통적으로 선교사 비자가 허락되지 않는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비거주 선교사역이 필요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거주 선교와 비거주 선교라는 양면 전술이 더욱 요구된다.

남아공에서 40년간 사역했던 미국인 빌 라피어<sup>Bill Rapier</sup> 선교사는 은퇴 후 고국에 돌아간 이후에도 매년 6회 이상 남아공과 짐바브웨를 방문하여 현지 목회자들을 멘토링하고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며 자신이 설립한 보육원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남아공의 실라 들라들라<sup>Silas Dladla</sup> 목사는 요하네스버그 외곽지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매년 1, 2개월 짐바브웨와 말라위에 가서 전도하며 개척한 30여 개의 시골 교회에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고 자신은 비거주 선교사로 동역하고 있다.

## 5. I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선교지에서도 정기적인 대면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사역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선교사역에도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인터넷 환경이 좋은 선교지에서는 이미 화상 예배가 도입되고 온라인으로 성경 및 신학 강의가 개설되기 시작했으며 성경 읽기 프로그램, 말씀 및 기도 모임 등 현지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다양한 통신기술이 발전되고 초 연결<sup>hyper connect</sup> 사회로 진입한 이 시점에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면 최저 비용으로도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왓츠앱<sup>WhatsApp</sup>, 이메일 등의 메신저 기능을 통해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남아공의 화이트 리버와 레소토에서 사역하는 어느 한인 선교사는 대면 사역이 불가능해지자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을 활용하여 주일예배와 수요예배를 인도하며 기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선교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사례이다.

## 6.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

공동체 개념이 발달한 아프리카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부활절, 성탄절, 계절별 부흥회 등 지역교회들의 연합 예배나 행사가 많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함께한다' 라는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수시로 연합 모임을 개최한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대중 모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현지 교회에도 소그룹 모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대일

양육이나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 제자훈련 등 다양한 종류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위축된 사역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 7. 협업collaboration과 팀 사역team ministry

협업이란 많은 사람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노동을 분담하여 협동적, 조직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상생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다. 선교에도 협업이 필요하다.

조동진 박사는 1970년대 한국 선교운동을 시작할 때 풍부한 선교 경험을 축적한 서구 선교단체들과 협업 관계를 맺고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을 시작하였고, 한국 교회도 아시아 국가들의 교회 및 선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한국의 선교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미국의 풀러, 트리니티, 달라스, 휘튼, 에스베리, 무디, 그리고 독일의 튀빙겐 등 우수한 대학에서 선교학자들이 동서선교연구개발원 하계선교대학원의 강사로 참여하여 한국 선교지도자들과 선교운동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여했다.

손영준 박사가 운영했던 선교사훈련원<sup>MTI</sup>을 통해 SIM, AIM, OMF 등의 선교단체 지도자들은 국제선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한국의 선교 후보생들에게 선교 역사, 선교 전략, 생활 영어, 선교지 정보 제공 등 그들의 선교 노하우<sup>know-how</sup>를 아낌없이 공유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한국 교회는 세계선교의 동반자로 함께 사역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독일의 DMG(former German Missionary Fellowship)<sup>14</sup>라는 선교단체는 전 세계 105개 국제 선교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DMG 소속 선교사들을 위탁 파송하여 협력 사역을 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선교 역사가 오래되고 현재도 아프리카에서 활발히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 SIM과 협업하여 독일 선교사들을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에 파송했다. 독일 선교부는 선교사를 허입하고 훈련하며 파송하는 일을 담당하고 SIM은 선교지에서 그들의 은사와 비전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역한다.

20년 전,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21세기 선교전략회의<sup>NCOWE III</sup>’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공동선언문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연합과 협력이 선교 과업의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나’와 ‘우리’의 관점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 대상 종족’의 관점을 지닐 때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각 사역자와 기관의 은사를 인정하고 선교사역의 다양성과 총체성을 긍정하는 가운데, 선교 역사에 나타난 좋은 교훈을 따라 선교 지역이나 사역에 대해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선교사 상호 간, 교단 선교부와 초교파 선교단체 간, 한국 선교사와 외국 선교사 간, 현지 교회 및 국내외 교회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한다.”<sup>15</sup>

조용중 한국세계선교협의회<sup>KWMA</sup> 전 사무총장은, “그동안 한국 교회는 최선을 다해 해외선교를 감당했다. 앞으로는 전략적 선교를 위한 협력과 연합이 더욱 절실하게 됐다.”라고 제안한다.<sup>16</sup>

선교사에 대한 개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전통적 개념의 목사 선교사보다, 직장이나 NGO를 통해 선교지로 나가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목사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

14. [https://en.wikipedia.org/wiki/DMG\\_interpersonal](https://en.wikipedia.org/wiki/DMG_interpersonal)

15.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1세기 선교전략선언문. 2000.8.14-15. <https://wcnlink.tistory.com/44>

16. 조용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창의적 확장성으로 접근해야.”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2020.6.18

협업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서로 상생win-win하는 선교 전략이다.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명운을 넘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마 29:19-20)라는 예수님의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을 이 시대에 완성하기 위해 협업과 팀 사역은 당위성과 필연성이 있다.

#### 8.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을 선교의 자원으로 동원

2019년 11월,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의 AMAAsia Missions Association 국제대회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민과 선교Migration and Mission’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이민자와 주재원, 유학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선교 모델이 제시되었다.<sup>17</sup>

남아공의 경우, 아프리카 대륙과 중국에서 젊은 인재들이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 온다. SIM 남아공 선교부는 남아공을 아프리카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스텔렌보쉬대학University of Stellenbosch과 케이프타운대학University of Cape Town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현실적 필요를 돕고 관계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양육 단계까지 나아간다. 개인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이 일차적 목표이며, 가까운 미래에 이들은 본국에 돌아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인재들이므로 선교의 중요한 자원으로 동원한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면 본국에 가서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남아공 주변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남아공으로 유입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다. P 선교사는 모잠비크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며 모잠비크에서 온 벌목공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며 그중 한 명을 모잠비크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그를 통해 모잠비크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선교의 자원으로 동원하는 좋은 사례이다.

코로나 이후 선교사 비자 발급을 중지하거나 극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접근성이 용이한 유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선교의 자원으로 동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9. 상담 사역의 확장

전염병으로 갑자기 가족의 죽음을 맞는 충격과 자신에게도 언제 찾아올지 모를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장례 문화를 매우 중요시하는 아프리카 문화에서 정부 규제로 인해 조문이나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당혹스러운 현실에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아프리카 문화에서 이웃과의 단절과 사람에 대한 불신 및 기피 현상은 심리적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예배가 금지되고 만남이 제한되면서 영적 침체와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현지인들이 많다. 전통적으로 흑인 문화에서 상담은 매우 생소하게 인식되고 꺼리는 분위기였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자신의 고통을 선교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선교 현장에서 상담과 심리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7. AMA 2019 13<sup>th</sup> Triennial Convention, Migration & Mission, Nov.11-15, 2019, Orchid Hotel Chiang Mai, Thailand

## 10. 선교비 모금의 다변화

“코로나19가 한국 선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KWMA의 설문조사 결과, “후원금이 감소했다.”라고 대답한 선교사들(158명) 중, 감소 폭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 미만 감소했다.”라는 대답이 51.9%로 절반을 넘었다. 20~40% 감소가 38.6%, 40~60% 감소가 8.2%, 그리고 60~100% 감소한 경우가 1.3%로 집계되었다.<sup>18</sup> 실제로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선교비 부족으로 한국에 돌아가는 선교사들과 또한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선교비가 감소하여 선교지로 귀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선교 후원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는 일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이 언제든 후원을 중단할 것을 대비해서 선교비 모금의 다변화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믿음 선교(faith mission)’를 주장하던 과거의 논리를 뛰어넘어 능동적으로 선교비를 모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 선교(Business As Mission, BAM)의 역할도 예상된다.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사역을 지양하고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사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선교사의 생존 전략

위기는 한자로 危機, 위험(危險)과 기회(機會)의 합성어이다. 즉, 위기 상황은 위험과 기회가 만나는 곳이며,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며, 사건들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전개될 수 있는 개방된 곳이다.<sup>19</sup>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다면 최악의 상태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도 예고 없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사도 바울도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극한의 위기를 경험했다.<sup>20</sup>

한국위기관리재단의 김진대 사무총장은, “교통사고, 항공기 추락, 강도 피살, 독극물 피살, 구금과 억류, 절도 피해, 익사 사고, 추방과 긴급 철수, 입국 거절, 전염병에 의한 철수, 선교사 자살, 선교사 자녀의 자살, 성폭행, 부부 갈등과 이혼, 관계 문제, 팀 내 갈등과 분열, 고립과 단절, 외로움과 고독, 탈진, 우울증, 사역의 부진, 언어소통 문제, 각종 중독 증상들, 후원 중단, 자녀교육, 중도 탈락, 도덕적 실패, 스트레스, 전환(transition) 문제, 고령화와 은퇴, 은퇴 후 노후대책 등”이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위기라고 제시한다.<sup>21</sup>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남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이 직면한 위기는 무엇일까? 필자가 2020년 상반기 25명의 한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면으로 진행되어오던 선교사역의 중단과 비대면(온라인 사역)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파르게 상승하는 확진자 증가세와 불안정한 의료체계에 따른 불안,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구제 사역을 위해 사역지를 오가는 일, 한국 병원에서의 치료가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하늘길이 막혀 가지 못함, 비자 재발급 거절로 추방당하는 일, 한국 교회의 후원비 중단, 자녀교육 문제, 동료 선교사들과의 만남이 제한되며 겪는 심리적 어려움 등이다.

위기의 코로나 시대와 불확실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인 선교사들이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를

18. <https://missionnews.co.kr/news/582090>

19. 데이비드 J. 보쉬, Pp25-26

20. 고린도후서 11장 23~27절

21. 김진대, “선교사 위기관리,” 중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 줌 미팅 강의안, 2020.7.24

어떻게 극복하며 생존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본다.

### 1. 재난 예비비 준비하기

코로나19는 지난 반년 동안 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경제적 위기를 맞은 남아공 정부는 IMF로부터 긴급하게 국가 재건자금 43억 불을 수혈받았다.<sup>22</sup>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부도 위기를 막고 유동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며 현금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선교사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몇 개월간, 선교사들은 선교 후원비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 일정 금액을 재난예비비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의 예비비가 준비되어 있으면 본부로부터 송금이 지연되거나 후원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급히 한국에 들어가게 될 때 필요한 항공료나 혹은 현지에서 비싼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응급상황에 처해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열 처녀 비유(마15:1-13)를 교훈 삼아 예측할 수 없는 선교 현장에서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 2.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 유지하기

위기 상황이 반복되면서 트라우마를 감당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 베셀 반 데어 콜크는, “인간은 회복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생물이다. 인류는 무자비한 전쟁과 무수한 재앙을 겪고 삶에서 폭력과 배신을 경험한 후에도 매번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정신적 외상 경험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범위가 아주 방대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어두운 비밀로 존속해 여러 세대를 거쳐 알게 모르게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한 경험들은 마음과 감정도 흔적을 남기고, 즐거움과 친밀감을 느끼는 능력에도 영향을 주며, 심지어 생물학적인 특성과 면역체계에도 자국을 남긴다.”라고 설명했다.<sup>23</sup>

선교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위기로 정서적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저하되는 사례가 많다. 반복되는 위기를 경험하며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번 아웃 상태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선교사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 반드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재충전되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혼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상처들을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 현장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일하면 좋겠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환경에도 ‘소확행’을 찾아 즐기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제안한다.

22.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코로나19 대응 동향, 2020.7.29. 73호.

23. 베셀 반 데어 콜크, 『몸은 기억한다』 제효영 옮김, 김현수 감수, 서울: 을유문화사, 2019. P. 23.

### 3. 영적 면역력 높이기

필자가 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선교지에서 직면하고 있는 고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65.30%가 ‘영적 침체’ 48.97%가 ‘기도 시간 부족’ 40.81%가 ‘재정적인 어려움’ 38.77%가 ‘훈련 부족’이라고 응답했다.<sup>24</sup>

아프리카 대륙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제공하는 영적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기회가 매우 적다. 선교사 개인이 꾸준히 영성 훈련을 지속하지 못하면 쉽게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진다. 한 응답자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것 같다. 나의 내면이 흔들릴 때 선교사역도 주춤하게 되고 가족들도 힘들어했다. 육체적으로 탈진되었을 때 영성도 흔들리고 우울해지기도 했고 이런 감정들은 고스란히 선교지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답했다.

영적 전문가 치열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인 고충이 많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영적 생활은 개인과 가정, 동역자 및 현지인과의 관계, 그리고 사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영적 활력을 유지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영적 면역력을 높일 기본적인 방법은 경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며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또한, 발달한 인터넷 통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움이 될만한 설교나 강의, 찬양을 통해 재충전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훈련과 영성 일기나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영적 생활에 유익하다.

필자는 지난 2년간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에 몇 번씩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CCM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암송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되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을 얻어 기도하면서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4a,6)”라고 권면한다. 선교지는 영적 싸움터이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주는 일들이 사방에서 밀려오며 마음을 짓누를 때가 종종 있지만, 영적으로 무장할 때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롬 8:28)”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고 날마다 영성 훈련에 힘쓰며 영적 면역력을 높이자.

### 4. 질병이나 사고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국의 질병대응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의 의료기술 및 의료체계는 매우 우수하다. 남아공의 경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고 대기 환자가 많다. 사립병원은 의료환경이 좋지만 의료보험료가 고가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들은 현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수술 등 응급상황 시 수천만원의 예치금을 선납해야 진료가 가능하다. 남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은 남아공보다 의료환경이 더욱 열악하다. 따라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현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한

24. Kyung Hwan OH, Ibid, Pp 159-160

국에 들어가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남아공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9/2020년도(2019. 4. 1 ~ 2020. 3. 30)에 총 21,325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58명(인구 10만 명 당 35.8명)이 살해된 것으로 2018/2019년도와 비교할 때 1.4% 증가했다.<sup>25</sup> 남아공에서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률은 전쟁 중인 국가들의 사망률보다 더 높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매우 큰데 무면허 소지자나 음주운전, 그리고 과속운전자의 증가가 원인이다. 한인 선교사들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도 예기치 못한 권총 강도나 하이재킹을 당하고 또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이전보다 더 불안정한 시대에 한인 선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 5. 현지 변호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선교지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면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 중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선교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해결되는 일들도 있다. 과거 한국 사회는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에 선교지에서도 한인 선교사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물론 변호사 수입료가 비싸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선교사가 일을 처리할 때 현지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외국인의 신분으로 당하는 차별 등으로 정신적인 고충을 겪으며 물질적으로나 시간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고비용 지출이 부담되어도 위기의 시대를 맞아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현지 정부법에 정통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글을 마치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그동안 남부 아프리카에서 한인 선교사들이 전통적으로 전개해오던 대부분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어린이 사역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집단 면역력이 형성될 때까지 장기적인 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구제 사역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며 한인 선교사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선교기관들이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도 코로나19 상황의 전개와 선교에 미칠 여파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사역을 잠시 멈추고 서 있는 이 기간에 그동안의 선교사역을 되돌아보며, ‘과거의 논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대응하는 자세’로 창의력 있게 선교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KWMA 조용중 전 사무총장은, “생명은 유연하게 움직이는 법이다. 어떤 장벽이든 틈새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 자는 그 길을 보게 돼 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도, 제도도, 전염병도 막을 수 없다. 전시체제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창조적 소수로 인해 복음의 영토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도전한다.<sup>26</sup>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난관에도 불구하고 세계선교에 대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은 계속 될 것이다.

25.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코로나19 대응 동향, 2020.8.3 제74호

26. 조용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창의적 확장성으로 접근해야.” (서울: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2020.6.18) <http://news.kmbi.co.kr/article/view.asp?articleid=0924143162&code=23111117&cp=nv>

본 소고에서 제안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부 아프리카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 및 생존전략이 척박한 땅에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충성하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동료 선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 참고 문헌

- 보쉬, 데이비드 J. 『변화하고 있는 선교』 김병길, 장훈태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터커, 루스. 『선교사 열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 콜크, 베셀 반 데어. 『몸은 기억한다』 제효영 옮김, 김현수 감수. 서울: 을유문화사, 2019.
- 엘리엇, 엘리자베스. 『전능자의 그늘』 윤종석 옮김. 서울: 복 있는 사람, 2013.
- 헨릭슨, 윌터 A. 『훈련으로 되는 제자』 서울: 네비게이토, 2017.
- 봉크, 조나단 J., 드와이트 P. 베이커, J. 벨슨 제닝스, 김진봉, 문상철외 33인 지음. 『선교사 가정에 대한 책무 한국과 서구의 사례연구』 서울: 두란노서원, 2013.
- 지성은. “코로나19 이후 문명적 전환과 기독교.” 포스트 코로나19 연구프로젝트 제1차 발표회. 서대문교회, 2020. 6. 25.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1세기 선교전략선언문.” 2000.8.14-15. <https://wcnlink.tistory.com>
- 강승삼. “포스트모더니즘과 Post-COVID 19 시대의 선교방향과 선교 동원 전략.” 평창: KWMA 평창 포럼 2020. 7. 23~25.
- 김진대. “선교사위기관리.” 중남부아프리카한인선교사 줌미팅 Zoom Meeting 강의안, 2020. 7. 24.
- 오경환. “중남부아프리카 한인선교사 현황분석 및 제안.” 포트 엘리자베스: 중아선발전모임, 2020. 2. 18~21.
- 전성진. “코로나시대 이후와 초연결시대의 선교1.” 중남부아프리카 한인선교사 줌 미팅 강의안, 2020. 9. 18.
- 조용중. “포스트 코로나시대 창의적 확장성으로 접근해야.” 서울: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2020. 6. 18.
-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코로나19대응동향.” 2020. 7. 29 제73호.
-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코로나19대응동향.” 2020. 8. 03 제74호.
- Drucker, Peter F. *Managing in Turbulent Times*. 1980., [www2.deloitte.com](http://www2.deloitte.com)
- OH, Kyung Hwan. “Korean Missionaries in Southern Africa: A discussion and evaluation of Korean missionary activity on Southern Africa, 1980-2006.” University of Pretoria 박사학위 논문, 2008
- EWC. “Migration & Mission.” AMA 2019 13th Triennial Convention. Chiang Mai, Thailand. Nov.11-15, 2019.

##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44714>
- [http://www.miral.org/news/story\\_view.asp?bbsIdx=13494&bbsCode=story](http://www.miral.org/news/story_view.asp?bbsIdx=13494&bbsCode=story)
- <https://missionnews.co.kr/news/582090>
- <http://www.statssa.gov.za/publications/SASStatistics/SASStatistics2015.pdf>
- [https://en.wikipedia.org/wiki/DMG\\_interpersonal](https://en.wikipedia.org/wiki/DMG_interpersonal)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3162&code=23111117&cp=nv>

# 코로나19 이후 말레이시아 선교 환경의 변화

정재우

말레이시아 사바신학교 선교학 교수

## 들어가는 말

2019년 12월에 뉴스를 통해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중국 당국이 그 지역을 폐쇄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순간 2003년에 발생한 사스(SARS) 사건<sup>1</sup>이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쳐 갔다. 그때 필자는 중국 서북쪽 시닝(Xining)이라는 도시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스로 인해 같은 단체 소속이었던 홍콩 사역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필자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다행히 여름이 다가오면서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약해져 필자와 가족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떠날 수 있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사스의 변종인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수그러질 기미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6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9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매일 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sup>2</sup>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과 더불어 전염병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코로나에 대해 새롭게 출판된 책이나 소논문들은 아주 많다.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경우는 아주 드문 현상이다. 역사 철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역사적 ‘경제divide’<sup>3</sup>를 건너고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들이 점차 생활 가운데 정착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전망한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는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이런 격변기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저명한 선교학자인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는 그의 책 『현대 선교의 도전과 전망 Today's Choices for Tomorrow's Mission』에서 불확실의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미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선교 경향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예견

1.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는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하였고 2003년 4월부터 세계 30개국으로 퍼져서 8,300여 명이 감염되었고 840명이 사망했다. 치사율 11%에 달했다. 연국희, “사스 공포, 2003년 840명 사망-35조 원 손실,” 동아일보, 2004년 1월 26일,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040126/8022996/1>. 구체적인 정보는 세계보건기구 (WHO) 사이트를 참고하라. “Summary of probable SARS cases with onset of illness from 1 November 2002 to 31 July 2003,” World Health Organization, last modified Dec 31, 2003, accessed Oct 30, 2020, [https://www.who.int/csr/sars/country/table2004\\_04\\_21/en/](https://www.who.int/csr/sars/country/table2004_04_21/en/).

2.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World Health Organization, accessed Jul 31, 2021, <https://covid19.who.int/>.

3. Peter F. Drucker, *The New Realities: In Government and Politics, in Economics and Business, in Society and World View*. 1st ed. (New York: Harper & Row, 1989), 3-9. 마지막 경계를 1873-1973년으로 드러키는 나누는데 이때 경제적 (주식 붕괴, 오일쇼크), 정치적 (마르크스주의, 전체주의, 반유대주의) 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sup>4</sup> 필자는 변화가 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글의 논지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말레이시아 선교 현상이 전례 없이 급변하고 있어, 비대면 사역과 전문인 사역, 그리고 공동체성 회복 같은 사역의 창의성이 고도로 요구가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먼저 코로나와 같은 대재앙의 원인과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성경적, 신학적 다양한 관점들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코로나가 가져온 두 가지 큰 변화를 분석한 다음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상황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선교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대재앙의 원인과 성도들의 자세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의하면,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새로운 질병”이다. 전염은 사람 사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전 세계로 퍼질 때 발생하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하여 면역력이 없다. 과거에 유행성 전염병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유래했다.<sup>5</sup>

전염병은 역사 속에서 인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18년의 인플루엔자는 근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유행병이었다. 새의 기관지 유전자와 H1N1 바이러스가 결합해 생긴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감염이 되었고 무려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만 67만 명이 사망했다.<sup>6</sup>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남자는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sup>7</sup>

코로나 Covid-19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2 SARS Coronavirus-2에 의해 발생했는데 2019년 말 박쥐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이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으로 학자들은 믿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예전에는 없었던 유행성 전염병이기에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없고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sup>8</sup>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는 노인, 남자,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혈관에 관계되는 질병들, 심근 상해 myocardial injury를 가진 사람들과 거주 환경이 열악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자들이 많이 걸린다고 보고된 바 있다.<sup>9</sup>

지금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는 코로나 가운데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신앙의 자유가 먼저인가, 아니면 공공의 안전이 먼저인가? 이에 대해 어떤 교회들은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온라인으로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다. 필자는 코로나와 같은 대재앙의 원인과 우리들의 자세에 관련하여 여러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대재앙은 자연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 트렌드 (trend)는 비교적 지속이 되고 커지는 현상을 말하고 이슈 (issue)는 좀 더 임시로 제한되며 토론과 논쟁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한다. Michael Pooock, Gailyn Van Rheenen, and Douglas McConnell, *The changing face of world missions: engaging contemporary issues and trends, Encountering mission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5), 12-13. 선교의 트렌드에 대해서 Timothy C. Tennent의 책, *Invitation to World Missions: A Trinitarian Missi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2010), 8-51; Stan Guthrie의 책, *Missions in the Third Millennium: 21 Key Trends for the 21st Century* (Carlisle, Cumbria, UK: Paternoster Press, 2000) 참조하라.

5. “What is a pandemic?,” World Health Organization, accessed Nov 6, 2020, [https://www.who.int/csr/disease/swineflu/frequently\\_asked\\_questions/pandemic/en/](https://www.who.int/csr/disease/swineflu/frequently_asked_questions/pandemic/en/).

6. “1918 Pandemic (H1N1 virus),”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cessed Oct 31, 2020, <https://www.cdc.gov/flu/pandemic-resources/1918-pandemic-h1n1.html>.

7. John Piper, *Coronavirus and Christ* (Wheaton, Illinois: Crossway, 2020), 8. 재인용.

8. Claire Marie Filone, “Virology, Coronaviruses, and COVID-19,”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ine Coronavirus Resource Center, accessed Nov 6, 2020, <https://coronavirus.jhu.edu/covid-19-basics/understanding-covid-19/module-1-virology-coronaviruses-and-covid-19#/lessons/3Bmq-kW8IVeHDx2j7f9-KO4zYP51T8qm>.

9. Clyde W Yancy, “Covid-19 and African Americans.” *Jama* 323, no. 19 (2020): 1891–92. doi:10.1001/jama.2020.6548.

이 견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들이다. 첫 번째, 스토아 학파Stoicism는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되어서 그대로 움직인다고 믿었다. 이 정해진 것을 인간들이 변화시킬 수 없으니 적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에피쿠로스 학파Epicurean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플라톤주의 학파Platonism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실제의 그림자일 뿐이며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우리는 다른 세계로 갈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었다. 현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대부분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만, 곧 지나간다고 믿는다. 또한 어떤 기독교인들은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 죽음조차 나쁘지 않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계로 간다고 믿기 때문이다.<sup>10</sup> 대재앙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수동적이며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있다.

둘째, 대재앙은 하나님 창조의 일부분이다.

이 주장은 첫 번째 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며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테렌스 프레테임Terence Fretheim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고good 했지만 완전했다고perfect 말씀하지 않으셨고 인간들에게 창조물을 지배하라.subdue”라고 (창 1:28) 하셨음을 강조한다. 그는 창조가 완전 무결성creation untamed을 띠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sup>11</sup> 세포 변이, 위험한 바이러스, 지진, 화산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 이것은 창조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창조의 질서 가운데 부정적인 자연 현상들negative natural event이 있었고 후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적 질서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죄로 인한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대재앙을 해석하는 것은 서구의 관점이지 구약의 관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재앙의 관계를 선부르게 결론 짓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며 재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가운데 인간들과 함께하신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들이 재앙을 만날 때 기도의 태도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sup>12</sup>

이와 비슷한 논조로, 마크브레트Mark Brett도 “자연적인 악natural evil”이 창조 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 1:2).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나온 것이creatio ex nihilo, creation out of nothing 아니고 깊은 심연에서 나왔다는creatio ex profundis, creation out of the deep waters 주장이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이후에도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sup>13</sup>

셋째, 대재앙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사람들은 대재앙(지진, 화산, 불, 질병)이 일어나면 화난 신들과 관계되어 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신들이 벌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바치거나 기도를 함으로써 신들을 달랬다.<sup>14</sup>

기독교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대재앙은 인간들이 심각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10. N. T. Wright, *God and the Pandemic: A Christian Reflection on the Coronavirus and Its Aftermath*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20), 2.

11. Terence E. Fretheim, *Creation Untamed: The Bible, God, and Natural Disasters, Theological Explorations for the Church Catholic*.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10), 12-13.

12. Fretheim, *Creation Untamed*.

13. Mark Brett, and Jason Goroncy, “Creation, God, and the Coronavirus,” *Theology* 123, no. 5 (2020): 347-348.

14. Wright, *God and the Pandemic*, 2.

이며 인간들은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즉, 인과응보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코로나바이러스와 그리스도 Coronavirus and Christ』에서 하나님은 건강, 질병, 경제적 붕괴, 회복 등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고 주장한다.<sup>15</sup> 성경의 예를 들어가며 코로나는 명백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이것을 ‘혹독한 섭리 bitter providence’ 라고 명명한다 (룻 1:20-21). 반면, 혹독한 섭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코로나를 다스리시기에 이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는 것이다 (사 46:9,10).<sup>16</sup> 그는 계속해서 황폐함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롬 8:20-22) 코로나를 통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적인 악을 징치하신다고 주장한다. 물론 욕의 경우처럼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심판은 징벌과 함께 정화를 가져온다 (헤롯이 벌레에게 먹힘: 행 12:23; 동성애 심판: 롬 1:27).<sup>17</sup> 또한, 질병과 재난과 불행은 종말에 대한 신호이기에 깨어 있으라고 촉구한다 (마 24:44, 막 13:33-37, 살전 5:4-10).<sup>18</sup> 그러므로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과 예수님의 본과 초대교회의 예를 들며 선을 행하라고 촉구한다 (마 5:16, 눅 14:13, 14).<sup>19</sup>

여러 기독교 신학자들도 비슷한 논조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에서 창조주의 어긋남을 찾는 경향이 있고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 학자들은 대홍수에 강조점을 둔다. 생태학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31절을 인용하며 원래는 지구가 좋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책임으로 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0</sup> 로버트 Anjeanette Roberts 는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왔고 인간에게 전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sup>21</sup>

시카고대학 신학부가 미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코로나와 신앙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 중 63%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즉, 대다수 기독교를 믿는 미국인들은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다.<sup>22</sup>

넷째, 대재앙의 원인을 묻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

미국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Walter Brueggemann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성경과 씨름하는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낸다. 구약을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대재앙과 관련하신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언약의 거래 transactional mode of covenant인데,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하나님의 원리이다(시 1:6, 레 26:23-26, 삼하 24:12-13, 신 28:21-34, 렘 15:2). 즉, 재앙은 인간들 죄악의 결과라는 것이다. 둘째는 목적적 제정 purposeful enactment 인데, 재앙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인간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심판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해방 사건이다(출 6:6-7, 11:5-7, 14:4, 사 2:12-17). 셋째는 자유 제정 enacted in freedom 인데,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욥 38:4-11, 42:2).<sup>23</sup>

책 제목처럼, 바이러스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촉매제이다. 성경은 위기 시에 사람들

15. Piper, *Coronavirus and Christ*, 18.

16. Piper, *Coronavirus and Christ*, 37-43.

17. Piper, *Coronavirus and Christ*, 65-72.

18. Piper, *Coronavirus and Christ*, 73-76.

19. Piper, *Coronavirus and Christ*, 80-94.

20. Brett and Goroncy, “Creation, God, and the Coronavirus” : 347-348.

21. Anjeanette Roberts, interviewed by Rebecca Randall, “Why Zika, and Other Viruses,” Christian Today, accessed Nov 19, 2020,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18/august-web-only/why-zika-and-other-viruses-dont-disprove-gods-goodness.html>.

22. Carlie Porterfield, “Two-Thirds Of Religious Americans Believe Coronavirus Is A Message From God,” Forbes, accessed Nov 30, 2020, <https://www.forbes.com/sites/carlieporterfield/2020/05/15/two-thirds-of-religious-americans-believe-coronavirus-is-a-message-from-god/?sh=1f9018b9a2ae>.

23. Walter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Biblical Reflections in a Time of Loss, Grief, and Uncertainty* (Eugene: Cascade Books, 2020), 5-11.

에게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한다. 그런즉,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길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시편 77편). 지금은 애통해 하는 시간이며 이웃을 위해 행동하는 시간이라고 주장한다.<sup>24</sup>

존 골딩게이 John Goldingay에 의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한 이유를 항상 밝히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47장은 기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성전 봉헌을 할 때 솔로몬도 대재앙과 하나님의 심판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대신 이런 대재앙이 올 때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하여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도움 주시기를 간구했다(대하 6:28-30, 왕상 8:37-40). 인간들의 죄악이 자연 질서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 재앙의 원인을 돌릴 수 없다(출산의 고통: 창 3:16-19, 홍수: 창 6:11-13). 욥기에서는 재앙의 근원을 신비의 영역으로 인식한다. 기근을 통해 요셉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룻이 나오미와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므로 대재앙의 원인을 설명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눅 13:1-5) 적극적으로 이웃을 돌아보라고 권한다(레 19:13-18).<sup>25</sup>

영국 성공회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 N.T Wright는 “재앙을 만날 때 ‘왜’ 라고 질문을 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은 코로나의 원인을 다른 나라와 사람들에게 돌린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종말의 표식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그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한다.<sup>26</sup>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유수는 가장 큰 시련이자 재앙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시련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신명기,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처절한 모습이 나온다(애 4:3, 5:19-22). 성경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단 9:9-10). 구약에서 과부가 자기의 죄로 인해 아들을 잃게 되는데 엘리야가 살린다(왕상 17-18). 이처럼 인과응보 사상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다(시 37:25).<sup>27</sup> 그러나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그들의 횡포에 고통을 당하는 예들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시 73).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잘 돌보셨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언약을 지켰는데 현재 고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시 44).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잠깐 해가 비추다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모든 것이 잘못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음을 피력한다(시 88:3-18, 89).<sup>28</sup>

욥기서에는 말씀을 지켰는데도 재앙을 당했던 욥이 등장한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욥에게 숨겨진 죄를 고백하라고 권한다. 물론 욥기서는 정확하게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는다. 욥은 자기의 신원을 증보해 줄 사람을 찾았다(욥 9:33). 톰 라이트는 욥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한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다. 이 고난에 대한 두 가지 구약의 사상들이 죽음의 저주를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중첩된다.<sup>29</sup>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보하시듯이 우리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24.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46.

25. John Goldingay and Goldingay K.S., “Thinking with the Old Testament About the Pandemic,” *Theology* 123, no. 3 (2020): 192-197.

26. Wright, *God and the Pandemic*, 5.

27. Wright, *God and the Pandemic*, 8-9.

28. Wright, *God and the Pandemic*, 10-12.

29. Wright, *God and the Pandemic*, 10-14.

자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를 해야 한다(롬 8:22-27).<sup>30</sup>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초대교회 시절 로마에서 역병이 번질 때 헌신적으로 이웃을 도왔던 기독교인들처럼 고난 당하는 이웃을 도우면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31</sup>

고난의 원인과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테렌스 프레테임은 대재앙의 원인이 자연적인 창조의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는 반면, 존 파이퍼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한다. 더불어 그는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셨고 또한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의로우시다고 말한다. 또 한편 톰 라이트와 윌터 브루그만은 신학적인 견해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윌터 브루그만은 선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톰 라이트는 목회적인 반응, 즉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목회자의 심정으로 권한다. 이들은 모두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믿는 자들이 겸손하게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헌신적인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필자는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서 옴기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신비 영역으로 남겨두고 청지기의 자세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병든 자들에게는 병을 고치시며 말씀을 전하셨다.

다음은 코로나 과정과 이후의 상황에 대해 특히 말레이시아 선교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자 한다.

##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Alvin Toffler는 『제3의 물결 The Review of the Third Wave』에서 역사는 세 가지 단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제1의 물결, 즉 농업이 기반이 된 사회, 둘째는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과 산업 사회, 셋째는 제3의 물결, 즉 정보혁명과 정보사회로 나누었다.<sup>32</sup> ‘4차 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란 말은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인데,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이 기조연설 때 사용한 말로 그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지금은 제4의 물결 또는 4차원 산업혁명으로 진입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다. 빅데이터 big data,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3차원 인쇄, 나노기술 nano technology, NT, 로봇공학, 자율주행 등이 특징이다.<sup>33</sup>

코로나는 4차 산업혁명 과정 중에 발생했다.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필자는 비대면 시대의 도래와 거대정부와 감시사회의 출현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비대면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세계적인 미래 연구 기구인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세계 미래보고서 2020』를 출판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영숙은 온 인류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재택근무의 활성화, 대학 교육의 변화, 그리고 일자리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sup>34</sup> 김용섭은

30. Wright, *God and the Pandemic*, 42.

31. Wright, *God and the Pandemic*, 60-61.

32.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Bantam ed. New York: Bantam, 1981).

33.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accessed Jan 14, 2016,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구체적인 설명은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이 저술한 4차 산업혁명의 충격 (서울: 흐름출판, 2017) 참조하라.

34.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1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서울: 비즈니스북스, 2020).

『언콘택트uncontact』라는 책에서 언콘택트가 미래에 중요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상생활, 비즈니스,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언콘택트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주장한다. 만나야 일이 되는 기존 상식의 틀을 깨고 비대면uncontact 속에서 대면contact을 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sup>35</sup>

또한, 미래학자 제이슨 쉐커Jason Schenker는 그의 책 『코로나 이후의 세계The Future After Covid』에서 코로나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재택근무remote work가 가능해져 가족끼리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것이며,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공공보건 분야에 수요가 많아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또한, 재정, 부동산, 농업, 공급 체인, 미디어, 국제 관계, 국가안보, 정치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sup>36</sup>

둘째 거대 정부의 출현이 있을 것이고 감시 사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가운데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거대 정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헌법의 권한을 넘어서기까지 하였다. 기업이 무너지고 개인이 파산되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이들에게 천문학적 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기관이 정부밖에 없기에 더욱 정부의 권한이 커지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의하면, 세계 주요 20개국은 단 한 달 만에 국민총생산GDP의 5.8%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쏟아부었다.<sup>37</sup>

폭스 뉴스Fox News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콜로라도에 있는 제빵가게의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결혼 케이크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했다가 소송을 당한 사건이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증거라고 알리토Alito는 주장한다. 또한, 그는 네바다주의 카지노는 허락하면서 예배 처소들은 막고 있다고 말했다.<sup>38</sup> 말레이시아에서도 최근 총리가 코로나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려고 하다가 국왕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방지이지만 정치적으로 계산된 음모였다고 언론과 사람들은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전 국민을 CCTV나 인터넷 검열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한다.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네트워크 통제가 강화되면서 더욱 감시사회로 들어갈 것이다. “구글은 알고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는 사실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는 사회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 말레이시아 선교 환경의 변화

많은 사람이 코로나 이후의 선교 환경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필자는 총체적 위기危機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또 다른 기회機會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선교에 대해서 조해룡은 현장에 맞는 선교신학 정립, 선교 공유 플랫폼missional platform 구축,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선교 시스템 구축, 그리고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포용과 협업 중심의 소통과 책임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다.<sup>39</sup>

35. 김용섭, 『언콘택트: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 코드』 (서울: 퍼블리온, 2020).

36. Jason Schenker, *The Future After Covid: Futurist Expectations for Chang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Boston, MA: Prestige Professional Publishing, 2020).

37. 김신영, 최원석, 신수지, “거대정부의 진격, 약수의 종말 코로나 이후 달라질 10가지,” 조선일보, last modified Apr 21, 2020, accessed Apr 21, 20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0151.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0151.html),

38. Brie Stimson, “Justice Alito warns of dangers to free speech, religious liberty in Federalist Society address,” Fox News, accessed Nov 13, 2012, <https://www.foxnews.com/politics/justice-alito-warns-of-dangers-to-free-speech-religious-liberty-in-federalist-society-address>.

39. Hae Lyong Cho, “What Should We Prepare for Korean Miss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uture Mission Strategy and Direction.” Theology

KWMA의 조용중 사무총장은 코로나 이후의 선교 환경에 대해서 “창의적인 접근성”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모든 자원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선교해야 한다. 비대면 상황과 선교사들이 여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데 내용의 질을 높여야 하고 한국어와 영어 외의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선교사들이 하면 좋겠다고 권면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750만 명의 한인교회들과 연합하는 사역이 중요하다.<sup>40</sup>

필자는 “코로나 이후의 말레이시아 선교”에 대해서 22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4명과는 통화를 했고 18명은 카톡 문자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교단 소속은 14명, 선교단체 소속은 6명, 독립은 2명인데 10년 이상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다. 주된 사역은 현지교회 사역 (4명), 원주민 사역 (3명), M 사역 (3명), 선교 훈련 사역 (2명), 신학교 사역 (2명), 한인교회 사역 (2명), 현지 교단 사역 (2명), 성경번역 사역 (1명), 어린이 사역 (1) 등이다.

이 설문조사를 분석하면, 비대면 사역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 (11명)과 재정적 어려움 (7명)을 공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선교사 자질 문제 (4명), 교육 선교 (4명), 비자 문제 (3명), 자비량 선교 (2명) 순으로 답변했다. 그리고 “모르겠다” (4명)라고 대답을 한 사람도 4명 있었다. 아래 표를 참고하라.



첫째 비대면 사역의 창의성이다.

22명 중 절반인 11명이 비대면 사역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을 말했다.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예배의 외적인 변화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많은 선교사들은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필자의 경우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큰딸과 같이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를 드린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차츰 적응되어서 이제는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더 선호한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처럼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정통적인 주일성수와 헌금의 개념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반강제로 재택근무를 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선교비가 절감된다. 한 번의 클릭으로 선교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년 전에 인도에 두 차례 다녀오면서 비행기와 체

of Mission 51 (2018): 200–206. doi:10.14493/ksoms.2018.3.178.

40. 조용중, “코로나 이후의 선교사역,” C채널방송, accessed Oct 31,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xceZW4EWCP0>

류 비용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온라인 강의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는데 온라인 비대면 수업도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 선교계에도 무크Mooc와 코세라Coursera 같은 원격교육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다.<sup>41</sup> 필자가 사역하는 사바신학교는 현재 모든 수업을 줌Zoom을 통한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평신도들이 등록해서 공부한다.

온라인을 통하면 만남 자체가 민감한 다른 종교인들(무슬림)과의 교제도 쉽게 일어난다. 어떤 말레이시아 기독교인들은 코로나가 무슬림 복음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슬림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코로나 기간에 꿈과 환상으로 주께 돌아오는 무슬림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다고 고백한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경제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 한다. 실지로 자살률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높아졌는데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빈곤이다. 온라인으로 그들을 상담하고 오프라인으로 그들을 찾아가 음식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현지 기독교 단체들이 있다. 비대면 위주의 사역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방식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개인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비량 선교의 필수성이다.

앞으로 더욱 재정 문제가 선교사역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7명의 선교사가 이 이슈를 제기했고, 2명이 자비량 선교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량 선교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Business as Mission, BAM도 사업 경험이 없는 선교사들은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예전에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 경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자본금 부족으로 사업자 비자를 내기는 어렵고 결국 학생비자나 현지인 명의 도용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비자와 자비량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원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기존의 전통적 선교사업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본국의 후원을 의존했던 선교사들은 더는 고비용의 프로젝트 사역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sup>42</sup> 코로나로 인해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의 헌금이 줄고 있고 그 영향은 선교 현장에 바로 반영된다. 그동안 강조됐던 자립 선교의 시대가 강제로 도래하게 된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개척 사역뿐만 아니라 한인 교회 사역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선교단체와 사역자들 간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본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자비량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사바지역에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 모델을 도입해 농촌지역에 농장을 하시는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계란과 비둘기 집, 그리고 팜오일 등으로 현지인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지 수익성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0% 현지 자립 선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을 현지인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농촌 교회의 자립을 돕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신학교와 산학 협력을 맺어서 신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실습하고 있다.

41. 안정락, “무크(MOOC)의 부활... 코세라, 가입자 1000만 명 폭증,” 한경, 2020년5월28일,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284580i>

42.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들이 난민 사역(대부분 미얀마 출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극심한 재정적인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도 좀 더 엄격하게 교사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셋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전인 사역의 중요성이다.

코로나 이후 무엇보다 인간성 회복이 중요하다. 지식 노동자들이 아닌 많은 사람은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서적인 불안정 등으로 인간성이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해주고 자존감을 살려주는 인간성 회복이 선교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성 회복은 공동체성이 회복될 때 가능해진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이 즐기면서 축제하는 콘비벤츠Konvivenz 선교가 앞으로 선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종교개혁 시대에 비주류파였던 재세레파Anabaptist는 공동체 삶을 통해서 선교를 해왔다. 제세레파는 후터라이트Hutterite, 메노나이트Mennonite, 그리고 아미쉬Amish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공동체성이 그 특징이다. 이들은 모두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유럽에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제자도를 실천했다.<sup>43</sup> 필자는 미국에서 아미쉬 마을을 자주 방문했는데 미국의 개인주의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독일 선교학자인 테오 쉰더마이어Theo Sundermeier는 남미 브라질인들의 서로 돕고caring, 서로 배우고 learning, 서로 축제하는celebrating, 즉 공생을 뜻하는 ‘콘비벤츠(스페인어 Convivencia)’를 선교신학화 하였다. 그는 외부자와 내부자가 함께 배우며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선교이며 예수님께서는 바로 콘비벤츠의 사역을 하셨다고 주장한다<sup>44</sup> 앞으로는 선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보다 현지인들과 실질적으로 동역해야 한다. 우선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외부에서 재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한다면 현지인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필자는 미국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2017년에 마치고 2020년 가을학기부터 말레이시아 사바신학교에 선교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비록 사례비는 학교로부터 받지 않지만, 사역에 필요한 연구실과 사택을 제공받고 있다.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각종 기도 모임과 조 모임을 통해서 가족 같은 환경 가운데 콘비벤츠 사역을 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돕고 책임져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선교 현장에 필요하다(마 5:16, 눅 14:13-14, 행 2:44-47). 며칠 전에는 온라인 줌으로 10년 동안 사바신학교를 섬겼던 두 영국인 선교사들을 위한 환송 파티를 하였다. 현지인들이 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장은 이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사랑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고마워했다.

선교의 두 가지 측면, 즉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전인적 사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대재앙이 발생했을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아픔에 동참해야 한다(레 19:13-18, 잠 25:21). 그리고 고난 가운데 같이 슬퍼하며 애통해야 한다. 기독교 역사가인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은 기원후 165년과 251년에 로마에 큰 역병이 있었다고 기록하면서 초대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주장한다.<sup>45</sup>

43. 김현진, “균형 잡힌 종교 개혁,” Facebook, Nov 5, 2016,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663979046976670&id=100000938625723&comment\\_id=4692006110840630&reply\\_comment\\_id=4692266894147885&notif\\_id=1605083078496610&notif\\_t=comment\\_mention&ref=notif](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663979046976670&id=100000938625723&comment_id=4692006110840630&reply_comment_id=4692266894147885&notif_id=1605083078496610&notif_t=comment_mention&ref=notif).

44. Tim Noble, *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Drawing Together on Holy Ground* (Eugene: Pickwick Publications, 2018), 82.

45. Rodney Stark, *The Triumph of Christianity: How the Jesus Movement Became the World's Largest Religion*. First HarperCollins paperback ed. (New York: HarperOne, an imprint of HarperCollins, 2012), 113.

위기 상황에선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 선교사연합회나 한인회 같은 연합회의 활동이 중요하게 되었다. 2021년 4월 이곳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한인회와 대사관을 중심으로 기증받은 마스크를 필요한 한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건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긴급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참으로 귀하다.

넷째 선교들missions의 혁신성이다.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 데이missio Dei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 (mission 단수).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missions 복수).<sup>46</sup>

선교단체들은 단순히 표면적인 구조 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선교단체들이 더 이상 교회와 선교지를 이어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기 힘들어졌다.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교회들과 선교사들은 직접 현지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각종 컨퍼런스와 기도 모임이나 회의 등이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다. 선교사들도 이제 스스로 전문성 (언어, 학위 등)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 또한, 선교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자원과 시설과 정보 등 모든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교단들과 선교단체들도 훈련과 자료를 공유하고 연합하여 공동으로 사역해야 한다.

선교지의 비자 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를 이유로 국가 간의 봉쇄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심화할 것이다. 현재 많은 선교사가 말레이시아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에게 문을 걸어 잠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곳에 많은 외국인이 은퇴비자 (Malaysia My 2nd Home, MM2H)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새로운 은퇴비자 허가가 나오지 않고 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다.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 나가는 말

대재앙 같은 큰 고난이 닥칠 때 “왜”라는 질문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애통해하며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위를 돌아보라는 톰 라이트의 외침이 가슴에 외닿는다. 월터 그루그만은 코로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촉매제이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겨 맞추라고 권면하였다 (시 77).

코로나와 선교! 어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선교사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교 유예 혹은 한시적 선교 활동 중지) 같은 시대에 돌입했다. 많은 선교사가 선교지 문이 닫혀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선교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단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코로나를 특징짓는 온라인 시대, 사회적인 격리 시대와 4차원이 가져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초연결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선교하실 것이다. 복음 전파와 아울러 인간성의 회복, 가상 공간, 직업 윤리 등 전인적인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회는 이런 흐름에 민감하여 문화를 잘 이용하며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변혁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교의 창의성을 기르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성을

46. 1952년 독일에서 열린 윌링겐 회의 (The Willingen Conference)에서 하나님 선교의 개념을 채택하였다. 칼 바르트 (Karl Barth)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선교를 말했고 칼 하르텐스테인 (Karl Hartenstein)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Georg F. Vicedom, *The Mission of God: An Introduction to a Theology of Mission* (St. Louis, Missouri: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5), 5. 또한 보쉬의 책을 참고하라. Bosch's book, *Transforming Mission*, 389-393.

회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선교사들은 현지 교단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면과 비대면의 방법으로 사역을 지향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김용섭. 『언컨택트: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 코드』 서울: 퍼블리온, 2020.
-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1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서울: 비즈니스북스, 2020.
- Brueggemann, Walter. *Virus As a Summons to Faith: Biblical Reflections in a Time of Loss, Grief, and Uncertainty*. Eugene: Cascade Books, 2020.
- Brett, Mark, and Jason Goroncy. "Creation, God, and the Coronavirus." *Theology* 123, no. 5 (2020): 346–52. doi:10.1177/0040571X20944579.
- Cho, Hae Lyong. "What Should We Prepare for Korean Miss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uture Mission Strategy and Direction." *Theology of Mission* 51 (2018): 178–211. doi:10.14493/ksoms.2018.3.178.
- Drucker, Peter F. *The New Realities: In Government and Politics, in Economics and Business, in Society and World View*. 1st ed. New York: Harper & Row, 1989.
- Fretheim, Terence E. *Creation Untamed: The Bible, God, and Natural Disasters. Theological Explorations for the Church Catholic*.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10.
- Goldingay John, and Goldingay K. S. "Thinking with the Old Testament About the Pandemic." *Theology* 123, no. 3 (2020): 191–97. doi:10.1177/0040571X20920527.
- Noble, Tim. *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Drawing Together on Holy Ground*. Eugene,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8.
- Piper, John. *Coronavirus and Christ*. Wheaton, Illinois: Crossway, 2020.
- Pocock, Michael, Gailyn Van Rheenen, and Douglas McConnell. *The Changing Face of World Missions: Engaging Contemporary Issues and Trends, Encountering Mission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5.
- Schenker, Jason. *The Future After Covid: Futurist Expectations for Chang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Boston, MA: Prestige Professional Publishing, 2020.
- Stark, Rodney. *The Triumph of Christianity: How the Jesus Movement Became the World's Largest Religion*. First HarperCollins paperback ed. New York: HarperOne, an imprint of HarperCollins, 2012.
- Toffler, Alvin. *The Third Wave*. Bantam ed. New York: Bantam, 1981.
- Vicedom, George. *The Mission of God*. St. Louis: Concordia, 1965.
- Wright, N. T. *God and the Pandemic: A Christian Reflection on the Coronavirus and Its Aftermath*.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20.
- Yancy Clyde W. "Covid-19 and African Americans." *Jama* 323, no. 19 (2020): 1891–92.

## 인터넷 자료

- 조용중. "코로나이후의 선교사역." C채널방송. Accessed Oct 31,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xcEZW4EWCP0>.
- Filone, Claire Marie. "Virology, Coronaviruses, and COVID-19."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ine Coronavirus Resource Center. Accessed Nov 6, 2020. <https://coronavirus.jhu.edu/covid-19->

basics/understanding-covid-19/module-1-virology-coronaviruses-and-covid-19#/lessons/3Bmq-kW8IVeHDx2j7f9-KO4zYP51T8.

Roberts, Anjeanette. interviewed by Rebecca Randall, “Why Zika, and Other Viruses.” Christian Today. Accessed Nov 19, 2020.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18/august-web-only/why-zika-and-other-viruses-dont-disprove-gods-goodness.html>.

Schwab Klau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Accessed Jan 14, 2016.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 선교적 적응 리더십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라: 코로나19 사태가 네팔 선교에 끼치는 영향

양은용 · 김숙진  
SIM 네팔 선교사

## 서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우리의 변화와 대응은 21세기의 선교에 대한 주요한 화두가 되었다. 2020년 3월 24일은 네팔에 처음으로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이후 코로나 사태) 인한 봉쇄령lockdown이 내려진 날이다. 그 후 두 주씩 계속 연장된 봉쇄령이 느슨해진 제한적 봉쇄령loose down으로, 그리고 다시 강력 봉쇄령으로 반복하면서 2021년이 되었다. 백신이 급히 연구되고, 생산되어 접종되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만 네팔 사회에 언제 이르게 될지 아직 묘연하기만 하다. 아직 코로나 공포가 네팔 사회를 뒤덮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바람과 달리 훨씬 장기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연구는 한인 선교사들이 코로나 사태의 상황에서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의미를 둔다. 이 연구가 워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네팔 선교사역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연구 배경 및 목적

2020년 한 해를 덮었던 코로나 사태로 사역의 어려움을 겪거나, 변화의 과정을 임기응변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네팔 주재 한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하던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많은 선교사의 안타까운 현실도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네팔 상황을 네팔 주재 한인선교사들을 통해 직접 수집하고, 진술을 들어 선교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네팔 한인 선교사들인 연구 참여자들이 코로나 사태가 사역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의 내용으로 그 의미를 알아내는 데 초점을 둔 연구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메리엄Merriam과 티스델Tisdell (2016)의 말처럼 본 질적 연구는 참여자들의 경험이 가지는 다중적인 의미와 그 해석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영향에 대한 이 연구는 특별한 역사와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이루어진 참여자 개인의 경험이 아주 독특하며, 개인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견해를 기반으로 했다(Charmaz, 2014).

##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코로나 사태가 네팔 선교사역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히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선교사들을 선별하기 위해 ① 적어도 10년 이상 거주 선교사로서 ② 2020년 8월 현재 네팔에서 거주하는 한인 선교사 중에 ③ 여러 다양한 선교사역을 하시는 분들로 ④ 부부가 가능하면 함께 선택하는 준거적 선택 방법(criterion-based selection)을 사용하였다(Merriam & Tisdell, 2016).

인터뷰 당시 네팔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 선교사 중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가 가능한 참여자들을 찾아 진행했기 때문에, 카트만두 지역에 거주하고 왕래가 가능한 선교사 중에서 선별하여 총 9명을 인터뷰 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네팔에 온 지 가장 오래되신 분은 만 27년 되셨고, 가장 적게는 10년 되신 분들로 평균 네팔 사역 연수는 약 19년이다. 현재 하는 주사역은 현지 학교와 신학교, INGO, 출판, 호스텔 (고아 및 위탁 아동/청소년 돌봄 사역), 구제, 교회 건축, 제자훈련 사역이다. 네팔이 직접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창의적 접근지역임을 감안하여 참여자들의 익명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적 정보만 밝힘을 알린다.

##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0년 7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선별 후 심층 면담을 위하여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작성한 후 면담 일정을 계획하고 면담을 진행했고, 전사본을 작성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심층 면담은 각각 5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 가능한 한 부부 선교사들은 함께 시행하였다. 참여자들에게 면담 과정의 녹음과 전사본 기록, 자료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1차 면담 후 재확인과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SNS를 통하거나 추가로 짧은 2차 대면 면담을 진행했다. 모든 녹음 원자료를 두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여 텍스트로 원본 자료를 만들었으며,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다른 연구자가 전사한 파일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을 위해 질적연구 도구인 Nvivo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기본적인 1차 코딩작업 후, 상호 연결된 맥락과 의미가 유사한 대화와 진술을 계속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를 통해 분석 작업을 반복하면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를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자료들을 해석하는 데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최대한으로 배제하고자 노력하면서, 계속 비교 방법으로 3차코드로 재분류하여 최종적으로 3가지의 대주제와 14개의 하위주제로 정리하였다.

## 연구 결과

코로나 사태가 네팔 선교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의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① 단절과 여유 ② 사역 변화의 시도 ③ 본질에 대한 질문. 이 세 가지 대주제를 관통하는 중심 이해는(central understanding) 성찰과 적응 리더십이다.

## 단절과 여유

첫 번째 대주제인 단절과 여유는 세 가지의 하위주제를 포함한다: 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 ② 쉽,

그리고 ③ 관계의 새로운 역동성 창출이 그것이다.

### 1.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

네팔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강력한 봉쇄령은 입출국, 국내 여행과 일상생활 활동을 엄격히 제약하는 조치로서 참여자들은 우선 물리적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초기 충격에 대해 한 참여자는 “이제 처음 한 두 달은 멍~했지요.”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얼마나 답답한지요! 정말 답답하죠!”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등에 떨어져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없고, 항상 만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이 정서적, 관계적 단절로 이어져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은, 손자들이 보고 싶지요. 일 년에 한 번씩 보고곤 했는데... 네팔 안의 우리끼리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팔 봉쇄령에 묶여 혼자 네 달째 네팔에 거주하고 있는 한 참여자는 “비행기도 다 스톱되고... 그래서 여기서 본의 아니게 혼자서 생활하고 있어요.”라고 가족과 떨어져 있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 질환이 있는 한 참여자는 “천식이 있어서 조심하고 잘 안 다녀요. 남편에게 제발 좀 다니지 말라고 하지요.”라고 말하면서 밖을 자주 다니는 남편 선교사를 향한 걱정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코비드19 사태가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후원자들이 어려움 가 봐요. 변화가 좀 있는데 아직은 선교지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한 참여자는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제로가 되었고, 저희들이 [현지 한국어] 학원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학교도 운영했었는데 거기서 다 스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오는] 후원비로만 해결하려니까 버겁지요.”라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INGO 사역을 하는 또 다른 참여자의 경우 “사역비는 괜찮아요. 사역비와 생활비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아직까지는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여 선교사들마다 재정적 차이가 있음도 드러났다.

### 2. 쉽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단절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참여자들은 전에 없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로 참여자들은 우선 쉽을 갖게 되었고,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공부 등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었다.

한 참여자는 강제로 주어진 쉽에 대해 “지금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내가 어떻게 왜 이걸 해야 하는지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뒤통수를 ‘탁’ 치면서 쉬어, 쉬어... 지금 몇 개월 동안 쉬고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다른 한 참여자는 “‘어휴! 하기 싫어’ 하기도 하고 하기 싫어서 [일을] 그냥 두기도 했는데, 두세 달 쉬고 나니까 지금은 하고 싶어요.”라고 말해 충분한 쉽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참여자들은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롭게 탁구를 시작한 한 참여자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이게...” 라면서 “쉬고, 먹고, 운동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에 안 좋았던 건강도 다시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혈색도 좋아

졌고 운동으로 튼튼해졌고, 유익을 많이 주었어요.”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준 긍정적 영향도 지적했다.

### 3. 관계의 새로운 역동성 창출

역설적이지만, 물리적 단절과 기존 관계의 단절은 가능한 새로운 관계를 찾거나 온라인으로 가족 관계를 강화하게 하였다. 한 참여자는 “코로나는 나쁜데… 감사하게도, 가까운 몇몇 사람들과 모임도 있었고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덧붙여 아내인 참여자는 “우리 집에 [네팔 사람들이] 그렇게 [구제 물품 받으러] 찾아오는 것을 옆에서도 보잖아요. 그들도 자기들이 보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 편 들어주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요.” 라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돈독해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다.

코로나 사태가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하던 것을 다 멈추고, 계속 남편과 이렇게 함께 있었던 적이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좋기도 하고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어저께 베란다에 앉아서 바람 선선하게 불 때 모여서 음악 틀어 놓고, 그리고 라면 다섯 봉지 먹었는데, 그 라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기로 이사 온 지 3년 만에 베란다에서 고기를 먹고 라면을 끓여 먹은 거거든요. 이게 참 좋구나!”라면서 “매일 저녁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위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다.”라고 정착되고 있는 새로운 가족 문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다른 참여자 가정도 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까지 매일 온라인으로 만나 성경공부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Zoom으로 성경공부도 하고 하면서… 매일 그렇게 만나 영적인 시간도 보내고 가족끼리 필요한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축복인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첫 번째 대주제인 단절과 여유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봉쇄령으로 인해 지역적, 관계적, 정서적 단절의 어려움, 혹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침과 운동 등으로 건강을 찾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기 싫었던 일을 이제는 하고 싶어 하는 하게 만드는 내적 동기가 일어나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부부와 가족 관계가 돈독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고 네팔 이웃과도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역 변화의 시도

두 번째 대주제는 참여자들의 사역적 변화 시도에 대한 것이다. 이 대주제에 속한 세 가지 하위 주제는 ①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과 제한적 사역 진행 ② 온라인/비대면 사역의 어려움 ③ 코로나 사태 이후 해야 할 일들에 관한 것이다.

#### 1. 온라인 사역으로의 전환 및 제한적 사역 진행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강력한 초기 봉쇄령은 3개월 동안 거의 모든 대면 활동과 사역을 중단하게 만들었기에 초기 충격과 더불어 대부분의 사역을 중단시켰다. 그 후 느슨한 제한적 봉쇄령으로 이동이 가능해

지자 가능 범위에서 만남이나 온라인으로 사역을 전환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교육과 제자훈련 사역 분야에서 우선 진행되고 있다.

한 참여자는 봉쇄령 후 3개월 만에 다시 진행하고 있는 제자훈련에 대해서 “그렇다고 안 만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연결이 돼야 하니까, 전화를 활용하고 비디오 콜도 활용하는 거죠. 줌zoom을 2차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죠.”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바빠서 못 했거든요. 근데 그쪽 [학교]에서도 모임이 생기고 이쪽 [학교]에서도 성경공부가 생기고...”라며 새롭게 생긴 학교 교사들과의 성경공부에 대해 언급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온라인으로 모임을 전환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임이 더 가능해진 부분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네팔 같은 경우는 저녁에 뭘 할 수 없어요. 차가 일찍 끊기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각자 밥 먹고, 그 시간에 딱 모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이...”라면서 오히려 주중 모임이 가능해진 상황을 설명했다.

현지 학교를 운영하는 한 참여자는 온라인 수업으로 바꾼 지 한 달이 되었다. “그 동네에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교는 우리 학교뿐이에요.”라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하자고 생각해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에게도 이게 새로운 방법이지만... [교사들을] 교육하면서 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사들을 가르치며 또 가능한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이다. 한 신학교도 교수가 각자 가능한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메신저, 혹은 줌으로 연결하면서 “교안을 보내 주면 학생들이 보고 숙제해서 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현지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청년부에만 있었던 소그룹 사역이 전체 교회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금은 소그룹으로 전체 교회가 그렇게 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착과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면서 “하는 그룹은 하고 안 하는 그룹도 있고...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은 아직 잘 안 돼요.”라고 어려움도 나누었다. 또 다른 한 참여자도 현지 목회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인용하며 현지 지방 교회의 예배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멀리 있으면 가까운 구역의 거렐루 성거띠로 [구역/가정 모임]모인다. 거기에 다 어구와들 [인도자] 한 명씩 있고, 없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다예요.”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소그룹 형태로나마 모이는 부분에 대한 것에 안심이 되면서도 부족한 현장 목회 사역을 직접 가서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함을 드러냈다.

코로나 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가난한 성도들, 도시 빈민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참여자들은 밝혔다. 특히 “그전에는 사례비는 없지만 [성도들이] 감자도 가져오고 그래서 [지방 목회자들이]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가능하면 그들을 돕기 위해 애쓴다.”라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전도를 위한 구제사역을 몇 차례 걸쳐서 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우리 집 위에 밭이 있는데, 도시 빈민들이 그 위에서 살아요. 거기 100개 집이 있어요. 더 높은 데서 보면 저스파가 [양철지붕]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거기서 막 와요.”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작된 도시 빈민 구제 사역에 대해 설명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도 참여자들은 가능한 한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거나 활성화하려 노력하며, 구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온라인/비대면 사역의 어려움

온라인/비대면 사역을 새롭게 시도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참여자들은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은 비대면 혹은 비접촉untact인 온라인 사역의 한계에 대해 말했다. “대화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디오 전화라든지 줌에서는 감정을 읽을 수 없어요. 대화는 하지만 그 대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저쪽에서 해 주는 얘기만 듣지, 그 이상의 감정은 교류가 안 돼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실제로 얼굴을 보고...”라면서 직접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했다. 다른 참여자도 화면에 조그맣게 나온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서 “따로 주중에 전화를 한다든지 줌으로 만나다든지 하고 있는데, 목회 차원에서도 교회 지도자가 훨씬 더 부지런해져야 할 것 같아요.”라며 온라인으로 이루어 지기에 더 세밀하고 잦은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강의를 하는 한 참여자는 “그전에는 강의안만 가지고 그냥 가서 강의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비디오를 만들어야 하는 일이 더 생겼고요... 현장에서는 딱 바로 감이 잡히는데, 이거는 안보이니까... 다 확인을 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의 양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다. 또한, 온라인 미팅의 빈도가 많아지면서 “시차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식사 시간이 걸쳐 있으면 막 5분 안에 먹어야 하고...”라며 온라인 미팅이 가져온 실제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네팔은(인터넷) 데이터로 쓰는 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자꾸 끊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그냥 모르는 사이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래요. 대화가 이어지기가 힘든 거죠. 집중이 안 되고...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라고 온라인 미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 3. 코로나 사태 이후 해야 할 일들

두 번째 대주제 사역 변화 시도에 속한 마지막 하위 주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개인이나 사역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 혹은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한 것이다.

우선, 네팔 현지를 떠나 휴식을 하거나 한국의 가족들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쇄령이 내려진 후 전혀 쉬을 갖지 못한 한 참여자는 “어쨌든 좀 쉬이 필요한 거 같아요.”라고 밝혔고, 또 다른 참여자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원래 계획한대로 일단 아이들과 한국에 가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연로하시니 가서 뵙기도 하고... 아이들도 한국 가는 것을 기다리며 그걸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 같아요.”라고 했다.

포스트 코로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선 “[코로나가] 끝나고 안전해지면, 빨리 마을을 방문하고 싶어요.”라며 사역지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카트만두에 있는 스테프를] 지방으로 많이 보내야겠다... 카트만두에는 2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보내자!”라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현지 사역자를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방법을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했다.

결국, 훈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현지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지요. 그러니 훈련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이제 ‘당신 하산해라.’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훈련 받으러 참여하지만 훈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동시에 세워나갈 수 있

는 방향으로 훈련 방법이 바뀌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요.

사역의 방법으로는 참여자는 여전히 “직접 대면으로, 직접 사역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사역들을 연계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은 구축해 놓아야 하는 필요성은 있다.”라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코로나 시대에는 “학교 건물도 재래식,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학교 건물 3, 4층 건물”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건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대주제를 정리하면, 참여자들은 가능한 부분은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하였고, 구제 사역과 소그룹 사역을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 사역은 교제와 감정 소통에 한계가 있어 좀 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일의 양과 빈도수를 증가시키고, 시차에서 오는 현실적 어려움을 준다고 언급하였다. 코로나 이후에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고, 한국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교사 중심, 카트만두 중심에서 벗어나 현지 사역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세우고 지방으로 분산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 본질에 대한 고민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주제는 참여자들이 갑작스러운 단절과 주어진 여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사역을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세 번째 대주제는 참여자들이 변화와 그 방향성이 내포한 의미, 즉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대주제는 4가지 하위 주제를 포함한다: ① 네팔 선교 사역에 대한 평가 ② 시대에 대한 통찰 ③ 선교사의 정체성, 그리고 ④ 현지 교회에 대한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 1. 네팔 선교사역 평가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는 참여자들이 선교지인 네팔과 하고 있던 사역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 되돌아보고 평가하도록 만들었다. 한 참여자는 코로나 사태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에서 쉬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생님들 통해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며 학교 사역을 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참여자는 “우리가 하는 선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로 할 수 있는 게...”라고 말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다른 참여자는 전면 중단된 사역들을 돌아보니 선교사가 직접 가서 담당했던 것들, 예를 들면 목회자 훈련 강의는 “제가 강사가 되어서 모든 강의를 다 진행해 왔는데 이 사태가 딱 생기고 나니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올스톱’ 되었다.”라고 말한다. 반면에 지방 사역자들이 해오던 것들, 예를 들어 지역교회의 공부방 사역은 “잠깐 멈춰졌다가 재개 되었어요.”라고 지적했다.

한 참여자는 프로젝트 성 사역, 즉 “후원을 받아서 투자해야만 하고 일정 금액이 계속 투자돼야 하는 사역”은 코로나 사태에 영향을 많이 받아 중단된 상태라고 밝히면서, 참여자는 도리어 자신의 첫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된 계기를 맞게 되었다 밝힌다.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춰 왔던 것이 제자훈련이니까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주변에 학교나 비즈니스 등은 다 접촉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제자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계속해 나간다면 코로나가 와도 아마도 그 일은 계속해 나갈 수 있거든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는 그동안 커진 사역의 구조 조정과 제자훈련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으로 사역 평가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사역이 대세가 될 것으로 바라보는 견해에 대해 네팔 현지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흔히 하는 말은 포스트 코로나 대책, 전망, 혹은 전략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역의 기술적인 부분, 방법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디지털, 온라인, 뭐 그런 강좌 등 흔히 말하는 랜선 문화 같은 것들인데 네팔의 경우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100%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역 환경하에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참여자도 앞으로 온라인 교육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게... 사실상 네팔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불가능해요. 가정마다 빈부의 차가 많고, 인터넷도 안 되고, 스마트폰도 없고, 있어도 아주 오래된 거는 또 연결이 잘 안 되고...”라며 사회 기반 시설 *infra-system*이 잘 갖춰지지 않은 네팔의 현실을 지적했다. 덧붙여 “또 네팔의 인터넷 환경이 시골은 더 안 돼 있으니까... 인터넷이 전혀 안 되는 곳이 많으니까...”라며 도시와 시골의 극명한 차이를 지적했다. 그리고 단지 사회기반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전한다.

교사들이 부모들을 격려하고, 일단 책을 사고, 바이버로 [네팔에서 사용하는 SNS] 선생님이 내용을 보내고 ‘책을 가지고, 숙제를 해라’ 이렇게 연락이 되면 격려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부모도 있어요.

네팔 목회자들의 인식 때문에 인터넷 예배나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는 점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네팔 목회자를 위한 목양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 참여자는 교단으로 연결된 16개 지역교회 중 어느 한 곳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다는 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기본적 인식이... 나한테 돈이 천 루피가 있으면 그 천 루피를 한 달 동안 인터넷 사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쌀을 사는데 사용을 할 거냐... [온라인 예배가] 아직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기상조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과 가치관의 중심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네팔 교인들의 개인의 신앙 상태와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현지 교회를 섬기는 참여자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결국 참 신앙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지적한다.

## 2. 시대에 대한 통찰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사태와 포스트post 코로나를 전망하면서, 참여자들이 지적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국제화된globalized 네팔 노동인구가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선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 1) 불확실성 시대와 선교 방법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참여자들의 새로운 선교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또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임이 드러났다. 한 참여자는 “기약이 없어 아쉬워요. 현재는 기약이 없고...”라고 하면서, “옛날에, 이전에, 전통적으로 선교에 대한 이해는 ‘가서’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의 의미를 더 확장해 해석한 방법론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라며 선교 방법론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여태껏 한 교회에 [현지] 목사님들 모아 놓고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 소식도 듣고 했잖아요, 지역 지역으로 다니며... 이제는 그 방법이 더 다양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통적으로 옳다는 방법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싶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도 “막연하게나마 생각해 봐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비대면이 더 활성화된다면, 우리도 뭔가 시스템을 우리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막연해요... 어느 날 갑자기 록다운이 되고 그 상황이 계속되어도집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앞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오더라도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역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교 사역을 위해서도 “코로나 이후에, 이후라기보다 지금 계속 진행되는 이 상태가 언제 끝날 줄 모르겠고... 또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내고 학교도 대책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라며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 새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른 참여자는 “현재로는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해나가고 있는데, 장기화할 때는 진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라며 조속히 원상 복귀되는 것을 바라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면, 신학교 과정이 온라인 교육이 강화된 쪽으로 변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학생들의 영성 관리와 대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 있으면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지도하는 분이 책임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 2) 국제화된 노동력과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참여자들은 코로나 사태는 네팔인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한 참여자는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을 향한 선교가 더 중요시돼야 한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선교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비

스한 맥락에서 또 다른 참여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네팔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금 온 세상이 노동 시장을 찾아가는 젊은이들의 이동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보기에는 두바이, 쿠웨이트 등 주로 중동 나라, 그다음, 서남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네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라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인들을 위한 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네팔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철수한 한국 선교사 중에서 한국 거주 네팔인들을 위한 사역을 위한 모임이 자체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분들하고 여기에서 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줌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고,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요청도 하고… 지금 줌으로 하고 있어요.”라고 했다. 이 참여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네팔인 이주민 선교가 더욱 활발해지고, 네팔 거주 선교사들과 협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3. 선교사의 정체성

앞서 언급한 이주민 선교와 더불어 네팔 선교사의 범주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한 참여자는 “선교사가 그 지역과 그 국가에 가서 헌신하고 오랫동안 봉사하는 것이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비거주 선교사들도 네팔어가 완벽하다면 서남아시아에 나가 있는 많은 네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고요. 나의 현재, 즉 네팔에 와있고 와있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도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까지는 거주 선교사가 전통적 선교사였지만, 네팔 사람, 네팔 문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디에 있어도 그 사람들은 네팔 선교사지요. 결국 물리적인 국경이란 경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이제 허물어지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겪게 된 충격 중 하나가 바로 선교사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교라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였듯이 육체적으로 거주하며, 관계 속에서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가진 선교사의 개념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비거주 선교에 대해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비자 문제잖아요. 비자 문제로 장기 체류가 어려워지면서 계속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된 나라들이 많아서 이런 이슈가 이제 떠오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우리가 지향할 선교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라며 비거주 선교사역은 차선책이고, 보편화되거나 일차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른 참여자도 “비거주 선교사가 가져다주는 폐해가 분명히 있거든요. 선교지에 헌신하지 않고… 예를 들면 장기로 현지에 거주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택하지 않고 비거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전제한 후 “선교지에 100% 헌신했고, 비자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도저히 더는 장기 거주가 안 될 경우에” 혹은,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비거주 선교사역을 해야 하므로 비거주 선교사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 정말 네팔이 거주 자체가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에 가신 분들도 비행기 편이 없어서 못 오는 것뿐이지…”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거주 선교의 일반화나 비거주 선교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말했다.

#### 4. 현지 교회에 대한 고민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교회 모임의 약화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참여자들은 말한다. 한 참여자는, “앞으로의 염려는 코로나가 오래 계속되면서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편하네’ 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서 봉사 안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게 될까 걱정”이라면서 “교회는 모여서 공동체가되어 서로 돕고,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모이는 교회로 회복될는지 조금 염려가 되긴 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사역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오히려 네팔 교회만의 특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우리 선교사들이 네팔 교회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떤 사역이 됐든 사역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 강화해나가는데 투자가 돼야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라고 말했다. 즉, “네팔은 산이 많고 지역별로 멀리 떨어져 있어 동네별로 모이고 그룹별로 모이는 것이 네팔 교회 부흥의 한 기반이었다.”라는 점, 또한 네팔이 “혈연 중심, 가족 중심, 공동체 정신, 지역 중심, 사회 중심”이라는 것을 굳이 바뀌어 나갈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네팔 교회다운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특징들을 잘 세워지게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네팔 공동체 지도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네팔 선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 논의 및 제안

연구 결과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말하는 코로나 사태가 끼친 영향에 대해 세 가지 대주제와 그것을 관통하는 중심 이해는 성찰과 적응 리더십(adaptive leadership)이라고 정리했다. 이제 중심 이해와 대주제들에 대해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안하고자 한다.

#### 성찰과 적응 리더십

코로나 사태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 본 연구 참여자들로 적응 리더십의 적용을 촉진하게 만들었다. 하이페츠(Ronald Heifetz), 그래쇼(Alexander Grashow), 린스키(Marty Linsky) (2012)는 적응 리더십에서 문제의 진단(diagnosis)을 위해서 ‘발코니로 가기’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p.167). 이는 발코니에서의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처럼 주변 혹은 조직 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고, 행동을 취할 때조차도 상황을 진단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코모데(Graham Cormode) (2002)는 혼란과 긴장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경험을 겪으면서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적응 리더십의 중요한 과정이라 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육체적, 물리적 단절, 그리고 시간적 여유는 연구 참여자가 발코니로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 발코니에서 이루어진 진단 활동은 선교사로서 개인 및 선교사역적 성찰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 1. 기술적 문제 vs. 적응적 문제

봉쇄령 및 코로나바이러스의 빠른 감염력 때문에 참여자들은 사역 전반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온라인 혹은 비대면 사역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소그룹 활성화 등 가능한 사역의 형태로 변화를

시도한다. 적응 리더십 이론으로 본다면, 이를 기술적 문제(technical challenge, 즉 ‘현존하는 지식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동원한 즉각적이고 기술적 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Dunn, 2020, p.32).

동시에, 참여자들은 네팔 선교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네팔의 상황인 전반적으로 사회의 기초 구조가 부족한 점, 도시 시골 간의 큰 격차가 온라인 사역을 어렵게 한다. 설혹 여건이 되더라도 비대면 사역 및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한다. 결국, 단지 인터넷 기지국의 확보 등 기술적인 해결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네팔 현지인들의 인식에 관한 문제, 즉 적응의 문제 adaptive challenge라는 것을 연구 참여자들은 깨닫고 있다. 적응 문제는 “가치, 신념, 충성도의 복합성 속에 기초한” 문제로 (Heifetz et.al., 2012, p.98),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을 흔들거나 우리가 성공했다고 느끼게 하는 가치가 별 상관없이 없게 하며, 합법적이지만 충돌하는 관점을 동반한다 (Cormode, 2002).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의 위드with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불확실성’이라고 규정했는데, 던Ryan Dunn (2020)도 코로나 사태는 “세계가 적응을 요하는 도전a global adaptive challenge for nations across the globe”으로 복잡성과 더불어 불확실성을 동반한다고 지적한다 (p.32). 이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언제 코로나 사태가 끝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이동의 제약과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비대면을 장려하고 오히려 강제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 선교를 금하고 있는 네팔에서 선교해야 한다는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팔 선교 사역은 그동안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자명해진다(Heifetz et. al., 2012; Dunn, 2020).

## 2. 적응적 문제의 해결 방식

본 연구 참여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새로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선교사역을 진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선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하이페츠 (2012) 등이 말한 적응 문제 해결 방식은 ‘관찰-해석-간섭-관찰’을 통한 것인데(p.52), 던(2020)은 좀 더 설명을 붙여, 우선 문제와 필요 파악, 가상의 해결방안 모색, 문제 해결 시도 및 학습으로 된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캐널L. M. Cannell(2011)은 “적응 리더십의 지도자들은 네트워크를 한다.adaptive leaders network”라고 했는데 연구 참여자들이 적응적인 해결을 위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학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32).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이 비대면으로 사역 방법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 다시 역시 선교사역 본질과의 대면과 접촉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연구 결과는 말해준다. 선교사역의 궁극적 목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목표와 자신의 소명에 집중하고자 하는 결심을 연구 결과는 보여준다. 나아가 선교사 혼자 강의하고 훈련하는 체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현직인 리더를 훈련자로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코로나 사태처럼 외부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프로젝트 중심의 사역을 줄이고, 방대하게 벌려 놓았던 사역 종류와 구조를 축소해 더욱 본질적인 선교 사역에 집중해야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적응 혼돈과 불확실성이 만연할 때 발코니에 올라가 존재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재조정한다는 적응 리더십 이론의 강조점과 일치한다

(Nicolaidis & McCallum, 2013).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선교사가 항상 현지인 곁에 있어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능한 한 빨리 현지인을 사역할 수 있는 협력자로서 세워야 한다는 자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적응의 리더십에서 추구하는 유기체로서의 조직의 형태 즉, 비 계층적이고, 좀 더 평등한 관리 체계를 강조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Cannell, 2011). 그리고 선교학적으로 선교사역의 주도권 이양이 선교 초기부터 계획되고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선교사역 단계 중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가 개척자 단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지나 동등하게 함께 동역하는 단계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선교학자들의 통찰력을 떠오르게 한다(Winter and Hawthorne, 1999). 코로나 사태는 한국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이 수직적이고 선교사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동역자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선교 이양의 마지막 단계인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이 주체가 되고 선교사는 참여자 participant 역할을 하는 단계가 되기까지 선교 이양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제자훈련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강제적 멈춤 속에서 발견한 안식의 섭리

본 연구 결과는 참여자들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적지 않은 그리고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쉬고 운동하며 자신을 돌보고, 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깊게 묵상하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영성으로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역을 강제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봉쇄령이 내려진 처음 두 석 달 동안, 몇 명을 제외한 참여자들 대부분은 충분한 육체적 쉬음을 갖게 된다. 안식년도 너무 바빠 ‘안식년’이라고 말하는 선교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누릴 수 있었던 진정한 쉬움의 경험은 흔하지 않다. 정신없이 바쁘게 달리던 선교사들이 “내가 어떻게 왜 이걸 해야 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온” 어느 날 “코로나가 뒤통수를 ‘탁’ 치면서, 쉬어. 쉬어... 지금 몇 개월 동안 쉬고 있잖아요.”라고 말한 참여자의 말은 코로나를 이용해서서 안식으로 강제로 소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결과적으로, 강제적 단절과 쉬움은 바쁜 일정 속에서 망가졌던 육체가 쉬움과 운동 등을 통해 건강을 찾게 했고, 하기 싫었던 일을 다시 하고 싶게 하는 내적 동기의 부활로 이어졌으며, 부부와 가족 간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연구 결과는 지적한다. 문명이 가져오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안식이라 했던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의 말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겪고 있는 비자발적 멈춤을 안식의 시간으로 치환하지는 권면을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요한, 2020).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인 가정을 중요시하는 성경적 원리에 따라 자녀들과 실제로 몇 달에 걸쳐 24시간 7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성경과 기도로 돌보는 삶을 매일 실천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고 참으로 격려할만한 일이라고 본다. 결코 선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 나쁜 상황을 잘 견뎌낸 기독교인 가정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결혼 서약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는 더 강해지고 더 안정적이 될 것이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데 필요한 안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윌콕스와 엘헤이지(Wilcox & Elhage)의 (2020) 예언적 전망이 연구 참여자들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기독교의 'presence(대면/거주/모임)' 대한 성찰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 사태가 연구 참여자가 선교사 및 지역교회 정체성, 그리고 선교사역의 본질적 특징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참여자들이 선교사는 선교지에 완전히 헌신하여,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역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거주'의 개념이 강한 선교사 정체성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선교사역의 본질상 대면 사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선교사의 개념은 한 참여자가 말했듯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까지 맞닿아 있고, 선교사역의 효율성과 관계가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크리스텐슨(Christenson, 2003)은 이렇게 정리한다:

선교사 사역의 질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얼마나 잘 뿌리내리고 있는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현지에서 좀 더 오랜 시간 있었다 함은 좀 더 나은 현장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는 뜻이다(p.582).

이러한 선교사의 거주를 중요시하는 선교사의 개념은 코로나 이전부터 불거진 비자 문제, 즉 네팔을 포함한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합법적이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 확보가 어려워지는 추세인 상황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네팔에서도 비자발적으로 선교지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점점 보고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새로운 선교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은 국제화된 노동력을 따라 형성된 네팔인 디아스포라 선교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네팔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내와 전 세계로 퍼져있는 '네팔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도 네팔 선교사로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는 밝히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3 정도의 한인 선교사들이 네팔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 주제는 코로나 사태가 더 장기화하면 좀 더 총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화한 코로나 사태와 비대면/비접촉 사역으로의 전환 과정을 겪으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교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연구 결과는 지적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모이는 교회,' 즉 모여서, 서로 돕고,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공부하던 일을 다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현재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혹은 재택 예배로 드리지만, 기독교 예배는 예배당, 즉 세상에서 분리된 '거룩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생각을 반영한다(고원석, 2020; Bryson, J. R., Andres, L., & Davies, A., 2020). 따라서 코로나 사태는 거주, 대면, 그리고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전통, 믿음과 가치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가치가 진리와 본질에 충돌하는 간섭이 일어날 때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는 현상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만으로는 이 주제에 대해 총체적이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이 'presence'에 관한 논의는 선교사 정체성, 사역의 본질, 그리고 교회 정체성의 논의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안

이 논문의 자료와 분석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사태는 타 문화 선교사들에게 전혀 새로운 적응이라는 도전을 던져준다. 그러므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선교적 적응 리더십을 현장에서 발휘하는 자로 네팔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사역의 경작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즉, 네팔이라는 특별한 지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환경을 경작하고 재창조하도록 돕는 선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Roxburgh and Fred, 2006). 이를 위해 한인 네팔 선교사들은 이미 발코니에 가서 깊은 본질적인 문제를 성찰하는 ‘관찰-해석-간섭-관찰’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적응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Heifetz, 2012, p.52). 이제 더 나아가 적응 리더십에서 강조하는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능력을 찾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Cannell, 2011), 한 사람의 리더 중심이 아니라 적응력을 가진 팀의 구성과 활성화에 주목해야겠다(Dunn, 2020). 즉, 탈중앙적인 decentralized 조직 분산뿐 아니라, 현지 사역자를 동역자로 그리고 사역의 주체로 세우기 위하여 적응력을 가진 팀을 세울 준비와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캐넬 L. M. Cannell이(2011) 말하는 적응 리더십의 요소들을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네팔 선교사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선교관이나 선교사로서 정체성과 소명 그리고 사역과 교회의 본질 및 선교 방법론에 대해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질문으로 상황을 조명하고 반응해 나가는 것으로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선교 방법론의 인식과 발전을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찰과 더불어 네팔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의 과정과 선교적 배경, 선교 관점을 점검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사태에 봉착할 경우, 즉 선교사역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할 때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선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주한 위기와 중요한 문제들을 복음적으로 현지에 맞는 선교 방법의 창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는 그 기간과 그 후의 양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로 돌입하게 하였다. 이런 때 비대면 온라인 방법의 활용은 이제 확정된 하나의 사역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질적인 선교사역의 대면적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네팔과 같은 여러 제약이 있는 (즉 기술적, 사회구조적, 인식의 제약) 경우, 기술적인 변화에만 주력할 때 바람직한 적응과 변화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꿔야 할 것처럼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전통적이고 원칙만을 고수하지 않는 유연성으로 때를 기다리며 가능한 기술적인 방법을 모색과 깊은 본질적인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선교사와 리더의 자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네팔 선교사역의 변화에 대해 네팔 선교사들은 분명히 동의하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명제는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동안 정형화된 사역을 감당하고 성과를 도출해 낸 경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에, 겸손하게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도록 이끌고 있다. 또한, 네팔 선교사들이 코로나라는 복잡한 문제에 적응 리더십으로 대응하면서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현재 거주하는 그 환경을 경작하고, 재창조하도록 돕는 선교적 리더십 또한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 네팔 선교사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내던져졌다. 지난 40년 동안

타당하게 여겼던 한국 네팔 선교사들의 은둔의 힌두 왕국에서의 선교 정체성과 결과에 대해 커다란 물음표를 제기해야 하는 때가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선교 방법은 끊임없는 수정을 요구받아 왔고 변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를 강요 받게 된 발화점이 코로나 사태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더 자주, 더 급격하게 교회와 선교사들을 변화와 적응의 과정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유연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찾고, 주님께서 주신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달음박질하는 것, 이것이 네팔 한인 선교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자랑스러운 임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Bryson, J. R., Andres, L., & Davies, A. (2020). "COVID-19, Virtual Church Services and a New Temporary Geography of Home."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111(3), 360–372. <https://doi.org/10.1111/tesg.12436>
- Cannell, L. M. (2011). Adaptive Leadership: Planning in a Time of Transition." *Theological Education*, 46(2), 25–45.
- Cormode, S. (2002). "Multi-layered Leadership: The Christian Leader as Builder, Shepherd, and Gardner." *Journal of Religious Leadership*, 1(2), 69–104.
- Heifetz, R., Grasow, A., & Linsky, M. (2012). 『적응 리더십: 최고의 조직은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는가』 김충선 역. 서울: 더난출판.
- Kristenson, O. (2003). "Missionary Identity: Attitudes and Tasks." *Svenske Missionstidskrift*, 91(4), 577–587.
- Nicolaides, A., & McCallum, D. C. (2013). "Inquiry in Action for Leadership in Turbulent Times: Exploring the Connections Between Transformative Learning and Adaptive Leadership."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11(11(4)), 246–260.
- Roxburgh, A., & Gibbs, E. (2006). *The Missional Leader: Equipping your Church to Reach a Changing world*. John Wiley & Sons, Inc.
- Ryan Dunn (2020). "Adaptive Leadership: Leading Through Complexity." *ISEA*, Volume 48, Number 1, 31-38
- Wilcox, W. B., & Elhage, A. (2020). "Better for Worse: The Covid 19 Pandemic Will Leave Us with Stronger Marriages and Families." *Christianity Today*, 5, 42–45.
- Winter, R. D., & Hawthorne, S. C. (1999). Four Men, Three Eras, Two Transitions: Modern Missions.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3rd ed., pp. 253–261).
- 고원석. (2020, March 25).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가치를 새롭게: 포스트코로나, 모이는 교회와 예배의 중요성.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신학적 성찰 시리즈-1. [https://www.puts.ac.kr/suggestion/seosin/seosin\\_gyo\\_2020\\_ct01.asp](https://www.puts.ac.kr/suggestion/seosin/seosin_gyo_2020_ct01.asp)
- 김요한. (2020, September 1). [안식,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아브라함 헤셀- 멈춤의 시간을 안식의 시간으로 전환하자. Christian TV. <https://chtv.christiandaily.co.kr/video/안식-코로나바이러스를-이기는-힘-아브라함-헤셀-멈춤의-시간을-안식의-시간으로-전환하자-3902/>
- 헤셀 아브라함 J. (2007). 『안식- 현대인이 잃어버린 안식의 참 의미를 말하다 The Sabbath』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 사람.

\* 이 글은 KMQ 77호, 2021년 봄호에 먼저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 가상 교회와 선교

엄 경 섭

조동진선교학연구소 대표

동서선교연구개발원 대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 요한복음 4: 20~21

사회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지난 100년간의 변화가 이전의 1만 년, 즉 인류 역사의 변화와 맞먹는 변화라고 말한다. 더구나 앞으로 20년 동안 일어날 변화는 지난 100년의 변화와 맞먹으리라고 전망한다(최윤식 2013: 104-105).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빨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빌 게이츠 Bill Gates는 자신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필자는 선교사로 “이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속에 살고 있다. 필자는 미래의, 아니 10년 혹은 20년 후의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지가 궁금하다. 이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 지도 궁금하다. 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고려하고 필자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미래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필자가 결과적으로 그려낸 교회를 영어로 vChurch로 명명하였는데, 이 교회는 현실 공간에서의 교회가 아닌 가상의 공간 속의 교회 Virtual Place Church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가상 교회 Virtual Church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의 발달 속도와 그것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세대 안에 가상 교회는 분명히 출현하게 될 것이다. 물론 기존 형태의 교회들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가상 교회는 기존의 교회와 경쟁하며 또는 결합하여 교회와 관련된 선교의 얼굴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씀에 있어서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개혁 교회의 전통 위에 세워진 장로 교회를 염두에 두고 가상 교회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 글에서 가상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필자가 기존 교회보다도 가상 교회를 더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밝혀둔다. 그럼에도 가상 교회가 미래에 반드시 생길 것임을 예상하기에 우리가 가상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장래 선교의 지평이 어떻

게 변하게 될지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가상 교회 예배 vWorship 시나리오

게으름을 피우는 요한이를 재촉하여 의자에 앉힌 후 나도 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요한이는 다음 달이면 10살이 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요한이가 가상 공간으로 인도하는 안경 vGlasses을 쓰는 것을 도와준 후 나도 안경을 착용한다. 안경을 착용하고 가슴에 있는 단추를 누르자마자 요한이와 함께 교회 건물 앞에 서게 된다. 건물 앞에는 은혜장로가상 교회 Grace Presbyterian Virtual Church라는 이름이 파랗고 큼직한 글씨로 나무판 위에 새겨져 있다. 항상 보는 건물이지만 예배당이 오늘따라 참으로 멋지게 지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요한이를 재촉하여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리니 맞은편 문 안에서 노래와 함께 울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문 앞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주일학교 선생님께 요한이를 맡긴 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간다.

7층에 내리니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반갑게 맞이한다. 그러나 문은 닫혀있는 것을 보니,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먼저 어느 자리가 비어있는지를 살펴본다. 오늘따라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이라서 그런지, 예배당의 자리는 꽉 차 있다. 중간 즈음에 자리가 난 것을 확인한 후 나 자신을 덜 드러내고자 몸을 바짝 숙이고 자리가 비어있는 열로 간다. 내가 자리에 앉기까지 내가 지나가도록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흔들며 인사를 한다. 자리에 앉아 잠시 고개를 숙이며 기도를 하면서 자리가 이전보다 좀 더 넓어지고 폭신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성가대가 헨델의 메시아의 51번 “죽임 당하신 어린양”을 찬양하는데, 곡 자체도 웅장하지만, 오늘따라 성가대가 정말 잘 부른다는 생각이다. 나도 지난주 목요일에 저들과 함께 모여 저 곡을 연습했는데, 아들 녀석의 게으름 때문에 오늘 성가대에 합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게만 여겨진다. 성가대의 찬양이 끝나자 목사님이 설교 단 위에 서는데, 역시 장로교회의 전통에 따라 검정 가운을 입고 있었다. 시대가 변했는데, 목사님은 저 가운은 언제까지 입을 것인지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설교는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내용이다. 예배당 천장은 전체가 모니터로 목사님의 말씀에 맞게 예수님이 언덕 위에서 서 있고 수천 명의 무리의 모습들이 등장한다. 마치 이들은 살아 있는 듯이 움직이며 이야기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도 그 무리 가운데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마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따라 하듯이 예배당 천장에 떠 있는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베드로처럼 생긴 제자는 우리가 앉아 있는 좌석으로 다가와 우리에게도 떡을 떼어 준다. 떡을 먹어 보니 무교병으로 달콤한 느낌은 없고 맛있는 맛만 느껴진다.

설교에 바로 이어 성찬식이 시작되었다. 목사님께서서는 장로교회의 전통에 따라 먼저 말씀을 낭독한 후, 회중들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들을 살펴 죄를 고백하도록 초청하신다. 기도하는 중에 옆에 있는 여자가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려 온다. 곧이어 오르간 반주자의 연주에 흘러나오고, 떡과 포도주가 순서대로 성찬 위원들을 통해 주어진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집에서 오래 숙성한 포도주인 것처럼 맛이 진하고 독해 금방 얼굴이 빨개지는 느낌이다.

이제는 헌금 시간이다. vCard를 통해 헌금을 집에서 미리 내거나, 의자 옆에 있는 센서에 그것을 갖다 댄으로 낼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대로 헌금 위원들이 단말기를 들고 다닌다. 사람들은 참으로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자신들이 앉아 있는 의자에 붙어있는 센서에 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터인데 말이다. 미리 헌금 액수를 입력한 vCard를 단말기에 올려놓은 후 단말기를 옆 사람에게 넘겨준다.

예배가 끝나자 밖으로 나오면서 인사를 나눈다. 김바울 장로가 다가오더니 집에 그냥 가지 말고 선

교국 모임에 참석하고 가라고 부탁한다. 오늘은 할 일이 있어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내려간다.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요한이를 만난 후 요한이의 가슴에 있는 단추를 누른다, 요한이는 순간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도 단추를 눌러 요한이를 따라 집으로 온다.

위의 이야기는 가상 교회에서 예배가 어떻게 드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상 시나리오이다. 사람들은 집에서 홀로그램과 뇌 자극을 주는 가상 안경vGlasses을 통해 가상 교회에 참석한다. 가상 교회에서 벌어지는 예배는 실제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과 똑같다. 실제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만지고 이야기 하고 느끼고 심지어는 먹을 수도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가상 교회에는 육체가 실질적으로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이 가상 교회의 예배가 가상 세계의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 또 다른 점일 수도 있다.

필자가 말하는 가상 교회는 허구적인 교회 혹은 상상의 교회만은 아니다. 그 교회의 모임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현실 세계만큼이나 실제적인 모임이다. 현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상 교회에서 실현하며, 가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실 공간과 연결할 수 있다. 가상 교회가 위치한 세계와 현실 세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있어 그 둘을 허구와 실재로 구분 짓는 일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 가상 교회vChurch의 등장

미국 대선 기간에 2008년 11월 4일, 뉴욕 CNN 선거 센터의 울프 블리처Wolf Blitzer는 시카고 CNN에 있는 제시카 옐린Jessica Yellin을 홀로그램hologram으로 불러내어 이야기한다. 두 사람은 실제로 700 마일mile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블리처는 옐린과 홀로그램을 통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고 대화를 나누었다(CNN 2008: Web).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오늘날에는 TV에서 이러한 장면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하츠키 미쿠Hatsune Miku는 사람이 아닌 일종의 디지털 아바타이다. 그녀는 크립톤 퓨처 미디어 Crypton Future Media가 제작한 노래하는 합성 인물synthetic character이다. 하츠키 미쿠는 홀로그램 형태로 여러 번 콘서트 무대에 등장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관중들은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것 이상으로 열광하였다. 그녀는 인간의 부분을 가진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여신과 같은 존재로 칭송을 받고 있다(CBSNEWS 2012: Web). 이러한 가상의 인물이 실제 인물보다 더 인기를 누리기도 하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인디오에서는 유명한 음악 축제인 코펠라 음악 축제Coachella Music Festival가 열린다. 2012년 4월에는 이 음악 축제에서 죽은 가수가 부활해 등장하였다. 1996년 총에 맞아 사망한 랩 가수인 투팍 쉐쿠Tupac Shakur가 홀로그램으로 등장해 가수 스눕 독Snoop Dogg와 함께 노래를 부른 것이다(New York Daily News 2012: Web). 이처럼 홀로그램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가상적인 인물, 심지어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도 마치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불러 세운다.

2014년 3월 페이스북Facebook은 게임 회사인 오쿨러스Oculus를 미화 20억 불, 한국 돈으로 2조 5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오쿨러스는 가상 실제virtual reality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오쿨러스의 게임은 일반 게임과 다르다. 게이머는 가상 실제의 안경headset인 리프트rift를 착용함으로써 게임 속으로 들어가 게임의 한 부분이 되어 게임을 즐긴다. 페이스북 창립자 저커버그Zuckerberg는 오쿨

러스를 인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운동장에 앉아 경기를 즐기고, 전세계에서 학생들과 선생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거나, 의사와 얼굴을 마주 보며 상담하는 것이 당신들의 집안에서 안경goggles을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Forbes 2014:web). 그는 머지않은 장래에 실제처럼 느껴지는 가상 세계가 펼쳐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플랫폼platform이 될 수 있는 오클러스를 거금을 들여 사들인 것이다.

홀로그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홀로그램은 3D 영상에 불과한 것이었기에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촉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홀로그램 물방울을 손 위에 떨어뜨리면 물방울의 촉감까지 느끼게 하는 기술 수준까지 올라섰다 한다. 가상의 영상이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촉감까지 전달하게 되면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최윤식 2013: 230). 한편 CNN의 엘린과 같이 홀로그램으로 등장한 인물은, 자신이 홀로그램으로 등장한 곳에 있는 것들에 대해 감촉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도 특수하게 고안된 장비를 사람의 뇌의 일정 부분에 자극을 주면 자신이 등장하는 곳을 감촉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윤식은 ‘뇌심부 자극술’을 언급하는데, 이 치료법은 가슴 부위에 작은 컴퓨터를 달고 컴퓨터에 연결된 전선을 뇌에 이식한 뒤, 이를 통해 뇌를 자극하고 조절하는 기술이다. 파킨슨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일종의 사이보그 기술로, 미국에서만 이미 2만여 명이 이 수술을 받았고, 치료 후 걷고 달리고 춤까지 출 수 있다(최윤식 2013: 253). 이렇게 뇌 자극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 기술이 홀로그램과 결합하여 실제 같은 느낌을 주는 가상 세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실로 홀로그램과 매트릭스matrix 세계가 결합한 가상 세계인 것이다.

최윤식에 의하면 2016년경이 되면 가상 현실 기술이 가상 세계에 도입되면서 느끼는 공간, 실제로 편입되는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예측한다. 그는 이를 가상 세계의 현실 세계로의 탈출, 현실 세계의 가상 세계로의 흡수라고 표현한다. 가상이 현실을 지배하여 지능형 3D 가상 공간 안에 가상의 정부, 가상의 정치, 가상의 회사, 가상의 학교, 가상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현실 세계와 절묘하게 결합하는 시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최윤식 2013: 231). 그에 의하면 2010년이면 3D 인텔리전트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완성되고, 2022년이면 가상현실이 보편화된다. 2030년 이후가 되면 3차원 가상 혁신이 완성되어,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한 인간의 기억과 역사가 가상 공간의 아바타에 주입되는 시대가 된다(최윤식 2013: 236). 이처럼 가상의 세계가 현실 세계로 탈출하거나 아니면 현실 세계가 가상의 세계로 흡수된다면, 2022년에는 교회도 가상의 교회가 현실 세계의 교회와 절묘하게 결합하여 나타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가상 교회는 인터넷상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이버 교회cyber church 혹은 가상 교회virtual church의 개념과는 다르다. 이 가상 교회는 한편으로 보면 사이버 교회이며 가상 교회이지만,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얻거나 예배 실황을 보는 것을 넘어선다. 이 가상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한다. 지금보다 한층 발전된 홀로그램과 일종의 뇌 자극을 통해 가상 공간 속에서의 예배와 교제가 실제로 구현된다.

## 가상 교회의 등장 원인

무엇보다도 시대적 변화이다. 기술의 발달로 가상의 학교, 가상의 회사가 세워진다면, 가상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이미 가상의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징조들

은 있었다. 예를 들어 TV가 나타나면서, 교회들이 전도의 목적도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를 중계해 왔다. 요즘도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대신 TV를 통해 예배를 드린다.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많은 교회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난 설교들을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다. 어떤 교회들은 인터넷 방송stream을 통해 예배를 실황 중계한다. 화면 옆에 대화방chatting room을 만들어 예배나 설교에 대해 직접 언급comment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어느 정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 가상 세계의 발달과 더불어 가상 교회의 출현은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필연적이다.

가상 교회의 등장에는 현실 교회에 대한 실망이 한몫한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이미 정체되었고, 앞으로 교인들의 숫자는 급한 곡선을 그리며 감소하게 될 것이다. 2004년 한국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개신교를 이탈한 숫자가 무려 750만 명에 이른다.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종교인의 숫자가 한국 인구의 46.9%에서 53.5%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개신교인들의 이탈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비종교인들이 가진 종교 호감도는 불교가 37.4%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는 천주교로 17%, 개신교는 12.3%에 불과하다(한국갤럽 2005: Web).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매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지금 조사를 한다면 10년 전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 보면 암울하기만 하다. 한국 교회의 역동성 상실이 인구 변화와 맞물려 주일학교는 침체하고 교회는 은퇴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결국 교회는 현금이 줄어들고,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어려워 파산하는 교회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현실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부흥하면 그 역량을 더 큰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쏟아왔다. 이것은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대형 교회들마다, 심지어는 중형 교회들도, 무너진 소형 교회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아니면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큰 예배당을 경쟁적으로 지어왔다. 결국 예배당을 짓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은 성도들에게 지워졌고, 성도들은 현금을 위해 이모저모로 헌신을 해왔다. 일단의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에 혐오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경험하였던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비용이 들지 않는 교회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상 공간의 효율성은 가상 교회의 출현을 재촉한다. 현실 교회에서 쉽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가상 교회가 채울 수 있다. 가상 교회는 비용의 지불이 없이 원하는 대로 공간을 늘릴 수 있고, 모임을 가질 수 있다. 가상 교회는 사람들이 위치하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교회는 발달한 기술을 통해 예배는 더 역동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 가상 교회와 현실 교회의 차이점

가상 교회와 현실 교회의 차이는 모이는 장소가 건물이 아닌 가상의 장소라는 점과 육체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는 모든 것이 똑같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장로 교인이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조로 삼으며 소요리 문답을 외운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고백한다. 교회는 장로 교회 조직과 동일하게 당회를 가진다. 예배는 정

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장로교 예배 의식과 순서에 따라 드러진다. 목사는 설교하고 성가대는 찬양하고 헌금도 예배 중에 드린다. 주일학교도 있으며, 남녀 전도회도 있다. 현실 교회와의 차이가 있다면 이 교회에 들어가려면 가상 세계로 인도하는 안경과 같은 장비를 껴야 하고, 이 모든 일이 가상 공간에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 교회의 모든 활동이 가상 공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가상 공간에서의 결정에 따라 현실 공간의 아픈 교우들을 병문안 가거나, 굶주리는 거리의 저지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가상이나 현실이 실제적 의미를 가지고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 가상 교회의 장점들

가상 교회는 건물이 필요 없어, 예배당을 짓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가상 교회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그 비용은 실제적인 예배당을 짓고 유지하는 비용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에 불과할 것이다. 가상 교회는 원하는 만큼 공간을 확대하거나 방의 수를 늘릴 수도 있다. 또한 가상 교회는 모이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다.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30분 이상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할 필요가 없다. 약속한 시각에 가상 세계로 인도해 주는 안경만 끼면 된다. 심지어는 비즈니스나 여행을 위해 해외로 나가 있는 경우에도 예배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가상 교회는 서로서로 쉽게 연결해 줄 수 있다. 만나는 시간과 가상 공간을 정하면 언제라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성도 중에 누군가를 목사님과 함께 심방하기를 원하면 약속한 시각에 가상의 한 장소를 정해서 서로 만나면 된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부터 유명한 설교자들을 초청하여 설교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미리 녹화해 놓은 것을 실제적인 것처럼 예배 중에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는 예배의 역동성을 위해 반드시 녹화 방영을 금지하고 그 시간에 설교자가 설교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사의 설교 또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설교자가 천지창조를 설교하면 창조 순서에 따라 가상 예배당 안에 피조물들이 등장하게 할 수 있다. 가상 예배당 천상에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게 할 수 있으며, 회중들이 앉아 있는 의자의 통로로 기린이 다니다가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 교회는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교회가 될 것이다. 공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장애인이 예배에 참석하는 데 전혀 불편함을 겪지 않는다. 청각장애자가 들을 수 있고 시각 장애자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질병도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밖에도 가상 교회의 장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 가상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

이승구는 사이버 혹은 가상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왜곡한다고 우려하였다. “사이버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그에 근거한 교제를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모임이 없는 한 진정한 의미의 세례와 성찬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또한 “익명성과 위장 가능성이 큰 웹상으로 치리의 궁극적 실현은 어렵다.”라며 “사이버 교회나 가상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임

로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아이굿뉴스 2005: web). 이처럼 가상 교회가 등장하면 가상 교회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신학적이며 때로는 실제적인 질문일 것이다. 이 질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질문이 예상되는데, 첫째는 “가상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라는 질문이요, 둘째는 “가상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 가상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가상 교회가 교회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달려있다.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그의 저서인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에서 “교회란 모든 시대의 모든 진정한 신자들의 공동체.The church is the community of all true believers for all time.”라고 정의한다(Grudem 1994: 853). 이 정의가 맞다면 가상 교회로 대변되는 신앙공동체도 교회일 것이다. 가상 교회는 모이는 장소나 양식이 다를 뿐이지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신앙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한편 참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들marks에 있어서, 개혁 교회들은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표지들로 본다(Berkhof 1996: 577-578). 대부분의 교회가 개혁 교회 전통 속에서 있는 한국 교회가 이 세 가지 표지들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두가 가상 교회의 표지들로 나타날 수 있는지가 가상 교회가 진정한 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말씀의 참된 선포와 권징의 신실한 시행은 가상 교회에서도 현실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성례의 바른 시행인데, 가상 공간에서 모여 성례를 행하는 것 혹은 참여하는 것이 효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세례에서 쓰이는 물과 성만찬에서 쓰이는 떡과 포도주가 상징적이며 성례를 베풀 때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가상 교회에서 바른 모양으로 드러지는 성례에도 영적인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가상 교회에서 사용되는 물,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비록 홀로그램일지라도, 그것들은 충분히 상징적일 수 있으며 그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하실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가상 교회에서 인격적이 만남이 가능한가?

가상 교회를 이야기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드는 의문이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만남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일 것이다. 가상 교회는 비록 홀로그램으로 서로 만나지만, 실제로 대하듯이 서로를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다.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듯이 가상 공간 안에서도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의 지성의知情意가 다 동원되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육체만 현실 공간에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뿐이다.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Tweeter 등의 SNS를 통해 서로 교제한다. 그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남을 우리는 매일 체험하고 있다.

만약 인격적인 만남에 육체적인 조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은 불가능할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육체적인 조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어도 우리는 영으로 그분과 깊은 인격적 교류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한가? 그들의 영혼은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인격적인 교제에는 반드시 육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가상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타당성을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 4:20)라고 질문한다.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요 4:21)라고 말씀하신다. 예배하는 데 있어 장소 혹은 공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이다(요 4:23-24).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영성을 구분하여 표현한다면, 가상 교회의 영성은 가상 영성<sup>v</sup>Spirituality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가상 영성이 거짓되거나 현실 세계의 영성보다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가상 교회의 구성원들도 모두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가상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그 신앙에 맞게 살 수 있는 것이다.

## 가상 교회와 선교

필자는 미래의 선교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질문을 하다가 가상 교회와 대면하게 되었다. 미래의 선교 모습은 미래의 교회 모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상 교회가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선교의 패러다임도 바뀌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 문화권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지금까지처럼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지금 선교의 모습들은 가상 세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선교 모델이나 구조, 혹은 패러다임이 변하거나 없어지든지, 혹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상 교회를 통해 오순절에 일어났으며 또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모습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이 모든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 미래에는 공간과 언어의 장벽이 없는 가상 세계에서 모든 민족이 언어의 불편함이 없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가상 교회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물리적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sup>v</sup>Service에 참여할 수 있다. 공간의 크기에 가상 교회는 제한을 받지 않기에, 전 인류가 원한다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가상 교회가 시작될 즈음에는 교회 안에서의 언어 소통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동 통역 장치를 통해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가 바로 통역되는 휴대용 통역기가 곧 출시될 예정이다. 세기아이테크가 2015년 8월에 휴대용 통역기인 바로톡<sup>Barotalk</sup>을 출시한다고 신문에 밝혔다. 바로톡은 세계 최고의 번역 솔루션 개발업체인 시스트란 인터내셔널<sup>SYSTRAN International</sup>로부터 솔루션을 제공받아 제작된 휴대용 통역기다. 바로톡은 음성 인식<sup>automatic speech recognition</sup>과 자동 번역<sup>spoken language translation</sup>, 음성 합성<sup>text-to-speech synthesis</sup> 등 양방향의 자동통역기술이 집약된 상품이다. 바로톡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MK 뉴스 2015:Web). 이제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를 사용하는 14억 명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언어

를 배우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다.

구글 번역기는 엄청난 속도로 진보하고 있다. 구글 번역기는 현재 문자로는 90 언어, 사진으로는 37개 언어, 그리고 음성으로는 32개 언어로 번역 혹은 통역을 할 수 있다. 구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7개 언어, 즉 영어,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그리고 스페인어가 영상 통역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영상으로 27개 언어가 상호 통역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첨가된 언어 중에 한국어는 빠져있지만, 힌디어와 태국어는 들어가 있다(New York Daily News 2015:Web). 앞으로 구글 번역기가 가상 세계 기술과 결합하면, 사람들은 언어의 불편 없이 가상 세계 안에서 소통하게 될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생명의 말씀 교회EKHC 교인도, 브라질의 하나님의 성회 교인도, 태국의 CCT 교회의 교인도, 심지어는 모슬렘이나 불교도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국인 목회자가 설교하는 한 가상 교회의 예배에 언어의 장벽 없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상 교회는 자신들의 예배 공간 외에 다른 민족 사람들을 위한 가상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예배드리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가상 교회에서 베트남, 몽골, 미얀마 인들을 위한 예배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들 나라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들은 가상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들의 나라를 떠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가상 세계 기술이 보편화되어 나라마다 기술력의 편차가 적어지면, 자기 민족을 위한 가상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굳이 서울에 있는 가상 교회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상 교회를 우려하는 자들은 가상 교회의 익명성을 비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익명성이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상 교회의 익명성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찾을 수 있다. 가상 공간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면 압제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상 교회에 접속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내내 전화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 상담이나 질문을 받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24시 내내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기다리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오는 신앙 상담이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전화기나 컴퓨터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질문해 오는 사람들은 다양한 나라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가상 세계가 열리게 되면 단지 문자나 음성만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만나 얼굴을 마주 보며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상 교회는 현실 교회보다 쉽게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 가상 전도Evangelism를 위해 전문적인 가상 선교사들Missionaries도 여전히 필요하겠지만,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자동 언어 통역 시스템이 있기에 그들은 굳이 선교지 언어를 배울 필요는 없다. 굳이 현지인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는 것이다. 가상 교회 안에 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현지인을 초대해 교제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상 세계의 선교에서 가고 오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다. 선교가 교회의 한 계층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식되며 또한 그렇게 실천될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 동시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실로 가상 세계는 세계 선교 최적의 기회로 사용될

수도 있다.

## 결론

삼성의 갤럭시 공식 사이트인 Samsung Gear VR에 들어가면 Display Page에 “You're there in the moment. A Super AMOLED display, wide field of view, precise head-tracking and low latency brings reality to the virtual.”에 이어서 “Anything is possible when you're inside Gear VR. Whether it's battling the undead or riding a flying carpet, you won't run out of adventures with an ever-expanding vault of games.” (Samsung: Web)라는 문장이 나온다. Samsung Gear VR이 한순간에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이끌어 주며, 더 나아가 가상 세계 속에서 양탄자를 타는 등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준다는 것이다. 삼성은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쿨러스와 손잡고 Gear VR를 선보인 것이다.

가상 세계와 더불어 가상 교회는 반드시 출현할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뒤섞이며 서로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가상 교회가 등장하면 한국 교회는 충격과 더불어 많은 논쟁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 일단의 사람들은 가상 교회를 지지하겠지만, 대부분 교인은 가상 교회의 출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것이다. 가상 교회의 출현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받게 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 교회와 가상 교회를 혼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현실 교회들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젊은 세대들이나 현실 교회에 불편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가상 교회를 마련해 놓는 것이다. 또한 가상 교회에서 혹시 야기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슈들, 즉 가상 교회에서의 영성, 성례, 인격적 교제에 대한 질문의 해답으로 가상 교회와 현실 교회를 연결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성례는 가상 교회에서가 아닌 반드시 현실 교회에서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놓으면 가상 교회에 대한 논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는 성육신의 종교이며 번역의 종교이다. 기독교가 새로운 시대와 문화에 성육신 되고 번역되지 못하면 기독교는 쇠퇴한다. 앤드루 월스 Andrew Walls는 기독교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진보와 침체의 이야기 The Christian story is a story of advance and recession라고 말한다(Walls 2007: 12, 15). 서구 교회의 침체는 새로운 시대와 문화에 끊임없이 번역 translated 혹은 성육신 되지 incarnated 못함의 당연한 결과이다(Walls 2007: 13). 한국 교회도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문화에 충분히 성육신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자신들의 경험을 고집하고 있을 뿐 새로운 세대에 맞게 복음을 번역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가 복음의 진리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기독교의 모습을 번역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가상 공간이 한국 사회 속에 대중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다가오는 가상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공간에 걸맞은 새로운 교회의 모습, 새 시대에 상황화 된 기독교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가상 세계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다. 가상 세계는 선교에 있어서 장애로 여겨지는 장소와 언어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가상 세계 속에서는 공간과 언어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얼마든지 쉽게 접촉할 수 있다. 어떤 체제나 종교, 혹은 언어와 문화의 배경에 관계없이 본인들이 원한다면 가상 교회의 선교를 통해 쉽게 복음을 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다가오는 가상 세계의 시대에 걸맞은 선교 패러다임, 구조, 모델,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가상 세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을 준비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요한복음 4:23~24

## 참고 문헌

- 최윤식. 2013.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 Berkhof, Louis. 1996.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 Grudem, Wayne. 1994.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 Walls, Andrew. 2007.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Studies in the Transmission of Faith*. Maryknoll: Orbis.
- 아이굿뉴스. 2005. 사이버 가상 교회, 교회 본질적 모습 왜곡.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852>. (January 4, 2005)
- 한국 갤럽. 2005.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 의식 (1)”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Download.asp?seqNo=78> (May 30, 2005)
- MK 뉴스. 2015. “한국어에서 영어·중어·일어까지 ‘척척’ 휴대용통역기 ‘마로톡’ 화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643677&year=2015> (July 06, 2015)
- CBS News. 2012. “Hatsune Miku: The World's Fakest Pop Star” . <http://www.cbsnews.com/news/hatsune-miku-the-worlds-fakest-pop-star/> (November 09, 2012)
- CNN. 2008. “Beam me up, Wplf! CNN debuts election-night ‘hologram.’” <http://www.cnn.com/2008/TECH/11/06/hologram.yellin/> (November 6, 2008)
- Forbes. 2014. “Facebook Buys Oculus, Virtual Reality Gaming Startup, For \$2 Billion.” <http://www.forbes.com/sites/briansolomon/2014/03/25/facebook-buys-oculus-virtual-reality-gaming-startup-for-2-billion/> (March 25, 2014)
- New York Daily News. 2012. “Rapper Tupac Shakur hits stage at Coachella with the help of 3-D technology.” <http://www.nydailynews.com/entertainment/music-arts/back-dead-rapper-tupac-returns-stage-coachella-3-d-technology-article-1.1062595> (April 16, 2012)
- Samsung. 2016. “Gear VR powered by Oculus.” <http://www.samsung.com/global/galaxy/wearables/gear-vr/>  
2015. “Google Translate adds 20 more languages to real-time video feature.” <http://www.nydailynews.com/news/world/google-translate-adds-20-languages-real-time-video-article-1.2313271> (August 3, 2015)

\*이 글은 2015년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발표한 글로 2017년 East-West Center for Missions Research & Development에서 출판한 *Globalization and Mission*에도 “Virtual Church and Mission”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실리기도 하였다.

